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14)

연구책임자_ 김 정 민 (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자_ 양 승 실 (한국교육개발원)

이 선 호 (한국교육개발원)

김 일 혁 (한국교육평가연구소)

연구조원_ 이 슬 아 (한국교육개발원)

머리말

교육 수요자인 국민들이 우리의 교육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새로운 교육정책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미래의 한국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한국 교육, 더 나아가 국가사회의 성패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는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수행되는 조사이다. 앞으로도 KEDI POLL은 한국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해가고, 최근의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이 어떠한지를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성실하게 공표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한국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전개해 나가는 정책 당국자들에게는 좋은 시사점을 주고, 교육현장 실천가들에게는 올바른 실행 방법을 제시하는 기초자료가 되어 한국 교육 발전에 실질적으로 공헌할 수 있기 바란다.

이 조사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조사는 여러 전문가분들과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분들의 참여와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사를 마무리해 준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2014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백순근

연구요약

1. 조사 목적 및 체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는 1999년에 시작되었으며 2014년의 이 조사는 9차 조사이다. 교육여론조사의 목적은 한국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의식태도와 최근의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교육정책 수립추진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2014년 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조사 목적 1.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하여 2014년 현재의 국민들의 태도와 2013년과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조사 목적 2.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정도와 의견을 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한다.

조사 목적 3.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정책 추진에의 시사점을 분석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조사 대상은 만19세 이상 75세 이하 전국의 성인남녀로서, 지역, 성, 연령별로 모집단 인구에 비례하도록 2,000명을 표집하였다. 2014년의 1차 조사 내용은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학생의 수준과 생활, 교육의 내용과 방식, 고교 정책 및 대학 입시, 교육 복지, 대학의 운영과 대학교의 질, 학교교육의 현안과 미래 영역이었고, 2차 조사 내용은 교육과 교육 정책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주요 교육 정책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문항은 8차년도 조사 문항을 바탕으로 하되 선행 조사를 참조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고연령층을 비롯한 일부의 응답자에게는 면접원 직접 조사로 보완하였다. 1

차 조사는 2014년 7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2차 조사는 11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되었다. 1차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발간되고 온라인으로 공개되며 2차 조사 결과는 KEDI 포지션페이퍼로 발간되고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본 조사는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인식 조사로서, 최종적인 정책 고객인 국민에게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정책 업무 종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조사라는 측면에서, 관련 사실 정보와는 다른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조사 결과는 정책 개발이나 집행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의 자료이므로, 본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2. 조사 결과 분석 방법

조사 데이터는 교차분석과 분산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는데, III장에서는 주로 전체응답자와 학부모 응답자의 응답으로 구분하여 비율과 평균을 문항별로 제시하였고 배경변인별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만 추려서 부록에 실었다.

3. 조사 결과 및 시사점

2014년 1차 조사 결과를 조사 목적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및 변화

본 조사 결과를 2013년과 비교하면, 초·중·고교 전반에 대한 평가, 교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에 대한 평가가 약간 높아졌다. 교사(학교)의 학생 학업성취 노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학교 폭력의 주요 원인에 대해 대중매체에서 가정교육 부재로 다소 변화하였으며, 고교 평준화와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감소하였다. 대학입학전형 중요 요소에 대한 다수의 의견이 특

가적성에서 인성 및 사회봉사로 변화하였고 고교 무상의무교육에 대해서도 무상의무교육 찬성 의견이 다수였던 전년에 비하여 무상교육만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아졌다. 학력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다소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사교육,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 또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증가하였다. 자녀가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감소하였고,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감소하였으며,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의사가 감소하였다.

2014년 1차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태도를 종합하면, 국민들은 초·중고 학교 교육에서는 인성교육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학교 폭력의 주된 원인은 가정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본다. 저소득층 학생, 결손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탈북주민가정 학생, 장애 학생 지원은 모두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에게는 모든 학생 또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학력과 출신대학 차별이 심각하고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는 앞으로 큰 변화가 없거나 심화될 것으로 보며 대학입시경쟁은 다소 완화되거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사교육은 큰 변화가 없거나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 교육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별로 높지 않고 초·중고 교육 전반과 대학 교육에 대해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초·중고 교사에 대한 신뢰와 역할 수행, 대학 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는 낮은 편이다.

2014년 1차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은 인성교육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하며, 학교와 가정이 학생의 학업성취 증진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국민들은 교육취약계층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며, 고등학교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국민들은 대학 선택시에 졸업생의 취업 실적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대학입학전형에서 인성 및 사회봉사, 특가적성이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고 보며, 대학에 대해 대체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넷째, 대입전형요소와 무상급식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와 학부모 응답자

간에 다소 의견 차이가 있다.

다섯째, 국민들은 한국 교육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으며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나.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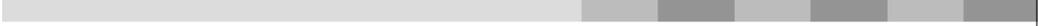
먼저,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 1순위,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 현재까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는 모두 ‘누리과정 확대 정책’이었다. 누리과정 확대 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필요도 1순위 정책과 평가 1순위 정책이 다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체로 누리과정 확대 정책을 알고 있는 정도가 높을 수록 누리과정 확대 정책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잘 하였다고 한 응답자 비율이 높지만, 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은 응답자들도 누리과정 확대 정책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잘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4. 정책 제언

사려깊은 정책 개발자들은 국민 여론과 정책이 일치하지 않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그 중 하나는, 국민 여론에 가깝도록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정책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국가가 발전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는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William, J. B., 2014, p.14).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지나치게 구체적인 정책 시사점을 제언하는 것은 여론조사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동일한 조사 체제로 실시한 여러 번의 조사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이 중요하다.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교육정책에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 강화 정책에 대한 점검 및 정보 공유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초·중고에서의 인성교육의 성과가 대학입시와 대학교육, 사회생활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초·중고 무상



급식과 누리과정 확대 정책은 필요하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대학 교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학 재정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한국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의 원인을 탐색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정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차 례

■ ■ ■	I. 서론	1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조사 내용	7
	3. 조사 대상	11
	4. 조사 방법 및 기간	16
	5. 조사 의의와 한계	16
■ ■ ■	II. 선행 조사 분석	17
	1. 한국 통계청 사회조사 및 미국 PDK/갤럽 여론조사	19
	2. 일반 국민 대상 교육의식 조사	22
	3. 1999 ~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6
	4. 시사점	28
■ ■ ■	III. 조사 결과	31
	1. 한국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인식	33
	2.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95
	3. 요약	101

■ ■ ■	IV. 결론 및 정책 제언	105
	1. 결론	107
	2. 정책 제언	114
■ ■ ■	참 고 문 헌	121
■ ■ ■	ABSTRACT	125
■ ■ ■	부 록	131
	[부록 1] 연도별 설문 문항 주제 비교	133
	[부록 2] 2014년 1차 조사 설문지	142
	[부록 3] 2014년 2차 조사 설문지	159
	[부록 4] 기존 문항 수정 및 신규 개발 내역	170
	[부록 5] 1차 조사 자료 배경변인별 분석 결과	188

표 차례

〈표 Ⅰ-1〉 2014 교육여론조사 체제	6
〈표 Ⅰ-2〉 2014 KEDI POLL 내용 체계표	8
〈표 Ⅰ-3〉 2014 KEDI POLL 자문단	10
〈표 Ⅰ-4〉 시·도별 연령별 모집단 인구 현황	11
〈표 Ⅰ-5〉 시·도별 연령별 모집단 인구 구성 비율	12
〈표 Ⅰ-6〉 시·도별 연령별 성별 최종 표본	13
〈표 Ⅰ-7〉 배경변인별 응답자 분포	14
〈표 Ⅰ-8〉 2014년 응답자 중 2013년 응답자 수	15
〈표 Ⅱ-1〉 통계청 교육부문 사회조사와 PDK/갤럽 여론조사의 체제	19
〈표 Ⅱ-2〉 배종근 외(1988)의 조사 내용	23
〈표 Ⅱ-3〉 김영화 외(1994)의 조사 내용	24
〈표 Ⅱ-4〉 1999 ~ 2013년 교육여론조사 문항 수	28
〈표 Ⅱ-5〉 선행조사 분석을 통한 2014년 조사 내용 보완	29
〈표 Ⅲ-1-1〉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	34
〈표 Ⅲ-1-2〉 초·중등학교에 대한 전반적 평가	35
〈표 Ⅲ-1-3〉 학교가 ‘수’ 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37
〈표 Ⅲ-1-4〉 학교 선택시 고려 사항	39
〈표 Ⅲ-1-5〉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40
〈표 Ⅲ-1-6〉 교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41
〈표 Ⅲ-1-7〉 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	43
〈표 Ⅲ-1-8〉 자녀의 장래직업으로 교사 희망 여부	44
〈표 Ⅲ-1-9〉 학생의 인성, 도덕성 수준	46

〈표 III-1-10〉 학업, 경쟁 스트레스 정도	47
〈표 III-1-11〉 IT 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수준	49
〈표 III-1-12〉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	51
〈표 III-1-13〉 영어 공교육 시작 시기	52
〈표 III-1-14〉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 의견	53
〈표 III-1-15〉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의사	54
〈표 III-1-16〉 학생의 학습성취(성적) 결정 요인	55
〈표 III-1-17〉 교육벌에 대한 찬반 의견	56
〈표 III-1-18〉 학교폭력의 원인	57
〈표 III-1-19〉 정부 및 학교의 학교폭력 해소 노력	59
〈표 III-1-20〉 고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60
〈표 III-1-21〉 고교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61
〈표 III-1-22〉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판단을 통한 학생 선발 확대에 대한 의견	62
〈표 III-1-23〉 대학입학전형 중요 반영 항목	63
〈표 III-1-24〉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66
〈표 III-1-25〉 무상급식 지원 범위	67
〈표 III-1-26〉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순위	69
〈표 III-1-27〉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의견	70
〈표 III-1-28〉 국가재원 투자 우선순위	71
〈표 III-1-29〉 대학교육의 인재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72
〈표 III-1-30〉 대학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74
〈표 III-1-31〉 대학 재정의 투명성	75
〈표 III-1-32〉 자녀 대학입학시 등록금 부담 의향	77
〈표 III-1-33〉 자녀 대학졸업 후 구직성공 가능성	78
〈표 III-1-34〉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79
〈표 III-1-35〉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81
〈표 III-1-36〉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수준	82
〈표 III-1-37〉 자녀의 특화된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진학에 대한 인식	83
〈표 III-1-38〉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에 대한 인식	84

〈표 III-1-39〉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	85
〈표 III-1-40〉 사교육에 대한 미래 전망	86
〈표 III-1-41〉 입시경쟁에 대한 미래 전망	87
〈표 III-1-42〉 대학 서열화에 대한 미래 전망	89
〈표 III-1-43〉 학벌주의에 대한 미래 전망	90
〈표 III-1-44〉 교육의 국가사회발전 기여 정도	92
〈표 III-1-45〉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94
〈표 III-2-1〉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98
〈표 III-2-2〉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필요성(1,2순위)	99
〈표 III-2-3〉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잘 하고 있는 정책(1,2순위)	100
〈표 IV-1〉 누리과정 확대 정책 이해도별 필요한 교육정책 1순위	113
〈표 IV-2〉 누리과정 확대 정책 이해도별 교육정책 평가 1순위	113
〈표 V-1-2〉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 학생의 학습성취 기준 마련의 책임자	188
〈표 V-1-3〉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의 책임자	189
〈표 V-1-4〉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 교육과정의 결정의 책임자	189
〈표 V-1-5〉 초·중등학교에 대한 전반적 평가	190
〈표 V-1-6〉 초등학교에 대한 전반적 평가	191
〈표 V-1-7〉 중학교에 대한 전반적 평가	192
〈표 V-1-8〉 고등학교에 대한 전반적 평가	193
〈표 V-1-9〉 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194
〈표 V-1-10〉 초등학교 선택시 고려 사항	195
〈표 V-1-11〉 중학교 선택시 고려 사항	196
〈표 V-1-12〉 고등학교 선택시 고려 사항	197
〈표 V-1-13〉 대학교 선택시 고려 사항	198
〈표 V-1-14〉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1순위)	199
〈표 V-1-15〉 교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200
〈표 V-1-16〉 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	201
〈표 V-1-17〉 자녀의 장래직업으로 교사 희망 여부	202
〈표 V-1-18〉 학생의 인성, 도덕성 수준	203

〈표 V-1-19〉 학업, 경쟁 스트레스 정도	204
〈표 V-1-20〉 IT 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수준	205
〈표 V-1-21〉 초등학교에서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	205
〈표 V-1-22〉 중학교에서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	206
〈표 V-1-23〉 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	206
〈표 V-1-24〉 영어 공교육 시작 시기	207
〈표 V-1-25〉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 의견	208
〈표 V-1-26〉 자녀의 방과후 학교 참여 의사	209
〈표 V-1-27〉 학생의 학습성취(성적) 결정 요인	210
〈표 V-1-28〉 교육벌에 대한 찬반 의견	211
〈표 V-1-29〉 학교폭력의 원인	212
〈표 V-1-30〉 정부 및 학교의 학교폭력 해소 노력	213
〈표 V-1-31〉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214
〈표 V-1-32〉 고교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215
〈표 V-1-33〉 학교생활 기록부 종합 판단을 통한 학생 선발 확대	216
〈표 V-1-34〉 대학입학전형 중요 반영 항목	217
〈표 V-1-35〉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 저소득층	218
〈표 V-1-36〉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 결손가정 학생	219
〈표 V-1-37〉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 다문화 가정 학생	220
〈표 V-1-38〉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 탈북주민 가정 학생	221
〈표 V-1-39〉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 장애학생	222
〈표 V-1-40〉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	223
〈표 V-1-41〉 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224
〈표 V-1-42〉 고등학생 무상급식 지원	225
〈표 V-1-43〉 초등학생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 순위 (1순위)	226
〈표 V-1-44〉 중학생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 순위 (1순위)	227
〈표 V-1-45〉 고등학생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 순위 (1순위)	228
〈표 V-1-46〉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의견	229
〈표 V-1-47〉 국가재원 투자 우선순위	230

〈표 V-1-48〉 대학교육의 인재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231
〈표 V-1-49〉 대학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232
〈표 V-1-50〉 대학 재정의 투명성	233
〈표 V-1-51〉 자녀 대학입학시 등록금 부담 의향	234
〈표 V-1-52〉 자녀 대학졸업 후 구직성공 가능성	235
〈표 V-1-53〉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236
〈표 V-1-54〉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237
〈표 V-1-55〉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수준	238
〈표 V-1-56〉 자녀의 특화된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진학에 대한 인식	239
〈표 V-1-57〉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에 대한 인식	240
〈표 V-1-58〉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	241
〈표 V-1-59〉 사교육에 대한 미래 전망	242
〈표 V-1-60〉 입시경쟁에 대한 미래 전망	243
〈표 V-1-61〉 대학 서열화에 대한 미래 전망	244
〈표 V-1-62〉 학벌주의에 대한 미래 전망	245
〈표 V-1-63〉 교육의 국가사회발전 기여 정도	246
〈표 V-1-64〉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247
〈표 V-2-1〉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이해도 : 누리과정	248
〈표 V-2-2〉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이해도 : 초등돌봄교실	249
〈표 V-2-3〉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이해도 : 자유학기제	250
〈표 V-2-4〉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이해도 :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	251
〈표 V-2-5〉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이해도 : 고등학교 무상교육	252
〈표 V-2-6〉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이해도 : 사교육 부담 경감	253
〈표 V-2-7〉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이해도 : 대학입시 간소화	254
〈표 V-2-8〉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이해도 : 대학 특성화	255
〈표 V-2-9〉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이해도 :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256
〈표 V-2-10〉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이해도 : 지방대학 지원 확대	257

그림차례

[그림 II-1] 2014년 PDK/갤럽 여론조사 결과 제시 사례	22
[그림 III-1-1] 초·중등학교에 대한 전반적 평가	35
[그림 III-1-2] 학교가 '수' 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37
[그림 III-1-3] 교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42
[그림 III-1-4] 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	43
[그림 III-1-5] 자녀의 장래직업으로 교사 희망 여부	45
[그림 III-1-6] 학생의 인성, 도덕성 수준	46
[그림 III-1-7] 학업, 경쟁 스트레스 정도	48
[그림 III-1-8] IT 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수준	49
[그림 III-1-9] 영어 공교육 시작 시기	52
[그림 III-1-10]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 의견	53
[그림 III-1-11]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의사	54
[그림 III-1-12] 학생의 학습성취(성적) 결정 요인	55
[그림 III-1-13] 교육벌에 대한 찬반 의견	56
[그림 III-1-14] 학교폭력의 원인	58
[그림 III-1-15] 정부 및 학교의 학교폭력 해소 노력	59
[그림 III-1-16] 고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60
[그림 III-1-17] 고교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61
[그림 III-1-18] 대학입학전형 중요 반영 항목: 전체	64
[그림 III-1-19] 대학입학전형 중요 반영 항목: 초·중·고 학부모 및 대학생 학부모	64
[그림 III-1-20]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의견	71

[그림 III-1-21] 대학교육의 인재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73
[그림 III-1-22] 대학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74
[그림 III-1-23] 대학 재정의 투명성	76
[그림 III-1-24] 자녀 대학입학시 등록금 부담 의향	77
[그림 III-1-25]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80
[그림 III-1-26]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81
[그림 III-1-27]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수준	82
[그림 III-1-28] 자녀의 특화된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진학에 대한 인식	83
[그림 III-1-29]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에 대한 인식	84
[그림 III-1-30]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	85
[그림 III-1-31] 사교육에 대한 미래 전망	86
[그림 III-1-32] 입시경쟁에 대한 미래 전망	88
[그림 III-1-33] 대학 서열화에 대한 미래 전망	89
[그림 III-1-34] 학벌주의에 대한 미래 전망	91
[그림 III-1-35] 교육의 국가사회발전 기여 정도	93
[그림 III-1-36]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95

1. 서론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 조사 내용
3. 조사 대상
4. 조사 방법 및 기간
5. 조사 의의와 한계



I. 서론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교육여론조사의 필요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는 1999년에 시작되어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1999년은 교육부가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와 교육비전 2002 : 새 학교문화 창조』를 발표하면서 당시로서는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교육개혁의 과제들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교육개혁 과제들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성기선, 1999: 머리말). 그 이전에도 교육관 및 교육 의식에 대한 조사는 몇 차례 수행된 바 있다(이종재 외, 1981; 배천웅 외, 1986; 전경갑 외, 1987; 배종근 외, 1988; 김영화 외, 1994, 임연기 외, 1998). 그러나 교사와 학생 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거나(이종재 외, 1981; 임연기 외, 1998),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에서 교육행정가, 교수, 정부 부처 공무원, 문화예술인, 언론인으로 특정하여(배천웅 외, 1986; 전경갑 외, 1987) 실제적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배종근 외(1988)의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은 일반 국민 25,000여명을 대상으로 하였고(10대 7.9% 포함) 김영화 외(1994)의 『한국인의 교육의식조사 연구』는 교사, 학생(중·고·대), 일반인을 조사하였는데 일반인은 20세 이상 인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2,000명을 조사하였다. 이 두 조사는 실제적인 의미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면에서 본 조사와 유사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나 의견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개발되고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정책 평가시 수요자(국민) 중심의 평가가 제안되기도 한다(현영섭, 2008;

김형주 외, 2009). 또한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 방안이나 국가 정책 홍보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오연천·진재완, 2006; 이두원, 2005).

다른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인식을 왜 조사하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주관적인 조사의 결과가 객관적인 현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나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Veenhoven & Saris(1996)는 사회 지표 연구의 놀라운 점 중의 하나가 바로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인식 사이의 약한 관계라고 하였다(Veenhoven, 2002, p.38 재인용).

Veenhoven(2002)에 따르면, 이를 흔히 ‘의사들이 가장 잘 안다(doctor knows best)’는 식의 논쟁이라고 하면서, 정책 개발자들은 일부 의사들이 환자의 불만을 무시하는 것처럼 시민들의 인식을 무시하기 쉬운데 그러기보다는 실험 결과를 믿는 의사들처럼 객관적인 통계 정보를 찾아보고(p.38) 시민들의 인식과 객관적인 통계 정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주관적 지표가 이러한 단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책에서는 정책 목적 선택과 정책 성공에 대한 사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발달된 모든 민주 국가에서는 주관적 지표에 관한 연구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였다(p.40). 또한, 주관적인 사회 지표 연구의 유명한 학자인 Marc Abrams(1973, p.35)에 따르면, 개인은 객관적인 세계를 각자의 인식으로 걸러내고 개인의 기대, 경험, 태도, 현재 환경에 따라 가중치를 매기는데 이러한 사정(assessment)을 우리는 주관적인 사회 지표라고 한다(Noll, H.-H, 2013, p.2 재인용). 다시 말하면,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보이며 국민 각자가 외부 현실 세계를 다르게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주관적 조사는 그만큼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정책 목적 선택과 정책 성과를 살펴보는데 유용한 정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성(soft) 지표에 대해서 최근 주관적 행복 연구자들이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Kroll & Delhey(2013)는 주관적 행복에 대한 정보가 정책 결정 과정에 6가지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변화 모니터링, 정책 설계에 대한 정보 제공, 정책 도입 전 평가,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의 다른 점 파악, 공공 서비스 순위 매기기와 자원 배분, 발전 전략 및 목적에 대한 정보 제공이 그에 해당한다. Seaford, C.(2013, p.29)는 주관적 행복 지표가 민주적 정책 사이클 속에서, 대중 토론을 촉진하고, 공식적·비공식적 비용 효과 모델 개발에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 성과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지표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고, 소홀했던 중요한 이슈에 관심을 끌고, 정책 전과 후의 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어느 정치가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주관적 행복 지표가 갖는 총체성,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정 주제가 아닌 일반적인 주관적 지표나, 한 발 더 나아가 객관적 지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자료의 성격에 관계없이 정책과 관련된 주요 자료를 통해 토론할 수 있고 정책 성과 지표 보완과 자원 배분에 정보를 얻고 소홀했던 중요 이슈를 살펴보고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자 및 집행자가 이러한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최대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관적 조사의 정책적 기능이라고 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는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의견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의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및 변화 추이를 조사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을 조망할 수 있다. 교육 정책은 국민들이 바라는 교육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을 조망하는 것은 교육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추진 중인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국민과 정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므로, 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정도가 낮을 경우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설명이 필요하다.

셋째, 새롭게 도입하거나 변화를 검토 중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교육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교육정책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므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도울 수 있다.

나. 2014년 조사 목적 및 개요

교육여론조사의 목적은 한국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의식·태도와 최근의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교육정책 수립·추진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2014년 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조사 목적 1.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하여 2014년 현재의 국민들의 태도와 2013년과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 조사 목적 2.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정도와 의견을 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한다.
- 조사 목적 3.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정책 추진에의 시사점을 분석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2013년에 연 2회로 조사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면접원 직접 조사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 조사 방법이 변경되었고, 조사 대상자 연령도 기존의 만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에서 만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으로 확대되었다. 본 조사는 해마다 실시되는 계속 조사이므로 전년도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2014년 조사도 같은 횟수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2차례에 걸친 조사는 다음과 같이 대체로 동일하게 설계되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1차 조사에 대해서만 실었고, 조사 시기상 2차 조사 결과는 별도의 포지션페이퍼로 발간된다.

〈표 1-1〉 2014 교육여론조사 체제

조사 목적	한국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의식·태도와 최근의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교육정책 수립·추진의 기초 자료로 제공
조사 대상	만19세 이상 75세 이하 전국의 성인남녀
표집 방법 및 인원	지역, 성, 연령별 모집단 인구 비례 표집, 2,000명 (2013년 조사 패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신규 추가)
조사 내용	교육 및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인식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일부는 직접 조사로 보완)

조사 기간	7.22 ~ 8.27 (1차 조사) 11.14 ~ 11.24 (2차 조사)
조사 결과보고	연구보고서 (1차 조사 결과) KEDI 포지션페이퍼 ¹⁾ (2차 조사 결과)

2. 조사 내용

조사 문항은 대부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 일반에 관한 태도, 인식을 묻는 내용이며, 현 정부 정책에 대해 묻는 문항을 일부 포함하였다(〈표 I-1〉 참조). 연도별 차이 분석이 가능하도록 2013년 1차 조사 문항을 가급적 그대로 활용하되 질문을 구체화하거나 표현을 바로잡거나 학교급별로 나누어 물어야 할 경우에만 수정하였다([부록 2] 2014년 1차 조사지, [부록 3] 2014년 2차 조사 설문지, [부록 4] 기존 문항 수정 및 신규 개발 내역 참조). 교육에 대한 태도, 인식 문항은 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차별로 조사하여 연도별 응답 비교가 가능한 문항들이며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학생의 수준과 생활, 교육의 내용과 방식, 고교 정책 및 대학 입시, 교육복지, 대학의 운영과 대학교의 질, 한국 교육의 현안과 미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문항으로는,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문항, 가장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검토 및 수정을 위하여 여러 차례의 연구진 회의, 3차례의 자문위원 회의, 3차례의 교육부 해당과별 담당자 검토를 거쳤다. 2014년 1, 2차 조사에서 사용한 문항들의 동일문항 조사연도는 〈표 I-2〉와 같다.

응답자 개인 특성에 관해서는 성별, 거주지역, 연령, 혼인상태, 자녀의 수, 자녀의 취학 분류, 교육수준, 맞벌이 여부, 한 달 평균 가구 소득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연초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2차 조사 결과를 별도의 포지션페이퍼로 발간하기로 계획되었음

〈표 1-2〉 2014 KEDI POLL 내용 체계표

조사 영역	조사 문항	1차	2차	동일문항 조사년도 ²⁾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1.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	○		2011, '12, '13, '14
	2. 초·중등학교에 대한 전반적 평가	○		2006, '08, '10, '11, '12, '13
	3. 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		2011, '12, '13, '14
	4. 학교 선택시 고려 사항	○		1999, 2001, '10, '11, '12, '13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5.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		신규
	6. 교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		2006, '08, '10, '11, '12, '13
	7. 교사에 대한 신뢰도	○		2011, '12, '13
	8. 자녀의 장래직업으로 교사 희망 여부	○	○	2011, '12, '13
학생의 수준과 생활	9. 학생의 인성, 도덕성 수준	○		2012, '13
	10. 학업, 경쟁 스트레스 정도	○		2012, '13
	11. IT 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수준	○		2008, '10, '11, '12, '13
교육의 내용과 방식	12. 현재보다 증시해야 할 교육 내용	○		2006, '08, '10, '11, '12, '13
	13. 영어 공교육 시기	○		2011, '12, '13
	14.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 의견	○		2006, '08, '10, '11, '12, '13
	15.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의사	○		2011, '12, '13
	16. 학생의 학습성취(성적) 결정 요인	○		2011, '12, '13
	17. 교육별에 대한 찬반 의견	○		2011, '12, '13
	18. 학교폭력의 원인	○	○	2012, '13
	19. 정부 및 학교의 학교폭력 해소 노력	○		2011, '12, '13
고교 정책 및 대학 입시	20. 고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	○	2006, '08, '10, '11, '12, '13
	21. 고교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	○	2010, '11, '12, '13
	22. 학교생활기록부 활용 선발 확대	○		변형(신규)
	23. 대학입학전형 중요 반영 항목	○	○	2011, '12, '13
교육 복지	24.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		신규
	25. 무상급식 지원 범위	○		2010, '11, '12, '13
	26.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 순위	○		2010, '11, '12, '13
	27.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의견	○	○	2012, '13
	28. 국가재원 투자 우선순위	○	○	2012, '13
대학의 운영과 대학교의 질	29. 대학교육의 인재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		2006, '08, '10, '11, '12, '13
	30. 대학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		2006, '08, '10, '11, '12, '13
	31. 대학 재정의 투명성	○		2011, '12, '13

조사 영역	조사 문항	1차	2차	동일문항 조사년도 ²⁾
학교교육의 현안과 미래	32. 자녀 대학입학시 등록금 부담 의향	○		2011, '12, '13
	33. 자녀 대학졸업 후 구직성공 가능성	○		2011, '12, '13
	34.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		2011, '12, '13
	35.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		2011, '12, '13
	36.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	○		2011, '12, '13
	37. 자녀의 특화된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진학에 대한 인식	○		2011, '12, '13
	38.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에 대한 인식	○		2011, '12, '13
	39.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	○		2006, '08, '10, '11, '12, '13
	40. 사교육에 대한 미래 전망	○		2006, '08, '10, '11, '12, '13
	41. 입시경쟁에 대한 미래 전망	○		2011, '12, '13
	42. 대학 서열화에 대한 미래 전망	○		2011, '12, '13
	43. 학벌주의에 대한 미래 전망	○		2011, '12, '13
	44. 교육의 국가사회발전 기여 정도	○		2012, '13
	45.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		2013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태도 및 인식	46.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	○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동의정도			○	신규
46-1.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필요성 (1, 2순위)		○	○	신규
46-2.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잘 하고 있는 정책(1, 2순위)		○	○	2011, '12, '13
15. 교육 현안 이해도와 동의정도			○	신규
8.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의견			○	2013
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의견 9-1. 중·고등학생 평가 과목 수의 적절성 9-2. 초등학생 평가 폐지에 대한 의견			○	신규
10. 국제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의견 10-1. 인지 여부 10-2. 국가 간 학업성취도 차이를 제대로 측정하는지에 대한 인식 10-3. 한국 교육의 질 제고 기여에 대한 인식		○	신규	
11. 자녀 성장에 대한 바람		○	신규	
12. 가정교육 역점 사항		○	신규	

조사 영역	조사 문항	1차	2차	동일문항 조사년도 ²⁾
인구통계학적 질문	○ 성별			-
	○ 거주지역			-
	○ 연령			-
	○ 혼인상태			-
	○ 자녀의 수			-
	○ 교육수준			-
	○ 맞벌이 여부			-
	○ 한 달 평균 가구 총소득			-
	○ 직업			-

조사 문항 개발 과정에서는 영역 및 문항 검토를 위하여 교육정책 전문가 및 선행연구자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교육부 내 의견을 수합하여 연구진이 검토한 후 정책에 대한 표현 오류 등 타당한 지적은 반영하였다.

〈표 1-3〉 2014 KEDI POLL 자문단

분류	명단
교육정책 전문가	박세훈 (전북대 교수), 신현석 (고려대 교수)
선행연구자	김양분, 남궁지영, 이강주 (이상 KEDI)

또한 조사 결과로부터의 시사점 분석과 정책 제언안 도출을 위하여 고정 자문단 외의 교육정책 전문가들에게도 자문을 구하였다.

2) 남궁지영 외, 2012, pp.8-9 참조. 2013년 내역 추가

3.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안전행정부 2014년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만19세 이상 75세 이하의 성인 남녀 총 38,866,520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모집단의 약 0.0051%인 2,000명을 표집하였다(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집오차 $\pm 2.19\% (p^3)$).

〈표 1-4〉 시·도별 연령별 모집단 인구 현황

(단위: 명)

지역	만19-29세		만30대		만40대		만50대		만60-75세		소계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797,833	792,920	884,472	869,728	870,880	870,042	777,027	822,691	637,280	704,063	3,967,492	4,059,444	8,026,936	
부산	266,066	237,990	262,522	252,132	287,617	292,928	307,370	325,765	259,536	289,308	1,383,111	1,398,123	2,781,234	
대구	197,413	162,007	181,685	182,831	221,588	228,609	202,403	207,640	150,810	177,323	953,899	958,410	1,912,309	
인천	226,458	209,103	240,284	227,559	264,153	259,656	239,961	230,389	150,085	163,442	1,120,941	1,090,149	2,211,090	
광주	113,708	105,570	117,128	116,539	128,799	129,668	102,393	105,453	76,812	89,028	538,840	546,258	1,085,098	
대전	122,448	109,636	122,527	121,899	136,557	136,593	117,150	117,264	80,083	88,183	578,765	573,575	1,152,340	
울산	95,016	75,892	95,652	88,790	109,456	108,107	98,879	92,256	57,636	58,501	456,639	423,546	880,185	
세종	8,444	7,255	10,431	9,969	11,801	9,559	9,616	8,535	7,907	9,065	48,199	44,383	92,582	
경기	시	896,319	833,055	1,013,626	989,725	1,152,330	1,113,098	928,453	873,836	590,081	658,550	4,580,809	4,468,264	9,049,073
	군	13,856	10,512	12,682	11,425	17,186	14,709	20,335	18,914	19,536	21,174	83,595	76,734	160,329
강원	시	79,641	67,908	76,440	74,807	97,766	93,300	93,413	93,364	73,570	85,611	420,830	414,990	835,820
	군	31,583	20,876	26,669	21,962	34,289	27,797	41,343	37,226	38,843	43,458	172,727	151,319	324,046
충북	시	80,284	69,443	76,202	74,809	89,803	89,908	79,780	78,677	55,995	64,033	382,064	376,870	758,934
	군	35,446	27,990	40,557	33,867	47,541	38,270	48,697	43,571	45,447	50,620	217,688	194,318	412,006
충남	시	115,393	103,102	137,388	121,811	142,501	126,912	118,790	109,690	91,211	103,566	605,283	565,081	1,170,364
	군	26,934	20,835	25,733	20,997	35,045	28,673	40,185	39,047	45,725	53,217	173,622	162,769	336,391
전북	시	110,331	97,041	107,888	102,236	131,006	124,541	117,826	116,787	101,682	117,567	568,733	558,172	1,126,905
	군	15,670	13,123	17,283	14,061	22,482	16,427	24,121	21,346	27,362	33,122	106,918	98,079	204,997
전남	시	75,947	64,930	75,263	70,016	93,820	85,997	82,993	78,969	66,675	75,344	394,698	375,256	769,954
	군	47,006	39,651	48,822	39,906	68,240	50,354	72,865	65,212	87,022	107,546	323,955	302,669	626,624
경북	시	158,774	128,955	156,976	146,063	184,095	173,742	177,016	172,825	146,319	169,420	823,180	791,005	1,614,185
	군	32,967	25,867	33,558	27,496	43,675	33,954	49,382	46,027	55,579	66,060	215,161	199,404	414,565
경남	시	208,907	174,820	229,758	216,510	260,948	251,674	227,792	218,983	153,587	174,093	1,080,992	1,036,080	2,117,072
	군	28,213	21,886	27,279	22,873	39,676	31,474	44,610	42,328	49,006	62,700	188,784	181,261	370,045
제주	40,674	36,631	43,559	41,307	55,339	50,892	45,589	43,476	35,751	40,218	220,912	212,524	433,436	
합계	3,825,331	3,456,998	4,064,384	3,899,318	4,546,593	4,386,884	4,067,989	4,010,271	3,103,540	3,505,212	19,607,837	19,258,683	38,866,520	

3) 조사년도별 사례 수 및 95% 신뢰수준에서의 최대표집오차

조사년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례 수	1,200	1,200	1,500	1,500	1,800	2,000	2,000
최대 표집오차	± 2.83 %p	± 2.83 %p	± 2.53 %p	± 2.53 %p	± 2.31 %p	± 2.19 %p	± 2.19 %p

〈표 1-5〉 시·도별 연령별 모집단 인구 구성 비율

(단위: %)

지역	만19-29세		만30대		만40대		만50대		만60-75세		소계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2.05	2.04	2.28	2.24	2.24	2.24	2.00	2.12	1.64	1.81	10.21	10.44	20.65	
부산	0.68	0.61	0.68	0.65	0.74	0.75	0.79	0.84	0.67	0.74	3.56	3.60	7.16	
대구	0.51	0.42	0.47	0.47	0.57	0.59	0.52	0.53	0.39	0.46	2.45	2.47	4.92	
인천	0.58	0.54	0.62	0.59	0.68	0.67	0.62	0.59	0.39	0.42	2.88	2.80	5.69	
광주	0.29	0.27	0.30	0.30	0.33	0.33	0.26	0.27	0.20	0.23	1.39	1.41	2.79	
대전	0.32	0.28	0.32	0.31	0.35	0.35	0.30	0.30	0.21	0.23	1.49	1.48	2.96	
울산	0.24	0.20	0.25	0.23	0.28	0.28	0.25	0.24	0.15	0.15	1.17	1.09	2.26	
세종	0.02	0.02	0.03	0.03	0.03	0.02	0.02	0.02	0.02	0.02	0.12	0.11	0.24	
경기	시	2.31	2.14	2.61	2.55	2.96	2.86	2.39	2.25	1.52	1.69	11.79	11.50	23.28
	군	0.04	0.03	0.03	0.03	0.04	0.04	0.05	0.05	0.05	0.05	0.22	0.20	0.41
강원	시	0.20	0.17	0.20	0.19	0.25	0.24	0.24	0.24	0.19	0.22	1.08	1.07	2.15
	군	0.08	0.05	0.07	0.06	0.09	0.07	0.11	0.10	0.10	0.11	0.44	0.39	0.83
충청	시	0.21	0.18	0.20	0.19	0.23	0.23	0.21	0.20	0.14	0.16	0.98	0.97	1.95
	군	0.09	0.07	0.10	0.09	0.12	0.10	0.13	0.11	0.12	0.13	0.56	0.50	1.06
충남	시	0.30	0.27	0.35	0.31	0.37	0.33	0.31	0.28	0.23	0.27	1.56	1.45	3.01
	군	0.07	0.05	0.07	0.05	0.09	0.07	0.10	0.10	0.12	0.14	0.45	0.42	0.87
전북	시	0.28	0.25	0.28	0.26	0.34	0.32	0.30	0.30	0.26	0.30	1.46	1.44	2.90
	군	0.04	0.03	0.04	0.04	0.06	0.04	0.06	0.05	0.07	0.09	0.28	0.25	0.53
전남	시	0.20	0.17	0.19	0.18	0.24	0.22	0.21	0.20	0.17	0.19	1.02	0.97	1.98
	군	0.12	0.10	0.13	0.10	0.18	0.13	0.19	0.17	0.22	0.28	0.83	0.78	1.61
경북	시	0.41	0.33	0.40	0.38	0.47	0.45	0.46	0.44	0.38	0.44	2.12	2.04	4.15
	군	0.08	0.07	0.09	0.07	0.11	0.09	0.13	0.12	0.14	0.17	0.55	0.51	1.07
경남	시	0.54	0.45	0.59	0.56	0.67	0.65	0.59	0.56	0.40	0.45	2.78	2.67	5.45
	군	0.07	0.06	0.07	0.06	0.10	0.08	0.11	0.11	0.13	0.16	0.49	0.47	0.95
제주	0.10	0.09	0.11	0.11	0.14	0.13	0.12	0.11	0.09	0.10	0.57	0.55	1.12	
합계	9.84	8.89	10.46	10.03	11.70	11.29	10.47	10.32	7.99	9.02	50.45	49.55	100.00	

(통계자료 출처 : 주민등록인구통계, 2014년 3월 기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표집 방법은 2013년 조사에 적용되었던 방식과 동일하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층화하였으며 도 지역은 시/군으로 나누었다. 제주도는 군 지역이 없이 시 지역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연령, 성의 조합에 따른 셀의 표본 수가 작은 경우에는 최소 1명씩 할당하였다.

〈표 1-6〉 시·도별 연령별 성별 최종 표본

(단위: 명)

지역	만19-29세		만30대		만40대		만50대		만60-75세		소계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40	40	46	45	45	45	39	41	32	35	202	206	408	
부산	14	12	14	13	15	15	16	17	13	15	72	72	144	
대구	10	8	9	9	11	11	10	11	8	9	48	48	96	
인천	12	11	12	12	14	13	12	12	8	8	58	56	114	
광주	6	5	6	6	7	7	5	5	4	5	28	28	56	
대전	6	6	6	6	7	7	6	6	4	5	29	30	59	
울산	5	4	5	5	6	6	5	5	3	3	24	23	47	
세종	1	1	1	1	1	1	1	1	1	1	5	5	10	
경기	시	46	43	52	51	59	57	48	45	30	34	235	230	465
	군	1	1	1	1	1	1	1	1	1	1	5	5	10
강원	시	4	3	4	4	5	5	5	5	4	4	22	21	43
	군	2	1	1	1	2	1	2	2	2	2	9	7	16
충북	시	4	4	4	4	5	5	4	4	3	3	20	20	40
	군	2	1	2	2	2	2	3	2	2	3	11	10	21
충남	시	6	5	7	6	7	7	6	6	5	5	31	29	60
	군	1	1	1	1	2	1	2	2	2	3	8	8	16
전북	시	6	5	6	5	7	6	6	6	5	6	30	28	58
	군	1	1	1	1	1	1	1	1	1	2	5	6	11
전남	시	4	3	4	4	5	4	4	4	3	4	20	19	39
	군	2	2	3	2	4	3	4	3	4	6	17	16	33
경북	시	8	7	8	8	9	9	9	9	8	9	42	42	84
	군	2	1	2	1	2	2	3	2	3	3	12	9	21
경남	시	11	9	12	11	13	13	12	11	8	9	56	53	109
	군	1	1	1	1	2	2	2	2	3	3	9	9	18
제주	2	2	2	2	3	3	2	2	2	2	11	11	22	
합계	197	177	210	202	235	227	208	205	159	180	1,009	991	2,000	

- 세종시의 경우 표본수가 작기 때문에 최소 1명씩 임의할당

응답자는 총 2,000명이며 시·도별, 연령별, 성별 최종 표본의 수와 일치한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응답자 수가 비슷하고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 응답자가 가장 많으며 연령별로는 만40대 응답자가 가장 많다.

〈표 1-7〉 배경변인별 응답자 분포

구분		응답자	
		사례 수	비율
전체		2,000	100.0
성	남	1,009	50.5
	여	991	49.6
지역규모	서울	408	20.4
	광역시	516	25.8
	중소도시(시)*	930	46.5
	읍면(군)지역	146	7.3
연령	만19-29세	374	18.7
	만30대	412	20.6
	만40대	462	23.1
	만50대	413	20.7
	만60-75세	339	17.0
혼인상태	기혼	1,386	69.3
	미혼	568	28.4
	기타	46	2.3
자녀 유무	자녀 있음	1,350	67.5
	자녀 없음	650	32.5
자녀 수	1명	334	24.7
	2명	718	53.2
	3명	221	16.4
	4명 이상	77	5.7
	초등 미만	309	22.9
자녀 취학분류**	초등학교	305	22.6
	중학교	174	12.9
	고등학교	202	15.0
	대학교	265	19.6
	대학원	60	4.4
	직장인	465	34.4
	기타	200	14.8
학력	고교 졸업 이하	552	27.6
	전문대 졸업	248	12.4
	대학교 졸업	1,018	50.9
	대학원 졸업	182	9.1
맞벌이 여부	맞벌이	604	43.6
	맞벌이 아님	782	56.4
한 달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14.1
	200 - 400만원 미만	789	39.5
	400 - 600만원 미만	574	28.7
	600만원 이상	355	17.8

* 세종시는 지역 규모상 중소도시에 포함하였음 ** 자녀가 2명 이상인 응답자는 중복응답함에 따라 사례 수 합계가 '자녀 있음' 응답자 1,350명보다 많고 비율도 100%를 초과함

한편, 2013년도부터 조사 결과의 추이 분석을 위하여 전년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조사하였다. 2014년 1차 조사 응답자 중 2013년 응답자는 1,308명으로 전체 응답자 2,000명 중 65.4%에 해당한다.

〈표 1-8〉 2014년 응답자 중 2013년 응답자 수

(단위: 명)

지역	만19-29세		만30대		만40대		만50대		만60-75세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18	17	35	45	30	38	30	29	20	13	275	
부산	12	3	10	8	11	13	12	9	6	10	94	
대구	7	3	5	9	6	10	10	8	6	3	67	
인천	7	6	8	6	7	10	8	10	6	4	72	
광주	5	2	4	5	7	7	5	5	4	2	46	
대전	1	3	1	5	1	4	6	5	1	2	29	
울산	2	2	5	2	3	6	5	3	2	2	32	
세종	0	0	0	0	0	0	0	1	0	0	1	
경기	시	24	20	47	41	44	53	38	36	17	19	339
	군	0	0	0	0	0	0	0	0	0	0	0
강원	시	2	2	3	4	1	3	5	4	1	2	27
	군	1	0	1	1	2	1	2	0	1	0	9
충북	시	1	2	4	1	5	5	3	3	3	1	28
	군	0	0	1	1	0	2	2	1	0	0	7
충남	시	3	1	6	3	7	7	6	2	2	1	38
	군	1	0	1	0	0	1	1	1	1	0	6
전북	시	1	0	4	3	3	4	5	5	0	2	27
	군	1	1	1	0	1	1	0	1	1	0	7
전남	시	3	0	3	2	5	4	4	2	3	1	27
	군	1	1	1	2	4	2	2	1	1	1	16
경북	시	6	5	5	5	9	8	7	5	5	2	57
	군	0	0	1	1	1	2	3	0	1	0	9
경남	시	2	3	9	11	13	10	7	11	4	0	70
	군	1	0	0	1	2	2	2	2	0	0	10
제주	2	1	2	1	3	2	2	1	0	1	15	
합계	101	72	157	157	165	195	165	145	85	66	1,308	

4. 조사 방법 및 기간

원칙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을 적용하였고 조사업체에서 확보한 패널을 대상으로 이메일, 전화 문자, 전화 통화로 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온라인 조사 응답률이 낮은 일부 응답자(주로 고연령자)의 경우에는 면접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1차 조사 기간은 7월 22일(화)부터 8월 27일(수)까지 37일이었고 2차 조사는 11월 14일(금)부터 11월 24일(월)까지 11일이었다.

5. 조사 의의와 한계

본 조사는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인식 조사로서, 본 장의 1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민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간접 측정하고 최종적인 정책 고객인 국민에게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정책 업무 종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조사라는 측면에서, 관련 사실 정보와는 다른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조사 결과는 정책 개발이나 집행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의 자료이므로, 본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조사를 통해, 전체 응답자의 응답과 차이가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인구 모집단 전체에 대한 표집 방식을 취하였고 학부모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의견을 그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II. 선행 조사 분석

1. 한국 통계청 사회조사 및 미국 PDK/갤럽 여론조사
2. 일반 국민 대상 교육의식 조사
3. 1999 ~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4. 시사점



II. 선행 조사 분석

1. 한국 통계청 사회조사 및 미국 PDK/갤럽 여론조사

본 조사와 유사한 성격으로 실시되는 계속조사는 한국 통계청의 사회조사(교육부문), 그리고 미국 파이델타카파(Phi Delta Kappan)와 갤럽의 공립학교에 대한 국민의 태도 조사가 있으며 각각의 조사 체제는 <표 II-1>과 같다. 두 조사는 모두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나 의견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는 면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조사 내용의 성격, 조사 문항 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표 II-1> 통계청 교육부문 사회조사와 PDK/갤럽 여론조사의 체제

구분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교육부문)	2014년 PDK/갤럽 여론조사
조사 목적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교육이 직면한 주요 주제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의견 조사
조사 대상	전국 17,424 표본가구내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7,000명.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조사구 중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집단가구(기숙사, 특수사회시설 등)는 제외). 경상표본, 외부 승인통계 및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표본조사구를 제외하고 조사구내 가구 수가 40가구 이상인 조사구만을 최종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여	갤럽 패널(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패널) 중 18세 이상의 가구 전화번호 등록 거주자 1,001명
표집	25개 지역별 층화 및 분류지표에 따라 정렬 후 층별로 가구 수(MOS)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조사구가 동일한 가구 수로 구성되지 않아도 동일한 가중치	인구 특성을 반영한 전국단위 표집으로 표본가중치를 적용. 95% 신뢰도 수준(표집 오차 ±4.6)

구분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교육부문)	2014년 PDK/갤럽 여론조사
조사 방법	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자기기입(응답자 기입) 방법을 병행	집 전화(혹은 주소지 표집) 및 휴대 전화 인터뷰. 가구당 5차례까지 통화 시도
조사 기간	2012. 5. 23 ~ 6. 5 (14일)	2013. 5. 29 ~ 6. 20
최초 조사 년도 및 조사 주기	1984년에 처음으로 조사, 2008년부터 부문별로 2년 주기로 조사. 교육부문 조사는 1984년, 1987년, 1990년, 1993년, 1996년, 2000년, 2004년, 2008년, 2010년, 2012년에 실시되어 2012년 조사는 10회차임	1969년에 처음으로 조사, 1년 주기로 조사되어 2014년 조사는 46회차임
조사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② 학생의 기대 교육수준 및 교육목적* ③ 부모의 자녀 기대 교육수준 및 교육목적 ④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 ⑤ 교육비에 대한 인식 및 교육비 부담요인(가구주) ⑥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⑦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⑧ 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⑨ 자녀 유학에 대한 견해와 원하는 이유 <p>* 응답자가 초·중·고·대(학원) 학생인 경우에만 응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통 핵심 교육과정 ② 표준화 시험,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③ 공립학교의 지배구조, 질, 당면과제 ④ 차터 스쿨, 바우처제도 ⑤ 교사 신뢰도, 교사 교육 및 자격 제도, 교사 평가 및 성과급 제도 ⑥ 교육과정 및 학교 변화(변화 속도, 진로교육, 입시교육, 교육내용, 수업 일수 증감 등) ⑦ 대학교육, 학교급별 졸업생의 직업 준비도 ⑧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공교육 ⑧ 자녀 학교에 대한 평가 <p>※ 1969년부터 현재까지 800문항 이상을 주제별로 보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해마다 문항을 선별하고 필요한 문항을 새로 개발하여 사용</p>
문항 수	25문항(개인 배경 문항 제외)	78문항(개인 배경 문항 제외)
결과 제시 방식 및 공개 여부	조사 문항 각각에 대한 해당 년도의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2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한 보고서를 공개	조사 문항 각각에 대한 해당 년도의 기술통계, 과거 조사 결과(동일 문항의 경우)를 제시한 보고서를 공개

통계청 교육부문 사회조사는 1984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는데 2년 주기로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응답한다. 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 방법을 사용하며 2012년에 약 37,000명을 조사하였다. PDK/갤럽 여론조사는 1969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해마다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하며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001명을 조사하였다. 조사 문항 수에도 차이가 있는데, 2014년 PDK/갤럽 조사는 전화조사방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78문항이라는 상당히 많은 문항을 조사하였

다.⁴⁾ 이에 비해, 통계청 조사는 매년 5개 부문을 함께 조사하므로 교육부문 문항 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며 2012년의 경우 총 25문항을 조사하였다. 2012년 통계청 조사의 내용은,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 교육수준 및 교육목적,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 교육비에 대한 인식 및 교육비 부담요인,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자녀 유학에 대한 견해와 원하는 이유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2010년 조사 문항에 ‘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를 추가한 것이다. 2014년 PDK/갤럽 여론조사 내용은 공통 핵심 교육과정, 표준화시험,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공립학교의 지배구조, 질, 당면과제, 차터스쿨, 바우처제도, 교사 신뢰도, 교사 교육 및 자격 제도, 교사평가 및 성과급 제도, 교육과정 및 학교 변화, 대학교육, 학교급별 졸업생의 직업 준비도,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공교육, 자녀 학교 평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14년 문항은 2013년 문항과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2013년에 조사하였던 학교 안전이나 온라인학습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고 교사 교육 및 자격 제도, 교사 평가 및 성과급 제도 등에 대해서는 새로 추가하여 조사한 것이다. 조사 내용면에서 두 조사를 비교하면, 통계청 조사는 매년 조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인식 조사 문항, PDK/갤럽 여론조사는 자녀 학교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교육과 공립학교의 변화 속도에 대한 인식, 미국 교육계에서 근래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문항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덧붙여, PDK/갤럽 조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196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그러한 점을 활용하여 필요한 경우에 같은 문항에 대한 과거의 조사 결과를 함께 제시하고([그림 II-1] 참조) 조사 결과를 언론이나 교육계, 정치계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4) 전화 여론조사의 경우 성, 연령, 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등 핵심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제외한 실제 조사문항은 15개 내외로 조정(이준용, 2011, p.28)된다는 기준에서 보면 문항 수가 상당히 많다.

TABLE 16. How important is a college education today?

	National	Public	National totals		
	totals	school			
	'14	'14	'10	'83	'78
	%	%	%	%	%
Very important	43	41	75	58	36
Fairly important	48	48	21	31	46
Not too important	9	10	3	8	16
Don't know/refused	1	1	1	3	2

[그림 II-1] 2014년 PDK/갤럽 여론조사 결과 제시 사례

(출처: The 46th PDK/Gallup Poll - PART II, 2014, p.57)

이상과 같이,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사향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로서 그 일부인 교육부분 조사는 압축된 내용으로 간단한 연차별 비교를 할 수 있으며, PDK/갤럽 여론조사는 미국의 공교육 변화와 주요 관심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과 인식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실시를 통하여 교육에 대한 이슈를 사회에 제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2. 일반 국민 대상 교육의식 조사

계속조사는 아니지만 1999년 이전에 실시된 일반 국민 대상의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배종근 외, 1988), 『한국인의 교육의식조사 연구』 (김영화 외, 1994) 또한 본 조사와 유사한 선행 조사이다. 이 조사들은 조사 목적을 비롯한 전반적인 체제가 본 조사와 유사하므로 조사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봄으로써 본 조사가 내용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배종근 외(1988)의 조사는 그 목적이 교육에 대한 의식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 어떠한지를 기술하는 것(p.11)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민 여론조사는 교육정책 수립·수행의 기초 제공, 집단 간 견해 차이 파악, 정책적 우선 순위 선택에 중요 자료 제공 등과 아울러 국민들이 교육의 어느 문제를 시급히 치료하기

를 원하며 또 그것에서 일어나는 역작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pp.2~3)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 조사는 당시 전국 인구 4,000여만 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거주지 인구비율에 따라 약 25,000여 명을 표집한 대규모의 국민의식 조사였으며, 우편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김영화 외(1994)는 교육정책에는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자녀가 어린 사람들의 의식도 파악해야 하며 교육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공교육비로 충당되는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당사자이므로 모든 연령층의 성인들의 의식을 분석해야 한다고 하였다(p.4). 이 조사의 일반인 대상 조사는 20세 이상 인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총 2,000명을 지역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표집하고 면접원이 직접조사하였는데, 이러한 규모와 방법은 2012년까지의 교육여론조사와 유사하다. 이상의 두 조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종근 외(1988)는 교육목적, 내용, 방법, 교원, 학생, 교육행정, 교육재정, 교육환경과 시설, 교육제도·정책, 교육지수, 교육공헌, 사학에 대하여 조사하였다(〈표 II-2〉 참조). 질문의 내용은 홍익인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사립학교의 재원확보방법까지 광범위하였고 구체적인 교육정책과 사학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였다.

〈표 II-2〉 배종근 외(1988)의 조사 내용

영역		질문 내용
교육목적·내용·방법	교육목적	홍익인간에 대한 이해, 학교급별 주요 교육목표, 미래 대학의 교육목표, 대학진학의 실제 목적, 성취의 중요 요건
	교육내용	국민학교 교과서 수의 타당성, 교과내용의 난이도, 성적 영향 요인, 교과서에 나타난 남녀 차별, 학교 성교육, TV방송내용의 교육적 적절성
	교육방법	입시위주의 교육, 국민학교의 남녀 짝, 중·고등학교의 우열반 편성, 남녀공학, 보충수업, 교사의 체벌, 학교급별 학생의 숙제, 학교급별 학생의 방학생활, 유치원과 국민학교 시절의 특수교육
교원 및 학생	교원	학교급별 남녀교사 선호도, 교직의 여성화 경향, 교원임용방법에 대한 찬반, 교사에 대한 존경도, 교직의 전문성, 교원 노동조합 결성,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생	대학생의 현실비판 및 참여, 청소년 행동에서 본 나라의 미래, 극기의 장으로서의 학교, 학생의 고민과 상담대상,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 공부해야 할 시기

영역		질문 내용
교육체계	교육행정	지방교육 행정 책임자의 선출방법, 학교장 임기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학교운영의 자율성, 학교운영에서의 학부모 의사의 반영, 대학교수에 의한 대학총장 선출
	교육재정	국민학교의 육성회비 징수, 중·고등학교 공납금수준의 적당성, 대학의 기부금 입학, 교육세 징수, 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 자녀 교육비 지출 부담, 국공립 학교의 재원 확보방법,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배분, 미래를 대비한 교육투자 배분
	교육환경과 시설	학교 시설의 수준, 그린벨트내의 학교 설치, 학교주변의 교육환경, 학교교육 환경의 적합성
교육제도·정책		대학입시 방법, 대학교육의 기회확대, 영재교육의 실시, 대학생 수의 증감, 고입연합고사 시험과목 수의 적당성, 대입학력고사 교과와 적당성, 고입체력장에 대한 찬반, 대입체력장에 대한 찬반, 고급두뇌의 외국유출, 고등학교의 평준화, 교육기간(16년)에 대한 의견, 국가안정과 발전의 우선과제, 실업계 고등학교의 육성강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연장, 평생교육의 취지에 대한 찬반
교육지수 및 교육공헌	교육지수	학벌의 중요도, 일류대학 졸업의 혜택, 아들·딸 교육의 기대수준,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의 희생, 과외수업 찬반, 대학 학과 선택시 고려사항
	교육공헌	학교교육 내용의 사회생활 공헌, 국민적 긍지 함양 공헌, 민주주의 발전 공헌, 경제성장 공헌,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공헌
사학		학교급별 사립학교의 선호성, 국가발전에 대한 사학의 기여도, 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 사립대학의 공납금 결정, 사립학교의 재원확보 방법

(출처: 배종근 외, 1988, pp.6-10, 재구성)

김영화 외(1994)의 조사 영역은 배종근 외(1988)의 영역과 대체로 유사하였고 문항 수는 조금 더 많았다. 질문 내용을 보면, 가정교육에 관한 문항과 교육의 개인적 결과로서 직업이나 소득과 관계없는 대학 진학 의사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고 인식이나 태도 등 실태 중심의 문항들을 다수 포함하였다.

〈표 II-3〉 김영화 외(1994)의 조사 내용

영역		질문 내용
교육기회		각급 학교 정원 규모의 적절성 평가, 대학 정원 결정 기준, 이상적인 대학교육 수혜자의 범위, 기대하는 교육수준: 희망 수준, 계획 수준,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 유형, 대학 진학 희망 이유, 희망하는 대학의 전공 계열, 대학과 전공 선택시 고려사항
교육의 과정	교육내용	초·중등학교에서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 학교에서 역점을 두어 가르치고 있는 사항과 바라는 사항, 희망하는 특별활동 유형
	교육방법 및 평가	과외수업의 효과, 과외수강 이유, 교사의 체벌에 대한 찬반, 학년별 속진제, 교과별 속진제, 유급제, 능력별 반 편성 찬반, 학교급별 전국 학생 학력 평가의 필요성

영역		질문 내용
교육의 인적 구성 요소	학생	학업성적 영향 요인, 진로 결정 주체
	교사	초·중등학교 교직의 성격, 훌륭한 교사의 자격 요건, 교사의 자질 평가, 학부모가 선호하는 교사 유형, 교사의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처우
	학부모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의 필요성, 학교교육 참여 의사,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도, 성별 교육관,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한 주거 이동 의사, 자녀의 대학진학을 위한 과외 비 부담의사, 자녀의 대학 진학결정에 있어서 가정 형편 고려 정도, 자녀 양육시 중시하고 있는 덕목, 가정에서 역점을 두어 지도해야 할 부분과 지도하고 있는 부분, 희망하는 자녀의 직업, 자녀에게 희망하는 인간상, 자녀에게 희망하는 미래의 삶의 모습, 자녀에 대한 걱정거리
교육의 지원 체제	교육행정	초·중등학교 운영 결정 과정에서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집단, 초·중등학교 교육 실태의 정기적 평가의 필요성
	교육재정	학교교육 재원 확보 방안, 학교교육 질 향상을 위한 등록금 또는 세금의 추가 부담 의사,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 정도, 국가 예산의 영역별 투자 우선 순위(교육), 학교급별 교육 투자 우선 순위, 분야별 교육 투자 우선 순위
	교육제도 및 정책	고교평준화정책 찬반 및 확대 여부, 교육정책의 평가(일관성, 장기적 전망,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 국민 여론 수렴의 측면에서), 향후 대입제도의 개선 방향
	교육환경	텔레비전의 전반적 영향, 우리 사회 가정교육의 평가
교육의 결과	사회적 결과	고학력자의 사회 발전 기여도
	개인적 결과	직업세계에서의 대학 졸업장의 가치 변화(5년전과 비교),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겪는 가장 큰 문제, 4년제 대학 졸업장의 고위 직업 획득 무가치시 진학 계획, 4년제 대학 졸업장의 고소득 획득 무가치시 진학 계획, 출세 및 성공 요인
	사회	학교급별 학교교육의 질 평가,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 교육의 질, 학교에 대해 가장 불만스러운 점, 학교의 가장 큰 문제, 교육이 잘 되기 위해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대상, 가장 효과적인 과열 대학입시경쟁 해소 방안

(출처: 김영화 외, 1994, pp.29-33, 재구성)

위 두 조사의 내용적 공통점은 조사 영역을 대체로 교육 목적 및 목표, 교육내용, 교육 방법 및 평가, 교육행정, 교육재정, 교육제도 및 정책, 교육환경, 교육의 사회·개인적 결과와 학교교육에 대한 질 평가와 개선 등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배종근 외(1988)의 조사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의견 중심이고 김영화 외(1994)의 조사는 포괄적 수준의 의견이나 태도 중심의 성격을 띠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3. 1999 ~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8차년까지의 조사 보고서를 볼 때, 교육여론조사의 목적은 한국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태도와 최근의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교육정책 수립·추진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성인 남녀이며 2012년에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이었으나 2013년부터 고연령자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표집 비율은 2008년에 0.0036%로 가장 낮았고 1999년에 0.0055%로 가장 높았다. 표집 인원은 최소 1,200명(2006, 2008년)에서 최대 2,000명(2013년)까지였다.

조사 기간은 대체로 1개월 내외였으며 7차년도 조사까지는 연 1회 조사원 개별 면접조사로 실시되었으나 8차년도부터 연 2회 온라인 조사로 실시되고 있다.

회차별 조사 개요 및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⁵⁾.

1차년도 조사(1999년도)는 공교육에 대한 태도 및 열린교육, 특기·적성교육, 학교운영위원회, 수행평가,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학입시제도 개혁, 중·고 보충 및 자율학습 폐지 등 교육 현안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조사 결과의 보고는 국민들이 손쉽게 읽어볼 수 있는 자료집 형태로 출간하여 공개함으로써, 보고서 작성 양식, 보고서 원고의 성격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형태의 연구보고서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2차년도 조사(2001년도)는 시간에 따른 여론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사용했던 조사 내용과 유사하게 유지하였으며, 한국의 교육 관련 문제를 총망라하기 위하여 공교육 내실화, 예산 우선순위, 과외의 변화 정도, 대학평가, 교육재정 등의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1년도 전후의 교육상황을 반영하여 대학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금 정책, 학부제 등 고등교육정책과 정보화 교육 분야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조사함으로써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판단 자료를 제시하였다. 2001년도 조사는 1999년도 조사의 표집방법을 개선하여 적용하는 등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조사 당시의 예산, 조사 결과에 대한 인식 등 원내외 제반 여건상 조사가 지속되지 못하였으며, 조사 방식과 조사 절차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조사 결과의 연간 추이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3차년도 조사(2006년도)는 2006년도 조사 이후 표집방법 및 조사절차를 표준화하고 기존의 반복 측정 문항을 여론조사의 목적에 맞게 보다 발전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따라서 2006년도 조사 이후로 교육여론의 추이 분석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수준별 이동수업, 방과후학교, 교사평가, 대입에서의 3不 정책, 사교육경감대책, 조기유학, 학교법인이사 추천제도, 입학할당제 및 등록금차등제 등 당시의 교육현안 문제를 조사함으로써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의 방향을 점검하고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2006년도에는 연구 산출물로서 일반적인 형태의 연구보고서는 물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안된 홍보용 잡지 형태의 요약보고서도 함께 출간하였다.

5) 본 조사는 계속조사이므로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의 조사에 대해서는 남궁지영 외(2012, pp.20-22), 2012년 조사에 대해서는 이강주 외(2013, p.5)에서 발췌하였다.

4차년도 조사(2008년도)는 학교 자율화 추진과 관련한 이슈들,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교직 개방, 외국인 학교 국내 교육체계 편입, 국제중학교 확대 설립, 대학 등록금 후불제 시행, 입학사정관제 등 당시 교육현안 문제를 포함하여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2006년도 조사 이후 반복측정문항으로 안정화된 교육 일반 사항 및 교육관 등을 조사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의식과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전개해 나가는 정책 당국자에게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교육현장의 실천가들에게는 올바른 실행 방법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었다.

5차년도 조사(2010년도)는 교육 일반 사항 및 창의성교육, 교육관 등에 관한 여론 추이 분석뿐만 아니라 교육비리, 교육감 선출 방식, 고교 기초·심화과정 및 학점제 도입, 교장공모제 확대, 교원평가 결과 활용, 교직단체 가입 교사 명단 공개, 고교 다양화 정책, 무상급식 등 저소득층 지원, 사교육(비) 대책, 대학 진학을, 대학 등록금, 입학사정관제도 등 정책 현안에 관한 국민여론을 분석하였다. 2010년도 조사 결과는 청와대,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여러 신문, 방송을 통하여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이를 정책당국 및 국민에게 알리고, 2010년도 조사 결과 자료가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료로 포함되는 등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6차년도 조사(2011년도)는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초·중등교육의 질,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학생의 학교생활, 교육정책, 대학 운영과 대학교육의 질,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의 6개 주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분석하였다. 2011년도부터는 이전 조사까지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교육정책 현안 관련 문항을 대폭 축소하고 교육 일반에 관한 고정문항을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육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관련 기관을 통해 즉각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 반면, 한국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의식에 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KEDI POLL의 특성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 결과는 교육 현장의 실천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책 당국에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5차 조사까지는 교육정책 현안 중심의 조사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6차 조사부터는 한국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국민의식 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7차년도 조사(2012년도)는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학생의 학교생활, 학생의 학습, 고교 및 대학 입시, 교육복지, 대학 운영과 대학교육의 질, 그리고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 등 8개 주제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여 각각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였다.

8차년도 조사(2013년도)의 1차 조사에서는 2012년과 같은 8개 영역을 조사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이명박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성과에 대한 견해와 박근혜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정도, 교육정책 관련 가치관을 조사하였으며 문항별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2013년은 새 정부가 출범한 해로서 전 정부의 교육정책 성과 평가와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물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조사 문항 수는 최소 32문항(1999년), 최대 59문항(2010년)이었으며 2011년까지는 신규 문항이 많았으나 2012년부터는 기존 문항이 85%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기술하였듯이, 2011년에 교육정책 현안 관련 문항을 대폭 줄이고 한국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로 성격을 변화시키면서 다수의 의식 관련 문항을 신규로 개발하여 조

사하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같은 성격으로 유지되었음을 나타낸다.

〈표 II-4〉 1999 ~ 2013년 교육여론조사 문항 수

조사년도	총 문항 수	기존문항 수, 신규문항 수
1차년 1999	32	신규 32
2차년 2001	32	기존 23, 신규 9
3차년 2006	39	기존 16, 신규 23
4차년 2008	41	기존 26, 신규 15
5차년 2010	59	기존 29, 신규 20
6차년 2011	42	기존 14, 신규 28
7차년 2012	49	기존 43, 신규 6
8차년 2013	60 (1차: 52, 2차: 8)	기존 51, 신규 9 (1차: 기존 49, 신규 3, 2차: 기존 2 신규 6)

4. 시사점

8차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의 변화 모습을 살펴본 결과, 1999년에 시작된 이후로 조사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2011년부터는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조사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으며 총 50문항 내외의 문항으로 조사하여 왔고, 2013년부터는 온라인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연 2회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2014년 조사는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즉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중심의 조사로서 2011, 2012, 2013년에 사용된 문항들을 토대로 검토하여 사용할 문항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보완, 신규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의 비교를 위하여 조사 문항의 변동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연 2회 온라인으로 조사하며 조사방법 변화에 따른 결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2013년 조사 문항을 최대한 활용하고 동일 문항에 대하여 2013년 조사 결과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통계청 교육부문 사회조사과 PDK/갤럽 여론조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사 결과의 추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는 한정된 문항 수와 짧은 조사 역사라는 조건에서 회차간 문항의 변동이 거의 없이 높은 비중의 공통문항을 사용하고, PDK/

갤럽 조사는 많은 문항 수와 긴 조사 역사의 조건에서 회차간 문항의 변동은 작지 않으나 그동안 사용한 문항 pool(800여 문항)을 관리,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보여줌과 동시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조사 내용면에서는, 배종근 외(1988), 김영화 외(1994), 2012 통계청 조사 문항, 2013, 2014 PDK/갤럽 조사 문항을 참고하여 진단하고 보완하였다. 즉, 배종근 외(1988), 김영화 외(1994)의 조사 내용 중에서는 교육의 사회적·개인적 결과, 평가 관련 문항, 가정교육 관련 문항, PDK/갤럽 조사 문항 중에서는 학교급별 졸업생의 직업 준비도 문항, 교사교육 및 자격제도 관련 문항, 온라인학습, 표준화시험,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교육과정 및 학교 변화 관련 문항, 학교 안전 문항이 교육여론조사에서 도입을 검토할 만 하였다. 그러나 한꺼번에 신규 문항을 다수로 개발, 포함하는 것은 조사 결과의 추이 비교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부 문항은 신규로 포함하고 나머지 문항들은 내년에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올해 조사에 반영한 내용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에 대한 문항을 2차 조사 문항으로 신규로 개발하였고 2014 PDK/갤럽조사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문항을 참고하여 2차 조사 문항으로 새롭게 포함하였다. 2012 통계청 조사 문항 중에서는 교육비에 대한 인식 및 교육비 부담 요인 문항,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문항, 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문항이 참고할 만 하나 한국에서 실시되는 조사이므로 조사 중복성 문제를 고려하여 이번 연도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표 II-5〉 선행조사 분석을 통한 2014년 조사 내용 보완

2014 교육여론조사 조사 영역	선행조사 분석을 통한 조사 영역별 시사점			결과 반영
	배종근 외(1988), 김영화 외(1994)	2012 통계청 조사	2013,14 PDK/갤럽조사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교육의 질	◦교육의 사회적·개인적 결과 문항 부족	- (특이점 없음)	◦학교급별 졸업생의 직업 준비도 문항 없음	◦15년부터 점차적으로 반영 검토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 (특이점 없음)	- (특이점 없음)	◦교사교육 및 자격 제도 관련 문항 없음	◦15년부터 점차적으로 반영 검토
학생의 수준과 생활	- (특이점 없음)	- (특이점 없음)	- (특이점 없음)	- (특이점 없음)

2014 교육여론조사 조사 영역	선행조사 분석을 통한 조사 영역별 시사점			결과 반영
	배종근 외(1988), 김영화 외(1994)	2012 통계청 조사	2013,14 PDK/갤럽조사	
교육의 내용과 방식	◦평가 관련 문항 없음	- (특이점 없음)	◦온라인학습, 표준화시 험, 학업성취도 국제 비 교, 교육과정 및 학교 변화 관련 문항 없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관련 문항,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관련 문항 신규 개발(2차 조사) ◦교육과정 및 학교 변화 관련 문항은 15년부터 점차적으로 반영 검토
고교 정책 및 대학 입시	- (특이점 없음)	- (특이점 없음)	- (특이점 없음)	- (특이점 없음)
교육복지	- (특이점 없음)	◦교육비에 대한 인 식 및 교육비 부담 요인 문항 없음	- (특이점 없음)	◦중복 조사 문제로 14년 에는 반영하지 않음
대학의 운영과 대학교의 질	- (특이점 없음)	◦전공과 직업의 일 치도 문항 없음	- (특이점 없음)	◦15년부터 점차적으로 반영 검토
학교교육의 현안과 미래	- (특이점 없음)	- (특이점 없음)	- (특이점 없음)	- (특이점 없음)
기타 (영역 외)	◦가정교육 관련 문 항 없음	◦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문항 없음	◦학교 안전 관련 문항 없음	◦가정교육 관련 문항은 1994년과의 비교를 위 해 동일문항을 신규문 항으로 사용(2차 조사) ◦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문항은 중복 조 사 문제로 14년에는 반 영하지 않음 ◦학교 안전 관련 문항은 추후 검토

또한, PDK/갤럽 조사 사례에서 보듯이, 2015년 교육여론조사부터는 지금까지 사용한 문항들을 어느 정도 주기를 두고 활용함으로써 한 번의 조사에서 포함 가능한 문항 수를 조절하고 조사 결과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Ⅲ. 조사 결과

1. 한국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인식
2.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3. 요약



Ⅲ. 조사 결과

1. 한국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인식

가.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1)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

- <질문>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중 다음과 같은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한다고 보십니까?

초·중·고 교육정책 결정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부장관(59.8%), 시·도교육청 교육감(33.4%), 단위학교 교장(6.9%) 순으로 응답하였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역시 유사한 응답비율을 나타내었다.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의 책임은 누가 져야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단위학교 교장(51.9%), 시·도교육청 교육감(33.8%), 교육부장관(14.4%) 순으로 응답하였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역시 유사한 응답비율을 나타내었다.

학생의 학습성취 기준 마련의 책임은 누가 져야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도교육청 교육감(52.1%), 단위학교 교장(29.1%), 교육부장관(18.8%) 순으로 응답하였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역시 유사한 응답비율을 나타내었다.

교육과정의 결정의 책임은 누가 져야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부장관(44.3%), 시·도교육청 교육감(37.6%), 단위학교 교장(18.2%) 순으로 응답하였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역시 유사한 응답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III-1-1〉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

① 초·중·고 교육정책 결정의 책임자	전체	초·중·고 학부모*	②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의 책임자	전체	초·중·고 학부모
교육부 장관	1,195 (59.8)	325 (61.1)	교육부 장관	287 (14.4)	67 (12.6)
시·도교육청 교육감	667 (33.4)	174 (32.7)	시·도교육청 교육감	675 (33.8)	174 (32.7)
단위학교 교장	138 (6.9)	33 (6.2)	단위학교 교장	1,038 (51.9)	291 (54.7)
계	2,000 (100.0)	532 (100.0)	계	2,000 (100.0)	532 (100.0)

* 자녀유무 복수응답으로 인하여 초등학생 자녀, 중학생 자녀, 고등학생 자녀 중 1명 이상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초·중·고 학부모로 분류함

③ 학생의 학습성취 기준 미련의 책임자	전체	초·중·고 학부모	④ 교육과정의 결정의 책임자	전체	초·중·고 학부모
교육부 장관	376 (18.8)	88 (16.5)	교육부 장관	885 (44.3)	218 (41.0)
시·도교육청 교육감	1,042 (52.1)	293 (55.1)	시·도교육청 교육감	751 (37.6)	215 (40.4)
단위학교 교장	582 (29.1)	151 (28.4)	단위학교 교장	364 (18.2)	99 (18.6)
계	2,000 (100.0)	532 (100.0)	계	2,000 (100.0)	532 (100.0)

2) 초·중등학교에 대한 전반적 평가

■ 〈질문〉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를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시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를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겠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초·중·고 전반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수+우)는 응답이 18.0%, 잘 못하고 있다(양+가)는 응답이 34.2%, 보통(미)이라는 응답이 42.7%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5.7%,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4.6%, 보통이라는 응답이 34.9%로 나타났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16.6%,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7.6%, 보통이라는 응답이 41.0%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11.1%,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3.7%, 보통이라는 응답이 29.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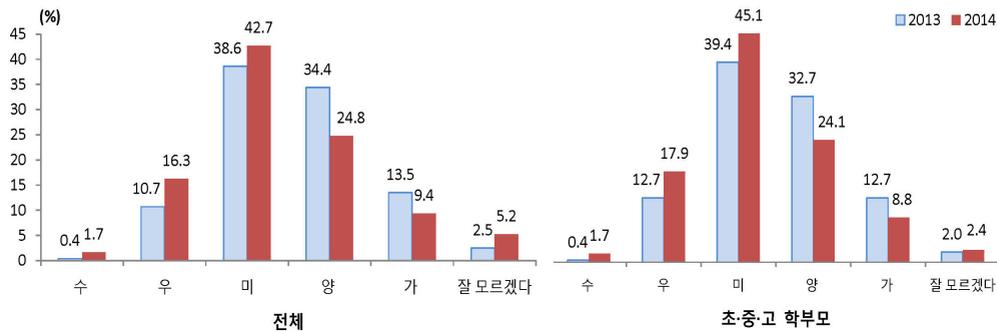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역시 초·중·고 전반에 대한 질문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와 유사한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다.

초·중·고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2014년에는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18.0%로 2013년의 11.1%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은 2013년 2.49에서 2014년 2.75로 증가).

〈표 III-1-2〉 초·중등학교에 대한 전반적 평가

초·중·고교 전반 평가	2013		2014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초중고 전반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초중고 전반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수 (매우 잘하고 있다)	8 (0.4)	2 (0.4)	33 (1.7)	77 (3.9)	23 (1.2)	29 (1.5)	9 (1.7)	29 (5.5)	6 (1.1)	8 (1.5)
우 (아는 정도 잘하고 있다)	213 (10.7)	64 (12.7)	326 (16.3)	635 (31.8)	308 (15.4)	191 (9.6)	95 (17.9)	189 (35.5)	80 (15.0)	46 (8.6)
미 (보통이다)	772 (38.6)	198 (39.4)	853 (42.7)	697 (34.9)	820 (41.0)	595 (29.8)	240 (45.1)	180 (33.8)	224 (42.1)	55 (29.1)
양 (별로 못하고 있다)	688 (34.4)	164 (32.7)	496 (24.8)	348 (17.4)	542 (27.1)	713 (35.7)	128 (24.1)	88 (16.5)	149 (28.0)	192 (36.1)
가 (전혀 못하고 있다)	269 (13.5)	64 (12.7)	188 (9.4)	144 (7.2)	210 (10.5)	359 (18.0)	47 (8.8)	37 (7.0)	57 (10.7)	105 (19.7)
잘 모르겠다	50 (2.5)	10 (2.0)	104 (5.2)	99 (5.0)	97 (4.9)	113 (5.7)	13 (2.4)	9 (1.7)	16 (3.0)	26 (4.9)
계	2,000 (100.0)	502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2,000 (100.0)	532 (100.0)	532 (100.0)	532 (100.0)	532 (100.0)
평균* (표준편차)	2.49 (0.88)	2.54 (0.89)	2.75 (0.91)	3.08 (0.99)	2.68 (0.91)	2.37 (0.95)	2.79 (0.91)	3.16 (1.00)	2.67 (0.91)	2.33 (0.96)

* 이후, 〈표 III-1-10〉 및 〈표 III-1-11〉의 평균 이외의 평균은 모두 역으로 코딩된 후 산출되었으며(부정응답 1점, 긍정응답 5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평균 산출에서 제외됨



〈그림 III-1-1〉 초·중등학교에 대한 전반적 평가

3) 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 **〈질문〉** 국민들로부터 학교가 ‘수(매우 잘하고 있다)’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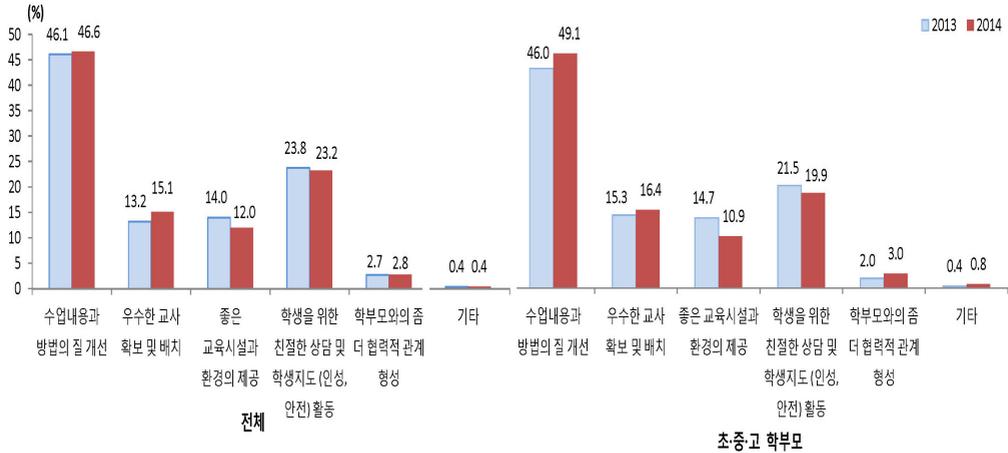
국민들로부터 학교가 ‘수(매우 잘하고 있다)’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순위로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46.6%)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학생을 위한 친절한 상담 및 학생지도 (인성, 안전) 활동(23.2%),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15.1%),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의 제공(12.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1순위와 2순위 응답 결과를 합산한 결과 역시 1순위 응답과 동일한 순서를 나타내었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역시 1순위 응답 결과 및 1순위와 2순위 합산 응답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와 동일한 순서를 나타내었다.

2013년도 전체 응답자의 1순위 응답에서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46.1%)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학생을 위한 친절한 상담 및 학생지도 (인성, 안전) 활동(23.8%),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의 제공(14.0%)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13.2%)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2014년도와 세 번째 및 네 번째 응답 순서에서 약간 차이를 보였으며,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1순위 응답 결과는 2013년도의 응답 순서와 2014년도의 응답 순서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III-1-3〉 학교가 '수' 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학교 발전 과제	2013				2014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921 (46.1)	1,398 (35.0)	231 (46.0)	348 (34.7)	932 (46.6)	1,401 (35.0)	261 (49.1)	380 (35.7)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	263 (13.2)	678 (17.0)	77 (15.3)	193 (19.2)	301 (15.1)	710 (17.8)	87 (16.4)	218 (20.5)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의 제공	279 (14.0)	681 (17.0)	74 (14.7)	175 (17.4)	239 (12.0)	658 (16.5)	58 (10.9)	176 (16.5)
학생을 위한 친절한 상담 및 학생지도 (인성, 안전) 활동	475 (23.8)	973 (24.3)	108 (21.5)	227 (22.6)	464 (23.2)	982 (24.6)	106 (19.9)	235 (22.1)
학부모와의 좀 더 협력적 관계 형성	54 (2.7)	245 (6.1)	10 (2.0)	56 (5.6)	56 (2.8)	232 (5.8)	16 (3.0)	48 (4.5)
기타	8 (0.4)	24 (0.6)	2 (0.4)	5 (0.5)	8 (0.4)	17 (0.4)	4 (0.8)	7 (0.7)
계	2,000 (100.0)	3,999 (100.0)	502 (100.0)	1,004 (100.0)	2,000 (100.0)	4,000 (100.0)	532 (100.0)	1,064 (100.0)



[그림 III-1-2] 학교가 '수' 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4) 학교 선택시 고려 사항

- <질문> 자녀가 다닐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다음의 요소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습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

자녀가 다닐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초등학교 선택시에는 전체적으로 통학거리(28.0%), 교육프로그램의 특성(22.9%), 교원의 질적 수준(17.4%), 지역 환경 및 여건(14.3%), 학교시설(8.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교육프로그램의 특성(27.2%), 교원의 질적 수준(22.6%), 통학거리(18.4%), 지역 환경 및 여건(11.8%), 학교시설(7.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 선택시에는 전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특성(31.2%), 교원의 질적 수준(29.4%), 지역 환경 및 여건(12.8%), 학교시설(7.4%), 통학거리(6.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교원의 질적 수준(32.8%), 교육프로그램의 특성(31.6%), 지역 환경 및 여건(10.9%), 통학거리(8.6%), 학교시설(5.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선택시에는 전체적으로 교원의 질적 수준(29.6%), 상급학교 진학실적(22.7%), 교육프로그램의 특성(20.9%), 학교 명성이나 전통(7.3%), 지역 환경 및 여건(6.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고등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교원의 질적 수준(27.7%), 상급학교 진학실적(23.3%), 교육프로그램의 특성(20.3%), 지역 환경 및 여건(9.9%), 학교 명성이나 전통(8.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학교 선택시에는 전체적으로 졸업생의 취업실적(32.2%), 학교 명성이나 전통(20.7%), 교원의 질적 수준(12.8%), 교육비(11.7%), 교육프로그램의 특성(11.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졸업생의 취업실적(37.0%), 학교 명성이나 전통(22.6%), 교육비(14.3%), 교육프로그램의 특성(10.6%), 교원의 질적 수준(8.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1-4〉 학교 선택시 고려 사항

학교 선택	201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체	초등학생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전체	고등학생 학부모*	전체	대학생 학부모*
학교 명성이나 전통	122 (6.1)	27 (8.9)	78 (3.9)	8 (4.6)	146 (7.3)	18 (8.9)	414 (20.7)	60 (22.6)
교원의 질적 수준	347 (17.4)	69 (22.6)	587 (29.4)	57 (32.8)	591 (29.6)	56 (27.7)	255 (12.8)	23 (8.7)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457 (22.9)	83 (27.2)	623 (31.2)	55 (31.6)	418 (20.9)	41 (20.3)	228 (11.4)	28 (10.6)
학교시설	169 (8.5)	23 (7.5)	148 (7.4)	9 (5.2)	77 (3.9)	3 (1.5)	73 (3.7)	7 (2.6)
지역 환경 및 여건	285 (14.3)	36 (11.8)	256 (12.8)	19 (10.9)	121 (6.1)	20 (9.9)	51 (2.6)	4 (1.5)
통학거리	560 (28.0)	56 (18.4)	134 (6.7)	15 (8.6)	92 (4.6)	6 (3.0)	46 (2.3)	5 (1.9)
상급 학교 진학 실적	26 (1.3)	8 (2.6)	139 (7.0)	7 (4.0)	453 (22.7)	47 (23.3)	49 (2.5)	2 (0.8)
졸업생의 취업 실적	7 (0.4)	1 (0.3)	6 (0.3)	0 (0.0)	66 (3.3)	5 (2.5)	643 (32.2)	98 (37.0)
교육비	16 (0.8)	2 (0.7)	20 (1.0)	3 (1.7)	29 (1.5)	4 (2.0)	234 (11.7)	38 (14.3)
기타	11 (0.6)	0 (0.0)	9 (0.5)	1 (0.6)	7 (0.4)	2 (1.0)	7 (0.4)	0 (0.0)
계	2,000 (100.0)	305 (100.0)	2,000 (100.0)	174 (100.0)	2,000 (100.0)	202 (100.0)	2,000 (100.0)	265 (100.0)

* 자녀유무 복수응답으로 인하여 해당 학교급의 자녀가 1명 이상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그 학교급의 학부모로 분류함

나.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1)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 〈질문〉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순위로 학습 지도 능력(44.7%)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의사

소통 능력(31.5%), 생활지도 능력(18.1%), 진로 지도 능력(5.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 결과를 합산한 결과 역시 1순위는 학습 지도 능력(30.3%)이고, 그 다음은 생활 지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진로 지도 능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역시 1순위 응답 결과 및 1순위, 2순위, 3순위 합산 응답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와 동일한 순서를 나타내었다.

〈표 III-1-5〉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교사의 능력	2014			
	전체		초·중·고 학부모	
	1순위	1+2+3순위*	1순위	1+2+3순위*
학습 지도 능력	894 (44.7)	1,818 (30.3)	254 (47.7)	496 (31.1)
생활 지도 능력	362 (18.1)	1,703 (28.4)	85 (16.0)	456 (28.6)
진로 지도 능력	100 (5.0)	909 (15.2)	21 (3.9)	237 (14.8)
의사소통 능력	630 (31.5)	1,542 (25.7)	169 (31.8)	402 (25.2)
기타	14 (0.7)	28 (0.5)	3 (0.6)	5 (0.3)
계	2,000 (100.0)	6,000 (100.0)	532 (100.0)	1,596 (100.0)

* 복수응답비율 합을 100%를 기준으로 제시함

2) 교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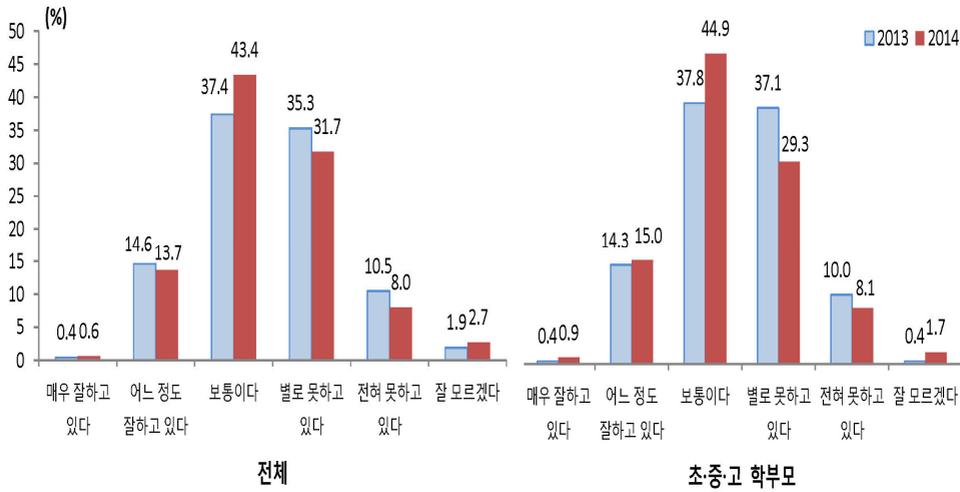
- **〈질문〉**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14.3%, 못하고 있다(별로 못하고 있다+전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39.7%, 보통이라는 응답이 43.4%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잘하고 있다 15.9%, 못하고 있다 37.4%, 보통 44.9%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잘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13년에는 15.0%, 2014년에는 14.3%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중 잘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13년 14.7%, 2014년 15.9%로 2014년이 약간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III-1-6〉 교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교사의 역할 수행	2013		2014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매우 잘하고 있다	8 (0.4)	2 (0.4)	12 (0.6)	5 (0.9)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291 (14.6)	72 (14.3)	273 (13.7)	80 (15.0)
보통이다	748 (37.4)	190 (37.8)	868 (43.4)	239 (44.9)
별로 못하고 있다	706 (35.3)	186 (37.1)	633 (31.7)	156 (29.3)
전혀 못하고 있다	209 (10.5)	50 (10.0)	160 (8.0)	43 (8.1)
잘 모르겠다	38 (1.9)	2 (0.4)	54 (2.7)	9 (1.7)
계	2,000 (100.0)	502 (100.0)	2,000 (100.0)	532 (100.0)
평균 (표준편차)	2.58 (0.88)	2.58 (0.87)	2.66 (0.84)	2.71 (0.86)



[그림 III-1-3] 교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3) 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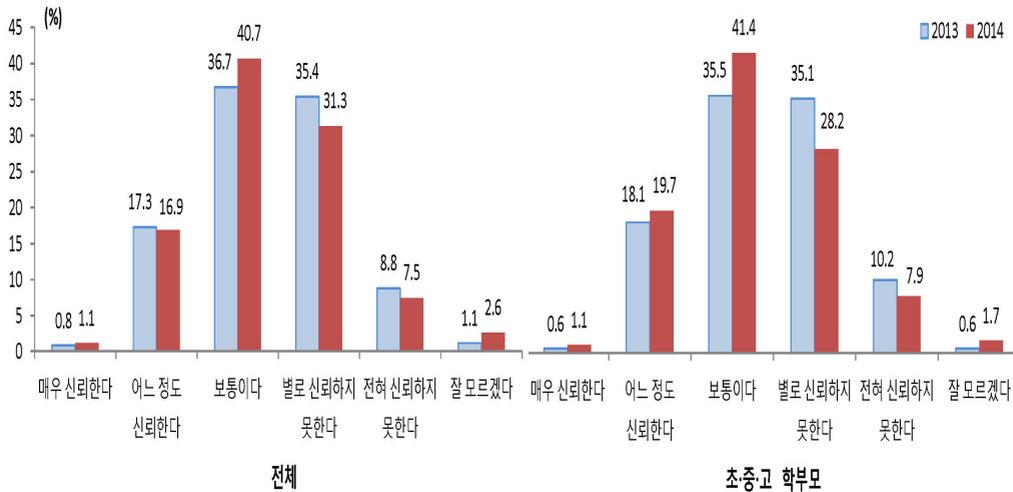
- **〈질문〉**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직자로서의 능력과 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직자로서의 능력과 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신뢰한다(매우 신뢰한다+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18.0%, 신뢰하지 못한다(별로 신뢰하지 못한다+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38.8%, 보통이라는 응답이 40.7%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신뢰한다 20.8%, 신뢰하지 못한다 36.1%, 보통 41.4%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2013년 18.1%, 2014년 18.0%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중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2013년 18.7%, 2014년 20.8%로 2014년이 약간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III-1-7〉 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

교사에 대한 신뢰	2013		2014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매우 신뢰한다	15 (0.8)	3 (0.6)	21 (1.1)	6 (1.1)
어느 정도 신뢰한다	346 (17.3)	91 (18.1)	337 (16.9)	105 (19.7)
보통이다	734 (36.7)	178 (35.5)	814 (40.7)	220 (41.4)
별로 신뢰하지 못한다	707 (35.4)	176 (35.1)	626 (31.3)	150 (28.2)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176 (8.8)	51 (10.2)	150 (7.5)	42 (7.9)
잘 모르겠다	22 (1.1)	3 (0.6)	52 (2.6)	9 (1.7)
계	2,000 (100.0)	502 (100.0)	2,000 (100.0)	532 (100.0)
평균 (표준편차)	2.65 (0.89)	2.64 (0.92)	2.72 (0.88)	2.78 (0.90)



[그림 III-1-4] 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

4) 자녀의 장래직업으로 교사 희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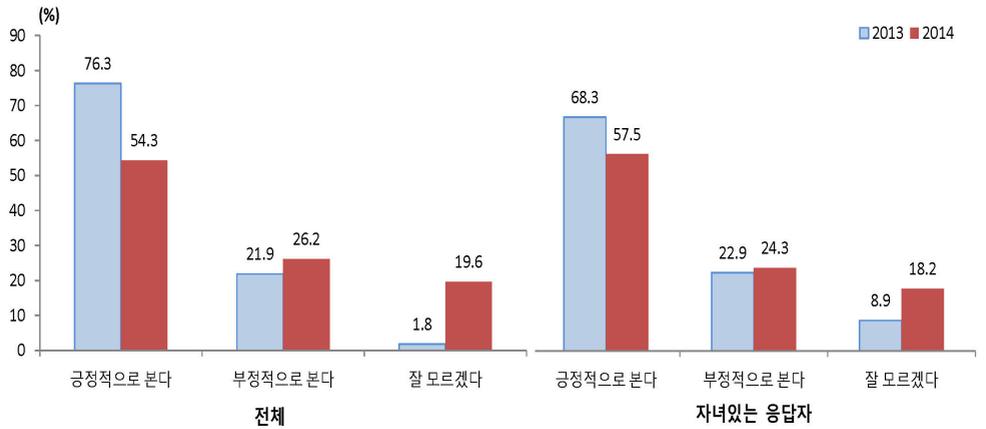
- <질문> 귀하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54.3%,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26.2%로 나타났고,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긍정적으로 본다 57.5%, 부정적으로 본다 24.3%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 비율은 2013년 76.3%, 2014년 54.3%로 2014년에 대폭 낮아졌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 비율은 2013년 68.3%, 2014년 57.5%로 2013년보다 낮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체 응답자 중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인 응답이 2013년 1.8%에서 2014년에는 19.6%로 증가하였고,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인 응답이 2013년 8.9%에서 2014년에는 18.2%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III-1-8〉 자녀의 장래직업으로 교사 희망 여부

자녀 교사 희망	2013		2014	
	전체	자녀있는 응답자	전체	자녀있는 응답자
긍정적으로 본다	1,299 (76.3)	890 (68.3)	1,085 (54.3)	776 (57.5)
부정적으로 본다	476 (21.9)	298 (22.9)	523 (26.2)	328 (24.3)
잘 모르겠다	225 (1.8)	116 (8.9)	392 (19.6)	246 (18.2)
계	2,000 (100.0)	1,304 (100.0)	2,000 (100.0)	1,350 (100.0)



[그림 III-1-5] 자녀의 장래직업으로 교사 희망 여부

다. 학생의 수준과 생활

1) 학생의 인성, 도덕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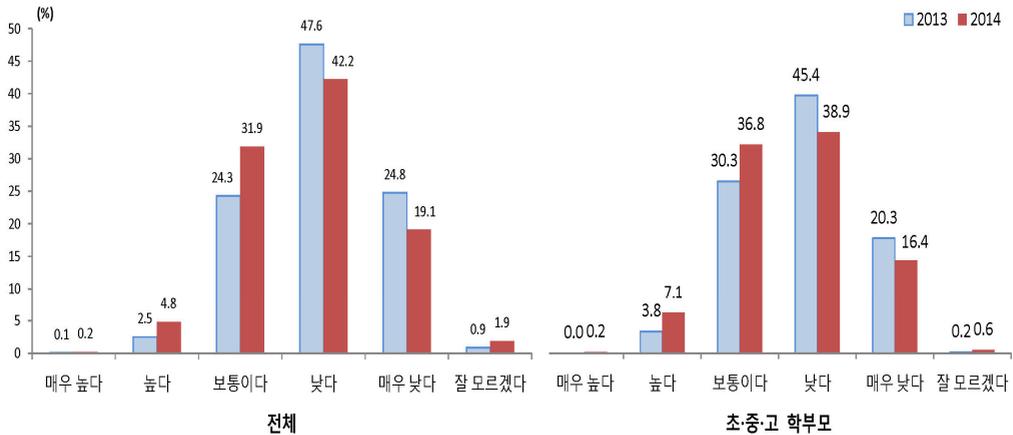
- **〈질문〉**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높다는 응답이 5.0%, 낮다는 응답이 61.3%, 보통이라는 응답이 31.9%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높다 7.3%, 낮다 55.3%, 보통 36.8%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높다는 응답 비율은 2013년 2.6%, 2014년 5.0%로 2013년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중 높다는 응답 비율은 2013년 3.8%, 2014년 7.3%로 2013년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III-1-9〉 학생의 인성, 도덕성 수준

학생의 인성·도덕성	2013		2014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매우 높다	1 (0.1)	0 (0.0)	4 (0.2)	1 (0.2)
높다	49 (2.5)	19 (3.8)	96 (4.8)	38 (7.1)
보통이다	485 (24.3)	152 (30.3)	638 (31.9)	196 (36.8)
낮다	951 (47.6)	228 (45.4)	843 (42.2)	207 (38.9)
매우 낮다	496 (24.8)	102 (20.3)	381 (19.1)	87 (16.4)
잘 모르겠다	18 (0.9)	1 (0.2)	38 (1.9)	3 (0.6)
계	2,000 (100.0)	502 (100.0)	2,000 (100.0)	532 (100.0)
평균 (표준편차)	2.05 (0.77)	2.18 (0.80)	2.23 (0.82)	2.36 (0.85)



[그림 III-1-6] 학생의 인성, 도덕성 수준

2) 학업, 경쟁 스트레스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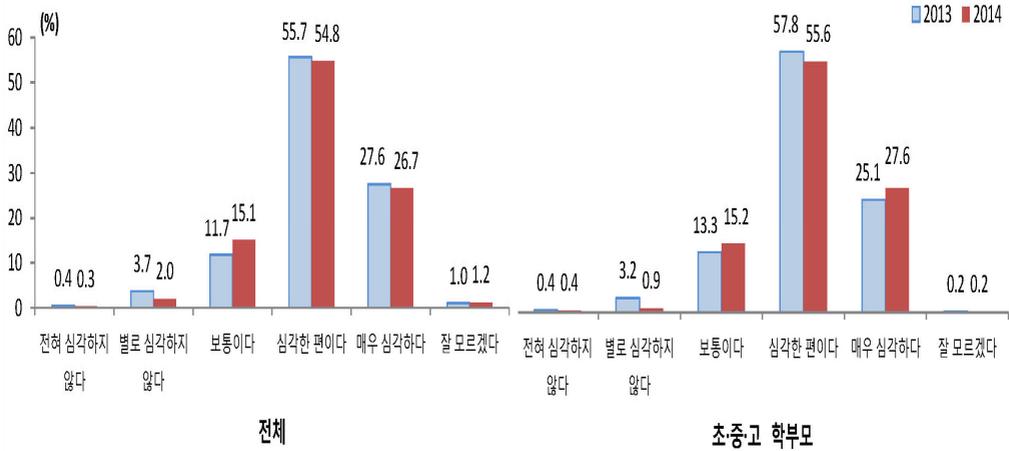
- <질문> 학업이나 경쟁으로 인하여 초·중·고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업이나 경쟁으로 인하여 초·중·고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심각하지 않다(전혀 심각하지 않다+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3%, 심각하다(심각한 편이다+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81.5%, 보통이라는 응답이 15.1%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심각하지 않다 1.3%, 심각하다 83.2%, 보통 15.2%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2013년 83.3%, 2014년 81.5%로 2013년보다 약간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중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2013년 82.9%, 2014년 83.2%로 2013년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III-1-10> 학업, 경쟁 스트레스 정도

학업·경쟁 스트레스	2013		2014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혀 심각하지 않다	7 (0.4)	2 (0.4)	5 (0.3)	2 (0.4)
별로 심각하지 않다	74 (3.7)	16 (3.2)	40 (2.0)	5 (0.9)
보통이다	234 (11.7)	67 (13.3)	302 (15.1)	81 (15.2)
심각한 편이다	1,114 (55.7)	290 (57.8)	1,096 (54.8)	296 (55.6)
매우 심각하다	552 (27.6)	126 (25.1)	534 (26.7)	147 (27.6)
잘 모르겠다	19 (1.0)	1 (0.2)	23 (1.2)	1 (0.2)
계	2,000 (100.0)	502 (100.0)	2,000 (100.0)	532 (100.0)
평균 (표준편차)	4.08 (0.76)	4.04 (0.74)	4.07 (0.72)	4.09 (0.70)



[그림 III-1-7] 학업, 경쟁 스트레스 정도

3) IT 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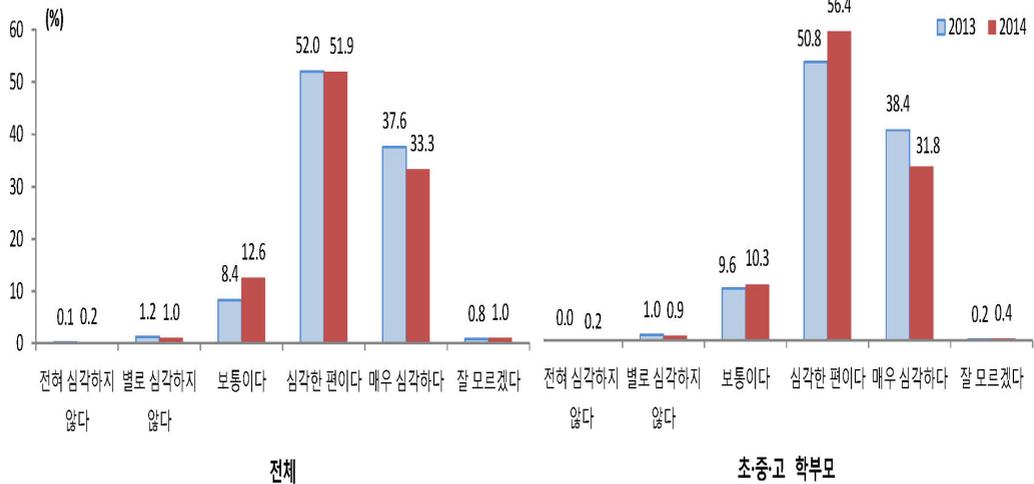
- <질문> 초·중·고 학생들의 IT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 [스마트폰, SNS, 컴퓨터게임 등]에 대한 중독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학생들의 IT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 [스마트폰, SNS, 컴퓨터게임 등]에 대한 중독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심각하지 않다(전혀 심각하지 않다+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1.2%, 심각하다(심각한 편이다+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85.2%, 보통이라는 응답이 12.6%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심각하지 않다 1.1%, 심각하다 88.2%, 보통 10.3%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2013년 89.6%, 2014년 85.2%로 2013년보다 약간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중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2013년 89.2%, 2014년 88.2%로 2013년보다 약간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III-1-11〉 IT 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수준

IT 관련 기기 중독성	2013		2014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혀 심각하지 않다	2 (0.1)	0 (0.0)	4 (0.2)	1 (0.2)
별로 심각하지 않다	24 (1.2)	5 (1.0)	20 (1.0)	5 (0.9)
보통이다	168 (8.4)	48 (9.6)	252 (12.6)	55 (10.3)
심각한 편이다	1,040 (52.0)	255 (50.8)	1,038 (51.9)	300 (56.4)
매우 심각하다	751 (37.6)	193 (38.4)	666 (33.3)	169 (31.8)
잘 모르겠다	15 (0.8)	1 (0.2)	20 (1.0)	2 (0.4)
계	2,000 (100.0)	502 (100.0)	2,000 (100.0)	532 (100.0)
평균 (표준편차)	4.27 (0.67)	4.27 (0.67)	4.18 (0.70)	4.19 (0.67)



[그림 III-1-8] IT 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수준

라. 교육의 내용과 방식

1)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

- <질문>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이 각각 무엇인지를 3가지씩 보기에서 골라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써 주십시오.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이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순위로 인성교육(61.0%)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창의성 교육(20.0%), 민주시민 교육(7.6%), 특기적성 교육(3.0%) 진로교육(2.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 결과를 합산한 결과 역시 1순위 응답과 동일한 순서를 나타내었다.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1순위로 인성교육(61.0%)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창의성 교육(21.0%), 민주시민 교육(6.6%), 진로교육(3.0%), 특기적성 교육(1.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 결과를 합산한 결과는 인성교육(27.8%)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창의성 교육(21.9%), 민주시민 교육(11.3%), 진로교육(9.9%), 특기적성 교육(6.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1순위로 인성교육(53.6%)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창의성 교육(14.9%), 민주시민 교육(7.8%), 특기적성 교육(5.8%), 진로교육(5.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 결과를 합산한 결과 역시 1순위 응답과 동일한 순서를 나타내었다.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1순위로 인성교육(50.6%)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창의성 교육(12.6%), 민주시민 교육(10.3%), 진로교육(7.5%), 특기적성 교육(6.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 결과를 합산한 결과는 인성교육(25.1%)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창의성 교육(14.6%), 진로교육(12.6%), 민주시민 교육(11.5%), 특기적성 교육(10.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순위로 인성교육(40.2%)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진로교육(19.0%), 창의성 교육(11.0%), 특기적성 교육(7.4%), 민주시민 교육(7.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 결과를 합산한 결과 역시 1순위 응답과 동일한 순서를 나타내었다.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1순위 응답

결과 및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 결과를 합산한 결과 역시 전체 응답자의 1순위 응답 순위와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12〉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

교육 내용	201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초등학생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전체		고등학생 학부모	
	1순위	1+2+3 순위	1순위	1+2+3 순위	1순위	1+2+3 순위	1순위	1+2+3 순위	1순위	1+2+3 순위	1순위	1+2+3 순위
창의성 교육	400 (20.0)	1,163 (19.4)	64 (21.0)	200 (21.9)	297 (14.9)	895 (14.9)	22 (12.6)	76 (14.6)	220 (11.0)	687 (11.5)	18 (8.9)	77 (12.7)
인성 교육	1,220 (61.0)	1,715 (28.6)	186 (61.0)	254 (27.8)	1,072 (53.6)	1,579 (26.3)	88 (50.6)	131 (25.1)	808 (40.2)	1,374 (22.9)	80 (39.6)	138 (22.8)
진로 교육	45 (2.3)	315 (5.3)	9 (3.0)	60 (6.6)	103 (5.2)	555 (9.3)	13 (7.5)	66 (12.6)	380 (19.0)	1,073 (17.9)	54 (26.7)	115 (19.0)
특기적성 교육	60 (3.0)	544 (9.1)	5 (1.6)	91 (9.9)	115 (5.8)	651 (10.9)	12 (6.9)	56 (10.7)	147 (7.4)	710 (11.8)	14 (6.9)	72 (11.9)
민주시민 교육	152 (7.6)	844 (14.1)	20 (6.6)	103 (11.3)	155 (7.8)	710 (11.8)	18 (10.3)	60 (11.5)	143 (7.2)	641 (10.7)	14 (6.9)	66 (10.9)
성 교육	32 (1.6)	299 (5.0)	5 (1.6)	41 (4.5)	91 (4.6)	466 (7.8)	6 (3.4)	35 (6.7)	80 (4.0)	349 (5.8)	3 (1.5)	22 (3.6)
환경 교육	14 (0.7)	149 (2.5)	4 (1.3)	29 (3.2)	26 (1.3)	149 (2.5)	0 (0.0)	17 (3.3)	24 (1.2)	117 (2.0)	2 (1.0)	19 (3.1)
국어 교육	22 (1.1)	126 (2.1)	4 (1.3)	18 (2.0)	23 (1.2)	127 (2.1)	3 (1.7)	13 (2.5)	22 (1.1)	125 (2.1)	4 (2.0)	16 (2.6)
외국어 교육	8 (0.4)	95 (1.6)	0 (0.0)	16 (1.7)	26 (1.3)	146 (2.4)	3 (1.7)	1 (2.9)	51 (2.6)	196 (3.3)	3 (1.5)	15 (2.5)
수학 교육	4 (0.2)	63 (1.1)	1 (0.3)	12 (1.3)	25 (1.3)	95 (1.6)	4 (2.3)	12 (2.3)	26 (1.3)	111 (1.9)	4 (2.0)	11 (1.8)
과학 교육	8 (0.4)	44 (0.7)	2 (0.7)	5 (0.5)	8 (0.4)	63 (1.1)	0 (0.0)	6 (1.1)	18 (0.9)	69 (1.2)	0 (0.0)	4 (0.7)
예체능 교육	6 (0.3)	90 (1.5)	2 (0.7)	14 (1.5)	7 (0.4)	50 (0.8)	0 (0.0)	1 (0.2)	12 (0.6)	51 (0.9)	0 (0.0)	4 (0.7)
한자 교육	3 (0.2)	44 (0.7)	1 (0.3)	9 (1.0)	2 (0.1)	44 (0.7)	1 (0.6)	3 (0.6)	4 (0.2)	49 (0.8)	0 (0.0)	5 (0.8)
안전 교육	17 (0.9)	176 (2.9)	1 (0.3)	23 (2.5)	8 (0.4)	97 (1.6)	2 (1.1)	9 (1.7)	10 (0.5)	67 (1.1)	1 (0.5)	7 (1.2)
역사 교육	8 (0.4)	292 (4.9)	1 (0.3)	36 (3.9)	41 (2.1)	345 (5.8)	2 (1.1)	18 (3.4)	60 (3.0)	353 (5.9)	5 (2.5)	32 (5.3)
다문화 교육	1 (0.1)	41 (0.7)	0 (0.0)	4 (0.4)	1 (0.1)	28 (0.5)	0 (0.0)	4 (0.8)	0 (0.0)	28 (0.5)	0 (0.0)	3 (0.5)
계	2,000 (100.0)	6,000 (100.0)	305 (100.0)	915 (100.0)	2,000 (100.0)	6,000 (100.0)	174 (100.0)	522 (100.0)	2,000 (100.0)	6,000 (100.0)	202 (100.0)	606 (100.0)

2) 영어 공교육 시작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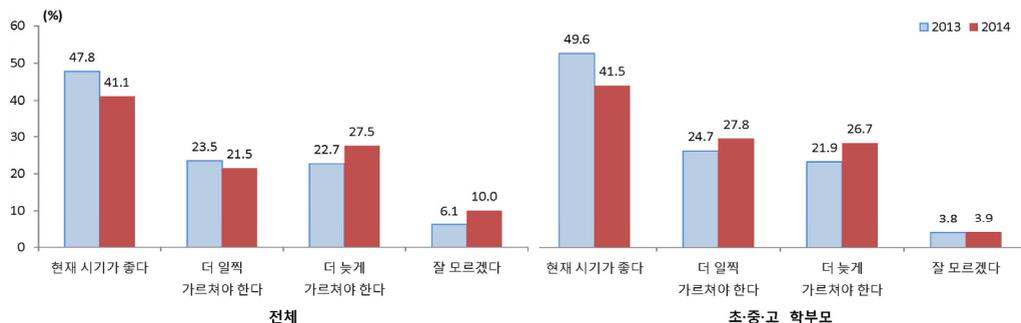
- <질문>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영어교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영어교과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시기가 좋다는 응답이 41.1%, 더 늦게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이 27.5%, 더 일찍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이 21.5%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현재 시기가 좋다 41.5%, 더 일찍 가르쳐야 한다 27.8%, 더 늦게 가르쳐야 한다 26.7%로 응답하였다.

더 늦게 가르쳐야 한다는 전체 응답자 비율 및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비율은 2013년 보다 2014년에 각각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1-13> 영어 공교육 시작 시기

영어 공교육 시기	2013		2014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현재 시기가 좋다	956 (47.8)	249 (49.6)	822 (41.1)	221 (41.5)
더 일찍 가르쳐야 한다	470 (23.5)	124 (24.7)	429 (21.5)	148 (27.8)
더 늦게 가르쳐야 한다	453 (22.7)	110 (21.9)	549 (27.5)	142 (26.7)
잘 모르겠다	121 (6.1)	19 (3.8)	200 (10.0)	21 (3.9)
계	2,000 (100.0)	502 (100.0)	2,000 (100.0)	532 (100.0)



[그림 III-1-9] 영어 공교육 시작 시기

3)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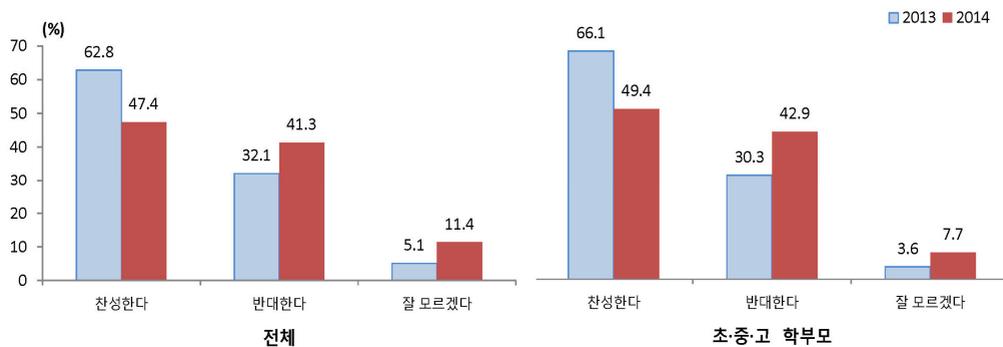
- <질문> 학생의 성적에 따라 과목별로 다르게 반을 나누어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는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의 성적에 따라 과목별로 다르게 반을 나누어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는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7.4%, 반대한다는 응답이 41.3%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역시 유사한 비율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 및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중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2013년보다 2014년에 각각 낮아졌다.

<표 III-1-14>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 의견

수준별 수업	2013		2014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찬성한다	1,256 (62.8)	332 (66.1)	948 (47.4)	263 (49.4)
반대한다	642 (32.1)	152 (30.3)	825 (41.3)	228 (42.9)
잘 모르겠다	102 (5.1)	18 (3.6)	227 (11.4)	41 (7.7)
계	2,000 (100.0)	532 (100.0)	2,000 (100.0)	532 (100.0)



[그림 III-1-10]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 의견

4)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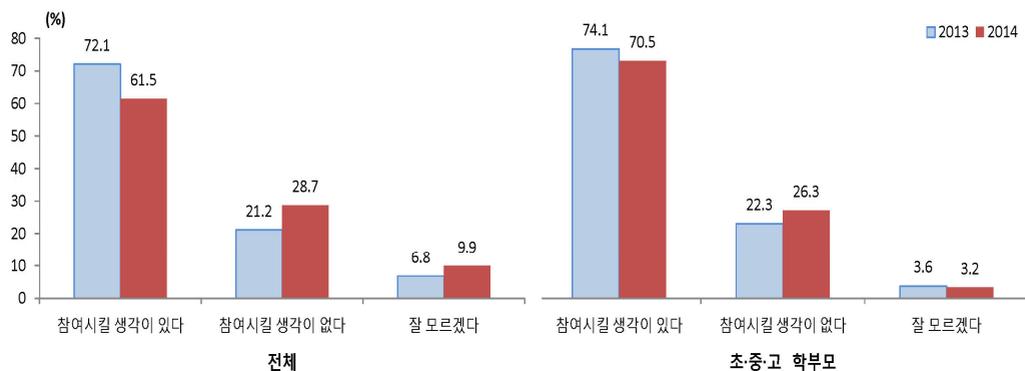
■ <질문> 귀하의 자녀를(초·중·고) 방과후학교에 참여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응답자의 자녀를(초·중·고) 방과후학교에 참여시킬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참여시킬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61.5%, 참여시킬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28.7%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참여시킬 생각이 있다 70.5%, 참여시킬 생각이 없다 26.3%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참여시킬 생각이 있다는 응답 비율 및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중 참여시킬 생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13년보다 2014년에 각각 약간씩 낮아졌다.

<표 III-1-15>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의사

방과후학교 참여	2013		2014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참여시킬 생각이 있다	1,441 (72.1)	372 (74.1)	1,229 (61.5)	375 (70.5)
참여시킬 생각이 없다	424 (21.2)	112 (22.3)	573 (28.7)	140 (26.3)
잘 모르겠다	135 (6.8)	18 (3.6)	198 (9.9)	17 (3.2)
계	2,000 (100.0)	502 (100.0)	2,000 (100.0)	532 (100.0)



[그림 III-1-11]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의사

5) 학생의 학습성취(성적) 결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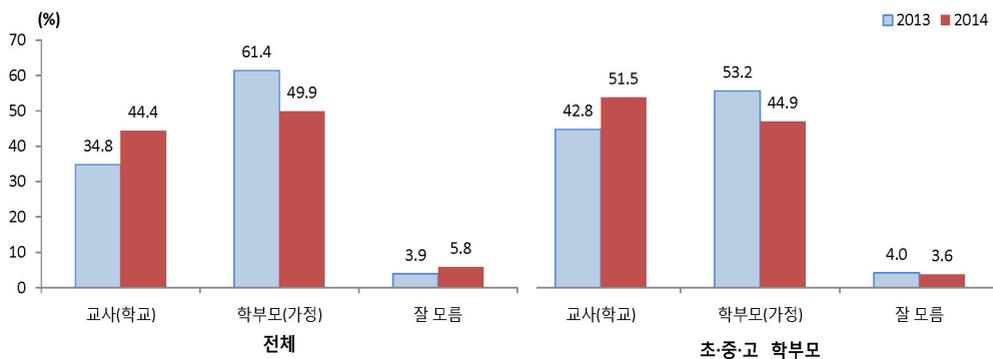
- <질문> 학생 본인 외에 학생의 학습성취(성적)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 본인 외에 학생의 학습성취(성적)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학부모(가정)라는 응답이 49.9%, 교사(학교)라는 응답이 44.4%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교사(학교) 51.5%, 학부모(가정) 44.9%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및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가 교사(학교)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보다 2014년도에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1-16> 학생의 학습성취(성적) 결정 요인

학생의 학습성취(성적)	2013		2014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교사(학교)	695 (34.8)	215 (42.8)	887 (44.4)	274 (51.5)
학부모(가정)	1,228 (61.4)	267 (53.2)	997 (49.9)	239 (44.9)
잘 모름	77 (3.9)	20 (4.0)	116 (5.8)	19 (3.6)
계	2,000 (100.0)	502 (100.0)	2,000 (100.0)	532 (100.0)



[그림 III-1-12] 학생의 학습성취(성적) 결정 요인

6) 교육별에 대한 찬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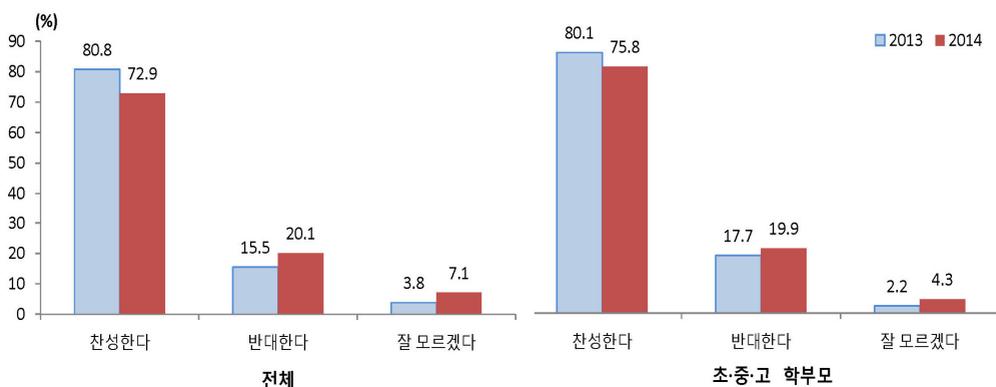
- <질문>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혼계 혼육의 교육별로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혼계 혼육의 교육별로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2.9%, 반대한다는 응답이 20.1%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찬성 75.8%, 반대 19.9%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및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보다 2014년도에 약간 낮게 나타났다.

<표 III-1-17> 교육별에 대한 찬반 의견

교육별	2013		2014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찬성한다	1,615 (80.8)	402 (80.1)	1,458 (72.9)	403 (75.8)
반대한다	310 (15.5)	89 (17.7)	401 (20.1)	106 (19.9)
잘 모르겠다	75 (3.8)	11 (2.2)	141 (7.1)	23 (4.3)
계	2,000 (100.0)	502 (100.0)	2,000 (100.0)	532 (100.0)



[그림 III-1-13] 교육별에 대한 찬반 의견

7) 학교폭력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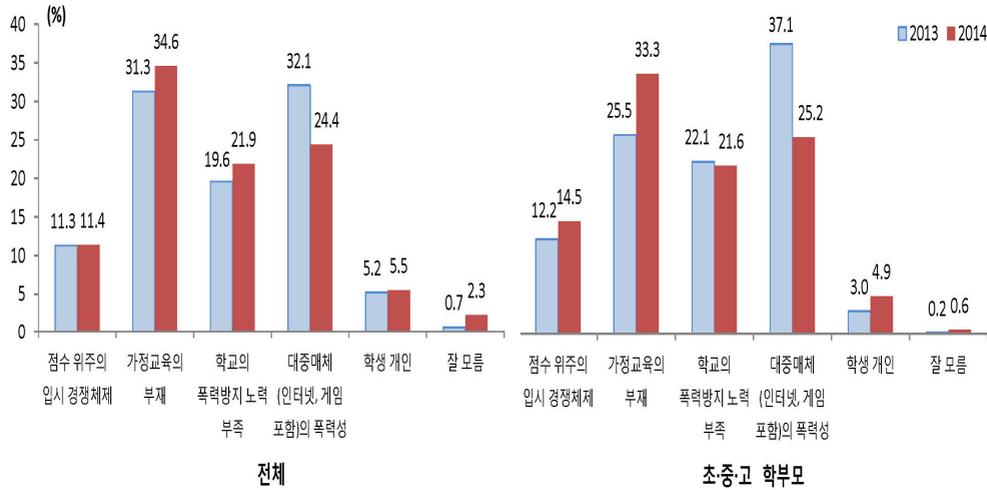
■ <질문>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정교육의 부재(34.6%), 대중매체 (인터넷, 게임 포함)의 폭력성(24.4%), 학교의 폭력방지 노력 부족(21.9%), 점수 위주의 입시 경쟁체제(11.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역시 동일한 순으로 응답하였다.

2013년에는 대중매체 (인터넷, 게임 포함)의 폭력성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응답하였고, 2014년에는 가정교육의 부재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1-18>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	2013		2014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점수 위주의 입시 경쟁체제	225 (11.3)	61 (12.2)	228 (11.4)	77 (14.5)
가정교육의 부재	625 (31.3)	128 (25.5)	691 (34.6)	177 (33.3)
학교의 폭력방지 노력 부족	392 (19.6)	111 (22.1)	437 (21.9)	115 (21.6)
대중매체 (인터넷, 게임 포함)의 폭력성	641 (32.1)	186 (37.1)	488 (24.4)	134 (25.2)
학생 개인	104 (5.2)	15 (3.0)	110 (5.5)	26 (4.9)
잘 모름	13 (0.7)	1 (0.2)	46 (2.3)	3 (0.6)
계	2,000 (100.0)	502 (100.0)	2,000 (100.0)	532 (100.0)



[그림 III-1-14] 학교폭력의 원인

8) 정부 및 학교의 학교폭력 해소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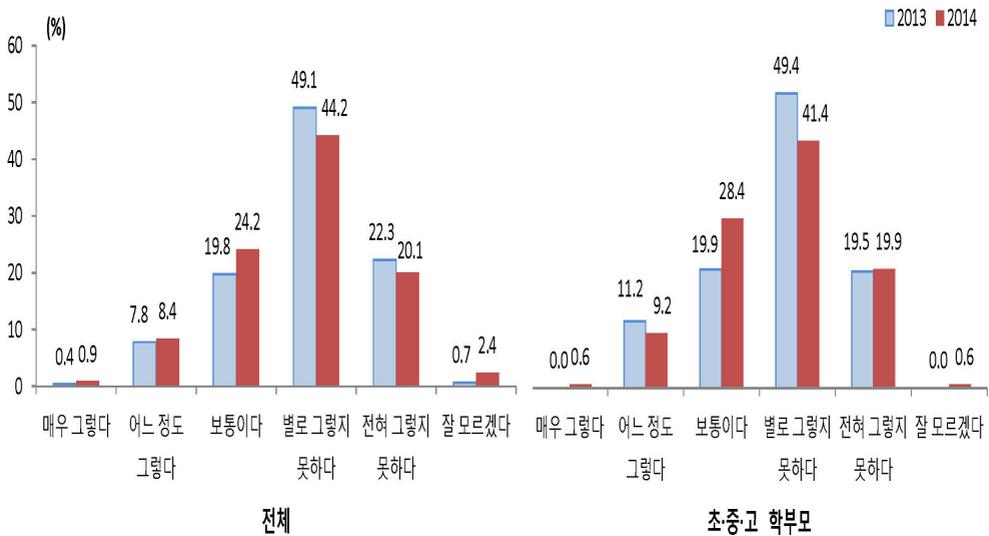
■ <질문> 정부나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를 해소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나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를 해소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다(매우 그렇다+어느 정도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9.3%, 그렇지 못하다(별로 그렇지 못하다+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64.3%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그렇다 9.8%, 그렇지 못하다 61.3%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2013년 보다 약간 더 높아졌으나 학부모 응답자 중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2013년보다 더 낮아졌다.

〈표 III-1-19〉 정부 및 학교의 학교폭력 해소 노력

학교폭력	2013		2014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매우 그렇다	8 (0.4)	0 (0.0)	17 (0.9)	3 (0.6)
어느 정도 그렇다	155 (7.8)	56 (11.2)	167 (8.4)	49 (9.2)
보통이다	396 (19.8)	100 (19.9)	483 (24.2)	151 (28.4)
별로 그렇지 못하다	982 (49.1)	248 (49.4)	884 (44.2)	220 (41.4)
전혀 그렇지 못하다	445 (22.3)	98 (19.5)	401 (20.1)	106 (19.9)
잘 모르겠다	14 (0.7)	0 (0.0)	48 (2.4)	3 (0.6)
계	2,000 (100.0)	502 (100.0)	2,000 (100.0)	532 (100.0)
평균 (표준편차)	2.14 (0.867)	2.23 (0.889)	2.24 (0.904)	2.29 (0.909)



[그림 III-1-15] 정부 및 학교의 학교폭력 해소 노력

마. 고교 정책 및 대학 입시

1) 고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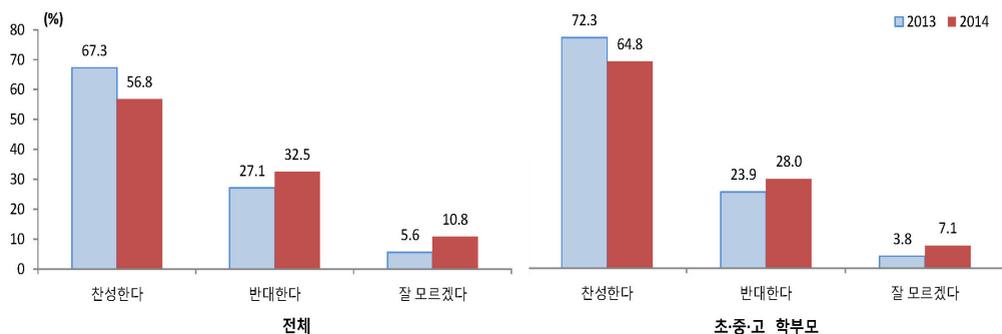
■ <질문>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6.8%, 반대한다는 응답이 32.5%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찬성 64.8%, 반대 28.0%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 및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중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2013년보다 2014년이 더 낮게 나타났다.

<표 III-1-20> 고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고교 평준화정책	2013		2014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찬성한다	1,346 (67.3)	363 (72.3)	1,136 (56.8)	345 (64.8)
반대한다	542 (27.1)	120 (23.9)	649 (32.5)	149 (28.0)
잘 모르겠다	112 (5.6)	19 (3.8)	215 (10.8)	38 (7.1)
계	2,000 (100.0)	502 (100.0)	2,000 (100.0)	532 (100.0)



[그림 III-1-16] 고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2) 고교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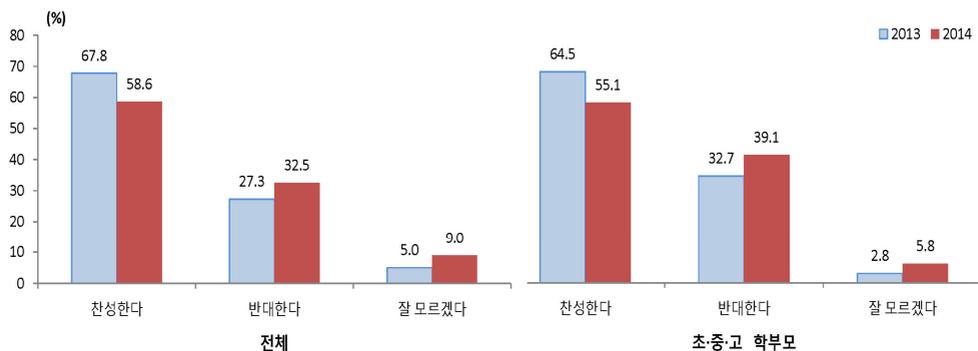
- <질문>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마이스터고교, 특성화고교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마이스터고교, 특성화고교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8.6%, 반대한다는 응답이 32.5%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찬성 55.1%, 반대 39.1%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 및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중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2013년보다 2014년이 더 낮게 나타났다.

<표 III-1-21> 고교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고교 다양화 정책	2013		2014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찬성한다	1,355 (67.8)	24 (64.5)	1,171 (58.6)	293 (55.1)
반대한다	545 (27.3)	164 (32.7)	650 (32.5)	208 (39.1)
잘 모르겠다	100 (5.0)	14 (2.8)	179 (9.0)	31 (5.8)
계	2,000 (100.0)	502 (100.0)	2,000 (100.0)	532 (100.0)



[그림 III-1-17] 고교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3)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판단을 통한 학생 선발 확대에 대한 의견

- <질문> 대학입시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입시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렇다(매우 그렇다+어느 정도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이 44.5%,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1.8%, 보통이라는 응답이 29.3%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도 그렇다 45.9%, 그렇지 않다 22.6%, 보통 29.1%로 전체 응답자와 유사한 비율로 응답하였다.

<표 III-1-22>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판단을 통한 학생 선발 확대에 대한 의견

학교생활기록부 활용 선발 확대	2014	
	전체	초·중·고 학부모
매우 그렇다	144 (7.2)	45 (8.5)
어느 정도 그렇다	746 (37.3)	199 (37.4)
보통이다	585 (29.3)	155 (29.1)
별로 그렇지 않다	356 (17.8)	94 (17.7)
전혀 그렇지 않다	79 (4.0)	26 (4.9)
잘 모르겠다	90 (4.5)	13 (2.4)
계	2,000 (100.0)	532 (100.0)
평균 (표준편차)	3.27 (0.99)	3.28 (1.02)

4) 대학입학전형 중요 반영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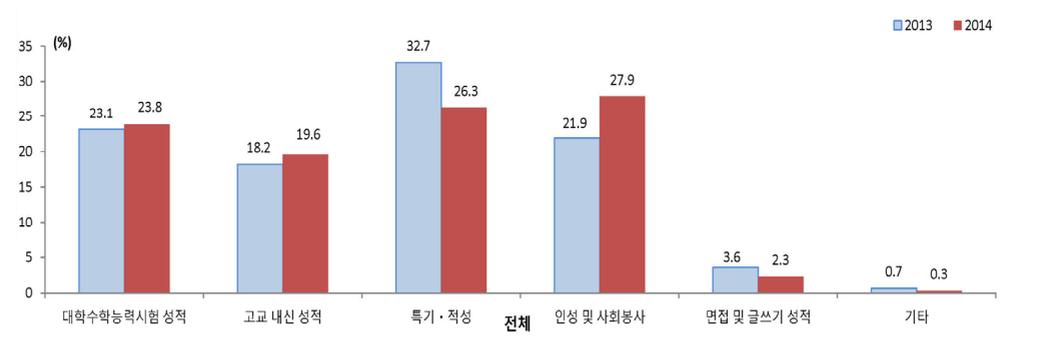
- <질문> 다음 중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성 및 사회봉사(27.9%), 특기·적성(26.3%),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23.8%), 고교 내신 성적(19.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역시 동일한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학생 학부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33.2%), 인성 및 사회봉사(26.4%), 고교 내신 성적(20.4%) 특기·적성(18.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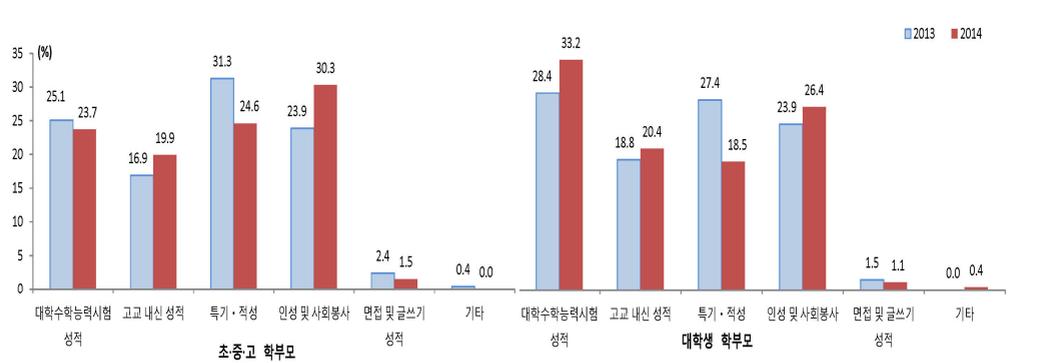
2013년의 전체 응답자와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응답 순서는 2014와 각각 다른 순서를 나타내었다.

<표 III-1-23> 대학입학전형 중요 반영 항목

대학입학전형	2013			2014		
	전체	초·중·고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대학생 학부모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461 (23.1)	126 (25.1)	56 (28.4)	476 (23.8)	126 (23.7)	88 (33.2)
고교 내신 성적	364 (18.2)	85 (16.9)	37 (18.8)	391 (19.6)	106 (19.9)	54 (20.4)
특기·적성	654 (32.7)	157 (31.3)	54 (27.4)	525 (26.3)	131 (24.6)	49 (18.5)
인성 및 사회봉사	437 (21.9)	120 (23.9)	47 (23.9)	557 (27.9)	161 (30.3)	70 (26.4)
면접 및 글쓰기 성적	71 (3.6)	12 (2.4)	3 (1.5)	46 (2.3)	8 (1.5)	3 (1.1)
기타	13 (0.7)	2 (0.4)	0 (0.0)	5 (0.3)	0 (0.0)	1 (0.4)
계	2,000 (100.0)	502 (100.0)	197 (100.0)	2,000 (100.0)	532 (100.0)	265 (100.0)



[그림 III-1-18] 대학입학전형 중요 반영 항목: 전체



[그림 III-1-19] 대학입학전형 중요 반영 항목: 초·중·고 학부모 및 대학생 학부모

바. 교육 복지

1)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 <질문> 초·중·고 학생들 중 다음의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 학생들 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대체로 중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80.4%, 중요하지 않다(별로 중요하지 않다+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2.7%, 보통이라는 응답이 14.5%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중요하다 78.8%,

중요하지 않다 3.0%, 보통 16.7%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생들 중 결손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76.0%,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3%, 보통이라는 응답이 17.3%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중요하다 73.8%, 중요하지 않다 5.2%, 보통 19.2%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생들 중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59.3%,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0.7%, 보통이라는 응답이 27.5%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중요하다 57.4%, 중요하지 않다 12.4%, 보통 28.9%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생들 중 탈북주민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58.8%,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1.3%, 보통이라는 응답이 27.1%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중요하다 56.8%, 중요하지 않다 12.8%, 보통 28.9%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생들 중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76.3%,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2%, 보통이라는 응답이 15.8%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중요하다 73.7%, 중요하지 않다 5.6%, 보통 19.5%로 나타났다.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았고, 특히 저소득층, 장애학생, 결손가정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1-24〉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교육취약계층	2014									
	저소득층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탈북주민가정		장애	
	전체	초·중·고 학부모								
매우 중요하다	705 (35.3)	185 (34.8)	636 (31.8)	146 (27.4)	379 (19.0)	95 (17.9)	383 (19.2)	94 (17.7)	764 (38.2)	191 (35.9)
대체로 중요하다	902 (45.1)	234 (44.0)	883 (44.2)	247 (46.4)	806 (40.3)	210 (39.5)	791 (39.6)	208 (39.1)	762 (38.1)	201 (37.8)
보통이다	290 (14.5)	89 (16.7)	345 (17.3)	102 (19.2)	550 (27.5)	154 (28.9)	541 (27.1)	154 (28.9)	316 (15.8)	104 (19.5)
별로 중요 하지 않다	44 (2.2)	14 (2.6)	70 (3.5)	22 (4.1)	159 (8.0)	55 (10.3)	166 (8.3)	51 (9.6)	63 (3.2)	22 (4.1)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0 (0.5)	2 (0.4)	16 (0.8)	6 (1.1)	54 (2.7)	11 (2.1)	60 (3.0)	17 (3.2)	40 (2.0)	8 (1.5)
잘 모르겠다	49 (2.5)	8 (1.5)	50 (2.5)	9 (1.7)	52 (2.6)	7 (1.3)	59 (3.0)	8 (1.5)	55 (2.8)	6 (1.1)
계	2,000 (100.0)	532 (100.0)								
평균 (표준편차)	4.15 (0.79)	4.12 (0.81)	4.05 (0.85)	3.97 (0.86)	3.67 (0.97)	3.62 (0.97)	3.65 (0.99)	3.59 (1.00)	4.10 (0.93)	4.04 (0.93)

2) 무상급식 지원 범위

- 〈질문〉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41.6%),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27.9%),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27.1%)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54.4%),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28.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16.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37.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31.4%),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28.3%)의 순으로 응답하였

고,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50.6%),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27.6%),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21.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33.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33.8%),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28.2%)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고등학생 학부모 응답자 역시 전체 응답자와 유사한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1-25〉 무상급식 지원 범위

무상 급식	2014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초등학생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전체	고등학생 학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558 (27.9)	49 (16.1)	628 (31.4)	37 (21.3)	675 (33.8)	66 (32.7)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	542 (27.1)	87 (28.5)	565 (28.3)	48 (27.6)	564 (28.2)	54 (26.7)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832 (41.6)	166 (54.4)	744 (37.2)	88 (50.6)	675 (33.8)	79 (39.1)
잘 모르겠다	68 (3.4)	3 (1.0)	63 (3.2)	1 (0.6)	86 (4.3)	3 (1.5)
계	2,000 (100.0)	305 (100.0)	2,000 (100.0)	174 (100.0)	2,000 (100.0)	202 (100.0)

3)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 순위

- 〈질문〉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정지원해 주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들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정지원해 주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순위로 방과후학교 교육비(자유수강

권)(46.3%)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21.8%),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16.4%), 학교급식비(14.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1순위, 2순위 응답 결과를 합산한 결과는 방과후학교 교육비(자유 수강권)(34.7%),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22.7%), 학교급식비(21.3%),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1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부모 응답자는 1순위로 방과후학교 교육비(자유 수강권)(43.0%)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21.6%),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20.7%), 학교급식비(14.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등학교 학부모 응답자의 1순위, 2순위 응답 결과를 합산한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순위와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학생들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정지원해 주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순위로 방과후학교 교육비(자유 수강권)(46.5%)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28.7%),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23.4%), 학교급식비(1.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1순위, 2순위 응답 결과를 합산한 결과는 1순위 응답 결과와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1순위로 방과후학교 교육비(자유 수강권)(44.8%)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28.2%),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26.4%), 학교급식비(0.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1순위, 2순위 응답 결과를 합산한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1순위 응답결과와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들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정지원해 주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순위로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51.8%)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학교급식비(29.0%),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10.4%), 방과후학교 교육비(자유 수강권)(8.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1순위, 2순위 응답 결과를 합산한 결과는 1순위 응답 결과와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1순위 응답 결과 및 중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1순위, 2순위 응답 결과를 합산한 결과 역시 전체 응답자의 1순위 응답결과와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26〉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순위

저소득층 재정지원	2014							
	초등학생				중학생			
	전체		초등학생 학부모		전체		중학생 학부모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435 (21.8)	908 (22.7)	63 (20.7)	128 (21.0)	574 (28.7)	1,268 (31.7)	46 (26.4)	102 (29.3)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	327 (16.4)	796 (19.9)	66 (21.6)	163 (26.7)	468 (23.4)	1,187 (29.7)	49 (28.2)	122 (35.1)
방과후학교 교육비 (자유 수강권)	926 (46.3)	1,386 (34.7)	131 (43.0)	195 (32.0)	930 (46.5)	1,491 (37.3)	78 (44.8)	123 (35.3)
학교급식비	290 (14.5)	853 (21.3)	44 (14.4)	123 (20.2)	27 (1.4)	50 (1.3)	1 (0.6)	1 (0.3)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비용	21 (1.1)	52 (1.3)	1 (0.3)	1 (0.2)	0 (0.0)	2 (0.1)	0 (0.0)	0 (0.0)
기타	1 (0.1)	5 (0.1)	0 (0.0)	0 (0.0)	1 (0.1)	2 (0.1)	0 (0.0)	0 (0.0)
계	2,000 (100.0)	4,000 (100.0)	305 (100.0)	610 (100.0)	2,000 (100.0)	4,000 (100.0)	174 (100.0)	348 (100.0)
저소득층 재정지원	고등학생							
	전체		고등학생 학부모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1,036 (51.8)	1,576 (39.4)	106 (52.5)	159 (39.4)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	208 (10.4)	734 (18.4)	17 (8.4)	67 (16.6)				
방과후학교 교육비 (자유 수강권)	173 (8.7)	595 (14.9)	10 (5.0)	58 (14.4)				
학교급식비	579 (29.0)	1,086 (27.2)	68 (33.7)	119 (29.5)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비용	3 (0.2)	7 (0.2)	1 (0.5)	1 (0.2)				
기타	1 (0.1)	2 (0.1)	0 (0.0)	0 (0.0)				
계	2,000 (100.0)	4,000 (100.0)	202 (100.0)	404 (100.0)				

4)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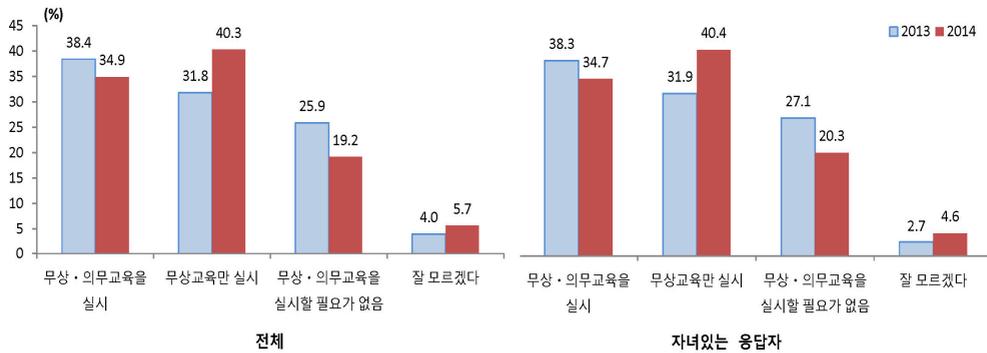
- **〈질문〉** 현재 의무교육의 원칙(강제성, 무상성, 보편성)에 따라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처럼 고등학교에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의무교육의 원칙(강제성, 무상성, 보편성)에 따라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처럼 고등학교에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등학교는 무상교육만 실시할 필요가 있다(40.3%), 고등학교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34.9%), 고등학교는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19.2%)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자녀가 있는 응답자 역시 동일한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2013년에는 고등학교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던 반면, 2014년에는 고등학교는 무상교육만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1-27〉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의견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2013		2014	
	전체	자녀 있는 응답자	전체	자녀 있는 응답자
무상·의무교육을 실시	767 (38.4)	499 (38.3)	697 (34.9)	469 (34.7)
무상교육만 실시	635 (31.8)	416 (31.9)	806 (40.3)	545 (40.4)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음	518 (25.9)	354 (27.1)	383 (19.2)	274 (20.3)
잘 모르겠다	80 (4.0)	35 (2.7)	114 (5.7)	62 (4.6)
계	2,000 (100.0)	1,304 (100.0)	2,000 (100.0)	1,350 (100.0)



[그림 III-1-20]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의견

5) 국가재원 투자 우선순위

- <질문>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다음 중 어느 분야에 가장 먼저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어느 분야에 가장 먼저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29.6%), 고등학교 무상 교육화(20.2%), 0~5세 유아 보육 및 교육 무상화(16.2%),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확대(14.2%), 노후 시설 보수·개선(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있는 응답자 역시 동일한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1-28> 국가재원 투자 우선순위

국가재원 투자 우선순위	2014	
	전체	자녀 있는 응답자
0~5세 유아 보육 및 교육 무상화	323 (16.2)	223 (16.5)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확대	284 (14.2)	203 (15.0)
고등학교 무상 교육화	403 (20.2)	278 (20.6)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	592 (29.6)	368 (27.3)
노후 시설 보수·개선	297 (14.9)	224 (16.6)
잘 모르겠다	101 (5.1)	54 (4.0)
계	2,000 (100.0)	1,350 (100.0)

사. 대학의 운영과 대학교의 질

1) 대학교육의 인재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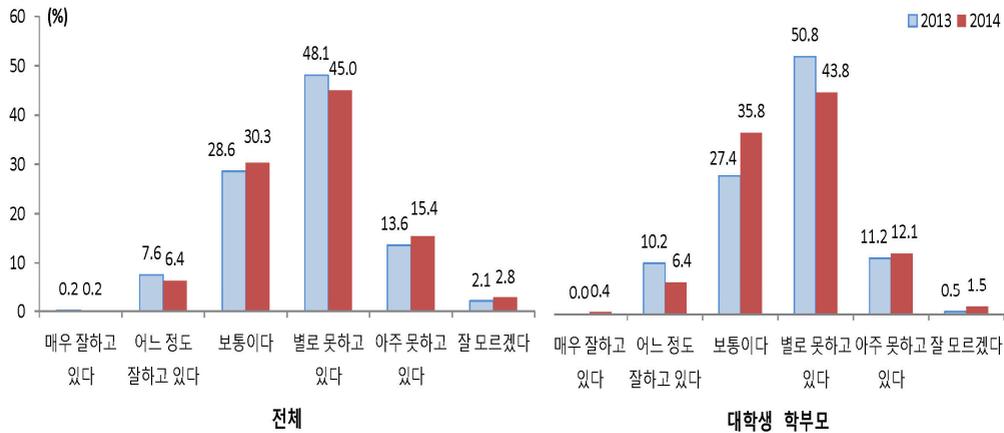
- <질문> 우리나라의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얼마나 잘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얼마나 잘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6.6%, 못하고 있다(별로 못하고 있다+아주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60.4%, 보통이라는 응답이 30.3%로 나타났고,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잘하고 있다 6.8%, 못하고 있다 55.9%, 보통이라는 응답이 35.8%로 응답하였다.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2013년 응답 수준과 2014년 응답 수준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1-29> 대학교육의 인재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대학교육 인재양성 기능	2013		2014	
	전체	대학생 학부모	전체	대학생 학부모
매우 잘하고 있다	3 (0.2)	0 (0.0)	4 (0.2)	1 (0.4)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151 (7.6)	20 (10.2)	127 (6.4)	17 (6.4)
보통이다	572 (28.6)	54 (27.4)	606 (30.3)	95 (35.8)
별로 못하고 있다	961 (48.1)	100 (50.8)	900 (45.0)	116 (43.8)
아주 못하고 있다	272 (13.6)	22 (11.2)	308 (15.4)	32 (12.1)
잘 모르겠다	41 (2.1)	1 (0.5)	55 (2.8)	4 (1.5)
계	2,000 (100.0)	197 (100.0)	2,000 (100.0)	265 (100.0)
평균 (표준편차)	2.31 (0.81)	2.38 (0.83)	2.29 (0.82)	2.38 (0.80)



[그림 III-1-21] 대학교육의 인재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2) 대학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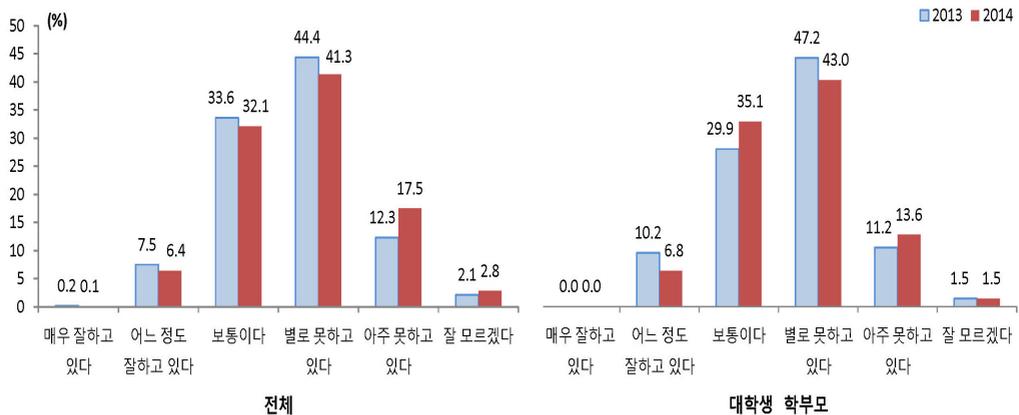
- <질문>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6.5%, 못하고 있다(별로 못하고 있다+아주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58.8%, 보통이라는 응답이 32.1%로 나타났고,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잘하고 있다 6.8%, 못하고 있다 56.6%, 보통이라는 응답이 35.1%로 응답하였다.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2013년 응답 수준에 비해 2014년 응답 수준이 약간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0〉 대학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대학교수 역할 수행	2013		2014	
	전체	대학생 학부모	전체	대학생 학부모
매우 잘하고 있다	3 (0.2)	0 (0.0)	1 (0.1)	0 (0.0)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149 (7.5)	20 (10.2)	127 (6.4)	18 (6.8)
보통이다	672 (33.6)	59 (29.9)	641 (32.1)	93 (35.1)
별로 못하고 있다	888 (44.4)	93 (47.2)	826 (41.3)	114 (43.0)
아주 못하고 있다	246 (12.3)	22 (11.2)	350 (17.5)	36 (13.6)
잘 모르겠다	42 (2.1)	3 (1.5)	55 (2.8)	4 (1.5)
계	2,000 (100.0)	197 (100.0)	2,000 (100.0)	265 (100.0)
평균 (표준편차)	2.37 (0.80)	2.40 (0.82)	2.36 (0.80)	1.84 (0.81)



[그림 III-1-22] 대학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3) 대학 재정의 투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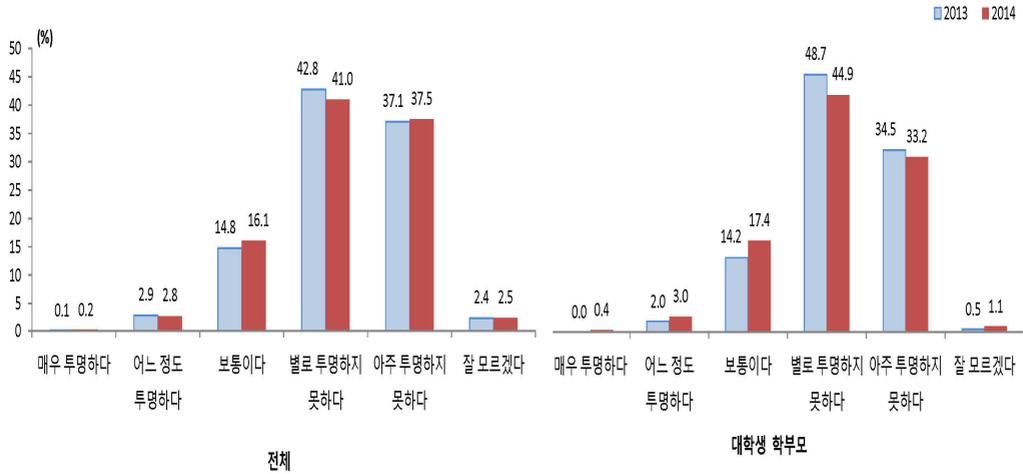
■ <질문> 대학에서 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에서 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투명하다(매우 투명하다+어느 정도 투명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3.0%, 투명하지 못하다(별로 투명하지 못하다+아주 투명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78.5%, 보통이라는 응답이 16.1%로 나타났고,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투명하다 3.4%, 투명하지 못하다 78.1%, 보통이라는 응답이 17.4%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2014년 응답 수준은 2013년 응답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1> 대학 재정의 투명성

대학 재정	2013		214	
	전체	대학생 학부모	전체	대학생 학부모
매우 투명하다	2 (0.1)	0 (0.0)	3 (0.2)	1 (0.4)
어느 정도 투명하다	57 (2.9)	4 (2.0)	56 (2.8)	8 (3.0)
보통이다	295 (14.8)	28 (14.2)	321 (16.1)	46 (17.4)
별로 투명하지 못하다	856 (42.8)	96 (48.7)	820 (41.0)	119 (44.9)
아주 투명하지 못하다	742 (37.1)	68 (34.5)	750 (37.5)	88 (33.2)
잘 모르겠다	48 (2.4)	1 (0.5)	50 (2.5)	3 (1.1)
계	2,000 (100.0)	197 (100.0)	2,000 (100.0)	265 (100.0)
평균 (표준편차)	1.83 (0.79)	1.84 (0.74)	1.84 (0.81)	1.91 (0.81)



[그림 III-1-23] 대학 재정의 투명성

4) 자녀 대학입학시 등록금 부담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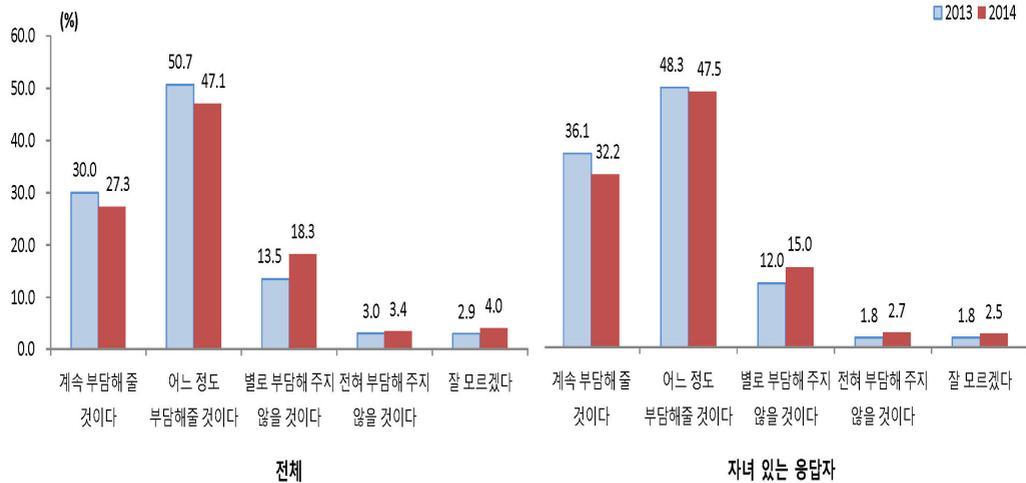
- <질문> 귀하의 자녀가 내년에 대학에 입학한다면 졸업시까지 계속 대학등록금을 부담 하시겠습니까?

응답자의 자녀가 내년에 대학에 입학한다면 졸업시까지 계속 대학등록금을 부담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해줄 것이다(47.1%), 계속 부담해 줄 것이다(27.3%), 별로 부담해 주지 않을 것이다(18.3%), 전혀 부담해 주지 않을 것이다(3.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자녀가 있는 응답자 역시 동일한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및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계속 부담해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2014년이 2013년에 비해 감소한 경향이 나타났고, 별로 부담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증가한 경향이 나타났다.

〈표 III-1-32〉 자녀 대학입학시 등록금 부담 의향

대학입학 등록금	2013		2014	
	전체	자녀 있는 응답자	전체	자녀 있는 응답자
계속 부담해 줄 것이다	600 (30.0)	471 (36.1)	546 (27.3)	435 (32.2)
어느 정도 부담해줄 것이다	1,014 (50.7)	630 (48.3)	942 (47.1)	641 (47.5)
별로 부담해 주지 않을 것이다	269 (13.5)	157 (12.0)	365 (18.3)	203 (15.0)
전혀 부담해 주지 않을 것이다	59 (3.0)	23 (1.8)	68 (3.4)	37 (2.7)
잘 모르겠다	58 (2.9)	23 (1.8)	79 (4.0)	34 (2.5)
계	2,000 (100.0)	1,304 (100.0)	2,000 (100.0)	1,350 (100.0)



[그림 III-1-24] 자녀 대학입학시 등록금 부담 의향

5) 자녀 대학졸업 후 구직성공 가능성

- <질문> 귀하의 자녀가 내년에 대학에 입학한다고 가정할 때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의 자녀가 내년에 대학에 입학한다고 가정할 때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18.6%,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32.8%, 보통이라는 응답이 41.0%로 나타났고,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그렇다 20.5%, 그렇지 않다 31.6%, 보통 41.5%로 응답하였다.

<표 III-1-33> 자녀 대학졸업 후 구직성공 가능성

대학 졸업 후 구직	2014	
	전체	자녀 있는 응답자
매우 그렇다	52 (2.6)	36 (2.7)
그렇다	319 (16.0)	240 (17.8)
보통이다	820 (41.0)	560 (41.5)
그렇지 않다	509 (25.5)	336 (24.9)
전혀 그렇지 않다	146 (7.3)	91 (6.7)
잘 모르겠다	154 (7.7)	87 (6.4)
계	2,000 (100.0)	1,350 (100.0)
평균 (표준편차)	2.80 (0.91)	2.83 (0.91)

아. 학교교육의 현안과 미래

1)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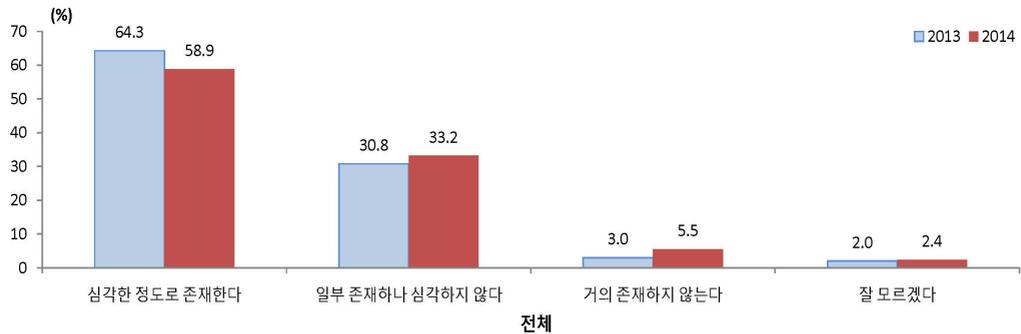
- **〈질문〉**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58.9%),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33.2%),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5.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각 학력별로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졸 이상의 응답자는 중졸이하의 응답자보다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전체 응답자의 응답 비율은 2013년 64.3%에서 2014년 58.9%로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1-34〉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대학졸업장 유무 차별성	2013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대학원졸
심각한 정도로 존재한다	1,285 (64.3)	36 (55.4)	567 (68.1)	581 (62.1)	101 (60.1)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615 (30.8)	24 (36.9)	223 (26.8)	307 (32.8)	61 (36.3)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60 (3.0)	2 (3.1)	24 (2.9)	29 (3.1)	5 (3.0)
잘 모르겠다	40 (2.0)	3 (4.6)	18 (2.2)	18 (1.9)	1 (0.6)
계	2,000 (100.0)	65 (100.0)	832 (100.0)	935 (100.0)	168 (100.0)
대학졸업장 유무 차별성	2014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대학원졸
심각한 정도로 존재한다	1,178 (58.9)	44 (44.4)	284 (62.7)	745 (58.8)	105 (57.7)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664 (33.2)	44 (44.4)	136 (30.0)	422 (33.3)	62 (34.1)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110 (5.5)	5 (5.1)	21 (4.6)	70 (5.5)	14 (7.7)
잘 모르겠다	48 (2.4)	6 (6.1)	12 (2.6)	29 (2.3)	1 (0.5)
계	2,000 (100.0)	99 (100.0)	453 (100.0)	1,266 (100.0)	182 (100.0)



[그림 III-1-25]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2)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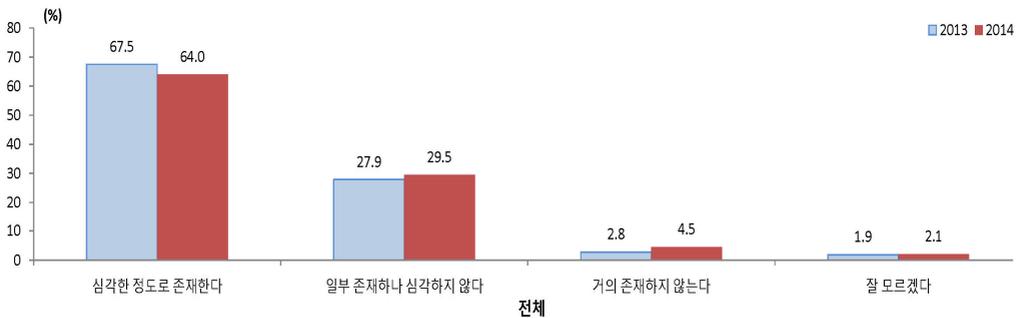
- <질문> 현재 한국사회에서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국사회에서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64.0%),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29.5%),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4.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각 학력별로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졸 이상의 응답자는 중졸이하의 응답자보다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전체 응답자의 응답 비율은 2013년 67.5%에서 2014년 64.0%로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1-35〉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성	2013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대학원졸
심각한 정도로 존재한다	1,349 (67.5)	37 (56.9)	584 (70.2)	617 (66.0)	111 (66.1)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557 (27.9)	24 (36.9)	205 (24.6)	274 (29.3)	54 (32.1)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56 (2.8)	1 (1.5)	24 (2.9)	28 (3.0)	3 (1.8)
잘 모르겠다	38 (1.9)	3 (4.6)	19 (2.3)	16 (1.7)	0 (0.0)
계	2,000 (100.0)	65 (100.0)	832 (100.0)	935 (100.0)	168 (100.0)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성	2014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대학원졸
심각한 정도로 존재한다	1,279 (64.0)	56 (56.6)	293 (64.7)	813 (64.2)	117 (64.3)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590 (29.5)	36 (36.4)	123 (27.2)	376 (29.7)	55 (30.2)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90 (4.5)	2 (2.0)	20 (4.4)	59 (4.7)	9 (4.9)
잘 모르겠다	41 (2.1)	5 (5.1)	17 (3.8)	18 (1.4)	1 (0.5)
계	2,000 (100.0)	99 (100.0)	453 (100.0)	1,266 (100.0)	182 (100.0)



[그림 III-1-26]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3)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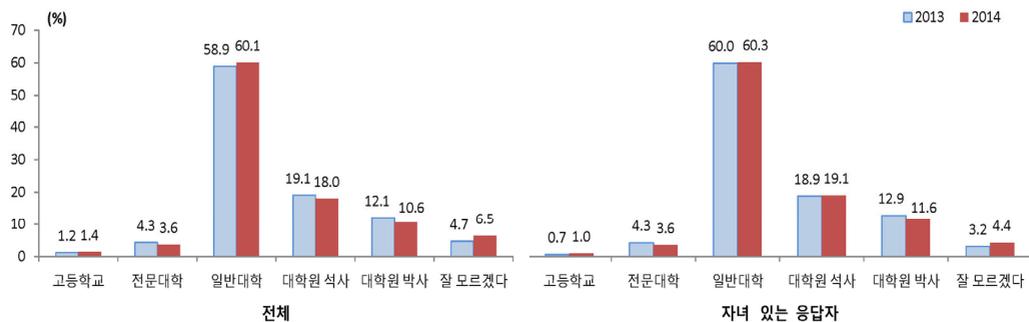
■ <질문> 귀하의 자녀가 어느 단계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응답자의 자녀가 어느 단계까지 교육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반대학(60.1%), 대학원 석사(18.0%), 대학원 박사(10.6%), 전문대학(3.6%), 고등학교(1.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자녀가 있는 응답자 역시 동일한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및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2013년과 2014년 응답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응답 순위별 응답 비율 역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6>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수준

교육 기대수준	2013		2014	
	전체	자녀 있는 응답자	전체	자녀 있는 응답자
고등학교	23 (1.2)	9 (0.7)	27 (1.4)	13 (1.0)
전문대학	85 (4.3)	56 (4.3)	71 (3.6)	49 (3.6)
일반대학	1,177 (58.9)	782 (60.0)	1,202 (60.1)	814 (60.9)
대학원 석사	381 (19.1)	247 (18.9)	360 (18.0)	258 (19.1)
대학원 박사	241 (12.1)	168 (12.9)	211 (10.6)	156 (11.6)
잘 모르겠다	93 (4.7)	42 (3.2)	129 (6.5)	60 (4.4)
계	2,000 (100.0)	1,304 (100.0)	2,000 (100.0)	1,350 (100.0)



[그림 III-1-27]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수준

4) 자녀의 특화된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진학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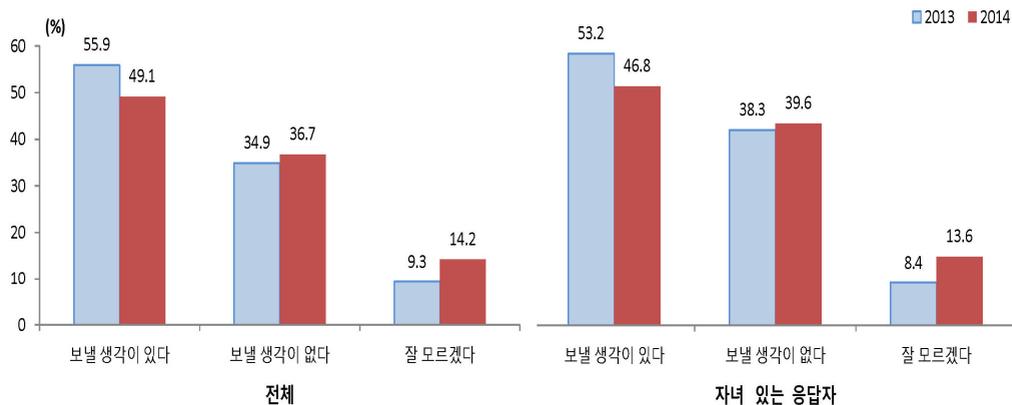
- <질문> 귀하의 자녀를 대학에 가지 않고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같은 특화된 학교에 보낼 생각이 있으십니까?

응답자의 자녀를 대학에 가지 않고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같은 특화된 학교에 보낼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낼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49.1%, 보낼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36.7%로 나타났고,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 보낼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46.8%, 보낼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39.6%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및 자녀가 있는 응답 중 보낼 생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14년이 2013년 보다 낮아진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7> 자녀의 특화된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진학에 대한 인식

특화된 고등학교(마이스터고)	2013		2014	
	전체	자녀 있는 응답자	전체	자녀 있는 응답자
보낼 생각이 있다	1,117 (55.9)	694 (53.2)	982 (49.1)	632 (46.8)
보낼 생각이 없다	697 (34.9)	500 (38.3)	734 (36.7)	534 (39.6)
잘 모르겠다	186 (9.3)	110 (8.4)	284 (14.2)	184 (13.6)
계	2,000 (100.0)	1,304 (100.0)	2,000 (100.0)	1,350 (100.0)



[그림 III-1-28] 자녀의 특화된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진학에 대한 인식

5)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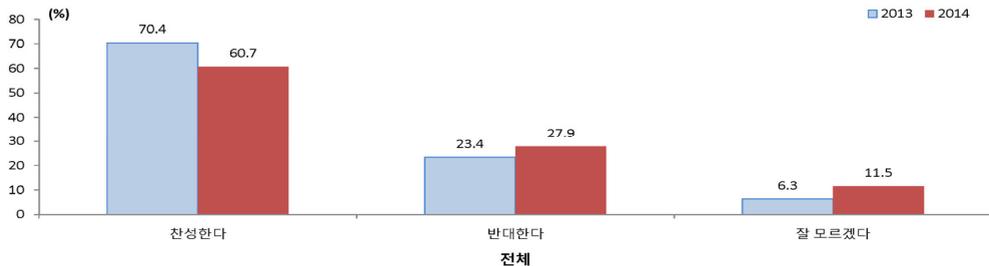
- **〈질문〉**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자에 한정하여 뽑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자에 한정하여 뽑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찬성이 60.7%, 반대가 27.9%로 나타났고, 각 학력별로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응답자가 다른 학력의 응답자보다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다.

찬성한다는 전체 응답자의 응답 비율은 2013년 70.4%에서 2014년 60.7%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1-38〉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에 대한 인식

기업의 고졸 신규채용	2013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대학원 졸
찬성한다	1,407 (70.4)	45 (69.2)	630 (75.7)	618 (66.1)	114 (67.9)
반대한다	468 (23.4)	12 (18.5)	150 (18.0)	262 (28.0)	44 (26.2)
잘 모르겠다	125 (6.3)	8 (12.3)	52 (6.3)	55 (5.9)	10 (6.0)
계	2,000 (100.0)	65 (100.0)	832 (100.0)	935 (100.0)	168 (100.0)
기업의 고졸 신규채용	2014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대학원 졸
찬성한다	1,213 (60.7)	58 (58.6)	301 (66.4)	754 (59.6)	100 (54.9)
반대한다	558 (27.9)	27 (27.3)	95 (21.0)	370 (29.2)	66 (36.3)
잘 모르겠다	229 (11.5)	14 (14.1)	57 (12.6)	142 (11.2)	16 (8.8)
계	2,000 (100.0)	99 (100.0)	453 (100.0)	1,266 (100.0)	182 (100.0)



〈그림 III-1-29〉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에 대한 인식

6)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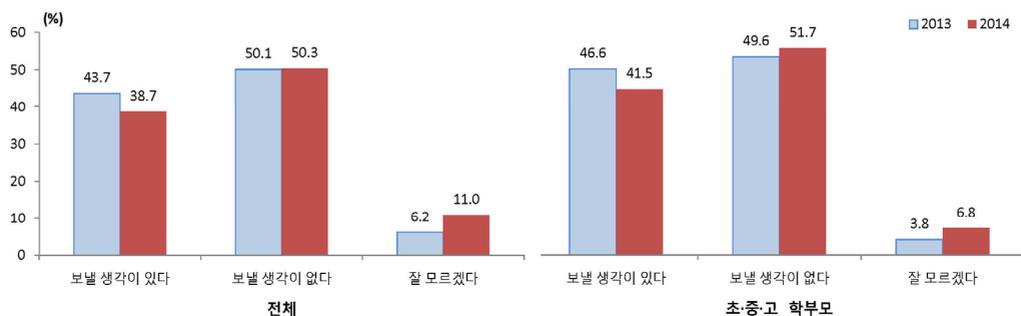
- <질문> 여건이 되신다면 자녀를 외국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건이 된다면 자녀를 외국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낼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50.3%, 보낼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38.7%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보낼 생각이 없다 51.7%, 보낼 생각이 있다 41.5%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및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중 보낼 생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14년 2013년보다 약간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

<표 III-1-39>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

조기 유학	2013		2014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보낼 생각이 있다	874 (43.7)	234 (46.6)	774 (38.7)	221 (41.5)
보낼 생각이 없다	1,002 (50.1)	249 (49.6)	1,006 (50.3)	275 (51.7)
잘 모르겠다	124 (6.2)	19 (3.8)	220 (11.0)	36 (6.8)
계	2,000 (100.0)	502 (100.0)	2,000 (100.0)	532 (100.0)



[그림 III-1-30]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

7) 사교육에 대한 미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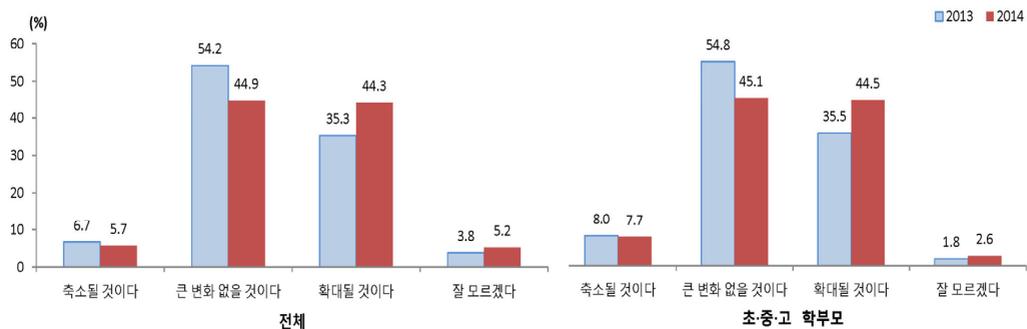
■ 〈질문〉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변화 없을 것이다(44.9%)와 확대될 것이다(44.3%)는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축소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5.7%로 나타났으며,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역시 유사한 비율로 응답하였다.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확대될 것이라는 전체 응답자 및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응답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III-1-40〉 사교육에 대한 미래 전망

사교육	2013		2014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축소될 것이다	134 (6.7)	40 (8.0)	114 (5.7)	41 (7.7)
큰 변화 없을 것이다	1,084 (54.2)	275 (54.8)	898 (44.9)	240 (45.1)
확대될 것이다	706 (35.3)	178 (35.5)	885 (44.3)	237 (44.5)
잘 모르겠다	76 (3.8)	9 (1.8)	103 (5.2)	14 (2.6)
계	2,000 (100.0)	502 (100.0)	2,000 (100.0)	532 (100.0)



[그림 III-1-31] 사교육에 대한 미래 전망

8) 입시경쟁에 대한 미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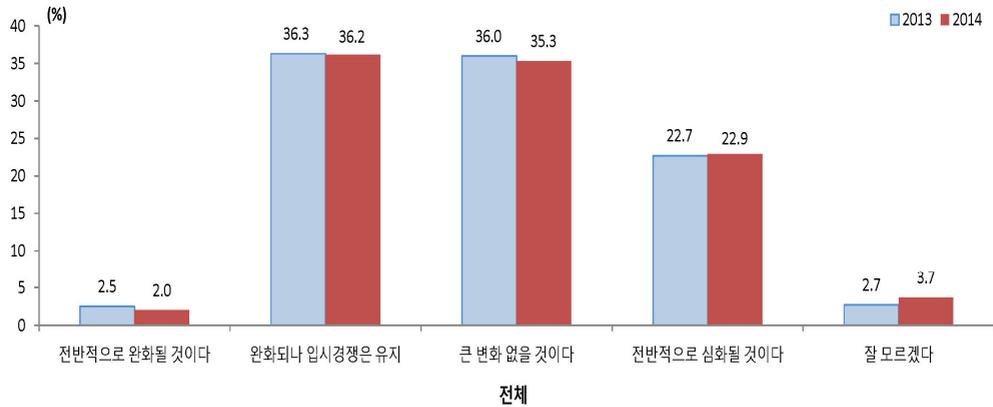
- <질문> 학생 각자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 각자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36.2%)는 응답 비율과 큰 변화 없을 것이다(35.3%)는 응답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22.9%,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2.0%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학력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각 응답 유형 별로 유사한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다.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각 응답 유형별 응답 비율은 2013년과 2014년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III-1-41> 입시경쟁에 대한 미래 전망

입시경쟁	2013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대학원졸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50 (2,5)	2 (3,1)	15 (1,8)	24 (2,6)	9 (5,4)
완화되나 입시경쟁은 유지	725 (36,3)	22 (33,8)	275 (33,1)	353 (37,8)	75 (44,6)
큰 변화 없을 것이다	719 (36,0)	28 (43,1)	330 (39,7)	323 (34,5)	38 (22,6)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453 (22,7)	11 (16,9)	183 (22,0)	215 (23,0)	44 (26,2)
잘 모르겠다	53 (2,7)	2 (3,1)	29 (3,5)	20 (2,1)	2 (1,2)
계	2,000 (100,0)	65 (100,0)	832 (100,0)	935 (100,0)	168 (100,0)
입시경쟁	2014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대학원졸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39 (2,0)	0 (0,0)	3 (0,7)	27 (2,1)	9 (4,9)
완화되나 입시경쟁은 유지	724 (36,2)	28 (28,3)	158 (34,9)	468 (37,0)	70 (38,5)
큰 변화 없을 것이다	705 (35,3)	42 (42,4)	174 (38,4)	435 (34,4)	54 (29,7)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458 (22,9)	25 (25,3)	99 (21,9)	287 (22,7)	47 (25,8)
잘 모르겠다	74 (3,7)	4 (4,0)	19 (4,2)	49 (3,9)	2 (1,1)
계	2,000 (100,0)	99 (100,0)	453 (100,0)	1,266 (100,0)	182 (100,0)



[그림 III-1-32] 입시경쟁에 대한 미래 전망

9) 대학 서열화에 대한 미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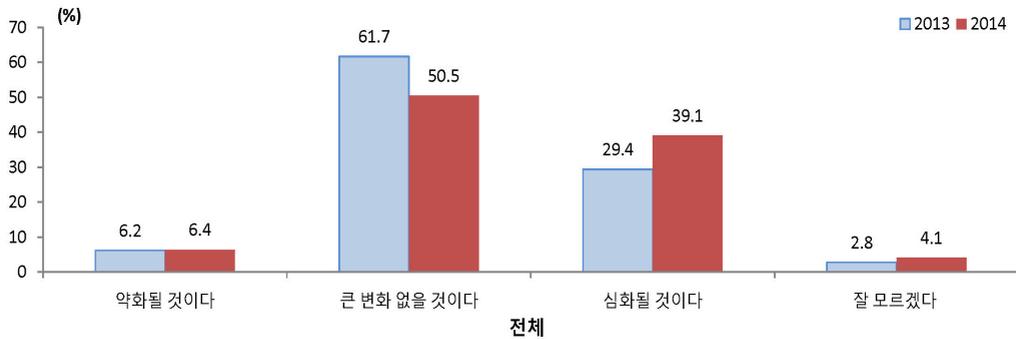
- **〈질문〉** 흔히 대학을 일류대학이니 이류대학이니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대학 서열화**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화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변화 없을 것이다(50.5%), 심화될 것이다(39.1%), 약화될 것이다(6.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학력별로도 유사한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다.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2013년 29.4%에서 2014년 39.1%로 높아졌다.

〈표 III-1-42〉 대학 서열화에 대한 미래 전망

대학서열	2013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대학원졸
약화될 것이다	123 (6.2)	3 (4.6)	43 (5.2)	60 (6.4)	17 (10.1)
큰 변화 없을 것이다	1,34 (61.7)	43 (66.2)	523 (62.9)	568 (60.7)	100 (59.5)
심화될 것이다	587 (29.4)	15 (23.1)	235 (28.2)	288 (30.8)	49 (29.2)
잘 모르겠다	56 (2.8)	4 (6.2)	31 (3.7)	19 (2.0)	2 (1.2)
계	2,000 (100.0)	65 (100.0)	832 (100.0)	935 (100.0)	168 (100.0)
대학서열	2014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대학원졸
약화될 것이다	128 (6.4)	3 (3.0)	27 (6.0)	83 (6.6)	15 (8.2)
큰 변화 없을 것이다	1,010 (50.5)	51 (51.5)	224 (49.4)	641 (50.6)	94 (51.6)
심화될 것이다	781 (39.1)	42 (42.4)	175 (38.6)	494 (39.0)	70 (38.5)
잘 모르겠다	81 (4.1)	3 (3.0)	27 (6.0)	48 (3.8)	3 (1.6)
계	2,000 (100.0)	99 (100.0)	453 (100.0)	1,266 (100.0)	182 (100.0)



[그림 III-1-33] 대학 서열화에 대한 미래 전망

10) 학벌주의에 대한 미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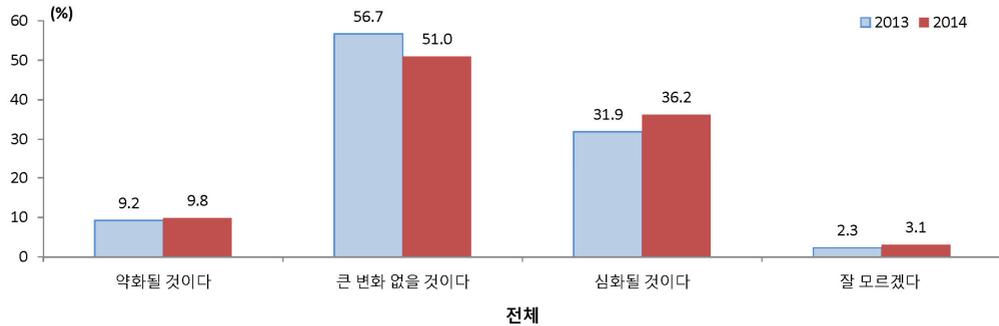
■ <질문>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큰 변화 없을 것이다(51.0%), 심화될 것이다(36.2%), 약화될 것이다(9.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중졸 이하의 학력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각 응답 유형별로 유사한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다.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2013년 31.9%에서 2014년 36.2%로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1-43> 학벌주의에 대한 미래 전망

학벌주의	2013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대학원졸
약화될 것이다	183 (9.2)	1 (1.5)	67 (8.1)	94 (10.1)	21 (12.5)
큰 변화 없을 것이다	1,134 (56.7)	39 (60.0)	480 (57.7)	521 (55.7)	94 (56.0)
심화될 것이다	637 (31.9)	21 (32.3)	265 (31.9)	298 (31.9)	53 (31.5)
잘 모르겠다	46 (2.3)	4 (6.2)	20 (2.4)	22 (2.4)	0 (0.0)
계	2,000 (100.0)	65 (100.0)	832 (100.0)	935 (100.0)	168 (100.0)
학벌주의	2014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대학원졸
약화될 것이다	195 (9.8)	10 (10.1)	42 (9.3)	121 (9.6)	22 (12.1)
큰 변화 없을 것이다	1,019 (51.0)	38 (38.4)	223 (49.2)	669 (52.8)	89 (48.9)
심화될 것이다	724 (36.2)	48 (48.5)	168 (37.1)	439 (34.7)	69 (37.9)
잘 모르겠다	62 (3.1)	3 (3.0)	20 (4.4)	37 (2.9)	2 (1.1)
계	2,000 (100.0)	99 (100.0)	453 (100.0)	1,266 (100.0)	182 (100.0)



[그림 III-1-34] 학벌주의에 대한 미래 전망

11) 교육의 국가사회발전 기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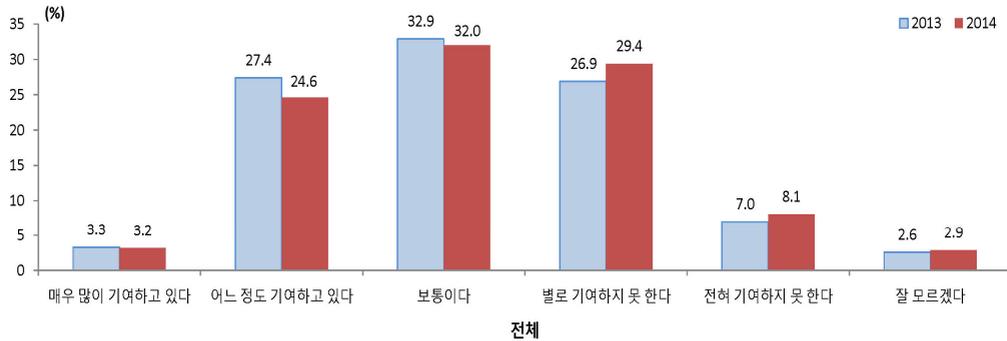
■ **〈질문〉 한국교육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육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매우 많이 기여하고 있다+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27.8%, 기여하지 못한다(별로 기여하지 못한다+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37.5%, 보통이라는 응답이 32.0%로 나타났고, 중졸이하 응답자를 제외하고 학력별로 대체로 유사한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다.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13년 30.7%에서 2014년 27.8%로 약간 낮아진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III-1-44〉 교육의 국가사회발전 기여 정도

국가 사회 발전	2013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대학원졸
매우 많이 기여하고 있다	66 (3.3)	2 (3.1)	16 (1.9)	37 (4.0)	11 (6.5)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548 (27.4)	18 (27.7)	207 (24.9)	267 (28.6)	56 (33.3)
보통이다	658 (32.9)	25 (38.5)	289 (34.7)	295 (31.6)	49 (29.2)
별로 기여하지 못 한다	537 (26.9)	18 (27.7)	237 (28.5)	238 (25.5)	44 (26.2)
전혀 기여하지 못 한다	139 (7.0)	1 (1.5)	51 (6.1)	79 (8.4)	8 (4.8)
잘 모르겠다	52 (2.6)	1 (1.5)	32 (3.8)	19 (2.0)	0 (0.0)
계	2,000 (100.0)	65 (100.0)	832 (100.0)	935 (100.0)	168 (100.0)
평균 (표준편차)	2.93 (0.99)	3.03 (0.87)	2.88 (0.94)	2.94 (1.03)	3.11 (1.02)
국가 사회 발전	2014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대학원졸
매우 많이 기여하고 있다	64 (3.2)	4 (4.0)	11 (2.4)	39 (3.1)	10 (5.5)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491 (24.6)	36 (36.4)	104 (23.0)	297 (23.5)	54 (9.7)
보통이다	639 (32.0)	26 (26.3)	160 (35.3)	414 (32.7)	39 (21.4)
별로 기여하지 못 한다	587 (29.4)	22 (22.2)	122 (26.9)	383 (30.3)	60 (33.0)
전혀 기여하지 못 한다	162 (8.1)	6 (6.1)	34 (7.5)	106 (8.4)	16 (8.8)
잘 모르겠다	57 (2.9)	5 (5.1)	22 (4.9)	27 (2.1)	3 (1.6)
계	2,000 (100.0)	99 (100.0)	453 (100.0)	1,266 (100.0)	182 (100.0)
평균 (표준편차)	2.85 (1.00)	3.11 (1.02)	2.85 (0.96)	2.82 (0.99)	2.90 (1.10)



[그림 III-1-35] 교육의 국가사회발전 기여 정도

12)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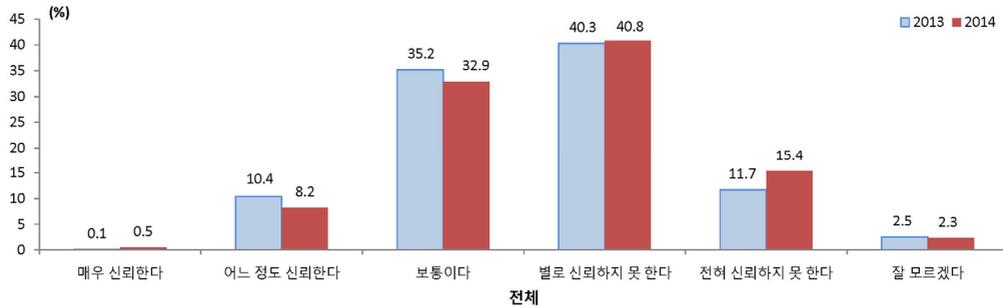
■ <질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뢰한다(매우 신뢰한다+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8.7%, 신뢰하지 못한다(별로 신뢰하지 못한다+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46.2%, 보통이라는 응답이 32.9%로 나타났고, 중졸 이하 응답자를 제외하고 학력별로 대체로 유사한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다.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2013년 10.5%에서 2014년 8.7%로 약간 낮아진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III-1-45〉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정부의 교육 정책	2013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대학원졸
매우 신뢰한다	1 (0.1)	0 (0.0)	1 (0.1)	0 (0.0)	0 (0.0)
어느 정도 신뢰한다	207 (10.4)	6 (9.2)	81 (9.7)	101 (10.8)	19 (11.3)
보통이다	704 (35.2)	31 (47.7)	304 (36.5)	313 (33.5)	56 (33.3)
별로 신뢰하지 못 한다	806 (40.3)	17 (26.2)	337 (40.5)	385 (41.2)	67 (39.9)
전혀 신뢰하지 못 한다	233 (11.7)	8 (12.3)	82 (9.9)	117 (12.5)	26 (15.5)
잘 모르겠다	49 (2.5)	3 (4.6)	27 (3.2)	19 (2.0)	0 (0.0)
계	2,000 (100.0)	65 (100.0)	832 (100.0)	935 (100.0)	168 (100.0)
평균 (표준편차)	2.56 (0.84)	2.48 (0.81)	2.43 (0.85)	2.40 (0.88)	2.46 (0.84)
정부의 교육 정책	2014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대졸	대학원졸
매우 신뢰한다	9 (0.5)	0 (0.0)	4 (0.9)	4 (0.3)	1 (0.5)
어느 정도 신뢰한다	164 (8.2)	14 (14.1)	30 (6.6)	104 (8.2)	16 (8.8)
보통이다	657 (32.9)	39 (39.4)	157 (34.7)	411 (32.5)	50 (27.5)
별로 신뢰하지 못 한다	816 (40.8)	32 (32.3)	185 (40.8)	523 (41.3)	76 (41.8)
전혀 신뢰하지 못 한다	308 (15.4)	11 (11.1)	61 (13.5)	199 (15.7)	37 (20.3)
잘 모르겠다	46 (2.3)	3 (3.0)	16 (3.5)	25 (2.0)	2 (1.1)
계	2,000 (100.0)	99 (100.0)	453 (100.0)	1,266 (100.0)	182 (100.0)
평균 (표준편차)	2.36 (0.86)	2.58 (0.88)	2.38 (0.84)	2.35 (0.86)	2.27 (0.91)



[그림 III-1-36]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2.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가.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 <질문> 다음은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입니다. (1) ~ (10) 까지 각각의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우측에 표시해주세요.

주요 교육정책	
(1) 누리과정 확대	2012년 만 5세에 한하던 누리과정 지원을 만 3~4세에도 확대하여 만 3~5세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모두 매월 22만원의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누리과정 확대
(2) 초등돌봄교실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오후 돌봄을 제공하고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자녀 등 추가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저녁 10시까지 저녁 돌봄을 확대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3) 자유학기제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4)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	교육과정에 근거한 과목별 성취기준에 대한 학생의 도달 정도를 학생의 성취 수준으로 나타내는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
(5)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학생에게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무료로 수업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6) 사교육 부담 경감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를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고 EBS 교육서비스 운영을 내실화하는 사교육 부담 경감

주요 교육정책

(7) 대학입시 간소화	복잡한 대학 입학전형을 간소화하여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지역·계층을 고려한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입시 간소화
(8) 대학 특성화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경쟁력 있는 분야와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학 특성화
(9)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전문대학의 학위과정 다양화 및 재정투자 대폭 확대, 평생 직업 교육 기능 및 국제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는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10)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역의 산업발전 및 인력양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방대학 지원 확대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누리과정 확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대체로 알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46.3%, 모른다(대체로 모른다+전혀 모른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24.5%, 보통이라는 응답은 29.3%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알고 있다 53.8%, 모른다 15.9%, 보통이다 30.3%로 응답하였다.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41.9%, 모른다는 응답은 24.7%, 보통이라는 응답은 33.5%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알고 있다 53.2%, 모른다 16.4%, 보통이다 30.5%로 응답하였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22.0%, 모른다는 응답은 43.1%, 보통이라는 응답은 35.0%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알고 있다 29.7%, 모른다 33.9%, 보통이다 36.5%로 응답하였다.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26.1%, 모른다는 응답은 38.0%, 보통이라는 응답은 36.0%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알고 있다 31.6%, 모른다 30.5%, 보통이다 38.0%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2%, 모른다는 응답은 37.4%, 보통이라는 응답은 38.5%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알고 있다 27.6%, 모른다 30.8%, 보통이다 41.5%로 응답하였다.

사교육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45.2%, 모른다는 응답은

21.2%, 보통이라는 응답은 33.7%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알고 있다 46.0%, 모른다 13.6%, 보통이다 40.4%로 응답하였다.

대학입시 간소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2%, 모른다는 응답은 29.2%, 보통이라는 응답은 40.7%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알고 있다 34.4%, 모른다 20.7%, 보통이다 44.9%로 응답하였다.

대학 특성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28.8%, 모른다는 응답은 29.8%, 보통이라는 응답은 41.5%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알고 있다 29.3%, 모른다 24.6%, 보통이다 46.1%로 응답하였다.

전문대학 직업교육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28.3%, 모른다는 응답은 33.7%, 보통이라는 응답은 38.1%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알고 있다 29.9%, 모른다 28.0%, 보통이다 42.1%로 응답하였다.

지방대학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27.1%, 모른다는 응답은 32.2%, 보통이라는 응답은 40.9%로 나타났고,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알고 있다 27.1%, 모른다 26.1%, 보통이다 46.8%로 응답하였다.

각각의 정책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누리과정 확대(3.24), 초등 돌봄교실(3.17), 사교육 부담 경감(3.26) 정책에 대해서는 각각 보통 수준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유학기제(2.69),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2.83), 고등학교 무상교육(2.80), 대학입시 간소화(2.97), 대학특성화(2.96), 전문대학 직업교육화(2.89), 지방대학 지원 확대(2.89) 정책에 대해서는 각각 보통 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정부 주요 교육 정책	누리과정확대		초등돌봄교실		자유학기제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체	초·중고 학부모								
매우 잘 알고 있다	201 (10.1)	70 (13.2)	127 (6.4)	52 (9.8)	68 (3.4)	25 (4.7)	86 (4.3)	23 (4.3)	72 (3.6)	22 (4.1)
대체로 알고 있다	724 (36.2)	216 (40.6)	709 (35.5)	231 (43.4)	371 (18.6)	133 (25.0)	436 (21.8)	145 (27.3)	411 (20.6)	125 (23.5)
보통이다	585 (29.3)	161 (30.3)	670 (33.5)	162 (30.5)	700 (35.0)	194 (36.5)	720 (36.0)	202 (38.0)	770 (38.5)	221 (41.5)
대체로 모른다	338 (16.9)	71 (13.3)	364 (18.2)	75 (14.1)	590 (29.5)	143 (26.9)	559 (28.0)	136 (25.6)	534 (26.7)	125 (23.5)
전혀 모른다	152 (7.6)	14 (2.6)	130 (6.5)	12 (2.3)	271 (13.6)	37 (7.0)	199 (10.0)	26 (4.9)	213 (10.7)	39 (7.3)
계	2,000 (100.0)	532 (100.0)								
평균 (표준 편차)	3.24 (1.07)	3.48 (0.07)	3.17 (1.01)	3.44 (0.93)	2.69 (1.03)	2.94 (1.00)	2.83 (1.02)	3.01 (0.95)	2.80 (1.00)	2.94 (0.96)
정부 주요 교육 정책	사교육 부담 경감		대학입시간소화		대학특성화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지방대학 지원 확대	
	전체	초·중고 학부모								
매우 잘 알고 있다	156 (7.8)	40 (7.5)	78 (3.9)	20 (3.8)	96 (4.8)	24 (4.5)	72 (3.6)	17 (3.2)	70 (3.5)	17 (3.2)
대체로 알고 있다	748 (37.4)	205 (38.5)	525 (26.3)	163 (30.6)	480 (24.0)	132 (24.8)	44 (24.7)	142 (26.7)	471 (23.6)	127 (23.9)
보통이다	674 (33.7)	215 (40.4)	814 (40.7)	239 (44.9)	830 (41.5)	245 (46.1)	761 (38.1)	224 (42.1)	817 (40.9)	249 (46.8)
대체로 모른다	301 (15.1)	61 (11.5)	432 (21.6)	95 (17.9)	443 (22.2)	1 (21.2)	493 (24.7)	127 (23.9)	455 (22.8)	113 (21.2)
전혀 모른다	121 (6.1)	11 (2.1)	151 (7.6)	15 (2.8)	151 (7.6)	18 (3.4)	180 (9.0)	22 (4.1)	187 (9.4)	26 (4.9)
계	2,000 (100.0)	532 (100.0)								
평균 (표준편차)	3.26 (1.00)	3.38 (0.86)	2.97 (0.97)	3.15 (0.85)	2.96 (0.98)	3.06 (0.88)	2.89 (0.99)	3.01 (0.90)	2.89 (0.98)	2.99 (0.88)

나.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필요성(1, 2순위)

■ <질문> 위의 교육정책 중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순위로 누리과정 확대(24.8%)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초등 돌봄교실(18.7%), 사교육 부담 경감(12.3%), 고등학교 무상교육(10.4%), 자유학기제(10.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1순위, 2순위 응답 결과를 합산한 결과는 초등 돌봄교실(17.6%), 누리과정 확대(15.2%), 사교육 부담 경감(13.4%), 자유학기제(10.0%), 고등학교 무상교육(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1순위로 누리과정 확대(19.5%), 고등학교 무상교육(15.8%), 초등 돌봄교실(15.4%), 사교육 부담 경감(14.5%), 자유학기제(11.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1순위, 2순위 응답 결과를 합산한 결과는 사교육 부담 경감(16.4%), 고등학교 무상교육(13.4%), 초등 돌봄교실(13.0%), 누리과정 확대(12.2%), 대학입시 간소화(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2>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필요성(1,2순위)

교육정책	전체		초·중·고 학부모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누리과정 확대	496 (24.8)	607 (15.2)	104 (19.5)	130 (12.2)
초등돌봄교실	374 (18.7)	704 (17.6)	82 (15.4)	138 (13.0)
자유학기제	201 (10.1)	398 (10.0)	59 (11.1)	106 (10.0)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	92 (4.6)	257 (6.4)	31 (5.8)	84 (7.9)
고등학교 무상교육	208 (10.4)	377 (9.4)	84 (15.8)	143 (13.4)
사교육 부담 경감	245 (12.3)	536 (13.4)	77 (14.5)	174 (16.4)
대학입시 간소화	113 (5.7)	335 (8.4)	36 (6.8)	107 (10.1)
대학특성화	124 (6.2)	325 (8.1)	23 (4.3)	65 (6.1)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70 (3.5)	228 (5.7)	12 (2.3)	58 (5.5)
지방대학 지원 확대	77 (3.9)	233 (5.8)	24 (4.5)	59 (5.5)
계	2,000 (100.0)	4,000 (100.0)	532 (100.0)	1,064 (100.0)

다.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잘 하고 있는 정책(1,2순위)

■ <질문> 위의 교육정책 중 현재까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현재까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순위로 누리과정 확대(30.7%)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초등 돌봄교실(23.9%), 자유학기제(9.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1순위, 2순위 응답 결과를 합산한 결과는 초등 돌봄교실(23.4%), 누리과정 확대(20.5%), 자유학기제(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1순위로 누리과정 확대(29.3%), 초등 돌봄교실(22.9%), 자유학기제(11.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1순위, 2순위 응답 결과를 합산한 결과는 초등 돌봄교실(23.3%), 누리과정 확대(19.7%), 고등학교 무상교육(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잘 하고 있는 정책(1,2순위)

교육정책	전체		초·중·고 학부모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누리과정 확대	613 (30.7)	821 (20.5)	156 (29.3)	210 (19.7)
초등돌봄교실	477 (23.9)	935 (23.4)	122 (22.9)	248 (23.3)
자유학기제	187 (9.4)	361 (9.0)	59 (11.1)	103 (9.7)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	122 (6.1)	265 (6.6)	34 (6.4)	80 (7.5)
고등학교 무상교육	137 (6.9)	330 (8.3)	46 (8.6)	106 (10.0)
사교육 부담 경감	163 (8.2)	359 (9.0)	46 (8.6)	100 (9.4)
대학입시 간소화	75 (3.8)	258 (6.5)	21 (3.9)	64 (6.0)
대학특성화	76 (3.8)	221 (5.5)	20 (3.8)	50 (4.7)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86 (4.3)	245 (6.1)	18 (3.4)	53 (5.0)
지방대학 지원 확대	64 (3.2)	205 (5.1)	10 (1.9)	50 (4.7)
계	2,000 (100.0)	4,000 (100.0)	532 (100.0)	1,064 (100.0)

3. 요약

가.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국민들은 초·중·고 교육정책 결정은 교육부장관(59.8%),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는 단위 학교 교장(51.9%), 학생의 학습 성취기준 마련은 시·도교육감(52.1%), 교육과정 결정의 책임은 교육부장관(44.3%)과 시·도교육감(37.6%)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들은 초·중등학교 전반에 대해 양(별로 잘 하지 못하고 있다, 평균 2.75, 양+가 34.2%) 등급을 주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는 미(보통, 평균 3.08),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양(별로 잘 하지 못한다, 중학교 2.68, 고등학교 2.37)이라고 하여 학교급이 높을수록 낮게 평가하고 있다. 학교가 '수(매우 잘하고 있다)'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는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이라고 보았다(46.6%). 자녀가 다닐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초등학교는 통학거리(28.0%)와 교육프로그램의 특성(22.9%), 중학교는 교육프로그램의 특성(31.2%), 교원의 질적 수준(29.4%), 고등학교는 교원의 질적 수준(29.6%), 대학교는 졸업생의 취업실적(32.2%)을 고려하겠다고 하였다.

나.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초·중·고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은 학습 지도 능력(44.7%)이라고 보고 있으며, 교사들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고 있다(평균 2.66, 별로 못하고 있다+전혀 못하고 있다 39.7%). 또한, 교사들의 교직자로서의 능력과 태도에 대한 신뢰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72, 별로 신뢰하지 못한다+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38.8%). 자녀가 초·중·고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54.3%).

다. 학생의 수준과 생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인성·도덕성 수준이 낮고(평균 2.23, 낮다+매우 낮다 61.3%) 학업이나 경쟁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평균 4.07, 심각한 편이다+매우 심각하다 81.5%)에 있으며 IT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스마트폰, SNS, 컴퓨터게임 등)의 중독성도 심각하다(평균 4.18, 심각한 편이다+매우 심각하다 85.2%)고 보았다.

라. 교육의 내용과 방식

향후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현재보다 인성교육(초 61.0%, 중 53.6%, 고 40.2%)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영어 공교육 시작 시기는 현재와 같이 초등학교 3학년에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았다. 학생의 성적에 따라 과목별로 다르게 반을 나누어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는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으며(찬성 47.4%, 반대 41.3%),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았다(61.5%). 학생 본인 외에 학생의 학업성취(성적)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부모(가정, 49.9%)라고 보았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교육별로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하였으며(72.9%)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가정교육의 부재(34.6%)라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나 학교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평균 2.24, 별로 그렇지 못하다+전혀 그렇지 못하다 64.3%).

마. 고교 정책 및 대학 입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각각 56.8%, 58.6%).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평균 3.27, 매우 그렇다+어느 정도 그렇다 44.5%, 보통 29.3%). 대학입학전형에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요소로는 인성 및 사회봉사(27.9%), 특기·적성(26.3%), 수능 성적(23.8%)을 고르게 선택하였고 고교 내신 성적(19.6%)과 면접 및 글쓰기 성적(2.3%)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보았다.

바. 교육 복지

초·중·고 교육취약계층 대상의 교육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 결손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탈북주민가정 학생,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모두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요성 비율에는 차이가 있어 저소득층, 결손가정, 장애 학생 지원을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초·중·고 모두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학생에게만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도 모든 학생 지원 의견과 같은 수준으로 높았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정지원해 주어야 할 것은 초·중학생에게는 방과후학교 교육비(자유 수강권),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라는 의견이 많았다.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에 대해서는 무상 교육만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0.3%) 무상·의무교육 실시 의견도 많았다.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어느 분야에 가장 먼저 투자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라고 보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29.6%) 그 다음은 고등학교 무상 교육(20.2%)이었다.

사. 대학의 운영과 대학교의 질

국민들은 한국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잘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평균 2.29, 별로 못하고 있다+아주 못하고 있다 60.4%)보았다. 현재 한국의 대학 교수들은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평균 2.36, 별로 못하고 있다+아주 못하고 있다 58.8%), 대학 재정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고(평균 1.84, 별로 투명하지 못하다+아주 투명하지 못하다 78.5%) 하였다. 자녀가 내년에 대학에 입학한다고 가정할 때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평균 2.8) 보고 있었다. 또한 자녀가 내년에 대학에 입학한다면 졸업시까지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대학등록금을 부담할 것이라고 하였다(어느 정도 부담 47.1%, 계속 부담 27.3%).

아. 학교교육의 현안과 미래

한국 교육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평균 2.85,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37.5%)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과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은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각각 58.9%, 64.0%)고 보았다. 대학 서열화는 큰 변화가 없거나(50.5%) 심화될 것(39.1%)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학벌주의 역시 큰 변화가 없거나(51.0%) 심화될 것(36.2%)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다. 학생 각자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은 전반적으로 완화되거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되거나(36.2%) 큰 변화 없을 것(35.3%)이라고 보았다. 사교육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없거나(44.9%) 확대될 것(44.3%)이라고 보았다.

국민들은 자녀가 일반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고(일반대학 60.1%, 석사 18.0%, 박사 10.6%), 응답자의 반(50.3%)은 여건이 되어도 자녀를 외국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유학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였다. 자녀를 마이스티고와 같은 특화된 학교에 보낼 생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며(49.1%), 기업의 일정 비율 고졸자 신규 채용 방식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60.7%).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다지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평균 2.36, 별로 신뢰하지 못한다+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56.2%) 나타났다.

자.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먼저,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는 누리과정 확대(3.24), 초등 돌봄교실(3.17), 사교육 부담 경감(3.26) 정책에 대해서는 각각 보통 수준을 약간 넘는 수준,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2.83), 고등학교 무상교육(2.80), 대학입시 간소화(2.97), 대학특성화(2.96), 전문대학 직업교육화(2.89), 지방대학 지원 확대(2.89) 정책에 대해서는 각각 보통 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누리과정 확대(24.8%), 초등 돌봄교실(18.7%), 사교육 부담 경감(12.3%)의 순이었고, 현재까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역시 누리과정 확대(30.7%), 초등 돌봄교실(23.9%)의 순이었다.

IV.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IV.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I 장에서 제시한 본 조사의 구체적인 목적별로 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가.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및 변화

본 조사 결과를 2013년과 비교하면, 초·중·고교 전반에 대한 평가, 교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에 대한 평가가 약간 높아졌다. 교사(학교)의 학생 학업성취 노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학교 폭력의 주요 원인에 대해 대중매체에서 가정교육 부재로 다소 변화하였으며, 고교 평준화와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감소하였다. 대학입학전형 중요 요소에 대한 다수의 의견이 특기·적성에서 인성 및 사회봉사로 변화하였고 고교 무상의무교육에 대해서도 무상의무교육 찬성 의견이 다수였던 전년에 비하여 무상교육만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아졌다. 학력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다소 덜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사교육,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 또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증가하였다. 자녀가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감소하였고,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감소하였으며,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의사가 감소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성 의견이 가장 많지만 작년에 비해 찬성의견은 15.4%p 줄고 반대 의견은 9.2%p 늘어났다. 자녀를 방과후학교에 참여시킬 의사도 작년에 비해 10%p 가량 감소하였다. 학생의 학업성취 결정 요인은 학부모(가정)라는 의견이 여전히 가장 많으나 교사(학교)라는 응답과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

(26.6%p → 5.5%p) 교사(학교)의 학생 학업성취 노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대중매체 (인터넷, 게임 포함)의 폭력성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가정교육 부재의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고교 평준화와 다양화 정책 각각에 대해서 찬성 비율은 낮아졌고 반대 비율과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대학입학전형 중요 반영 항목은, 작년에는 특기·적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올해에는 인성 및 사회봉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고교 무상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무상의무교육 실시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올해에는 무상교육만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자녀를 마이스터고에 보낼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작년보다 줄고 부정적 응답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늘어났다.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은 줄고 반대와 잘 모르겠다는 늘어났다.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전체 응답자의 응답 비율은 작년 64.3%에서 올해 58.9%로 약간 낮아졌다. 자녀가 초·중고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 2013년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22.0% 줄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약 18%p 늘어나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어공교육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시기가 좋다는 응답은 여전히 가장 많지만 그 비율이 줄어들었고 더 늦게 가르쳐야 한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늘어났다.

2014년 1차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태도를 종합하면, 국민들은 초·중고 학교 교육에서는 인성교육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학교 폭력의 주된 원인은 가정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본다. 저소득층 학생, 결혼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탈북주민가정 학생, 장애 학생 지원은 모두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초·중학생과 중학생에게는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에게는 모든 학생 지원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대한 의견이 많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학력과 출신대학 차별이 심각하고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는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거나 심화될 것으로 보며 대학입시경쟁은 다소 완화되거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사교육은 큰 변화가 없거나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교육 정책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 교육이 국가와 사회에 별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초·중고 교육 전반과 대학 교육에 대해 잘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초·중고 교사와 대학 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올해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은 인성교육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하며, 학교와 가정이 학생의 학업성취 증진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는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선택시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선택시 교원의 질적 수준을 고려한다는 응답과 일맥상통한다. 초·중고 교사들에게는 우선적으로 학습 지도 능력이 필요하다(47.7%)고 응답하여 학습 지도를 잘 하는 교원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업성취의 결정 요인에 대한 질문에서도 학부모(가정)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교사(학교)라는 응답 비율은 2013년 조사 결과보다 높아진 점을 통해 학생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의 노력을 더욱 요구하면서 동시에 학부모(가정)의 영향, 책임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인성·도덕성 수준이 낮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모두 현재보다 인성교육(초 61.0%, 중 53.6%, 고 40.2%)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학생들에 대해 학업이나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IT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 중독이 심각하다고 보았다.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가정교육의 부재(34.6%)라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나 학교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평균 2.24, 별로 그렇지 못하다+전혀 그렇지 못하다 64.3%). 즉 가정교육의 부재가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가정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이나 해소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나 학교의 학교폭력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각 가정에서 학교폭력 예방이나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국민들은 교육취약계층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 급식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며, 고등학교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중고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 지원, 결손가정 학생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탈북주민가정 학생 지원, 장애 학생 지원 모두 중요하다고 하였다(매우 중요하다+대체로 중요하다 응답 비율 기준, 저소득층 80.4%, 결손가정 76.0%, 다문화가정 59.3%, 탈북주민가정 58.8%, 장애 학생 76.3%). 중요성 비율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저소득층, 결손가정, 장애 학생 지원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초·중고 모두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초 41.6%, 중 37.2%, 고 33.8%).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학생에게만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도 모든 학생 지원 의견과 같은 수준으로 높았다(33.8%).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정지원해야 할 것은 초·중학생에게는 방과후학교 교육비(자유수강권, 초 46.3%, 중 46.5%),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51.8%)라는 의견이 많았다.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에 대해서는 무상교육만 실시(40.3%)가 가장 많았고 무상·의무교육 실시(34.9%)도 많은 응답자들이 선택하여 무상교육 실시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민들은 대학 선택시에 졸업생의 취업 실적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대학입학전형에서 인성 및 사회봉사, 특기·적성이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고 보며, 대학에 대해 대체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대학 선택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졸업생의 취업 실적(32.2%)이라고 하였다. 대학입시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응답자가 많고(평균 3.27, 매우 그렇다+어느 정도 그렇다 44.5%), 대학입학전형에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요소는 인성 및 사회봉사(27.9%), 특기·적성(26.3%), 수능 성적(23.8%)에 대한 응답 비율이 모두 높았다.

국민들은 한국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잘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평균 2.29, 별로 못하고 있다+아주 못하고 있다 60.4%)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졸업 후 취업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자녀가 내년에 대학에 입학한다고 가정할 때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으로(평균 2.8) 보고 있다는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대학 교수들은 그 역

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평균 2.36, 별로 못하고 있다+아주 못하고 있다 58.8%), 대학 재정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고(평균 1.84, 별로 투명하지 못하다+아주 투명하지 못하다 78.5%) 하였다. 평균 점수를 보면, 대학의 인재 양성과 교수에 대한 평가 결과는 초·중등학교와 교사에 대한 평가 결과보다 더 낮다. 국민들이 대학에 대해 이와 같이 낮게 평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대학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자녀가 내년에 대학에 입학한다면 졸업시까지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대학등록금을 부담할 것이라고 하였으며(어느 정도 부담 47.1%, 계속 부담 27.3%)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에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도 하였다(29.6%).

넷째, 대입전형요소와 무상급식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와 학부모 응답자 간에 다소 의견 차이가 있다.

대입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와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인성 및 사회봉사, 특기·적성, 수능 성적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는 수능 성적, 인성 및 사회봉사라는 응답이 많았다. 즉 대학생 학부모는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학생의 특기나 적성보다는 수능 성적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와 학부모 응답자 모두 초·중고 모두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학교급별 학부모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에 비하여 모든 학생 지원이라는 응답 비율이 모든 학교급에서 현저히 높았다(초 12.8%p, 중 13.4%p, 고 5.3%p). 학부모는 무상급식의 직접적인 수혜자이므로 무상급식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국민들은 한국 교육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으며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교육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평균 2.85,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37.5%)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과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은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각각 58.9%, 64.0%)고 보았다. 대학 서열화는 큰 변화가 없거나(50.5%) 심화될 것(39.1%)이라는 전망

이 많았다. 학벌주의 역시 큰 변화가 없거나(51.0%) 심화될 것(36.2%)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학생 각자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지만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되거나(36.2%) 큰 변화는 없을 것(35.3%)이라고 보았다. 사교육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없거나(44.9%) 확대될 것(44.3%)이라고 보았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다지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평균 2.36, 별로 신뢰하지 못한다+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56.2%) 나타났다.

나.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의견

먼저,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 1순위,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 현재까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는 모두 ‘누리과정 확대 정책’이었다.

누리과정 확대 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필요도 1순위 정책과 평가 1순위 정책이 다른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V-1>, <표 IV-2>와 같다. 대체로, 누리과정 확대 정책을 알고 있는 정도가 높을수록 누리과정 확대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거나 가장 잘 하였다고 한 응답자 비율이 높지만, 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은 응답자들도 누리과정 확대 정책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잘 하였다고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누리과정 확대 정책을 대체로 모른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누리과정 확대 정책보다 사교육 부담 경감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누리과정 확대 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에는 크게 관계없이 누리과정 확대 정책에 대한 필요도와 평가가 가장 높은 것이다.

〈표 IV-1〉 누리과정 확대 정책 이해도별 필요한 교육정책 1순위

구분	현재 가장 필요한 교육 정책(1순위)											전체	
	누리과정 확대	초등 돌봄 교실	자유 학기제	중·고 성취 평가제	고교 무상 교육	사교육 부담 경감	대학 입시 간소화	대학 특성화	전문대 직업 교육 강화	지방대 지원 확대			
누리과정 확대 정책	매우 잘 알고 있다	빈도	80	43	12	4	21	8	8	12	5	8	201
		비율	39.8	21.4	6.0	2.0	10.4	4.0	4.0	6.0	2.5	4.0	100.0
	대체로 알고 있다	빈도	199	146	74	29	61	95	40	41	19	20	724
		비율	27.5	20.2	10.2	4.0	8.4	13.1	5.5	5.7	2.6	2.8	100.0
	보통이다	빈도	132	102	72	37	71	66	27	32	24	22	585
		비율	22.6	17.4	12.3	6.3	12.1	11.3	4.6	5.5	4.1	3.8	100.0
	대체로 모른다	빈도	53	48	32	14	44	58	23	29	14	23	338
		비율	15.7	14.2	9.5	4.1	13.0	17.2	6.8	8.6	4.1	6.8	100.0
	전혀 모른다	빈도	32	35	11	8	11	18	15	10	8	4	152
		비율	21.1	23.0	7.2	5.3	7.2	11.8	9.9	6.6	5.3	2.6	100.0
	전체	빈도	496	374	201	92	208	245	113	124	70	77	2,000
		비율	24.8	18.7	10.1	4.6	10.4	12.3	5.7	6.2	3.5	3.9	100.0

〈표 IV-2〉 누리과정 확대 정책 이해도별 교육정책 평가 1순위

구분	현재까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육 정책(1순위)											전체	
	누리과정 확대	초등 돌봄 교실	자유 학기제	중·고 성취 평가제	고교 무상 교육	사교육 부담 경감	대학 입시 간소화	대학 특성화	전문대 직업 교육 강화	지방대 지원 확대			
누리과정 확대 정책	매우 잘 알고 있다	빈도	90	53	15	7	9	10	6	5	1	5	201
		비율	44.8	26.4	7.5	3.5	4.5	5.0	3.0	2.5	0.5	2.5	100.0
	대체로 알고 있다	빈도	266	184	67	35	34	45	24	23	31	15	724
		비율	36.7	25.4	9.3	4.8	4.7	6.2	3.3	3.2	4.3	2.1	100.0
	보통이다	빈도	145	137	61	48	53	54	16	24	28	19	585
		비율	24.8	23.4	10.4	8.2	9.1	9.2	2.7	4.1	4.8	3.2	100.0
	대체로 모른다	빈도	72	70	32	21	32	39	21	17	19	15	338
		비율	21.3	20.7	9.5	6.2	9.5	11.5	6.2	5.0	5.6	4.4	100.0
	전혀 모른다	빈도	40	33	12	11	9	15	8	7	7	10	152
		비율	26.3	21.7	7.9	7.2	5.9	9.9	5.3	4.6	4.6	6.6	100.0
	전체	빈도	613	477	187	122	137	163	75	76	86	64	2,000
		비율	30.7	23.9	9.4	6.1	6.9	8.2	3.8	3.8	4.3	3.2	100.0

2. 정책 제언

사려깊은 정책 개발자들은 국민 여론과 정책이 일치하지 않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그 중 하나는, 국민 여론에 가깝도록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정책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국가가 발전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는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William, J. B., 2014, p.14). 정책입안자는 해당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여론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정책입안자가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다. 정부도 관련 부처국민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교육정책 품질 제고 및 교육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한 만족도 제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교육부, 2014a, p.17), 정부 3.0 정책으로 국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용하고 국민을 정책 결정의 주체로 인식하는 협치를 이뤄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p.13).

여론조사 결과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로 언론의 영향을 이야기할 수 있다. 언론은 그 성격상 사회비판적 기능을 통하여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육문제 역시 비판적 시각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사례 보도가 정책에 대한 인상에 큰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일반 국민의 교육에 대한 인식, 태도 형성에 언론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본 조사 결과는 주관적 자료의 성격상, 사실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본 조사에서 학교폭력 해소 노력 효과에 대한 인식이 2013년에 비하여 더 낮아진 것은 학교폭력이 감소되고 있다는 또 다른 조사 결과(교육부, 2014b)와는 상반된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는 말 그대로 국민의 소리이므로 설문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여론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념과 판단을 말하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여론에는 증명된 지식으로서의 성격은 없고, 또 입증할 수 없는 신앙으로서의 성격도 없다. 여러 가지 의견을 평가하기도 하고, 누가 어떤 여론을 어느 정도 강하게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는 것이 여론조사의 목적이다(사회학사전, p.261). 동일한 조사 체제로 실시한 여러 번의 조사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이 중요하며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지나치게 구체적인 정책 시사점을 제언하는 것은 여론조사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2014년 교육여론조사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거시적 측면의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성교육 강화 정책에 대한 점검 및 정보 공유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초·중고에서의 인성교육의 성과가 대학입시와 대학교육, 사회생활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인성은 국민행복과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핵심적 가치이므로, 학교, 가정, 사회의 인성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실천 중심의 종합적인 인성교육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 특색에 맞는 인성교육 확대,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인성 함양에 적합한 학교 문화 기반 조성,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학부모가 참여하는 인성교육 확산, 가정과 학교의 소통 강화, 모두가 함께 하는 인성교육 실천 운동, 지역사회 협력 체제 구축,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인성교육 분위기 확산을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13a).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은 국민들의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의견과 일치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 추진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점검하며 추진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초·중고에서의 인성교육의 성과가 대학입시와 대학교육, 사회생활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초·중고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확대 정책은 필요하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서 보았듯이,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다면,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확대 정책이 재원 마련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자료(박혜자 의원실 보도 자료, 2014)에 따르면, 2014년 9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가 초·중학생 및 중학생 전체와 고등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 결과(한국갤럽, 2014), 선별적 무상급식(66%), 선별적 무상보육(75%) 의견

이 많다. 이러한 자료들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모든 학생 무상급식의견의 비율이 낮고 고등학생에게는 모든 학생 대상 지원과 저소득층 학생만 지원하자는 의견의 비율이 같은 이번 조사 결과도 맥락이 닿는다. 증세가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재원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은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송기창, 2014). 두 정책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대학 교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학 재정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본 조사에서, 대학과 관련된 인식, 평가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대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를 대학 사회는 스스로 찾아내고 혁신해야 할 것이다. 정책 당국도 대학의 나아갈 방향과 혁신을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과 대학 관계자들,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함께 찾아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 사회와 정부는 대학 내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체제의 개혁이나 국립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혁신 노력을 수년째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2014년 고등교육분야 추진 과제는 인문학 풀뿌리 연구 지원, 산학협력·창업교육 활성화,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육성, 선제적 대학 구조개혁, 학부·대학원 교육체제 개선, 재정지원 확대 및 효율성 제고이다. 또한 정부는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개발하여 공시하도록 조치하였다(교육부, 2013b). 대학에서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산학협력 활성화 등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학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정책적 대책은 검토가 필요하며 이것은 결국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포함하여 대학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가능한 일일 것이다.

넷째, 한국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은 교육의 사회 발전 기여도, 학력 차별, 출신대학 차별,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 대학입시경쟁,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고 보았다. 교육부는 현재 이와 관련된 정책으로 능력중심 사회 구현 선도, 선취업

후진학 체제 정착,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교육 지원 체제 확충,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처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며 한국 교육에서 가장 난해한 문제점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과 조사방법이 달라 정확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2006년 조사에서의 사교육 전망, 2011년 조사에서의 입시경쟁,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 전망(남궁지영·우명숙, 2011, pp.66-69)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워낙 어려운 문제들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을 근거로 볼 때에는 그다지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더욱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의 원인을 탐색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한국 교사들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구체적인 근거를 들지 않더라도 장래 희망이나 배우자의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늘 1, 2위를 다투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교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평판은 낮고, 특히 자녀가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2013년에 비해 긍정적 인식이 줄어들었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문항에 대해 2011년, 2012년 조사 결과에서도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2011년 긍정 54.0%, 부정 42.1% → 2012년 긍정 76.3%, 부정 21.9%) 2013년과 2014년의 조사 결과 변화도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과연 무엇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그 원인과 필요한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육정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교육에 대한 현 인식을 나타내주는 온도계 역할을 하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부족은 하향식 정책 형성 방식에 따른 정보 접근 및 참여 제한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의 부족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책 형성 방식의 변화와 정책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필요하다.

이에, Middle-Up - Down 방식으로 정책의 특성에 따라 중간 리더 그룹이나 핵심 집단으로 하여금 위아래로 연계 소통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정책설계 시도를 제안한다. 일반 국민들은 하향식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정보접근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수동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해 왜곡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 참여와 소통 체계를 점검하고 연계 소통과 조정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학생과 학부모로 이어지는 정책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연계와 연결 소통구조는 여전히 하향식이고 일방적이다. 정책형성과 추진과정에서 하향식(Top-Down)접근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는 하향식의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접근은 한국의 조직문화와 관행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큰 한계에 부딪혀 왔다. 교육정책에서 불협화음을 줄이려면 교육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학교 모두가 적극적으로 정책이해도 제고를 위한 소통 노력을 해야 한다. 교육공급자들 간에도 소통 연계 구도를 명확히 하고 전략적 의사소통을 활발히 해야 한다. 이렇게 공급자간 연대가 구축되어야 수요자에게 정책의 핵심가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며, 정책 취지의 왜곡현상이나 부작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정책 의제 설정 단계부터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절차와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교육정책의 구안 첫 단계부터 국민과 개방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과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덜 축적된 사회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나 소통의 부실이 감지되면 숨은 의도 찾기가 확산되기 마련이다. 신뢰받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현 정부가 세운 3대 목표는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이고, 4대 원칙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다. 교육정책도 교육부 단독으로 구안하여 추진 가능한 정책은 점점 줄어들고 여러 부처와 연계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양한 주체들과 다차원적으로 개방, 공유, 소통, 협력하여야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정책에 대한 정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일환으로 정책 홍보도 필요하다. 교육부는 정책고객별 현장 소통을 통한 직접 홍보, 정책과제별 맞춤형 홍보, 쌍방향 소통을 위한 온라인 홍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하여 정책 체감도를 극대화한다는 소통 및 홍보를 계획하고 추진 중이다(교육부, 2014a, p.64-65). 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이와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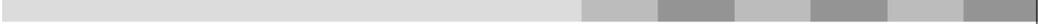
의사소통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정책 추진 여건과 환경에 비해 지나친 홍보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만 높일 뿐 실제 추진상의 어려움으로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을 우려를 갖게 된다. 예컨대,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되어 있고 기대는 높으나 추진 예산 등 운영 여건은 열악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향후 정책 성과 인식이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정책 여건과 그에 맞는 계획, 전략 수립을 통한 정책 추진과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 제언을 하였다. 본 조사 결과가 정부와 국민의 정책 의사소통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많은 정책 대안들은 교육계의 일상을 존중하는 선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계의 변화는 교육일상성의 개혁이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을 너무 많이 투입하기 보다는 외부에서의 요란한 개혁을 동반하지 않는 학교현장의 교육일상성의 개혁(reform without reform)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교육계는 교육여론이 의미하는 바를 각자의 위치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영복(2000).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 교육부(2014a).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 인재. 2014년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
- 교육부(2014b).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보도자료.
- 교육부(2013a).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
- 교육부(2013b).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보도자료.
- 김양분, 김현진, 박호근(200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01).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1-8.
- 김영화, 이인호, 임진영(1994). 한국인의 교육 의식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4-8.
- 김일혁, 김양분(200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06).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6-24.
- 김형주, 김영애, 조선하(2009).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09-R02.
- 남궁지영, 김창환, 우명숙(201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2).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2-24.
- 남궁지영, 우명숙(201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1).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1-23.
- 남궁지영, 우명숙(201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0).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0-03.
- 박혜자 의원실(2014). 무상급식 실시, 대구·울산·경북 여전히 50% 미만. 국회 보도자료.
- 배종근, 이미나(1988). 교육에 대한 국민 의식 분석. 신라출판사.
- 배천웅 외(1986). 한국인의 교육관 분석 86-15. 한국교육개발원.
- 성기선(199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1999).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9-5.
- 오연천, 진재완(2006). 재정정책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방안 정책연구. 기획재정부.
- 이강주, 양승실, 차성현(201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3). 한국교

- 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3-35.
- 이두원(2005). 국가 정책 홍보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탐색연구. 커뮤니케이션연구. 제13권. 1호
- 이종재 외(1981). 한국인의 교육관 : 유형적 특성과 갈등 RR-142. 한국교육개발원.
- 이준웅(2011). ‘전화 여론조사’방법 시대 안 맞는 허점 많다-전화 여론조사 신뢰 추락 원인. 월간 『신문과 방송』.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년 6월호. pp.22-31.
- 임연기, 김명숙, 김현철(1998).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 연구 CR 98-2.
- 유균상, 남궁지영, 김일혁(200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08).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8-31.
- 전경갑 외(1987).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87-08.
- 한국 갤럽(2014).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39호. 2014년 11월 2주(11~13일).
-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정부 3.0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다.
- 현영섭(2008). 성과중심의 인재정책 평가모형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OR 2008-06.
- 통계청(2012). 2012년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 Abrams, Marc.(1973). Research on Subjective social indicators. In M. Nissel(Ed.), social trends, vol.4, pp. 35-50, London: HMSO.
- Kroll, C. & Delhey, J.(2013). A Happy Nation? Oppotunities and Challenges of Using Subjective Indicators in Policymak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114, pp.13-28.
- Noll, H.-H.(2013). Subjective Social Indicators: Benefits and Limitations for Policy Making-An Introduction to this Special Issu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114, pp.1-11.
- Seaford, C.(2013). The Multiple Uses of Subjective Well-being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114, pp.29-43.
- Veenhoven, R.(2002).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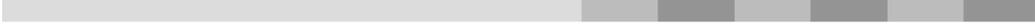
- 
- Indicators Research, vol.58, pp.33-45.
- Veenhoven, R. & W. Saris(1996). 'Satisfaction in 10 countries', in Saris et al.(eds.), A Comparative Study of Satisfaction with Life in Europe, E tv s University Press, Budapest, Hungary, pp.223-231
- William, J. B.(2014). Communicate or Modify. The 46th annual PDK/Gallup Poll Part I Report of the Public's Attitudes Toward the Public Schools. Phi Delta Kappan.
- William, J. B. & Shane, J. L.(2013). The 45th annual PDK/Gallup Poll full Report of the Public's Attitudes Toward the Public Schools. Phi Delta Kappan.
- William, J. B. & Valerie, J. C.(2014). The 46th annual PDK/Gallup Poll full Report of the Public's Attitudes Toward the Public Schools. Phi Delta Kappan.

언론기사 온라인 검색 자료

송기창(2014). 보편적 무상복지, 전면 구조조정해야. 오피니언란. 문화일보. 2014년 11월 10일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11001073111000004>

검색일 2014. 11. 13



ABSTRACT

Jungmin Kim (KEDI)
Il-Hyuk Kim (IKEE)
Seung-Sil Yang (KEDI)
Sun-Ho Lee (KEDI)

Survey Objectives & System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s Public Opinion Survey (KEDI POLL) began in 1999, and this is the 9th survey in 2014. The goal of KEDI POLL is to survey the public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Korean education and the public opinion on current issues in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urvey will be reported to the public, and will provide the basic reference material for devising and implementing educational policies.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e 2014 Survey are as follows.

- Objective 1. To survey the public's attitude toward education, to examine changes in attitude between 2013 and 2014
- Objective 2. To survey the public's level of understandings and opinions of the major education policies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to analyze the results
- Objective 3. To propose policies by deducting educational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survey results

This survey is based on a sample of 2,000 adults nationwide aged between 19 and 75, and matches the population proportions in geographic region, gender, and age. This year's the first survey focused on the role of government in publ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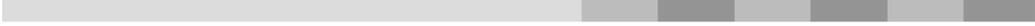


education and quality of school education, opinions on quality of teachers and teaching as a career, the level of students and school life, high school policies and college admissions, educational welfare, operation and the quality of colleges, and the current and future issues in school education. The second survey covers the attitude and perception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policies, and opinions on major educational policies and current issues in education. Questions in the survey are based on the questions from the previous eight surveys, revised and modified for this year. The survey was completed online, complemented by in-person survey for senior citizens and a few other respondents. The first survey was conducted July 22–27, 2014, and the second survey will be conducted from November 14. The results of the first survey will be published in a report and will be available online. The results of the second survey will be published as a KEDI position paper and will also be available online.

This survey examines the public's attitude and perception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policies, and serves an important role by providing a basic reference material for policy makers by surveying the perception and opinions on the government's educational policies of the public, who is the client of these policies. In spite of such importance, this survey is limited in that it is a subjective survey, and the results can vary from relevant fact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urvey is one of many reference materials for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and final policy decision must be made based on not only the results from this survey, but after comprehensively reviewing diverse reference materials including materials with objective information.

Survey Data Analysis Method

The survey data was analyzed using cross tabulation and ANOVA. In Chapter



3, the ratio of answer choices and the averages have been presented for each question, categorized into ‘all responses’ and ‘parents of students responses’ groups. The analysis results for each influencing variable tha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have been included in the Appendix section.

Survey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e survey organized by the survey objectives are as follows.

A. The Public’s Attitude Toward Education

To summarize the 2014 Survey results of the public’s perception of education, the public believes that Korean education does not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nation or society, and is not providing high quality primary, secondary, or higher education. Teachers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s well as college professors have received low ratings. The respondents supported a stronger personal character education, and believed that the main reason behind school violence was lack of education at home. Respondents said supporting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single-parent families, multi-cultural families, migrant families from North Korea, and students with disabilities is ‘important’, and ranked the support for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as ‘most important.’ Respondents said free school meals must be provided to all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regardless of their families’ economic status, while for high school students, support for free school meals was split between ‘all students’ and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only.’ The respondents said discrimination based on educational attainment and academic background were severe in Korean society, and stratification of universities and educational credentialism is expected to have ‘no major changes’ or ‘worsen,’ while the competitiveness of college admissions is expected to have either ‘a litt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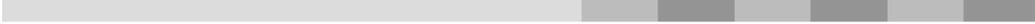
decrease’ or ‘no major changes.’ Meanwhile, private education was expected to have ‘no major changes’ or ‘expand.’ Finally, the respondents did not place much trust in the educational policies of the government.

Some main implications from this year’s survey are as follows.

1. The public believes for a need to strengthen personal character education, and that schools and families must cooperate to achieve both academic and personal character goals of the students.
2. The public believes that supporting students with environmental risk factors is important, and supports free school meals for all students in general, as well as providing free high school education.
3. In selecting college, the public values employment statistics of graduates as ‘important,’ says personal character and community services, as well as talents and aptitude must be first considered in the college admissions process, and rates colleges low in general.
4. For college admission factors and extent of free school meal provision, there is a gap between ‘all responses’ and ‘parents of students responses’ groups.
5. The public has a negative outlook on Korean education, and does not place much trust in the educational policies of the government.

B. The Changes in the Public’s Attitude of Education (Comparison with 2013 Results)

Compared to 2013 Survey results, 2014 Survey finds decreased favorable view of respondents’ children choosing teachers as career, decreased support for teaching students by proficiency levels, and decreased intent to participate in after-school activities. There is an increased demand for teachers(schools) to place more efforts i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slight change in viewing



the primary reason behind school violence from ‘mass media’ to ‘lack of education at home,’ and decrease in support for high school equalization and high school diversification policies. Majority opinion on the top elements of college admissions process changed from ‘talents and aptitude’ to ‘personal character and community services’, and on high school education, the support shifted from both ‘free and compulsory education’ to ‘free education’ only. The severity of discrimination based on educational attainment were seen as having decreased slightly, while private education, stratification of universities, and educational credentialism were expected to expand or worsen. There were slightly more positive evaluation of overall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the level of students’ personal characters and morality.

C. The Public’s Level of Understandings and Opinions of the Major Educational Policies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First of all, the ‘Expansion of the Nuri curriculum(early childhood education)’ was ranked highest in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major educational policies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e policy with most immediate needs’, and ‘the policy with highest quality of implementation.’ Then it was examined whether responses specifying top priority policy based on immediate needs or one based on the quality of implementation differed by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policies on the expansion of Nuri curriculum.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respondents with better understanding of Nuri curriculum supported the expansion of Nuri curriculum as both the policy with most immediate needs and the policy with the highest quality of implementation. But the respondents with lower levels of understanding of Nuri curriculum also supported the expansion of Nuri curriculum as the policy with most immediate needs and the policy with the highest quality of implementation, albeit at a lower rate.



Policy Suggestions

Thoughtful policy makers understand that they have two options when public opinion and public policy collide: They can modify policy so it's more consistent with public opinion, or they can mount a persuasive communications campaign explaining to the people(Americans) why new policy is needed, how it can move the nation forward, and how it can address individual need(William, J. B., 2014, p.14).

It is not the goal of a survey to present overly specific policy proposals from survey results. Meanings emerge when multiple surveys or questions produce same results, and significant trends keep emerging in repeated survey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urvey, suggestions for national education policies are as follows.

1. Current policy of strengthening character education needs to be reviewed, and pursued more aggressively.
2. Policies that support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need to be implemented. Free school meal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as well as policies to expand Nuri curriculum are necessary, but need to be implemented in phases given realistic conditions.
3. The social role of universities needs to be redefined, and trust in professors and fiscal transparency of universities need to be established.
4. A blueprint for bright future of Korean education needs to be prepared, and the policies must be implemented in cooperation with society's various sectors.
5. The reasons behind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teaching as a career need to be investigated and an effective plan needs to be prepared to address the situation.
6. Strategies need to be devised to enhance public trust in educational policies.

부 록

[부록 1] 연도별 설문 문항 주제 비교

[부록 2] 2014년 1차 조사 설문지

[부록 3] 2014년 2차 조사 설문지

[부록 4] 기존 문항 수정 및 신규 개발 내역

[부록 5] 1차 조사 자료 배경변인별 분석 결과

[부록 1] 연도별 설문 문항 주제 비교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학교교육 만족도	○(1)	×	×	×	×	×	×	×
21세기 강조되어야 할 교육내용	○(5) ○(32)	○(22)	○(7)	○(4)	○(12)	○(21)	○(21)	○(12)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평가	○(8)	×	×	×	×	×	×	×
학교 선택시 고려 사항	○(9)	×	×	×	○(4)	○(4)	○(4)	○(4)
학교 기부에 대한 태도	○(10)	×	×	×	×	×	×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12)	○(15)	○(22)	○(30)	○(16)	○(25)	○(25)	○(20, 3)
사립학교 중·고등학교에 학생 선발권 부여	○(13)	×	×	×	×	×	×	×
대학입학시험 제도	○(14)	×	×	×	×	×	×	×
교육에 대한 평가	×	×	×	×	×	×	×	×
학교평가 정책	○(15)	○(4)	×	×	×	×	×	×
초·중등학교 수의사범	○(16)	×	×	×	×	×	×	×
학교의 등록금 세입 인상	×	○(7)	○(23)	○(30)	×	×	×	×
정부의 교육 투자 수준	○(17)	×	×	×	×	×	×	×
과외교육 실태 변화	○(18)	×	×	×	×	×	×	×
과외를 하는 주요 이유	○(19)	×	×	×	×	×	×	×
자녀 과외교육 비용 부담 정도	×	×	×	×	×	×	×	×
학생체벌	○(22)	○(6)	○(5)	○(9)	○(13)	○(13)	○(13)	○(17)
교원에 대한 태도	×	×	×	×	○(6)	○(9)	○(9)	○(7)
교원 노동조합 합법화 정책	×	×	×	×	×	×	×	×
흔치 관행	○(23)	×	×	×	×	×	×	×
학생비행	○(4)	×	×	×	×	×	×	×
교육개혁 추진 평가	×	×	×	×	×	×	×	×
교육개혁 정책 평가	○(11)	×	×	×	○(26)	○(7)	○(7)	○(46) ○(46-1) ○(46-2)
사회교육 경험 및 사회교육 기관 유형	○(29) ○(29-1)	○(31)	×	×	×	×	×	×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입 3수 정책(고교 등급제도)	×	×	×	×	×	×
		대입 3수 정책 (사립대학의 기여 입학제도)	×	×	×	×	×	×
		대학 입시 (내신 반영 비율 50%이상 확대)	×	×	×	×	×	×
		수준별 이동수업	○(10)	○(12-1) ○(12-2)	○(19)	○(23)	○(23)	○(14)
		방과후학교	○(13)	○(14)	×	×	×	×
		조기 영어 교육 (영어 공교육 시기)	×	×	○(20)	○(24)	○(24)	○(13)
		조기 유학	○(25)	○(34)	○(38)	○(44)	○(44)	○(39)
		교원평가(학부모)	○(20)	×	×	×	×	×
		교원평가(중·고등 학생)	○(21)	×	×	×	×	×
		주 5일 수업	×	×	×	×	×	×
		두발 및 복장 자유화	×	×	×	×	×	×
		대학의 기능 수행	○(28)	○(37)	○(27)	○(33)	○(33)	○(29)
		대학교수의 역할 수행	○(29)	○(38)	○(28)	○(34)	○(34)	○(30)
		사립대학 재정 지원	○(31)	○(40)	×	×	×	×
		학교법인이사 추천제도	○(33)	×	×	×	×	×
		입학담당제 및 등록금장우제(지방 대학)	○(34)	×	×	×	×	×
		자녀를 교육시키는 목적	○(36)	○(46)	×	×	×	×
		개인의 성공 또는 출세 요인	○(37)	○(47)	×	×	×	×
		교육의 혜택에 대한 의견 (경제적 부의 증대에 대한 영향)	○(38)	○(48)	×	×	×	×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교육의 해탈에 대한 의견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영향)	○(69)	○(48)	×	×	×	×
		교육의 해탈에 대한 의견 (심리적인 만족감에 대한 영향)	○(40)	○(48)	×	×	×	×
		자녀교육 실패의 의미	×	×	×	×	×	×
		학생의 IT관련 기기 사용의 중독성	학성의 IT관련 기기 사용의 중독성	○(11)	○(15)	○(17)	○(17)	○(11)
		0교시 수업에 대한 인식	0교시 수업에 대한 인식	×	×	×	×	×
		0교시 수업에 대한 의견	0교시 수업에 대한 의견	×	×	×	×	×
		종교계 학교의 종교과목 집중편성	종교계 학교의 종교과목 집중편성	×	×	×	×	×
		특정 대학 진학반 운영	특정 대학 진학반 운영	×	×	×	×	×
		방과후 학원 강사 수업	방과후 학원 강사 수업	×	×	×	×	×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초등학교)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초등학교)	○(17)	×	×	×	×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중·고등학교)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중·고등학교)	○(18)	×	×	×	×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사교육비 변화)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사교육비 변화)	○(19)	×	×	×	×
		교직 개방	교직 개방	○(20)	×	×	×	×
		교장 공모제	교장 공모제	○(21)	×	×	×	×
		외국인 학교 국내 교육체계 편입	외국인 학교 국내 교육체계 편입	○(35)	×	×	×	×
		국제중학교 확대 설립	국제중학교 확대 설립	×	×	×	×	×
		대학 등록금 후불제	대학 등록금 후불제	×	×	×	×	×
		입학사정관제	입학사정관제	×	×	×	×	×
		자녀 교육의 생의야기	자녀 교육의 생의야기	○(49)	×	×	×	×
			교육비리 심각성		×	×	×	×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교육비리 원인	×	×	×	×
				교육감 선출 방식	×	×	×	×
				교사 연이별의 심각성	×	×	×	×
				고교 기초심화과정 및 학점제 도입	×	×	×	×
				사교육비 대책 (방과후학교)	×	×	×	×
				교원 평가 결과 활용 (교사 연수)	×	×	×	×
				교원 평가 결과 활용 (인사 반영)	×	×	×	×
				교직원제 가입 교사 명단 공개	×	×	×	×
				고교 다양화 정책	○(17)	○(26)	○(26)	○(21, 4)
				무상급식 지원	○(21)	○(29)	○(29)	○(25)
				저소득층 지원	○(22)	○(30)	○(30)	○(26)
				사교육비 대책 (특강교 및 자용교 재발견)	×	×	×	×
				사교육비 대책 (EBS 수능강의)	×	×	×	×
				대학 진학률	×	×	×	×
				대학 등록금	×	×	×	×
				입학사정관 제도 (학생 선발 규모)	×	×	×	×
				입학사정관 제도 (사교육비 변화)	×	×	×	×
				입학사정관 제도 (효과성)	×	×	×	×
				입학사정관 제도 (문제점)	×	×	×	×
				창의성 교육 (창조성 계발)	×	×	×	×
				창의성 교육 (창조성 소양)	×	×	×	×
				창의성 교육 (창조성 계발의 교육)	×	×	×	×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창의성 교육 (창조적 소양의 도움)	×	×	×	×
				창의성 교육 (정규학교교육이 창조성 개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	×	×	×	×
				창의성 교육 (창조성 활용 능력)	×	×	×	×
				창의성 교육 (창조성 개발에 따른 경제 활동)	×	×	×	×
				창의성 교육 (창조성 개발 활용)	×	×	×	×
				창의성 교육 (창조성 개발에 따른 경제성장률)	×	×	×	×
					교육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 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1)	○(1)	○(1)
					교사 월급 결정 기준	○(3)	○(3)	○(3)
					학생 성적에 따른 교사 월급 반영 정도	○(10)	○(10)	×
					교직에 대한 견해	○(11)	○(11)	×
					학생의 성공 척도	○(12)	○(12)	○(8, 1)
					학생의 학습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	○(18)	○(18)	×
					방과후학교 참여	○(19)	○(19)	○(16)
					입학사정관제 입시제도 보완	○(22)	○(22)	○(15)
					대학입시 중요 반영 항목	○(27)	○(27)	○(22)
					대학입시 중요 반영 항목	○(28)	○(28)	○(23, 5)
					대학재정의 투명성	○(35)	○(35)	○(31)
					대학 등록금 인하 방안	○(36)	○(36)	×
					자녀 대학 입학 시 등록금 부담	○(37)	○(37)	○(32)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녀의 대학 졸업 후 구직 성공 가능성 대한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38)	○(38)	○(33)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40)	○(40)	○(34)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수준	○(41)	○(41)	○(35)
					자녀의 미이스티고 진학에 대한 의견	○(42)	○(42)	○(36)
					기업의 임금비용 고용자 신규채용에 대한 의견	○(43)	○(43)	○(37)
					입시 경쟁에 대한 미래 전망	○(46)	○(46)	○(38)
					대학 서열화에 대한 미래 전망	○(47)	○(47)	○(41)
					합법주어대학미래 전망	○(48)	○(48)	○(42)
					해결이 필요한 교육 문제	○(5)	○(5)	○(43)
					학업, 경쟁 스트레스 정도	○(14)	○(14)	×
					학교 폭력의 원인	○(15)	○(15)	○(10)
					학생의 인성, 도덕성 수준	○(20)	○(20)	○(18, 2)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31)	○(31)	○(9)
					국가재원투자 우선순위	○(32)	○(32)	○(27, 6)
					교육의 국가사회발전 기여 정도	○(49)	○(49)	○(28, 7)
							교육감 직선제	○(44)
							자립대학 우선 지원 정책	×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45)
							이명박 정부의 주요 성과에 대한 견해	×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근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	×
							비근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등의	×
							학교 교육의 질 (학교급 별로 평가)	×
							초등학교 교육의 질	×
							중학교 교육의 질	×
							고등학교 교육의 질	×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성과	×
							비근해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의 정도	×
								교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동의정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시급성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의견 (중·고등학생 평가 과목 수의 적절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의견 (초등학생 평가 페지에 대한 의견)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의견 (인지 여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의견

1999	2001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국가 간 학업성취도 차이를 계대로 측정하 는지에 대한 인식)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의견 (한국 교육의 질 제고 기여에 대한 인식)
								자녀 성장에 대한 비관
								가정교육 역할 사항
								교육 불안 이해도와 동의 정도

[부록 2] 2014년 1차 조사 설문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ID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p>안녕하십니까?</p> <p>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조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교육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 문제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파악하여, 각종 교육정책의 개발과 시행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여러분의 응답이 향후 우리나라의 교육을 개선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p> <p>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귀하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서 관리하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4년 7월 한국교육개발원장</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p>▣ 주관기관 :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조사분석연구실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1길 35(우면동)</p> </td> <td style="width: 50%; 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p>▣ 수행기관 : (주) 리서치 앤 리서치 서울 서초구 잠원동 46-3 SL빌딩</p> </td> </tr> </table>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search & Research <small>Marketing Research - Public Social Poll and Consulting - ISO 9001 Certified Company - Exclusive Licensee of ZNS</small></p> </div> </div>			<p>▣ 주관기관 :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조사분석연구실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1길 35(우면동)</p>	<p>▣ 수행기관 : (주) 리서치 앤 리서치 서울 서초구 잠원동 46-3 SL빌딩</p>
<p>▣ 주관기관 :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조사분석연구실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1길 35(우면동)</p>	<p>▣ 수행기관 : (주) 리서치 앤 리서치 서울 서초구 잠원동 46-3 SL빌딩</p>			
		DBID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ype="text"/>		

응답자 정보	
• 성 명 :	_____
• 주 소 :	_____
• 전화번호 : ()	_____ - _____
• 휴대폰 : ()	_____ - _____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자의 응답 내용은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1.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중 다음과 같은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한다고 보십니까?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청 교육감	단위학교 교장
(1) 초·중·고 교육정책의 결정	①	②	③
(2) 학생의 학습성취 기준 마련	①	②	③
(3)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①	②	③
(4) 교육과정의 결정	①	②	③

2.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를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시겠습니까?

초·중·고 전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① 수(매우 잘하고 있다) ② 우(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③ 미(보통이다)
 ④ 양(별로 못하고 있다) ⑤ 가(전혀 못하고 있다) ⑥ 잘 모르겠다

3. 국민들로부터 학교가 '수(매우 잘하고 있다)'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순위 2 순위

- ①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②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
 ③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의 제공 ④ 학생을 위한 친절한 상담 및 학생지도 (인성, 안전) 활동
 ⑤ 학부모와의 좀 더 협력적 관계 형성 ⑥ 기타__

4. 자녀가 다닐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다음의 요소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습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 ① 학교 명성이나 전통 ② 교원의 질적 수준 ③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④ 학교시설 ⑤ 지역 환경 및 여건 ⑥ 통학거리
 ⑦ 상급학교 진학 실적 ⑧ 졸업생의 취업 실적 ⑨ 교육비
 ⑩ 기타_____

C.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5.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3 순위 _____

- ① 학습 지도 능력 ② 생활 지도 능력 ③ 진로 지도 능력
 ④ 의사소통 능력 ⑤ 기타 _____

6.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못하고 있다	전혀 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직자로서의 능력과 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매우 신뢰 한다	어느 정도 신뢰 한다	보통이다	별로 신뢰하지 못 한다	전혀 신뢰하지 못 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귀하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D. 학생의 정서와 생활

9.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학업이나 경쟁**으로 인하여 초·중·고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초·중·고 학생들의 **IT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 [스마트폰, SNS, 컴퓨터게임 등]에 대한 **중독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E. 교육의 내용과 방식

12.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이 각각 무엇인지를 3가지씩 보기에서 골라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써 주십시오.

교육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보 기			
① 창의성 교육	② 인성교육	③ 진로교육	④ 특기적성교육
⑤ 민주시민교육(예: 타인존중, 공공질서교육 등)			⑥ 성교육
⑦ 환경교육	⑧ 국어교육	⑨ 외국어교육	⑩ 수학교육
⑪ 과학교육	⑫ 예체능교육	⑬ 한자교육	⑭ 안전교육
⑮ 역사교육	⑯ 다문화 교육		

13.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영어교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기가 좋다	더 일찍 가르쳐야 한다	더 늦게 가르쳐야 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14. 학생의 **성적에 따라** 과목별로 다르게 반을 나누어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는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15. 귀하의 자녀를(초·중·고) **방과후학교**에 참여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참여시킬 생각이 있다	참여시킬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16. 학생 본인 외에 **학생의 학업성취(성적)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사(학교)	학부모(가정)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17.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훈계 훈육의 교육별로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별이란, 운동장 뛰기, 교실 뒤 서있기 등과 같이 학칙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훈육을 의미합니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18.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수 위주의 입시 경쟁체제	가정교육의 부재	학교의 폭력방지 노력 부족	대중매체 (인터넷, 게임 포함)의 폭력성	학생 개인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19. **정부나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를 해소**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못하다	전혀 그렇지 못하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F. 고교 정책 및 대학 입시

20.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란, 고등학교 진학 시,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지 않고 추천방식을 통하여 고등학교에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모든 대도시를 비롯하여, 일부 중소도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21.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마이스터고교, 특성화고교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22. 대학입시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별**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다음 중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 ② 고교 내신 성적
- ③ 특기·적성
- ④ 인성 및 사회봉사
- ⑤ 면접 및 글쓰기 성적
- ⑥ 기타

G. 교육복지

24. 초·중·고 학생들 중 다음의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 대상		매우 중요 하다	대체 로 중요 하다	보통 이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잘 모르 겠다
		①	②	③	④	⑤	
(1)	저소득층 학생						①
(2)	결손가정 학생						
(3)	다문화가정 학생						
(4)	탈북주민가정 학생						
(5)	장애 학생						

25.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상 급식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잘 모르 겠다
초등 학생	①	②	③	④
중 학생	①	②	③	④
고등 학생	①	②	③	④

26.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정지원해 주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중학교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고등학교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 ①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 ②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
- ③ 방과후학교 교육비(자유수강권)
- ④ 학교급식비
- ⑤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비용
- ⑥ 기타 _____

27. 현재 의무교육의 원칙(강제성, 무상성, 보편성)에 따라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처럼 **고등학교에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등학교는 다양하므로 의무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무상교육만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는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 * 무상교육 :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
- * 의무교육 :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28.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다음 중 어느 분야에 가장 먼저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5세 유아 보육 및 교육 무상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확대	고등학교 무상 교육화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	노후 시설 보수·개선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H. 대학 운영과 대학교육의 질

29. 우리나라의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얼마나 잘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못하고 있다	아주 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30.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못하고 있다	아주 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31. **대학에서 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투명하다	어느 정도 투명하다	보통이다	별로 투명하지 못하다	아주 투명하지 못하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32. 귀하의 자녀가 내년에 대학에 입학한다면 **졸업시까지 계속 대학등록금을 부담**하시겠습니까?

계속 부담해 줄 것이다	어느 정도 부담해 줄 것이다	별로 부담해 주지 않을 것이다	전혀 부담해 주지 않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33. 귀하의 자녀가 내년에 대학에 입학한다고 가정할 때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1.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

34.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정도로 존재한다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35. 현재 한국사회에서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정도로 존재한다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36. 귀하의 자녀가 어느 단계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고등학교	전문대학	일반대학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37. 귀하의 자녀를 대학에 가지 않고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같은 특화된 학교에 보낼 생각이 있으십니까?

보낼 생각이 있다	보낼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38.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자에 한정하여 뽑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39. 여건이 되신다면 자녀를 외국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으십니까?

보낼 생각이 있다	보낼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40.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소될 것이다	큰 변화 없을 것이다	확대될 것이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41. 학생 각자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42. 흔히 대학을 일류대학이니 이류대학이니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대학 서열화**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화될 것이다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심화될 것이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43.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화될 것이다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심화될 것이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44. 한국교육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많이 기여하고 있다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기여하지 못 한다	전혀 기여하지 못 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45.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매우 신뢰 한다	어느 정도 신뢰 한다	보통이다	별로 신뢰하지 못 한다	전혀 신뢰하지 못 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46. 다음은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입니다. (1) ~ (10) 까지 각각의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우측에 표시해주세요.

주요 교육정책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보통이다	대체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1)	2012년 만 5세에 한하던 누리과정 지원을 만3~4세에도 확대하여 만3~5세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모두 매월 22만원의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누리과정 확대					
(2)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오후 돌봄을 제공하고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자녀 등 추가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저녁 10시까지 저녁 돌봄을 확대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3)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4)	교육과정에 근거한 과목별 성취기준에 대한 학생의 도달 정도를 학생의 성취 수준으로 나타내는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					
(5)	고등학교 학생에게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무료로 수업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6)	학교 내 선형학습 유발 행위 금지를 위해 ‘공교육정상화 촉진특별법’을 제정하고 EBS 교육서비스 운영을 내실화하는 사교육 부담 경감					
(7)	복잡한 대학 입학전형을 간소화하여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지역·계층을 고려한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입시 간소화					
(8)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경쟁력 있는 분야와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학 특성화					
(9)	전문대학의 학위과정 다양화 및 재정투자 대폭 확대, 평생 직업 교육 기능 및 국제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는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10)	지역의 산업발전 및 인력양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방대학 지원 확대					

46-1. 위의 교육정책 중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46-2. 위의 교육정책 중 현재까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J. 인구통계학적 질문

6. 귀하의 교육수준(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 ① 무학
- ② 초등학교 졸업
- ③ 중학교 졸업 / 현재 고등학교 재학
- ④ 고등학교 졸업 / 대학 재학
- ⑤ 전문대 졸업
- ⑥ 대학교 졸업
- ⑦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 ⑧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7. [기혼인 경우(사실혼 포함)만 응답] 맞벌이 여부 ① 맞벌이 부부임 ② 맞벌이 부부가 아님

8. 한 달 평균 가구 총소득(이자 수입,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하되 세금 공제 이전의 액수로 계산해 주십시오)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 ~ 200만원 미만
- ③ 200 ~ 300만원 미만
- ④ 300 ~ 400만원 미만
- ⑤ 400 ~ 500만원 미만
- ⑥ 500 ~ 600만원 미만
- ⑦ 600 ~ 700만원 미만
- ⑧ 700만원 이상

9. 직업(한 가지가 아닌 경우, 본업 또는 주된 수입원)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직업 _____ , 배우자의 직업 _____

전문/기술직	(01) 자연 및 기술관련 엔지니어 (03)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05) 회계사, 변호사, 판사, 검사 (07) 종교인 (09) 체육인, 예술가, 연예인 (11) 기타 전문직(학원강사, 프로그래머)	(02) 대학교수, 연구원 (04) 수의사, 약사, 간호사 (06) 교사 (08) 언론인, 방송인 (10) 항공기/선박 승무원
행정/관리직	(21) 기업체경영주(5인 이상 고용) (23) 고급 공무원(중앙 과장, 지방 국장) (25) 군인(영관급 이상), 경찰(경정 이상) (27) 군인(위관급, 하사관), 경찰(경감 이하) (29) 기타 사무직	(22) 대기업체 간부(부장 이상) (24) 사회단체 간부 (26) 사무관련사업체 경영주(5인 미만 고용) (28) 소방관, 교정관
판매/서비스직	(31) 소·도매 상인(5인 미만 고용) (33) 부동산 중개인 (35) 행사, 노점상 (41) 음식점, 여관 등의 주인 (43) 헤어디자이너, 세탁소, 목욕탕 (45) 보안업무 종사자, 수위, 경비	(32) 판매점원 (34) 판매 대리인 및 외판원 (36) 기타 판매직 주인 (42) 음식점, 여관 등의 종업원 (44) 환경미화원, 기사도우미 (46) 기타 서비스직 주인
농어업직	(51) 부농(2정보, 6,000평 이상) (53) 소농(0.5~1정보, 1,500~2,999평) (55) 농업노동자, 풀일꾼 (57) 선주 및 수산양식업자 (59) 기타 농어업직	(52) 중농(1~2정보, 3,000~5,999평) (54) 빈농(0.5정보, 1,500평 미만), 소작농 (56) 낙농업자, 양계, 원예, 과수원 (58) 어부 및 수산업 종사자
생산직	(61) 생산직 사업체 경영자(5인 미만) (63) 막노동자, 단순노동자 (65) 광부	(62) 생산감독(주임 및 반장) (64) 운전기사(자동차, 중장비) (66) 기타 생산직
미취업	(71) 학생 (73) 군인(사병) (75)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72) 주부 (74) 무직(실업) (76) 기타 미취업자
기 타	(81) 기타()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2014년 2차 조사 설문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ID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15px;" type="text"/>
<p>안녕하십니까?</p> <p>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조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교육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 문제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파악하여 각종 교육정책의 개발과 시행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여러분의 응답이 향후 우리나라의 교육을 개선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p> <p>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귀하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서 관리하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4년 11월 한국교육개발원장</p>	
<p>▣ 주관기관 :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조사분석연구실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1길 35(우면동)</p> 	<p>▣ 수행기관 : (주) 리서치 앤 리서치 서울 서초구 잠원동 46-3 SL빌딩</p> 
DBID <input style="width: 20px; height: 15px;" type="text"/>	

응답자 정보	
• 성 명 :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 주 소 :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 전화번호 : () -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 휴대폰 : () -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자의 응답 내용은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기초 자료 질문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거주지역

① 서울특별시	② 세종특별자치시
③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④ 중소도시(시 지역)
⑤ 읍·면(군) 지역	

3. 연령 (만_____세)

4. 혼인상태 ① 기혼 (☞ 5번으로) ② 미혼 (☞ B영역 1번으로)

 ③ 기타 (☞ 자녀가 있는 경우 5번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 B영역 1번으로)

5. 자녀의 수를 아래의 분류에 따라 표시해 주십시오.

※ 자녀의 총 수	_____명
① 기관 미이용 영·유아나 아동	_____명
② 유치원(어린이집, 학원 등 포함) 아동	_____명
③ 초등학교	_____명
④ 중학교	_____명
⑤ 고등학교	_____명
⑥ 전문대 학생	_____명
⑦ 일반대 학생	_____명
⑧ 대학원 학생	_____명
⑨ 직장인	_____명
⑩ 기타(미취업, 출가 등): _____	_____명

6. 지난 7~8월에 실시된 본 조사의 1차 조사에 참여하셨습니다?
 ① 예 ② 아니오

B.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태도 및 인식

1. 귀하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①	②

잘 모르겠다
③

2.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수 위주의 입시 경쟁체제	가정교육의 부재	학교의 폭력방지 노력 부족	대중매체 (인터넷, 게임 포함)의 폭력성	학생 개인
①	②	③	④	⑤

잘 모르겠다
⑥

3.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란, 고등학교 진학 시,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지 않고 추천방식을 통하여 고등학교에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모든 대도시를 비롯하여, 일부 중소도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①	②

잘 모르겠다
③

4.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마이스터고교, 특성화고교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①	②

잘 모르겠다
③

5. 다음 중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② 고교 내신 성적 ③ 특기·적성
- ④ 인성 및 사회봉사 ⑤ 면접 및 글쓰기 성적 ⑥ 기타

6. 현재 의무교육의 원칙(강제성, 무상성, 보편성)에 따라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처럼 **고등학교에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등학교는 다양하므로 의무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무상교육만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는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 * 무상교육 :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
- * 의무교육 :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7.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다음 중 어느 분야에 가장 먼저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5세 유아 보육 및 교육 무상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확대	고등학교 무상 교육화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	노후 시설 보수·개선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현재와 같이 시도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9. 현재 전국적으로 매년 1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의 학력을 측정하기 위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국어, 영어, 수학)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1. 이와 같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가 적당하다	고등학생의 시험과목을 늘려야 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시험과목을 모두 늘려야 한다	중학생 시험은 폐지해야 한다	중학생, 고등학생 시험 모두 폐지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9-2. 초등학교 6학년 대상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2013년에 폐지되어 현재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10.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와 같은 국제적인 비교 시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10-1.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와 같은 국제적인 비교 시험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①	②	

10-2.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와 같은 국제적인 비교 시험은 국가간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제대로 측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0-3.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와 같은 국제적인 비교 시험은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잘 모르겠다
⑥

11. 자녀가 있다면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가장 바라겠습니까?

창의적인 사람	따뜻한 사람	적극적인 사람	정의로운 사람
①	②	③	④

성격이 월만한 사람	다재다능한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⑤	⑥	⑦	⑧

잘 모르겠다
⑨

12. 가정에서 자녀를 지도할 때 가장 역점을 두어 지도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공부	사회성	예의범절	취미 및 특기
①	②	③	④

정서적 감수성	운동 및 건강	도덕성	폭넓은 경험
⑤	⑥	⑦	⑧

잘 모르겠다
⑩

C. 주요 교육 정책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

13. 다음은 **현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입니다. (1)에서 (10)까지 각각의 정책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와 동의하시는 정도를 표시해주세요.

주요 교육 정책	이해 정도					동의 정도				
	전혀 모른 다	대체 로 모른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대체 로 동의 하지 않는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2012년 만 5세에 한하던 누리과정 지원을 만3~4세에도 확대하여 만3~5세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모두 매월 22만원의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누리과정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오후 돌봄을 제공하고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자녀 등 추가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저녁 10시까지 저녁 돌봄을 확대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교육과정에 근거한 과목별 성취기준에 대한 학생의 도달 정도를 학생의 성취 수준으로 나타내는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주요 교육 정책	이해 정도					동의 정도				
	전혀 모른 다	대체 로 모른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대체 로 동의 하지 않는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5) 고등학교 학생에게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무료로 수업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를 위해 '공교육정상화 촉진특별법'을 제정하고 EBS 교육서비스 운영을 내실화하는 사교육 부담 경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복잡한 대학 입학전형을 간소화하여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지역·계층을 고려한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입시 간소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경쟁력 있는 분야와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학 특성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전문대학의 학위과정 다양화 및 재정투자 대폭 확대, 평생 직업 교육 기능 및 국제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는 전문대학 직업 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지역의 산업발전 및 인력양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방대학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1. 위의 교육정책 중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13-2. 위의 교육정책 중 현재까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14. 다음은 **현 정부의 교육 정책 중** 일부입니다. (11)에서 (13)까지 각각의 정책에 대해 이해하시는 정도와 동의하시는 정도를 표시해주세요.

주요 교육 정책	이해 정도					동의 정도				
	전혀 모른다	대체 로 모른다	보통 이다	대체 로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대체 로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대체 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1) 정서행동 특성검사 활용과 검사결과에 따른 전문기관(병·의원, 정신건강증진센터, Wee센터 등) 연계관리 등을 통해 자살 등 학생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종합적 예방체계 확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학생상담지원시스템(Wee 프로젝트: 학교상담실-학생상담지원센터-위기학생 대안학교의 연계지원체계) 구축 및 전문상담교사 확충을 통한 학생상담 내실화 및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치유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국가 직무능력기준(NCS)을 기반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능력중심의 인재 채용·관리(승진·보상)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의 능력중심사회 여건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 다음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 현안입니다. 각각의 현안에 대해 이해하시는 정도와 동의하시는 정도를 표시해주세요.

교육 현안	이해 정도					동의 정도				
	전혀 모른다	대체 로 모른다	보통 이다	대체 로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대체 로 동의 하지 않는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고등학생은 2018학년도부터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국어·수학·영어·통합사회·통합과학을 공통과목으로 배우도록 하는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추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초등학교 실과 과목에서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보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D. 인구통계학적 질문

7. 귀하의 교육수준(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 현재 고등학교 재학
 ④ 고등학교 졸업 / 대학 재학 ⑤ 전문대 졸업 ⑥ 대학교 졸업
 ⑦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⑧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8. [기혼인 경우(사실혼 포함)만 응답] 맞벌이 여부 ① 맞벌이 부부임 ② 맞벌이 부부가 아님

9. 한 달 평균 가구 총소득(이자 수입,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하되 세금 공제 이전의 액수로 계산해 주십시오)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 ~ 200만원 미만 ③ 200 ~ 300만원 미만
 ④ 300 ~ 400만원 미만 ⑤ 400 ~ 500만원 미만 ⑥ 500 ~ 600만원 미만
 ⑦ 600 ~ 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10. 직업(한 가지가 아닌 경우, 본업 또는 주된 수입원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직업 _____ , 배우자의 직업 _____

전문/기술직	(01) 자연 및 기술관련 엔지니어 (03)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05) 회계사, 변호사, 판사, 검사 (07) 종교인 (09) 체육인, 예술가, 연예인 (11) 기타 전문직(학원강사, 프로그래머)	(02) 대학교수, 연구원 (04) 수의사, 약사, 간호사 (06) 교사 (08) 언론인, 방송인 (10) 항공기/선박 승무원
행정/관리직	(21) 기업경영영주(5인 이상 고용) (23) 고급 공무원(중앙 과장, 지방 국장) (25) 군인(영관급 이상), 경찰(경정 이상) (27) 군인(위관급, 하사관), 경찰(경감 이하) (29) 기타 사무직	(22) 대기업체 간부(부장 이상) (24) 사회단체 간부 (26) 사무관련사업체 경영주(5인 미만 고용) (28) 소방관, 교정관
판매/서비스직	(31) 소·도매 상인(5인 미만 고용) (33) 부동산 중개인 (35) 행사, 노점상 (41) 음식점, 여관 등의 주인 (43) 헤어디자이너, 세탁소, 목욕탕 (45) 보안업무 종사자, 수위, 경비	(32) 판매접점 (34) 판매 대리인 및 외판원 (36) 기타 판매직 주인 (42) 음식점, 여관 등의 종업원 (44) 환경미화원, 가사도우미 (46) 기타 서비스직 주인
농어업직	(51) 부농(2정보, 6,000평 이상) (53) 소농(0.5~1정보, 1,500~2,999평) (55) 농업노동자, 품일꾼 (57) 선주 및 수산양식업자 (59) 기타 농어업직	(52) 중농(1~2정보, 3,000~5,999평) (54) 빈농(0.5정보, 1,500평 미만), 소작농 (56) 낙농업자, 양계, 원예, 과수원 (58) 어부 및 수산업 종사자
생산직	(61) 생산직 사업체 경영자(5인 미만) (63) 막노동자, 단순노동자 (65) 광부	(62) 생산감독(주임 및 반장) (64) 운전기사(자동차, 중장비) (66) 기타 생산직
미취업	(71) 학생 (73) 군인(사병) (75)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72) 주부 (74) 무직(실업) (76) 기타 미취업자
기 타	(81) 기타()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4] 기존 문항 수정 및 신규 개발 내역

	2013년 문항	2014년 문항	변동 내역																																																		
영역	A. 기초 자료 질문		변동 없이 사용																																																		
DQ1	동일		변동 없이 사용																																																		
	거주지역	거주지역																																																			
DQ2	① 서울특별시 ②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③ 중소도시(시 지역) ④ 읍·면(군) 지역	① 서울특별시 ② 세종특별자치시 ③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④ 중소도시(시 지역) ⑤ 읍·면(군) 지역	○ 선택지 수정 : 세종특별자치시 추가																																																		
DQ3	동일																																																				
DQ4	동일																																																				
DQ5	동일																																																				
영역	B.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변동 없이 사용																																																		
1.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중 다음과 같은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한다고 보십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h style="width: 30%;">교육문제에 대한 책임</th> <th style="width: 15%;">교육부 장관</th> <th style="width: 15%;">시·도교육청</th> <th style="width: 15%;">교육감</th> <th style="width: 15%;">단위학교 교장</th> </tr> <tr> <td>(1) 초·중·고 교육정책의 결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d style="text-align: center;">③</td> <td style="text-align: center;">④</td> </tr> <tr> <td>(2) 학생의 학습성취 기준 마련</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d style="text-align: center;">③</td> <td style="text-align: center;">④</td> </tr> <tr> <td>(3)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보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d style="text-align: center;">③</td> <td style="text-align: center;">④</td> </tr> <tr> <td>(4)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d style="text-align: center;">③</td> <td style="text-align: center;">④</td> </tr> </table>	교육문제에 대한 책임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청	교육감	단위학교 교장	(1) 초·중·고 교육정책의 결정	①	②	③	④	(2) 학생의 학습성취 기준 마련	①	②	③	④	(3)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보장	①	②	③	④	(4)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①	②	③	④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중 다음과 같은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한다고 보십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h style="width: 30%;">교육문제에 대한 책임</th> <th style="width: 15%;">교육부 장관</th> <th style="width: 15%;">시·도교육청</th> <th style="width: 15%;">교육감</th> <th style="width: 15%;">단위학교 교장</th> </tr> <tr> <td>(1) 초·중·고 교육정책의 결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d style="text-align: center;">③</td> <td style="text-align: center;">④</td> </tr> <tr> <td>(2) 학생의 학습성취 기준 마련</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d style="text-align: center;">③</td> <td style="text-align: center;">④</td> </tr> <tr> <td>(3)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보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d style="text-align: center;">③</td> <td style="text-align: center;">④</td> </tr> <tr> <td>(4)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d style="text-align: center;">③</td> <td style="text-align: center;">④</td> </tr> </table>	교육문제에 대한 책임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청	교육감	단위학교 교장	(1) 초·중·고 교육정책의 결정	①	②	③	④	(2) 학생의 학습성취 기준 마련	①	②	③	④	(3)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보장	①	②	③	④	(4)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①	②	③	④	○ 선택지 수정 : 지역교육지원청 > 단위학교 교장 : ()안의 문구, 표준, 필수, 보장 제외
교육문제에 대한 책임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청	교육감	단위학교 교장																																																	
(1) 초·중·고 교육정책의 결정	①	②	③	④																																																	
(2) 학생의 학습성취 기준 마련	①	②	③	④																																																	
(3)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보장	①	②	③	④																																																	
(4)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①	②	③	④																																																	
교육문제에 대한 책임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청	교육감	단위학교 교장																																																	
(1) 초·중·고 교육정책의 결정	①	②	③	④																																																	
(2) 학생의 학습성취 기준 마련	①	②	③	④																																																	
(3)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 보장	①	②	③	④																																																	
(4)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①	②	③	④																																																	
2.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시겠습니까? (1) 우수 (2) 양호 (3) 보통 (4) 미흡 (5) 매우 미흡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를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시겠습니까? (1) 우수 (2) 양호 (3) 보통 (4) 미흡 (5) 매우 미흡	○ 질문지 수정 : 학교급으로 구분하여 질문 ○ 선택지 수정 : 전체 문항의 통																																																		

2013년 문항		2014년 문항		변동 내역													
	<table border="1"> <tr> <td>수 (매우 잘하고 있다)</td> <td>우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td> <td>양 (전혀 못하고 있다)</td> <td>가 (별로 못하고 있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d>미 (보통이다)</td> <td>가 (전혀 못하고 있다)</td> </tr> <tr> <td>③</td> <td>⑤</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④</td> </tr> </table>	수 (매우 잘하고 있다)	우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양 (전혀 못하고 있다)	가 (별로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미 (보통이다)	가 (전혀 못하고 있다)	③	⑤	잘 모르겠다	④	<p>① 수(매우 잘하고 있다) ② 우(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p> <p>③ 미(보통이다) ④ 양(별로 못하고 있다)</p> <p>⑤ 가(전혀 못하고 있다) ⑥ 잘 모르겠다</p>	<p>일정을 유지 위함</p>
수 (매우 잘하고 있다)	우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양 (전혀 못하고 있다)	가 (별로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미 (보통이다)	가 (전혀 못하고 있다)																
③	⑤																
잘 모르겠다																	
④																	
3.	<p>동일</p> <p>자녀가 다닐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다음의 요소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습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p> <p>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p> <p>① 학교 명성이나 전통 ② 교원의 질적 수준 ③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p> <p>④ 상급학교 진학 실적 ⑤ 지역 환경 및 여건 ⑥ 통학거리</p> <p>⑦ 지역 환경 및 여건 ⑧ 졸업생의 취업 실적 ⑨ 교육비</p> <p>⑩ 기타 _____</p>	<p>○ 선택지 수정 : 졸업후 해당학 교 > 졸업생</p> <p>○ 선택지 번호 정비</p> <p>○ 선택지 추가 : 교육비</p>															
4.	<p>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p> <p>① 학교 명성이나 전통 ② 교원의 질적 수준 ③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p> <p>④ 상급학교 진학 실적 ⑤ 졸업후 해당학교의 취업 실적 ⑥ 학교시설</p> <p>⑦ 지역 환경 및 여건 ⑧ 통학거리 ⑨ 기타 _____</p>	<p>○ 선택지에 적힌 교육문제들은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교육문 제이므로 제외</p>															
5.	<p>다음은 최근 대두된 교육현안 문제들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학생의 인성·도덕성양화 ② 학교폭력 ③ 학생 인권 약화</p> <p>④ 교권 약화 ⑤ 교육비 ⑥ 높은 교육비 부담</p> <p>⑦ 기타 _____</p>	<p>제외</p>															
6.	<p>다음 중 어떤 정책이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순위 _____ 2 순위 _____</p> <p>① 방과후학교 운영 ② EBS 강의 및 영어교육방송</p> <p>③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④ 중등학교 절대평가 도입</p> <p>⑤ 학원 수강료 공시 및 교습시간 제한</p> <p>⑥ 특목고 및 자율고 자기주도학습 진행방식 도입</p> <p>⑦ 대학 입학사정관 진행방식 도입 ⑧ 취업시 학력·학벌 차별 해소</p> <p>⑨ 기타 _____</p>	<p>제외</p>															
7.	<p>정부의 교육정책 중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교육정책은 무엇입니까?</p> <p>1 순위 _____ 2 순위 _____</p>	<p>○ 현 정부의 정책에 맞게 일부 내 용 수정</p>															

2013년 문항		2014년 문항	변동 내역						
영역	<p>①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입학사정관정책</p> <p>②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의 형태와 운영을 달리하는 고교다양화정책</p> <p>③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및 학습부진에 대한 총체적 예방-진단-관리 시스템을 구축 지원하는 기초학력향상지원 정책</p> <p>④ 기존의 승진임용제도와는 달리 공개모집을 통해 교장을 임용하는 교장공모정책</p> <p>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정책</p> <p>⑥ 저소득층에게 학비·학교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등의 소외계층교육지원확대정책</p> <p>⑦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학등록금 부담감경정책</p> <p>⑧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심야 학원교습 제한, EBS 수능강의 질 제고로 EBS 활용 등을 통해 사교육을 감소시키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사교육경감정책</p> <p>⑨ 국립대학 법인화 및 학자금 대출제한, 사립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한 대학 경쟁력강화정책</p> <p>⑩ 기타 _____</p>								
추가 문항	C.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C.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3 순위 _____ ① 학습 지도 능력 ② 생활 지도 능력 ③ 진로 지도 능력 ④ 의사소통 능력 ⑤ 기타 _____	변동 없이 사용 O 9번 문항과 함께 물을 수 있는 문항으로 신규 추가						
8.	동일								
9.	동일								
10.	<p>개별 선생님의 월급은 어떻게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교원의 능력에 따라</td> <td>경력에 따라</td>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교원의 능력에 따라	경력에 따라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제외	O 2011년 당시의 정책 현안으로서 제외
교원의 능력에 따라	경력에 따라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2013년 문항		2014년 문항		변동 내역												
11.	<p>만약 선생님의 월급이 가르치는 학생의 성적에 따라 책정된다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매우 많이 반영해야 한다</td> <td>어느 정도 많이 반영해야 한다</td> <td>거의 반영하지 않는다</td> <td>전혀 반영하지 않는다</td>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able>	매우 많이 반영해야 한다	어느 정도 많이 반영해야 한다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제외	○ 2011년 당시의 정책 현안으로 서 제외			
매우 많이 반영해야 한다	어느 정도 많이 반영해야 한다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2.	<p>동일</p> <p>D. 학생의 학교생활</p>	동일 <p>D. 학생의 정서와 생활</p>	○ 세부 문항들을 포괄할 수 있게 수정													
13.	<p>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혼계 혼욕의 교육별로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교육벌이런, 운동장 뛰기, 교실 뒤 서있기 등과 같이 학칙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혼욕을 의미합니다.</p> <table border="1"> <tr> <td>찬성한다</td> <td>반대한다</td>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E 영역 17번으로 이동	○ 변동 없이 사용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14.	<p>동일</p>															
15.	<p>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점수 위주의 입시 경쟁체제</td> <td>가정교육의 부재</td> <td>학교의 폭력방지 노력 부족</td> <td>대중매체 (인터넷, 게임 포함)의 폭력성</td> <td>학생 개인</td>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r> </table>	점수 위주의 입시 경쟁체제	가정교육의 부재	학교의 폭력방지 노력 부족	대중매체 (인터넷, 게임 포함)의 폭력성	학생 개인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E 영역 18번으로 이동	○ 변동 없이 사용	
점수 위주의 입시 경쟁체제	가정교육의 부재	학교의 폭력방지 노력 부족	대중매체 (인터넷, 게임 포함)의 폭력성	학생 개인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p>정부나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를 해소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매우 그렇다</td> <td>어느 정도 그렇다</td> <td>보통이다</td> <td>별로 그렇지 못하다</td> <td>전혀 그렇지 못하다</td>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r> </table>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못하다	전혀 그렇지 못하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E 영역 19번으로 이동	○ 변동 없이 사용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못하다	전혀 그렇지 못하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2013년 문항		2014년 문항		변동 내역																								
17.	초·중·고 학생들의 IT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컴퓨터 게임, 메신저, 블로그, 미니홈피 관리, 휴대용 게임기, 휴대전화 문자 또는 통화,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에 대한 중독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 border="1"> <tr> <td>전혀 심각하지 않다</td> <td>별로 심각하지 않다</td> <td>보통이다</td> <td>심각한 편이다</td> <td>매우 심각하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able>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①	②	③	④	⑤	<table border="1"> <tr>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⑨</td> </tr> </table>	잘 모르겠다	⑨	<p>초·중·고 학생들의 IT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 [스마트폰, SNS, 컴퓨터게임 등]에 대한 중독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전혀 심각하지 않다</td> <td>별로 심각하지 않다</td> <td>보통이다</td> <td>심각한 편이다</td> <td>매우 심각하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able>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①	②	③	④	⑤	<table border="1"> <tr>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⑩</td> </tr> </table>	잘 모르겠다	⑩	<p>○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질문 수정</p>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①	②	③	④	⑤																										
잘 모르겠다																														
⑨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①	②	③	④	⑤																										
잘 모르겠다																														
⑩																														
영역	E. 학생의 학습	E. 교육의 내용과 방식				○ 세부 문항들을 포괄할 수 있게 수정																								
18.	학교에서 학생의 성공 척도는 개인의 타고난 학습 능력에 의해 좌우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후천적인 노력이 더 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 border="1"> <tr> <td>신천적인 학습 능력</td> <td>후천적인 노력</td> </tr> <tr> <td>①</td> <td>②</td> </tr> </table>	신천적인 학습 능력	후천적인 노력	①	②	<table border="1"> <tr>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⑨</td> </tr> </table>	잘 모르겠다	⑨	<p>제외</p>	<p>○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하여 사용 안 함</p>																			
신천적인 학습 능력	후천적인 노력																													
①	②																													
잘 모르겠다																														
⑨																														
19.	학생의 학습수준(성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able border="1"> <tr> <td>교사(학교)</td> <td>학부모(가정)</td> </tr> <tr> <td>①</td> <td>②</td> </tr> </table>	교사(학교)	학부모(가정)	①	②	<table border="1"> <tr>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⑨</td> </tr> </table>	잘 모르겠다	⑨	<p>학생 본인 외에 학생의 학업성취(성취)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교사(학교)</td> <td>학부모(가정)</td> </tr> <tr> <td>①</td> <td>②</td> </tr> </table>	교사(학교)	학부모(가정)	①	②	<table border="1"> <tr>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⑩</td> </tr> </table>	잘 모르겠다	⑩	<p>○ 질문 수정 : '학생 본인 외에' 추가 ○ 질문 수정 : 학습수준(성취) ⇨ 학업성취(성취)</p>												
교사(학교)	학부모(가정)																													
①	②																													
잘 모르겠다																														
⑨																														
교사(학교)	학부모(가정)																													
①	②																													
잘 모르겠다																														
⑩																														
20.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table border="1"> <tr> <td>매우 높다</td> <td>높다</td> <td>보통이다</td> <td>낮다</td> <td>매우 낮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able>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①	②	③	④	⑤	<table border="1"> <tr>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⑨</td> </tr> </table>	잘 모르겠다	⑨	<p>D 영역 9번으로 이동</p>	<p>○ 변동 없이 사용</p>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①	②	③	④	⑤																										
잘 모르겠다																														
⑨																														
21.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이 각각 무엇인지를 보기에서 골라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써 주십시오.	<table border="1"> <tr> <td>(1) 초등학교</td> <td>1순위</td> </tr> <tr> <td>(2) 중학교</td> <td>2순위</td> </tr> </table>	(1) 초등학교	1순위	(2) 중학교	2순위	<table border="1"> <tr> <td>3순위</td> </tr> </table>	3순위	<p>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이 각각 무엇인지를 보기에서 골라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써 주십시오.</p> <table border="1"> <tr> <td>1순위</td> <td>2순위</td> <td>3순위</td> </tr> <tr> <td>(1) 초등학교</td> <td></td> <td></td> </tr> <tr> <td>(2) 중학교</td> <td></td> <td></td> </tr> </table>	1순위	2순위	3순위	(1) 초등학교			(2) 중학교			<p>○ 선택지 추가 : 안전교육, 역사 교육, 다문화교육</p>											
(1) 초등학교	1순위																													
(2) 중학교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 초등학교																														
(2) 중학교																														

2013년 문항		2014년 문항		변동 내역																								
22.	<table border="1"> <tr> <td>(1) 초등학교</td> <td>1순위</td> <td>2순위</td> <td>3순위</td> </tr> <tr> <td>(2) 중학교</td> <td></td> <td></td> <td></td> </tr> <tr> <td>(3) 고등학교</td> <td></td> <td></td> <td></td> </tr> </table> <p>보 기</p> <p>① 창의성 교육 ② 인성교육 ③ 진로교육 ④ 특기적성교육 ⑤ 민주시민교육(예: 타인존중, 공공질서교육 등) ⑥ 성교육 ⑦ 환경교육 ⑧ 국어교육 ⑨ 외국어교육 ⑩ 수학교육 ⑪ 과학교육 ⑫ 예체능교육 ⑬ 한자교육 ⑭ 인성교육 ⑮ 역사교육 ⑯ 다문화 교육</p>	(1) 초등학교	1순위	2순위	3순위	(2) 중학교				(3) 고등학교				<p>학생의 수준에 따라 반을 나누어 수행하는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찬성한다</td> <td>반대한다</td>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p>학생의 성격에 따라 과목별로 다르게 반을 나누어 수행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찬성한다</td> <td>반대한다</td>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p>○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질문 수정</p>
(1) 초등학교	1순위	2순위	3순위																									
(2) 중학교																												
(3) 고등학교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23.	<p>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공식적으로 영어교과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더 일찍 가르쳐야 한다</td> <td>더 늦게 가르쳐야 한다</td>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더 일찍 가르쳐야 한다	더 늦게 가르쳐야 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p>현재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영어교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더 일찍 가르쳐야 한다</td> <td>더 늦게 가르쳐야 한다</td>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더 일찍 가르쳐야 한다	더 늦게 가르쳐야 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p>○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질문 수정</p>													
더 일찍 가르쳐야 한다	더 늦게 가르쳐야 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더 일찍 가르쳐야 한다	더 늦게 가르쳐야 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24.	<p>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마이스터 고교, 기숙형 고교 등으로 다양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찬성한다</td> <td>반대한다</td>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p>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찬성한다</td> <td>반대한다</td>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p>○ 다양한 고교 유형에 대한 인식 문항으로 질문 수정</p>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25.	<p>F. 고교 및 대학 입시</p> <p>동일</p>	<p>F. 고교 정책 및 대학 입시</p> <p>동일</p>	<p>○ 세부 문항들을 포괄할 수 있게 수정</p>																									
26.	<p>대학 입학사정관제가 점수위주의 입시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찬성한다</td> <td>반대한다</td>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p>대학입시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찬성한다</td> <td>반대한다</td>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p>○ 질문 수정 : 입학사정관제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수정</p>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2013년 문항		2014년 문항		변동 내역																																																																				
<p>입학사정관제란, 지원장제 위주의 학생선발 방식을 탈피하고 학생의 장 재력과 소질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p> <table border="1"> <tr> <td>매우 잘 보완하고 있다</td> <td>①</td> <td>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다</td> <td>②</td> <td>보통이다</td> <td>③</td> <td>별로 보완하지 못한다</td> <td>④</td> <td>전혀 보완하지 못한다</td> <td>⑤</td> <td>잘 모르겠다</td> <td>⑥</td> </tr> </table>	매우 잘 보완하고 있다	①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다	②	보통이다	③	별로 보완하지 못한다	④	전혀 보완하지 못한다	⑤	잘 모르겠다	⑥	<table border="1"> <tr> <td>매우 그렇다</td> <td>①</td> <td>어느 정도 그렇다</td> <td>②</td> <td>보통이다</td> <td>③</td> <td>별로 그렇지않 다</td> <td>④</td> <td>전혀 그렇지않 다</td> <td>⑤</td> <td>잘 모르겠다</td> <td>⑥</td> </tr> </table>	매우 그렇다	①	어느 정도 그렇다	②	보통이다	③	별로 그렇지않 다	④	전혀 그렇지않 다	⑤	잘 모르겠다	⑥	<p>다음 중 대학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② 고교 내신 성적 ③ 특기·적성 ④ 인성 및 사회봉사 ⑤ 면접 및 실용사 ⑥ 기타 _____</p>	<p>다음 중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② 고교 내신 성적 ③ 특기·적성 ④ 인성 및 사회봉사 ⑤ 면접 및 실용사 ⑥ 기타 _____</p>	<p>○ 선택지 수정 : 척도 단순화</p> <p>○ 질문 수정 : 대학입시 ▷ 입학 전형 ○ 질문 수정 : 가장 중요하게 ▷ 가장 많이 ○ 선택지 수정 : 예제가 성적 ▷ 글쓰기 성적</p>	<p>변동 없이 사용</p>																																											
매우 잘 보완하고 있다	①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다	②	보통이다	③	별로 보완하지 못한다	④	전혀 보완하지 못한다	⑤	잘 모르겠다	⑥																																																													
매우 그렇다	①	어느 정도 그렇다	②	보통이다	③	별로 그렇지않 다	④	전혀 그렇지않 다	⑤	잘 모르겠다	⑥																																																													
<p>28.</p>	<p>G. 교육복지</p>	<p>G. 교육복지</p>	<p>G. 교육복지</p>	<p>초·중·고 학생들 중 다음의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 rowspan="5">지원 대상</td> <td>매우 중요하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대체로 중요하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보통이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로 중요하지 않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혀 중요하지 않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 저소득층 학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 결손가정 학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 다문화가정 학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 탈북주민가정 학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 장애 학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지원 대상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대체로 중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저소득층 학생							(2) 결손가정 학생							(3) 다문화가정 학생							(4) 탈북주민가정 학생							(5) 장애 학생							<p>○ 일반학생 대상 다문화 교육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질문 추가</p>
지원 대상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대체로 중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저소득층 학생																																																																								
(2) 결손가정 학생																																																																								
(3) 다문화가정 학생																																																																								
(4) 탈북주민가정 학생																																																																								
(5) 장애 학생																																																																								
<p>추가 문항</p>	<p>G. 교육복지</p>	<p>G. 교육복지</p>	<p>G. 교육복지</p>	<p>초·중·고 학생들 중 다음의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 rowspan="5">지원 대상</td> <td>매우 중요하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대체로 중요하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보통이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로 중요하지 않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혀 중요하지 않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 저소득층 학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 결손가정 학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 다문화가정 학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 탈북주민가정 학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 장애 학생</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지원 대상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대체로 중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저소득층 학생							(2) 결손가정 학생							(3) 다문화가정 학생							(4) 탈북주민가정 학생							(5) 장애 학생							<p>○ 일반학생 대상 다문화 교육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질문 추가</p>
지원 대상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대체로 중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저소득층 학생																																																																								
(2) 결손가정 학생																																																																								
(3) 다문화가정 학생																																																																								
(4) 탈북주민가정 학생																																																																								
(5) 장애 학생																																																																								

	2013년 문항	2014년 문항	변동 내역																																
29.	<p>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data-bbox="422 655 601 816"> <tr>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td> <td>①</td> <td>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td> <td>②</td> <td>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td> <td>③</td> <td>잘 모르겠다</td> <td>④</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①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	②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③	잘 모르겠다	④									<p>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data-bbox="422 1179 601 1340"> <tr>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td> <td>①</td> <td>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td> <td>②</td> <td>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td> <td>③</td> <td>잘 모르겠다</td> <td>④</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①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	②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③	잘 모르겠다	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지 수정 : 학교급으로 구분하여 질문 ○ 선택지 수정 : 차상위 계급 등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①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	②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③	잘 모르겠다	④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①	중산층 이하의 학생에게	②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③	잘 모르겠다	④																												
30.	<p>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②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 ③ 방과후학교 교육비 ④ 학교급식비 ⑤ 방과후 돌봄서비스(독서실) ⑥ 기타 _____</p>	<p>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초등학교 1 순위 2 순위 _____ 중학교 1 순위 2 순위 _____ 고등학교 1 순위 2 순위 _____</p> <p>①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 운영지원비 ②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 ③ 방과후학교 교육비(자유수강권) ④ 학교급식비 ⑤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비용 ⑥ 기타 _____</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수정 : 학교급으로 구분하여 질문 ○ 선택지 수정 :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등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방과후학교 교육비 등 																																
31.	<p>현재 의무교육의 원칙(강제성, 무상성, 보편성)에 따라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처럼 고등학교에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data-bbox="1031 655 1164 816"> <tr> <td>고등학교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td> <td>①</td> <td>고등학교는 다양하므로 무상교육만 실시할 필요가 있다</td> <td>②</td> <td>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td> <td>③</td> <td>잘 모르겠다</td> <td>④</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고등학교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고등학교는 다양하므로 무상교육만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②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③	잘 모르겠다	④									<p>현재 의무교육의 원칙(강제성, 무상성, 보편성)에 따라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처럼 고등학교에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data-bbox="1031 1179 1164 1340"> <tr> <td>고등학교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td> <td>①</td> <td>고등학교는 다양하므로 무상교육만 실시할 필요가 있다</td> <td>②</td> <td>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td> <td>③</td> <td>잘 모르겠다</td> <td>④</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p>* 무상교육 :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 * 의무교육 :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p>	고등학교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고등학교는 다양하므로 무상교육만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②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③	잘 모르겠다	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게 아래에 설명을 추가 ○ 선택지 수정 :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차이를 명확히 함 ○ 선택지 수정 : 고등학교까지 등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고등학교는 다양하므로 무상교육만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②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고등학교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고등학교는 다양하므로 무상교육만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②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③	잘 모르겠다	④																												

		2013년 문항	2014년 문항	변동 내역																								
32.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다음 중 어느 분야에 가장 먼저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 border="1"> <tr> <td>0~5세 유아 보육 및 교육</td> <td>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화</td> <td>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td>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able>	0~5세 유아 보육 및 교육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화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table border="1"> <tr> <td>0~5세 유아 보육 및 교육</td> <td>고등 학교 무상·의무 교육화</td> <td>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td> <td>노후 시설 보수·개인</td>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able>	0~5세 유아 보육 및 교육	고등 학교 무상·의무 교육화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	노후 시설 보수·개인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p>○ 선택지 수정 : 초등교육과 관련된 내용, 학교 시설 안전 사항 추가</p>						
0~5세 유아 보육 및 교육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화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0~5세 유아 보육 및 교육	고등 학교 무상·의무 교육화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	노후 시설 보수·개인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영역		H. 대학 운영과 대학교육의 질		변동 없이 사용																								
33.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얼마나 잘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 border="1"> <tr> <td>매우 잘하고 있다</td> <td>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td> <td>보통이다</td> <td>별로 못하고 있다</td> <td>전혀 못하고 있다</td>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r> </table>	매우 잘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못하고 있다	전혀 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p>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매우 잘하고 있다</td> <td>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td> <td>보통이다</td> <td>별로 못하고 있다</td> <td>전혀 못하고 있다</td>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r> </table>	매우 잘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못하고 있다	전혀 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p>○ 질문 수정 : 대학 교육 > 대학 선택지 수정 : 전혀 > 아주</p>
매우 잘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못하고 있다	전혀 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잘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못하고 있다	전혀 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34.	대학에서 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 border="1"> <tr> <td>매우 잘하고 있다</td> <td>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td> <td>보통이다</td> <td>별로 못하고 있다</td> <td>전혀 못하고 있다</td>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r> </table>	매우 잘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못하고 있다	전혀 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p>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매우 잘하고 있다</td> <td>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td> <td>보통이다</td> <td>별로 못하고 있다</td> <td>전혀 못하고 있다</td>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r> </table>	매우 잘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못하고 있다	전혀 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p>○ 선택지 수정 : 전혀 > 아주</p>
매우 잘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못하고 있다	전혀 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잘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못하고 있다	전혀 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35.	최근 대학 재정지원(장학금 포함)을 통한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able border="1"> <tr> <td>찬성한다</td> <td>반대한다</td>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r> </table>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p>대학에서 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매우 투명하다</td> <td>어느 정도 투명하다</td> <td>보통이다</td> <td>별로 투명하지 못하다</td> <td>전혀 투명하지 못하다</td> <td>잘 모르겠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r> </table>	매우 투명하다	어느 정도 투명하다	보통이다	별로 투명하지 못하다	전혀 투명하지 못하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p>○ 선택지 수정 : 전혀 > 아주</p>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매우 투명하다	어느 정도 투명하다	보통이다	별로 투명하지 못하다	전혀 투명하지 못하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36.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할 것이 예측 가능하므로 제외	제외		○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할 것이 예측 가능하므로 제외																								

2013년 문항		2014년 문항		변동 내역																							
37.	<p>귀하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다면 졸업시까지 계속 대학등록금을 부담해 주실 것입니까?</p> <table border="1"> <tr> <td>계속 부담해 줄 것이다</td> <td>①</td> <td>어느 정도 부담해줄 것이다</td> <td>②</td> <td>별로 부담해 주지 않을 것이다</td> <td>③</td> <td>전혀 부담해 주지 않을 것이다</td> <td>④</td> <td>잘 모르겠다</td> <td>⑤</td> </tr> </table>	계속 부담해 줄 것이다	①	어느 정도 부담해줄 것이다	②	별로 부담해 주지 않을 것이다	③	전혀 부담해 주지 않을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⑤	<p>귀하의 자녀가 내년에 대학에 입학한다면 졸업시까지 계속 대학등록금을 부담하시겠습니까?</p> <table border="1"> <tr> <td>계속 부담해 줄 것이다</td> <td>①</td> <td>어느 정도 부담해줄 것이다</td> <td>②</td> <td>별로 부담해 주지 않을 것이다</td> <td>③</td> <td>전혀 부담해 주지 않을 것이다</td> <td>④</td> <td>잘 모르겠다</td> <td>⑤</td> </tr> </table>	계속 부담해 줄 것이다	①	어느 정도 부담해줄 것이다	②	별로 부담해 주지 않을 것이다	③	전혀 부담해 주지 않을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⑤	<p>○ 질문 수정 : 질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p>				
계속 부담해 줄 것이다	①	어느 정도 부담해줄 것이다	②	별로 부담해 주지 않을 것이다	③	전혀 부담해 주지 않을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계속 부담해 줄 것이다	①	어느 정도 부담해줄 것이다	②	별로 부담해 주지 않을 것이다	③	전혀 부담해 주지 않을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⑤																		
38.	<p>귀하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다면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좋은 직장을 매우 잘 찾을 것이다</td> <td>①</td> <td>좋은 직장을 찾을 것이다</td> <td>②</td> <td>좋은 직장을 찾기 힘들 것이다</td> <td>③</td> <td>좋은 직장을 매우 찾기 힘들 것이다</td> <td>④</td> <td>잘 모르겠다</td> <td>⑤</td> </tr> </table>	좋은 직장을 매우 잘 찾을 것이다	①	좋은 직장을 찾을 것이다	②	좋은 직장을 찾기 힘들 것이다	③	좋은 직장을 매우 찾기 힘들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⑤	<p>귀하의 자녀가 내년에 대학에 입학한다고 가정할 때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매우 그렇다</td> <td>①</td> <td>그렇다</td> <td>②</td> <td>보통이다</td> <td>③</td> <td>그렇지 않다</td> <td>④</td>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⑤</td> <td>잘 모르겠다</td> <td>⑥</td> </tr> </table>	매우 그렇다	①	그렇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⑥	<p>○ 질문 수정 : 질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 선택지 수정 : 5단축도로 변경하고 내용 수정</p>		
좋은 직장을 매우 잘 찾을 것이다	①	좋은 직장을 찾을 것이다	②	좋은 직장을 찾기 힘들 것이다	③	좋은 직장을 매우 찾기 힘들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⑤																		
매우 그렇다	①	그렇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⑥																
영역	I.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		변동 없이 사용																								
39.	동일																										
40.	<p>현재 한국사회에서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지방대학 졸업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심각한 정도로 존재한다</td> <td>①</td> <td>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td> <td>②</td> <td>거의 존재하지 않는다</td> <td>③</td> <td>잘 모르겠다</td> <td>④</td> <td>⑤</td> </tr> </table>	심각한 정도로 존재한다	①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②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④	⑤	<p>현재 한국사회에서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심각한 정도로 존재한다</td> <td>①</td> <td>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td> <td>②</td> <td>거의 존재하지 않는다</td> <td>③</td> <td>잘 모르겠다</td> <td>④</td> <td>⑤</td> </tr> </table>	심각한 정도로 존재한다	①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②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④	⑤	<p>○ 선택지 수정 : '지방대학 졸업자에 대한 차별' 삭제</p>						
심각한 정도로 존재한다	①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②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④	⑤																			
심각한 정도로 존재한다	①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②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④	⑤																			
41.	<p>귀하의 자녀가 어느 단계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고등학교 졸업</td> <td>①</td> <td>전문대학 졸업</td> <td>②</td> <td>일반대학 졸업</td> <td>③</td> <td>대학원 석사학위 취득</td> <td>④</td> <td>대학원 박사학위 취득</td> <td>⑤</td> <td>잘 모르겠다</td> <td>⑥</td> </tr> </table>	고등학교 졸업	①	전문대학 졸업	②	일반대학 졸업	③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④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⑤	잘 모르겠다	⑥	<p>귀하의 자녀가 어느 단계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고등학교 졸업</td> <td>①</td> <td>전문대학 졸업</td> <td>②</td> <td>일반대학 졸업</td> <td>③</td> <td>대학원 석사학위 취득</td> <td>④</td> <td>대학원 박사학위 취득</td> <td>⑤</td> <td>잘 모르겠다</td> <td>⑥</td> </tr> </table>	고등학교 졸업	①	전문대학 졸업	②	일반대학 졸업	③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④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⑤	잘 모르겠다	⑥	<p>○ 선택지 수정 : '졸업', '학사 취득' 삭제</p>
고등학교 졸업	①	전문대학 졸업	②	일반대학 졸업	③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④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⑤	잘 모르겠다	⑥																
고등학교 졸업	①	전문대학 졸업	②	일반대학 졸업	③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④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⑤	잘 모르겠다	⑥																
42.	<p>귀하의 자녀를 대학에 가지 않고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등학교와 같은 기술학교에 보낼 생각이 있으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보낼 생각이 있다</td> <td>①</td> <td>보낼 생각이 없다</td> <td>②</td> <td>잘 모르겠다</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able>	보낼 생각이 있다	①	보낼 생각이 없다	②	잘 모르겠다	③	④	⑤	<p>귀하의 자녀를 대학에 가지 않고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등학교와 같은 특화된 학교에 보낼 생각이 있으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보낼 생각이 있다</td> <td>①</td> <td>보낼 생각이 없다</td> <td>②</td> <td>잘 모르겠다</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able>	보낼 생각이 있다	①	보낼 생각이 없다	②	잘 모르겠다	③	④	⑤	<p>○ 질문 수정 : 기술학교 > 특화된 학교</p>								
보낼 생각이 있다	①	보낼 생각이 없다	②	잘 모르겠다	③	④	⑤																				
보낼 생각이 있다	①	보낼 생각이 없다	②	잘 모르겠다	③	④	⑤																				
43.	동일																										

2013년 문항		2014년 문항		변동 내역																																					
44.	동일																																								
45.	동일																																								
46.	우리나라의 입시경쟁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td> <td style="width: 25%;">①</td> <td style="width: 25%;">진반적으로 큰 변화 없을 것이다</td> <td style="width: 25%;">②</td> </tr> <tr> <td style="width: 25%;">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부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td> <td style="width: 25%;">③</td> <td style="width: 25%;">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td> <td style="width: 25%;">④</td> </tr> <tr> <td style="width: 25%;">⑤</td> <td style="width: 25%;">⑥</td> <td style="width: 25%;">⑦</td> <td style="width: 25%;">⑧</td> </tr> </table>	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①	진반적으로 큰 변화 없을 것이다	②	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부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	③	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④	⑤	⑥	⑦	⑧	<p>○ 질문 수정 : 47번 문항과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p>																											
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①	진반적으로 큰 변화 없을 것이다	②																																						
진반적으로 완화되나, 일부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	③	진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④																																						
⑤	⑥	⑦	⑧																																						
47.	동일																																								
48.	동일																																								
49.	동일																																								
50.	동일																																								
51.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대학을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찬성한다</td> <td style="width: 50%;">①</td> </tr> <tr> <td style="width: 50%;">반대한다</td> <td style="width: 50%;">②</td> </tr> <tr> <td style="width: 50%;">③</td> <td style="width: 50%;">④</td> </tr> </table>	찬성한다	①	반대한다	②	③	④	<p>다음은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입니다. (1) ~ (10) 까지 각각의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우측에 표시해주세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rowspan="2">주요 교육정책</th> <th colspan="2">매우 잘 알고 있다</th> <th colspan="2">대체로 알고 있다</th> <th colspan="2">보통이다</th> <th colspan="2">대체로 모른다</th> <th colspan="2">전혀 모른다</th> </tr> <tr> <th>①</th> <th>②</th> <th>③</th> <th>④</th> <th>⑤</th> <th>⑥</th> <th>⑦</th> <th>⑧</th> <th>⑨</th> <th>⑩</th> </tr> <tr> <td>지역의 산업발전 및 인력양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방대학 지원 확대</td> <td></td> </tr> </table> <p>위의 교육정책 중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p> <p>위의 교육정책 중 현재까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p>	주요 교육정책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보통이다		대체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지역의 산업발전 및 인력양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방대학 지원 확대											<p>○ 질문 및 선택지 수정</p>
찬성한다	①																																								
반대한다	②																																								
③	④																																								
주요 교육정책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보통이다		대체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지역의 산업발전 및 인력양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방대학 지원 확대																																									

※ 교육 정책으로 추가 된 질문 아래 제시

주요 교육정책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 로 알고 있다	보통 이다	대체 로 모른 다	전혀 모른 다
	①	②	③	④	⑤
2012년 만 5세에 한하던 누리과정 지원을 만5~4세에도 확대하여 만 3~5세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 치원에 다닐 경우 모두 매월 22만 원의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누 리과정 확대					
오후 5시까지 초·중·고등학생 방과후 돌 봄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하고 추가 돌봄 대상 학생을 위해 저녁 10시 까지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하는 초 등학교 돌봄교실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 사의 지필시험을 치르지 않고 다양 한 체험학습(활동)을 하도록 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에 근거한 과목별 성취기 준에 대한 학생의 도달 정도를 학 생의 성취 수준으로 나타내는 중· 고등학교 성취평가제					
단기적으로 고등학교 학생에게 일 체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추진하여 무상으로 수업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를 위해 '공교육-장학-특수교육'을 조정하고 EBS 교육서비스 운영 을 내실화하는 사교육 부담 경감					

다음은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입니다. (1) ~ (10) 까지 각각의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우측에 표시해주세요.

- 7.
-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 ①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입
학시험정책
 - ②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의 형태와 운영을 달리하는
고교다양화정책
 - ③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및 학습부진에 대한 총체적 예방-진단
-관리 시스템을 구축·지원하는 기초학력향상지원 정책
 - ④ 기존의 승진임용제도와는 달리 공개모집을 통해 교장을 임용하는 교장
공모정책
 - 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등
교원능력개발평가정책
 - ⑥ 저소득층에게 학비·학교급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등
의 소외계층교육지원확대정책
 - ⑦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학등록금
부담감정책
 - ⑧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심야 학원교습 제한, EBS 수능강의 질
제고로 EBS 활용 등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시키고 공교육을 내실화하
기 위한 사교육경감정책
 - ⑨ 국립대학 법인화 및 학기금 대출제한, 사립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한
대학재정력강화정책
 - ⑩ 기타 _____

○ 기존문항과 함께 현 교육정책
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이해도
와 필요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그에 적합한 문항
추가

2013년 문항	2014년 문항	변동 내역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98 1070 417 1120">(7)</td> <td data-bbox="298 818 417 1070">부담한 대학 입학진행률 감소화하여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지역·계층을 고려한 입학 전형 실시하는 대학입시 감소화</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data-bbox="417 1070 550 1120">(8)</td> <td data-bbox="417 818 550 1070">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경쟁력 있는 분야와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학 특성화</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data-bbox="550 1070 698 1120">(9)</td> <td data-bbox="550 818 698 1070">전문대학의 학위과정 다양화 및 재정투자 대폭 확대 평생 직업 교육 기능 및 국제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는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data-bbox="698 1070 810 1120">(10)</td> <td data-bbox="698 818 810 1070">지역의 산업발전 및 인력양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을 지역성장 의 기점으로 육성하는 지방대학 지원 확대</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7)	부담한 대학 입학진행률 감소화하여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지역·계층을 고려한 입학 전형 실시하는 대학입시 감소화					(8)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경쟁력 있는 분야와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학 특성화					(9)	전문대학의 학위과정 다양화 및 재정투자 대폭 확대 평생 직업 교육 기능 및 국제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는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10)	지역의 산업발전 및 인력양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을 지역성장 의 기점으로 육성하는 지방대학 지원 확대					
(7)	부담한 대학 입학진행률 감소화하여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지역·계층을 고려한 입학 전형 실시하는 대학입시 감소화																									
(8)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경쟁력 있는 분야와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학 특성화																									
(9)	전문대학의 학위과정 다양화 및 재정투자 대폭 확대 평생 직업 교육 기능 및 국제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는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10)	지역의 산업발전 및 인력양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을 지역성장 의 기점으로 육성하는 지방대학 지원 확대																									
	<p>46-1. 위의 교육정책 중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p> <p>46-2. 위의 교육정책 중 현재까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p>																									
9.		<p>○ 평가 관련 문항 신규 개발</p>																								

2013년 문항	2014년 문항	변동 내역
	<p>중학생의 시험과목을 늘려야 한다</p> <p>① ② ③ ④ ⑤</p> <p>9-2. 초등학교 6학년 대상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2013년에 폐지되어 현재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찬성한다 반대한다</p> <p>① ②</p> <p>잘 모르겠다</p> <p>①</p>	
<p>10.</p>	<p>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와 같은 국제적인 비교 시험에 대한 질문입니다.</p> <p>10-1.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와 같은 국제적인 비교 시험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p> <p>예 아니오</p> <p>① ②</p> <p>잘 모르겠다</p> <p>①</p> <p>10-2.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와 같은 국제적인 비교 시험은 국가간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제대로 측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p> <p>① ② ③ ④ ⑤</p> <p>잘 모르겠다</p> <p>①</p>	<p>○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 관련 문항 신규 포함(PDK/갤럽 조사 문항 참조)</p>

2013년 문항	2014년 문항	변동 내역																		
	<p>10-3.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와 같은 국제적인 비교 시험은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data-bbox="382 584 501 665"> <tr> <td>매우 그렇다</td> <td>대체로 그렇다</td> <td>보통이다</td> <td>대체로 그렇지 않다</td>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r>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382 695 501 776"> <tr> <td>잘 모르겠다</td> <td>⑥</td> </tr> </table>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잘 모르겠다	⑥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잘 모르겠다	⑥																			
<p>11.</p>	<p>자녀가 있다면 가장 어떤 사람이 되기를 가장 바라겠습니까?</p> <table border="1" data-bbox="598 580 820 675"> <tr> <td>칭의적인 사람</td> <td>①</td> </tr> <tr> <td>따뜻한 사람</td> <td>②</td> </tr> <tr> <td>적극적인 사람</td> <td>③</td> </tr> <tr> <td>정의로운 사람</td> <td>④</td> </tr> <tr> <td>상각이 원만한 사람</td> <td>⑤</td> </tr> <tr> <td>다재다능한 사람</td> <td>⑥</td> </tr> <tr> <td>열심히 노력하는 사람</td> <td>⑦</td> </tr> <tr> <td>의지가 강한 사람</td> <td>⑧</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598 705 820 796"> <tr> <td>잘 모르겠다</td> <td>⑨</td> </tr> </table>	칭의적인 사람	①	따뜻한 사람	②	적극적인 사람	③	정의로운 사람	④	상각이 원만한 사람	⑤	다재다능한 사람	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⑦	의지가 강한 사람	⑧	잘 모르겠다	⑨	
칭의적인 사람	①																			
따뜻한 사람	②																			
적극적인 사람	③																			
정의로운 사람	④																			
상각이 원만한 사람	⑤																			
다재다능한 사람	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⑦																			
의지가 강한 사람	⑧																			
잘 모르겠다	⑨																			
<p>12.</p>	<p>가정에서 자녀를 지도할 때 가장 역점을 두어 지도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data-bbox="957 574 1061 665"> <tr> <td>학교 공부</td> <td>①</td> </tr> <tr> <td>사회성</td> <td>②</td> </tr> <tr> <td>예의범절</td> <td>③</td> </tr> <tr> <td>취미 및 특기</td> <td>④</td> </tr> <tr> <td>정서적 감수성</td> <td>⑤</td> </tr> <tr> <td>운동 및 건강</td> <td>⑥</td> </tr> <tr> <td>도덕성</td> <td>⑦</td> </tr> <tr> <td>폭넓은 경험</td> <td>⑧</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957 695 1061 786"> <tr> <td>잘 모르겠다</td> <td>⑨</td> </tr> </table>	학교 공부	①	사회성	②	예의범절	③	취미 및 특기	④	정서적 감수성	⑤	운동 및 건강	⑥	도덕성	⑦	폭넓은 경험	⑧	잘 모르겠다	⑨	<p>○ 가정교육 관련 문항 신규 포함(김영화 외(1994) 참조, 결과 비교 가능)</p>
학교 공부	①																			
사회성	②																			
예의범절	③																			
취미 및 특기	④																			
정서적 감수성	⑤																			
운동 및 건강	⑥																			
도덕성	⑦																			
폭넓은 경험	⑧																			
잘 모르겠다	⑨																			

2013년 문항	2014년 문항	변동 내역																																																
<p>다음은 현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입니다. (1)에서 (10)까지 각각의 정책에 대해 이해하시는 정도와 동의하시는 정도를 표시해주세요.</p>	<p>다음은 현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입니다. (1)에서 (10)까지 각각의 정책에 대해 이해하시는 정도와 동의하시는 정도를 표시해주세요.</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주요 교육 정책</th> <th colspan="3">이해 정도</th> <th colspan="3">동의 정도</th> </tr> <tr> <th>전혀 모른다</th> <th>대체로 모른다</th> <th>대체로 알고 있다</th> <th>전혀 모르다</th> <th>대체로 모르다</th> <th>대체로 알고 있다</th> </tr> </thead> <tbody> <tr> <td>2012년 만 5세에 한하던 누리과정 지원을 만3~4세에도 확대하여 만3~5세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모두 매월 22만원의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누리과정 확대</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r> <tr> <td>회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오후 돌봄을 제공하고 맞벌이·저소득층·현부모가 한 자녀 등 추가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저녁 10시까지 저녁 돌봄을 확대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r> <tr> <td>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자유학기제</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r> <tr> <td>교육과정에 근거한 과목별 성취기준에 대한 학생의 도달 정도를 학생의 성취 수준으로 나타내는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r> <tr> <td>고등학교 학생에게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무료로 수업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d>⑥</td> </tr> </tbody> </table>	주요 교육 정책	이해 정도			동의 정도			전혀 모른다	대체로 모른다	대체로 알고 있다	전혀 모르다	대체로 모르다	대체로 알고 있다	2012년 만 5세에 한하던 누리과정 지원을 만3~4세에도 확대하여 만3~5세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모두 매월 22만원의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누리과정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회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오후 돌봄을 제공하고 맞벌이·저소득층·현부모가 한 자녀 등 추가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저녁 10시까지 저녁 돌봄을 확대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①	②	③	④	⑤	⑥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①	②	③	④	⑤	⑥	교육과정에 근거한 과목별 성취기준에 대한 학생의 도달 정도를 학생의 성취 수준으로 나타내는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	①	②	③	④	⑤	⑥	고등학교 학생에게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무료로 수업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p>○ 이해 정도는 1차 조사 문항과 동일하며, 의견 자료 수집을 위하여 동의 정도만 추가</p>
주요 교육 정책	이해 정도			동의 정도																																														
	전혀 모른다	대체로 모른다	대체로 알고 있다	전혀 모르다	대체로 모르다	대체로 알고 있다																																												
2012년 만 5세에 한하던 누리과정 지원을 만3~4세에도 확대하여 만3~5세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모두 매월 22만원의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누리과정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회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오후 돌봄을 제공하고 맞벌이·저소득층·현부모가 한 자녀 등 추가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저녁 10시까지 저녁 돌봄을 확대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①	②	③	④	⑤	⑥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①	②	③	④	⑤	⑥																																												
교육과정에 근거한 과목별 성취기준에 대한 학생의 도달 정도를 학생의 성취 수준으로 나타내는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	①	②	③	④	⑤	⑥																																												
고등학교 학생에게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무료로 수업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2013년 문항		2014년 문항										변동 내역		
		학교 내 실험·학습 유발 행위 금지 지를 위해 '공교육경쟁화촉진특 (6) 별법을 제정하고 EBS 교육서비 스 운영을 내실화하는 사교육 부담 경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복잡한 대학 입학절차를 간소화하 여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 (7) 득·지역·계층을 고려한 입학 진행 을 실시하는 대학입시 진소화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 계획에 따라 경쟁력 있는 분야 (8) 와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집 중 육성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학 특성화 진문대학의 학위과정 다양화 및 제정부와 대폭 확대, 평생 직업 교육 기능 및 국제적 역량 강화 (9) 등을 통하여 진문대학을 고등직 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는 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지역의 산업발전 및 인력양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을 (10) 지역성장의 지점으로 육성하는 지방대학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다음은 현 정부의 교육 정책 중 일부 입니다. (11)에서 (13)까지 각각의 정책에 대해 이해하시는 정도와 동의하시는 정도를 표시 해주세요.													
		주요 교육 정책	이해 정도										동의 정도	
		정지행동 투쟁감사 활용과 검사결과에 따른 진문기관 (별·의원, 정신건강증진센터, (11) Wee센터 등) 연계관리 등을 통해 자살 등 학생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종합적 예방체 제 확립	대체 모든 이 다	대체 부분 이 다	매우 동의 한다									
14.														○ 교육부 해당 과의 조사 요청 반영

2013년 문항	2014년 문항	변동 내역								
	<p>주요 교육 정책</p> <p>학생성취시스템(Wee포드), 학교상담실-학생상담지원센터-위기학생대인 및 진문상담교사, 화축을 통한 학생성취 내실화 및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지원 지원</p> <p>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국가취무능력기준(NCS)을 기반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능력중심의 인제 채용·관리(승진·보상)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의 능력중심사회 여건 조성</p>									
	<p>다음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 현안입니다. 각각의 현안에 대해 이해하시는 정도와 동의하시는 정도를 표시해주세요.</p> <p>교육 현안</p> <p>고등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국어·수학·영어·통합사회·통합과학을 공통과목으로 배우도록 하는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추진</p> <p>초등학교 심과 과목에서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보교육 강화</p>	<p>이해 정도</p> <table border="1"> <tr> <td>전혀 모르다</td> <td>대체로 모르다</td> <td>대체로 알고 있다</td> <td>매우 알고 있다</td> </tr> </table> <p>동의 정도</p> <table border="1"> <tr> <td>전혀 동의하지 않다</td> <td>대체로 동의하지 않다</td> <td>대체로 동의한다</td> <td>매우 동의한다</td> </tr> </table> <p>○ 현안에 관한 문항 추가</p>	전혀 모르다	대체로 모르다	대체로 알고 있다	매우 알고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혀 모르다	대체로 모르다	대체로 알고 있다	매우 알고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부록 5] 1차 조사 자료 배경변인별 분석 결과⁶⁾

1. 한국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인식

〈표 V-1-1〉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 초·중·고 교육정책의 결정의 책임자

초·중·고 교육정책의 결정의 책임자	사례수	응답비율				χ^2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청 교육감	단위학교 교장	계	
전체	2,000	59.8	33.4	6.9	100.0	
학력						13.636*
중졸이하	99	52.5	40.4	7.1	100.0	
고졸	453	55.4	34.7	9.9	100.0	
전문대/대졸	1,266	61.7	32.5	5.8	100.0	
대학원졸	182	61.0	31.9	7.1	100.0	

+ p<.10, * p<.05, ** p<.01, *** p<.001

〈표 V-1-2〉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 학생의 학습성취 기준 마련의 책임자

학생의 학습성취 기준 마련의 책임자	사례수	응답비율				χ^2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청 교육감	단위학교 교장	계	
전체	2,000	18.8	52.1	29.1	100.0	
성별						8.927*
남성	1,009	17.6	55.4	27.0	100.0	
여성	991	20.0	48.7	31.3	100.0	
연령						24.458**
19~29세	374	23.0	50.3	26.7	100.0	
30대	412	23.1	54.1	22.8	100.0	
40대	462	15.4	53.9	30.7	100.0	
50대	413	15.7	50.4	33.9	100.0	
60~75세	339	17.4	51.3	31.3	100.0	

6) 분량이 많아 χ^2 검증, F검증에서 유의한 결과만 제시하였음

〈표 V-1-3〉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의 책임자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의 책임자	사례 수	응답 비율				χ^2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청 교육감	단위학교 교장	계		
전체	2,000	14.4	33.8	51.9	100.0		
연령	19~29세	374	19.5	41.7	38.8	100.0	67.432***
	30대	412	17.5	38.6	43.9	100.0	
	40대	462	13.0	31.6	55.4	100.0	
	50대	413	8.5%	29.8	61.7	100.0	
	60~75세	339	13.9	26.8	59.3	100.0	
혼인 상태	기혼	1,386	13.5	31.7	54.8	100.0	17.223*
	미혼	568	16.5	38.9	44.5	100.0	
	기타	46	13.0	32.6	54.3	100.0	
학력	중졸이하	99	21.2	34.3	44.4	100.0	16.255*
	고졸	453	15.9	27.8	56.3	100.0	
	전문대/대졸	1,266	13.3	36.3	50.4	100.0	
	대학원졸	182	13.7	30.8	55.5	100.0	

〈표 V-1-4〉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 교육과정의 결정의 책임자

교육과정의 결정의 책임자	사례 수	응답 비율				χ^2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청 교육감	단위학교 교장	계		
전체	2,000	44.3	37.6	18.2	100.0		
연령	19~29세	374	50.3	36.9	12.8	100.0	20.135**
	30대	412	42.5	38.6	18.9	100.0	
	40대	462	38.5	40.5	21.0	100.0	
	50대	413	44.1	35.1	20.8	100.0	
	60~75세	339	47.8	36.0	16.2	100.0	

〈표 V-1-5〉 초·중등학교에 대한 전반적 평가

초·중등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7)	표준 오차	χ^2	F	
		수	우	미	양	가	잘 모르 겠다	계					
전체	2,000	1.7	16.3	42.7	24.8	9.4	5.2	100.0	2.75	0.914			
성별	남성	1,009	1.7	18.0	43.0	22.9	10.1	4.3	100.0	2.77	0.933	11,370*	
	여성	991	1.6	14.5	42.3	26.7	8.7	6.2	100.0	2.72	0.895		
거주 지역	특별시	408	2.9	13.2	47.3	23.0	8.3	5.1	100.0	2.78	0.902	34,160**	11,937**
	광역시	516	1.7	14.3	41.1	27.5	9.7	5.6	100.0	2.69	0.914		
	중소도시	930	1.1	16.8	42.0	24.8	10.3	4.9	100.0	2.72	0.917		
	읍면지역	146	1.4	28.8	39.0	19.9	5.5	5.5	100.0	3.01	0.900		
연령	19~29세	374	1.9	16.6	36.1	27.8	11.0	6.7	100.0	2.68	0.964	23,528***	
	30대	412	2.2	15.5	42.2	23.5	10.7	5.8	100.0	2.73	0.945		
	40대	462	1.3	16.0	43.9	25.8	8.7	4.3	100.0	2.74	0.888		
	50대	413	1.7	14.3	44.8	25.2	9.7	4.4	100.0	2.72	0.901		
	60~75세	339	1.2	19.8	46.0	21.2	6.8	5.0	100.0	2.87	0.867		
혼인상태	기혼	1,386	1.9	17.1	44.5	23.7	8.6	4.3	100.0	2.79	0.905	27,828**	11,289***
	미혼	568	1.2	13.4	38.9	27.8	11.4	7.2	100.0	2.62	0.922		
	기타	46	0.0	28.3	32.6	21.7	8.7	8.7	100.0	2.88	0.968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1.7	17.9	45.1	24.1	8.8	2.4	100.0	2.79	0.905	13,113*	
	기타	1,468	1.6	15.7	41.8	25.1	9.6	6.2	100.0	2.73	0.918		
학력	중졸이하	99	4.0	33.3	34.3	17.2	4.0	7.1	100.0	3.17	0.933	53,729***	20,805***
	고졸	453	1.5	17.0	42.2	23.0	7.7	8.6	100.0	2.80	0.897		
	전문대/대졸	1,266	1.7	14.5	44.0	25.4	10.3	4.2	100.0	2.71	0.911		
	대학원졸	182	0.5	17.6	39.0	29.7	10.4	2.7	100.0	2.67	0.91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282	3.2	18.4	37.2	19.5	9.6	12.1	100.0	2.84	0.996	54,733***	
	400만원미만	789	1.3	17.1	43.1	24.6	8.5	5.4	100.0	2.70	0.895		
	600만원미만	574	1.0	15.5	45.5	25.3	10.3	2.4	100.0	2.71	0.894		
	600만원이상	355	2.3	14.1	41.4	28.7	9.9	3.7	100.0	2.69	0.924		

7) 사례 수 중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의 평균과 표준편차임

〈표 V-1-6〉 초등학교에 대한 전반적 평가

초등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오차	χ^2	F	
		수	우	미	양	가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3.9	31.8	34.9	17.4	7.2	5.0	100.0	3.08	0.988			
연령	19-29세	374	2.9	24.6	35.6	20.6	9.6	6.7	100.0	2.90	1.008	35.881*	
	30대	412	2.7	31.3	34.0	17.2	9.5	5.3	100.0	3.01	1.014		
	40대	462	4.1	34.6	35.1	17.3	5.2	3.7	100.0	3.16	0.950		
	50대	413	5.1	32.2	34.6	16.5	7.7	3.9	100.0	3.11	1.015		
	60-75세	339	4.4	35.7	35.1	15.3	3.8	5.6	100.0	3.23	0.917		
혼인 상태	기혼	1,386	4.5	34.7	34.1	16.7	6.1	3.9	100.0	3.16	0.976	43.909***	27.530***
	미혼	568	1.9	24.8	36.3	19.5	9.9	7.6	100.0	2.89	0.990		
	기타	46	6.5	28.3	41.3	10.9	8.7	4.3	100.0	3.14	1.025		
초·중·고학부모	학부모	532	5.5	35.5	33.8	16.5	7.0	1.7	100.0	3.16	1.005	24.208***	4.856*
	기타	1,468	3.3	30.4	35.2	17.7	7.3	6.1	100.0	3.05	0.980		

〈표 V-1-7〉 중학교에 대한 전반적 평가

중학교	사 례 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오차	χ^2	F	
		수	우	미	양	가	잘 모르 겠다	계					
전체	2,000	1.2	15.4	41.0	27.1	10.5	4.9	100.0	2.68	0.914			
성별	남성	1,009	1.2	17.3	40.8	25.9	11.4	3.4	100.0	2.70	0.938	16.943**	
	여성	991	1.1	13.4	41.2	28.4	9.6	6.4	100.0	2.66	0.888		
거주지역	특별시	408	1.5	12.5	42.9	28.4	10.0	4.7	100.0	2.65	0.891	8.348*	
	광역시	516	1.6	14.1	39.9	29.5	10.3	4.7	100.0	2.66	0.915		
	중소도시	930	0.8	15.9	40.8	26.0	11.4	5.2	100.0	2.67	0.920		
	읍면지역	146	1.4	24.7	41.1	21.9	6.8	4.1	100.0	2.91	0.909		
연령	19~29세	374	1.9	13.6	39.3	28.6	11.8	4.8	100.0	2.63	0.941	14.810***	
	30대	412	1.0	11.4	40.8	28.4	12.1	6.3	100.0	2.58	0.900		
	40대	462	1.1	14.9	41.3	27.9	10.2	4.5	100.0	2.67	0.903		
	50대	413	1.2	16.0	41.4	27.1	10.9	3.4	100.0	2.68	0.922		
	60~75세	339	0.6	22.1	42.2	22.7	7.1	5.3	100.0	2.86	0.883		
혼인상태	기혼	1,386	1.3	16.5	41.8	26.7	9.4	4.4	100.0	2.72	0.907	23.199**	11,787***
	미혼	568	0.9	11.8	39.4	29.0	13.0	5.8	100.0	2.56	0.912		
	기타	46	0.0	28.3	37.0	15.2	13.0	6.5	100.0	2.86	1.014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1.1	15.0	42.1	28.0	10.7	3.0	100.0	2.67	0.908	62.604***	20,541***
	기타	1,468	1.2	15.5	40.6	26.8	10.4	5.5	100.0	2.68	0.916		
학력	중졸이하	99	1.0	32.3	39.4	14.1	5.1	8.1	100.0	3.11	0.875	48.703***	
	고졸	453	1.3	15.0	40.8	24.9	8.8	9.1	100.0	2.73	0.901		
	전문대/대졸	1,266	1.2	14.1	41.8	28.6	11.0	3.4	100.0	2.65	0.906		
	대학원졸	182	0.5	16.5	36.8	29.1	14.3	2.7	100.0	2.59	0.95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282	1.4	18.4	36.5	22.0	10.6	11.0	100.0	2.75	0.969		
	400만원미만	789	0.9	16.0	41.6	26.4	9.9	5.3	100.0	2.70	0.902		
	600만원미만	574	0.7	13.1	42.7	29.8	11.3	2.4	100.0	2.61	0.884		
	600만원이상	355	2.3	15.5	40.6	28.5	10.4	2.8	100.0	2.70	0.941		

〈표 V-1-8〉 고등학교에 대한 전반적 평가

고등학교	사 례 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오차	χ^2	F	
		수	우	미	양	가	잘 모르 겠다	계					
전체	2,000	1.5	9.6	29.8	35.7	18.0	5.7	100.0	2.37	0.9854			
성별	남성	1,009	1.5	10.3	29.8	34.5	19.6	4.3	100.0	2.37	0.976	12,139*	
	여성	991	1.4	8.8	29.7	36.8	16.2	7.1	100.0	2.38	0.931		
거주지역	특별시	408	2.0	7.8	30.1	36.8	18.4	4.9	100.0	2.35	0.951	7,390*	
	광역시	516	1.6	9.1	25.8	40.5	17.4	5.6	100.0	2.33	0.940		
	중소도시	930	1.0	10.1	30.8	33.4	18.7	6.0	100.0	2.37	0.954		
	읍면지역	146	2.7	12.3	36.3	29.5	13.7	5.5	100.0	2.59	0.987		
연령	19~29세	374	2.1	8.0	26.2	40.9	17.1	5.6	100.0	2.33	0.945	38,706**	11,449*
	30대	412	1.2	7.3	29.4	36.2	18.7	7.3	100.0	2.31	0.925		
	40대	462	1.7	7.1	31.2	32.9	21.0	6.1	100.0	2.32	0.963		
	50대	413	1.5	11.6	30.0	34.6	18.4	3.9	100.0	2.41	0.979		
	60~75세	339	0.6	14.7	31.9	34.2	13.3	5.3	100.0	2.53	0.939		
혼인상태	기혼	1,386	1.4	10.3	30.9	34.8	17.2	5.3	100.0	2.41	0.954	27,465**	9,739**
	미혼	568	1.8	6.5	26.8	38.9	19.5	6.5	100.0	2.27	0.933		
	기타	46	0.0	23.9	32.6	19.6	19.6	4.3	100.0	2.64	1.080		
학력	중졸이하	99	0.0	19.2	40.4	23.2	10.1	7.1	100.0	2.74	0.912	63,626***	24,084***
	고졸	453	1.8	11.3	29.4	34.4	13.0	10.2	100.0	2.49	0.954		
	전문대/대졸	1,266	1.6	8.2	29.5	37.0	19.4	4.3	100.0	2.33	0.947		
	대학원졸	182	0.5	9.3	26.4	36.3	24.2	3.3	100.0	2.23	0.95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만	282	2.5	11.3	30.5	28.4	15.6	11.7	100.0	2.51	1.016	50,330***	11,220**
	400만원만	789	1.0	10.9	30.3	35.4	16.1	6.3	100.0	2.42	0.941		
	600만원만	574	1.2	8.4	28.2	38.0	21.1	3.1	100.0	2.28	0.943		
	600만원상	355	2.0	7.0	30.4	38.3	18.9	3.4	100.0	2.33	0.939		

〈표 V-1-9〉 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학교가 ‘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우수한 교사 확보 배치	좋은 교육 시설과 환경의 제공	학생을 위한 친절한 상담 및 학생 지도 (인성, 안전) 활동	학부모 와의 좀 더 협력적 관계 형성	기타	계		
전체	2,000	46.6	15.1	12.0	23.2	2.8	0.4	100.0		
연령	19~29세	374	45.2	10.7	10.2	31.3	2.1	0.5	100.0	47.919***
	30대	412	51.5	12.4	15.5	17.7	2.7	0.2	100.0	
	40대	462	47.4	19.0	9.5	21.2	2.2	0.6	100.0	
	50대	413	46.0	15.7	10.9	23.0	4.1	0.2	100.0	
	60~75세	339	41.9	16.8	14.2	23.9	2.9	0.3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282	44.0	14.5	12.4	24.5	4.6	0.0	100.0	36.256**
	400만원미만	789	49.8	13.7	13.2	21.2	2.0	0.1	100.0	
	600만원미만	574	45.1	12.9	11.5	26.8	3.0	0.7	100.0	
	600만원이상	355	43.9	22.0	9.6	20.8	2.8	0.8	100.0	

〈표 V-1-10〉 초등학교 선택시 고려 사항

초등학교	사 례 수	응답 비율										χ^2		
		학교 명성 전통	교원 의 질적 수준	교육 프로 그램 의 특성	학교 사설	지역 환경 및 여건	통학 거리	상급 학교 진학 실적	졸업 생 취업 실적	교육 비	기타		계	
전체	2,000	6.1	17.4	22.9	8.5	14.3	28.0	1.3	0.4	0.8	0.6	100.0		
성별	남성	1,009	6.8	15.4	21.2	8.5	16.1	28.1	1.7	0.5	1.3	0.4	100.0	24,044**
	여성	991	5.3	19.4	24.5	8.4	12.4	27.9	0.9	0.0	0.3	0.7	100.0	
거주 지역	특별시	408	11.0	17.6	19.9	8.6	15.2	25.0	1.7	0.2	0.5	0.2	100.0	42,400*
	광역시	516	5.2	15.5	22.7	7.6	14.9	31.4	1.2	0.2	1.2	0.2	100.0	
	중소도시	930	4.7	17.7	23.7	8.8	14.0	27.8	1.3	0.3	0.8	0.9	100.0	
	읍면지역	146	4.1	20.5	26.7	8.9	11.0	25.3	0.7	1.4	0.7	0.7	100.0	
연령	19~29세	374	7.0	13.6	24.6	11.2	12.6	26.2	1.9	0.3	1.6	1.1	100.0	99,895***
	30대	412	10.9	18.2	25.0	8.3	11.9	22.8	1.2	0.0	1.5	0.2	100.0	
	40대	462	5.2	21.2	27.1	6.7	13.6	23.8	1.5	0.4	0.0	0.4	100.0	
	50대	413	3.6	13.6	20.1	7.3	17.2	35.4	1.2	0.7	0.7	0.2	100.0	
	60~75세	339	6.1	17.4	22.9	8.5	14.3	28.0	1.3	0.4	.8	0.6	100.0	
혼인 상태	기혼	1,386	5.8	18.0	22.6	8.0	14.4	28.5	1.5	0.4	0.5	0.3	100.0	36,674**
	미혼	568	7.0	15.1	24.3	9.9	13.9	26.2	0.0	0.0	1.6	0.9	100.0	
	기타	46	2.2	26.1	13.0	4.3	15.2	34.8	0.0	0.0	0.0	4.3	100.0	

〈표 V-1-11〉 중학교 선택시 고려 사항

중학교	사 례 수	응답 비율										χ^2		
		학교 명성 전통	교원 의 질적 수준	교육 프로 그램 의 특성	학교 시설	지역 환경 및 여건	통학 거리	상급 학교 진학 실적	졸업 생 취업 실적	교육 비	기타		계	
전체	2,000	3.9	29.4	31.2	7.4	12.8	6.7	7.0	0.3	1.0	0.5	100.0		
연령	19~29세	374	5.1	25.4	26.5	7.8	12.8	10.2	8.8	1.1	1.6	0.8	100.0	61,287**
	30대	412	4.1	27.9	37.6	7.3	11.4	4.9	6.1	0.2	0.5	0.0	100.0	
	40대	462	3.2	31.2	32.9	7.1	10.8	6.5	6.5	0.0	1.3	0.4	100.0	
	50대	413	2.7	31.0	29.1	6.1	14.5	6.8	8.2	0.0	1.5	0.2	100.0	
	60~75세	339	4.7	31.0	28.6	9.1	15.0	5.3	5.0	0.3	0.0	0.9	100.0	
일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82	2.5	34.0	27.3	5.0	13.1	7.1	9.2	0.4	1.1	0.4	100.0	48,672**
	400만원 미만	789	4.8	25.9	29.8	9.6	15.1	6.0	6.8	0.5	0.8	0.8	100.0	
	600만원 미만	574	2.8	30.3	36.6	5.4	10.3	7.1	5.7	0.2	1.4	0.2	100.0	
	600만원 이상	355	4.8	31.8	28.5	7.6	11.5	7.3	7.3	0.0	0.8	0.3	100.0	

〈표 V-1-12〉 고등학교 선택시 고려 사항

고등학교	사 례 수	응답 비율										χ^2		
		학교 명성 전통	교원 의 질적 수준	교육 프로 그램 의 특성	학교 시설	지역 환경 및 여건	통학 거리	상급 학교 진학 실적	졸업 생 취업 실적	교육 비	기타		계	
전체	2,000	7.3	29.6	20.9	3.9	6.1	4.6	22.7	3.3	1.5	0.4	100.0		
성별	남성	1,009	10.0	26.1	21.3	4.1	6.2	5.2	22.3	3.3	1.3	0.3	100.0	31,383***
	여성	991	4.5	33.1	20.5	3.6	5.9	4.0	23.0	3.3	1.6	0.4	100.0	
연령	19~29세	374	6.7	30.2	21.9	4.8	4.5	5.3	17.9	5.9	2.1	0.5	100.0	63,045**
	30대	412	7.0	26.5	24.0	5.8	7.0	4.4	20.4	2.9	1.9	0.0	100.0	
	40대	462	7.1	29.0	22.1	2.6	8.2	5.8	21.4	2.4	0.9	0.4	100.0	
	50대	413	7.0	32.7	17.7	3.6	3.4	2.7	28.8	2.7	1.2	0.2	100.0	
	60~75세	339	8.8	29.5	18.3	2.4	6.8	4.7	24.8	2.9	1.2	0.6	100.0	
혼인 상태	기혼	1,386	7.6	28.8	20.3	3.3	6.0	4.4	25.0	2.9	1.4	0.3	100.0	35,546**
	미혼	568	6.7	32.4	21.5	5.1	5.6	5.3	17.3	4.0	1.8	0.4	100.0	
	기타	46	6.5	17.4	30.4	4.3	13.0	2.2	17.4	6.5	0.0	2.2	100.0	

〈표 V-1-13〉 대학교 선택시 고려 사항

대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χ^2		
		학교 명성 전통	교원의 질적 수준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학교 시설	지역 환경 및 여건	통학 거리	상급 학교 진학 실적	졸업생 취업 실적	교육비	기타		계	
전체	2,000	20.7	12.8	11.4	3.7	2.6	2.3	2.5	32.2	11.7	0.4	100.0		
성별	남성	1,009	22.4	11.3	11.5	4.5	2.7	2.1	3.0	29.7	12.7	0.2	100.0	19,439*
	여성	991	19.0	14.2	11.3	2.8	2.4	2.5	1.9	34.6	10.7	0.5	100.0	
연령	19~29세	374	21.1	16.0	12.0	5.1	2.1	1.9	4.5	25.1	11.8	0.3	100.0	64,681**
	30대	412	17.5	14.1	13.8	4.4	3.9	3.9	2.9	29.9	9.0	0.7	100.0	
	40대	462	21.9	12.8	12.1	3.7	1.9	2.4	1.9	31.8	11.0	0.4	100.0	
	50대	413	21.1	10.2	9.9	2.9	2.7	1.2	1.0	36.8	14.3	0.0	100.0	
	60~75세	339	22.1	10.6	8.6	2.1	2.1	2.1	2.1	37.5	12.7	0.3	100.0	
혼인상태	기혼	1,386	20.1	11.7	10.3	3.5	2.6	2.2	2.2	34.8	12.3	0.3	100.0	31,608*
	미혼	568	21.7	15.5	13.4	3.9	2.5	2.5	3.2	26.6	10.6	0.4	100.0	
	기타	46	26.1	10.9	19.6	4.3	2.2	4.3	0.0	21.7	8.7	2.2	100.0	
학력	중졸이하	99	16.2	14.1	8.1	4.0	6.1	3.0	0.0	39.4	9.10	0.0	100.0	53,880**
	고졸	453	15.9	11.9	9.7	3.5	2.0	2.6	3.1	34.9	15.9	0.4	100.0	
	전문대/대졸	1,266	21.0	13.0	12.2	3.8	2.5	2.2	2.7	30.9	11.3	0.4	100.0	
	대학원졸	182	33.0	12.1	12.1	2.7	2.2	1.6	0.5	30.2	5.5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13.1	16.0	9.9	4.3	2.8	2.1	2.5	33.0	15.6	0.7	100.0	67,699***
	400만원 미만	789	18.3	12.0	10.3	3.3	2.0	3.2	2.8	33.1	14.7	0.4	100.0	
	600만원 미만	574	24.0	11.3	12.5	4.4	3.5	1.4	2.4	33.6	6.4	0.3	100.0	
	600만원 이상	355	26.8	14.1	13.2	2.8	2.0	2.0	1.7	27.0	10.4	0.0	100.0	

〈표 V-1-14〉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1순위)

교사의 능력(1순위)	사례수	응답 비율						χ^2
		학습 지도 능력	생활 지도 능력	진로 지도 능력	의사 소통 능력	기타	계	
전체	2,000	44.7	18.1	5.0	31.5	0.7	100.0	
성별	남성	45.4	20.4	5.0	28.7	0.5	100.0	12.398*
	여성	44.0	15.7	5.0	34.3	0.9	100.0	
거주지역	특별시	51.7	15.4	4.2	27.5	1.2	100.0	26.275**
	광역시	43.2	17.2	7.2	32.2	0.2	100.0	
	중소도시	43.5	18.6	4.1	33.0	0.8	100.0	
	읍면지역	37.7	25.3	5.5	30.8	0.7	100.0	
연령	19~29세	36.6	21.7	7.8	33.7	0.3	100.0	40.769***
	30대	41.3	19.2	4.4	33.5	1.7	100.0	
	40대	49.1	13.9	3.7	32.7	0.6	100.0	
	50대	47.7	18.6	3.4	29.8	0.5	100.0	
	60~75세	48.1	18.0	6.5	27.1	0.3	100.0	
학력	중졸이하	48.5	17.2	10.1	24.2	0.0	100.0	31.948***
	고졸	40.2	22.5	6.0	31.1	0.2	100.0	
	전문대/대졸	44.8	17.1	4.4	33.0	0.7	100.0	
	대학원졸	53.3	14.8	3.8	25.8	2.2	100.0	

〈표 V-1-15〉 교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교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잘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보통 이다	별로 못 하고 있다	전혀 못 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0.6	13.7	43.4	31.7	8.0	2.7	100.0	2.66	0.840			
거주 지역	특별시	408	0.7	12.5	46.3	29.9	8.1	2.5	100.0	2.67	0.831	28.737*	9.712**
	광역시	516	0.6	12.4	40.9	34.7	9.7	1.7	100.0	2.59	0.854		
	중소도시	930	0.5	13.1	44.3	30.9	7.7	3.4	100.0	2.67	0.830		
	읍면지역	146	0.7	24.7	38.4	30.8	3.4	2.1	100.0	2.88	0.852		
혼인 상태	기혼	1,386	0.7	14.2	44.1	30.5	8.6	1.9	100.0	2.67	0.854	25.047**	
	미혼	568	0.2	12.5	41.0	35.2	6.7	4.4	100.0	2.63	0.805		
	기타	46	2.2	10.9	52.2	21.7	6.5	6.5	100.0	2.79	0.833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82	0.7	13.5	45.4	27.3	6.7	6.4	100.0	2.72	0.825	46.815**	
	400만원 미만	789	1.0	13.6	44.7	31.9	6.6	2.2	100.0	2.70	0.828		
	600만원 미만	574	0.2	12.7	42.0	35.7	7.1	2.3	100.0	2.62	0.808		
	600만원 이상	355	0.3	15.5	41.1	27.9	13.5	1.7	100.0	2.60	0.921		

〈표 V-1-16〉 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

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신뢰 한다	어느 정도 신뢰 한다	보통 이다	별로 신뢰 하지 못 한다	전혀 신뢰 하지 못 한다	잘 모르 겠다	계				
전체	2,000	1.1	16.9	40.7	31.3	7.5	2.6	100.0	2.72	0.876		
성별	남성	1,009	1.2	18.0	42.2	29.6	6.7	2.2	100.0	2.77	0.871	4.762*
	여성	991	0.9	15.6	39.2	33.0	8.3	3.0	100.0	2.67	0.878	
거주 지역	특별시	408	0.7	14.7	45.3	29.9	7.4	2.0	100.0	2.71	0.838	27.486*
	광역시	516	1.0	15.7	38.4	34.3	8.9	1.7	100.0	2.65	0.889	
	중소도시	930	1.2	16.8	40.2	31.0	7.3	3.5	100.0	2.73	0.879	
	읍면지역	146	1.4	27.4	39.0	26.7	4.1	1.4	100.0	2.95	0.880	
혼인 상태	기혼	1,386	1.2	17.7	40.8	30.5	8.0	1.8	100.0	2.73	0.890	19.779*
	미혼	568	0.7	14.6	40.1	34.0	6.2	4.4	100.0	2.68	0.835	
	기타	46	2.2	19.6	43.5	21.7	8.7	4.3	100.0	2.84	0.939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282	0.4	16.0	42.2	27.0	7.1	7.4	100.0	2.74	0.848	52.933***
	400만원미만	789	1.4	16.3	41.4	31.8	6.8	2.2	100.0	2.73	0.870	
	600만원미만	574	0.5	17.2	40.1	34.7	5.9	1.6	100.0	2.71	0.842	
	600만원이상	355	1.7	18.0	38.9	28.2	11.8	1.4	100.0	2.69	0.962	

〈표 V-1-17〉 자녀의 장래직업으로 교사 희망 여부

자녀의 장래직업으로 교사 희망 여부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54.3	26.2	19.6	100.0		
거주지역	특별시	408	57.1	26.7	16.2	100.0	13,807*
	광역시	516	51.9	27.1	20.9	100.0	
	중소도시	930	52.5	26.3	21.2	100.0	
	읍면지역	146	65.8	19.9	14.4	100.0	
연령	19~29세	374	46.3	31.6	22.2	100.0	60,437***
	30대	412	43.0	34.7	22.3	100.0	
	40대	462	56.3	23.6	20.1	100.0	
	50대	413	62.0	22.3	15.7	100.0	
	60~75세	339	64.6	18.0	17.4	100.0	
혼인상태	기혼	1,386	56.5	25.1	18.4	100.0	20,663***
	미혼	568	47.5	30.1	22.4	100.0	
	기타	46	69.6	8.7	21.7	100.0	
학력	중졸이하	99	59.6	23.2	17.2	100.0	15,764*
	고졸	453	54.1	22.5	23.4	100.0	
	전문대/대졸	1,266	54.0	26.5	19.4	100.0	
	대학원졸	182	53.3	34.1	12.6	100.0	

〈표 V-1-18〉 학생의 인성, 도덕성 수준

학생의 인성 도덕성 수준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높다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잘 모르 겠다	계					
전체	2,000	0.2	4.8	31.9	42.2	19.1	1.9	100.0	2.23	0.824			
거주 지역	특별시	408	0.7	5.4	30.9	46.1	16.4	0.5	100.0	2.28	0.827	32,366**	
	광역시	516	0.2	5.0	31.8	41.7	20.0	1.4	100.0	2.23	0.8340		
	중소도시	930	0.0	3.8	32.4	40.9	20.0	3.0	100.0	2.21	0.809		
	읍면지역	146	0.0	8.9	32.2	41.1	17.1	0.7	100.0	2.33	0.866		
연령	19~29세	374	0.0	4.5	25.9	45.7	21.4	2.4	100.0	2.14	0.808	31,765*	9,963**
	30대	412	0.5	4.1	34.2	42.0	17.7	1.5	100.0	2.27	0.818		
	40대	462	0.0	6.3	36.8	39.0	15.8	2.2	100.0	2.34	0.824		
	50대	413	0.0	3.6	31.2	44.8	18.4	1.9	100.0	2.20	0.783		
	60~75세	339	0.6	5.3	29.8	39.5	23.3	1.5	100.0	2.19	0.880		
혼인 상태	기혼	1,386	0.2	5.3	32.7	41.9	18.3	1.5	100.0	2.26	0.8209	27,324**	4,567*
	미혼	568	0.0	3.9	28.7	43.8	20.8	2.8	100.0	2.16	0.802		
	기타	46	2.2	0.0	47.8	28.3	19.6	2.2	100.0	2.36	0.883		
초중 고학 부모	학부모	532	0.2	7.1	36.8	38.9	16.4	0.6	100.0	2.36	0.845	25,225***	10,503***
	기타	1,468	0.2	4.0	30.1	43.3	20.0	2.4	100.0	2.19	0.811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82	0.4	6.7	31.2	33.3	23.0	5.3	100.0	2.24	0.915	40,106***	
	400만원 미만	789	0.4	4.2	30.9	45.6	17.6	1.3	100.0	2.23	0.802		
	600만원 미만	574	0.0	4.4	33.8	42.7	17.9	1.2	100.0	2.25	0.800		
	600만원 이상	355	0.0	5.4	31.5	40.6	20.8	1.7	100.0	2.22	0.840		

〈표 V-1-19〉 학업, 경쟁 스트레스 정도

학업, 경쟁 스트레스 정도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 차	χ^2	F	
		전혀 심각 하지 않다	별로 심각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심각 한편 이다	매우 심각 하다	잘 모르 겠다	계					
전체	2,000	0.3	2.0	15.1	54.8	26.7	1.2	100.0	1.93	0.723			
성별	남성	1,009	0.3	1.7	17.7	55.7	23.6	1.0	100.0	1.98	0.716	18,730**	5,733***
	여성	991	0.2	2.3	12.4	53.9	29.9	1.3	100.0	1.88	0.725		
연령	19~29세	374	0.3	2.7	14.4	49.7	32.1	0.8	100.0	1.88	0.768	35,399*	7,184**
	30대	412	0.7	1.7	20.1	55.1	21.4	1.0	100.0	2.04	0.744		
	40대	462	0.0	1.5	13.9	59.5	24.2	0.9	100.0	1.93	0.664		
	50대	413	0.2	2.4	12.8	52.5	30.0	1.9	100.0	1.88	0.738		
	60~75세	339	0.0	1.8	14.2	56.3	26.5	1.2	100.0	1.91	0.691		
학력	중졸이하	99	1.0	2.0	24.2	48.5	20.2	4.0	100.0	2.12	0.797	29,087*	
	고졸	453	0.0	2.6	13.0	56.5	25.8	2.0	100.0	1.92	0.707		
	전문대/대졸	1,266	0.3	1.7	15.2	55.1	26.9	0.7	100.0	1.93	0.720		
	대학원졸	182	0.0	2.2	14.3	52.2	30.8	0.5	100.0	1.88	0.72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0.4	3.5	17.0	53.2	22.0	3.9	100.0	2.03	0.767	39,533***	4,274*
	400만원 미만	789	0.1	1.8	15.1	57.0	25.5	0.5	100.0	1.94	0.698		
	600만원 미만	574	0.2	1.4	15.3	55.1	27.4	0.7	100.0	1.91	0.704		
	600만원 이상	355	0.6	2.3	13.2	50.7	32.1	1.1	100.0	1.87	0.766		

〈표 V-1-20〉 IT 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수준

IT 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수준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심각한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0.2	1.0	12.6	51.9	33.3	1.0	100.0	1.82	0.699			
성별	남성	1,009	0.2	1.0	14.9	54.6	28.2	1.1	100.0	1.89	0.695	26.967***	10.903***
	여성	991	0.2	1.0	10.3	49.1	38.4	0.9	100.0	1.74	0.696		
연령	19~29세	374	0.3	1.3	16.6	48.1	32.9	0.8	100.0	1.87	0.749	35.594*	6.633**
	30대	412	0.7	0.7	16.3	51.0	30.3	1.0	100.0	1.89	0.746		
	40대	462	0.0	0.9	10.0	57.6	30.5	1.1	100.0	1.81	0.639		
	50대	413	0.0	1.5	10.2	49.4	37.8	1.2	100.0	1.75	0.695		
	60~75세	339	0.0	0.6	10.3	52.5	35.7	0.9	100.0	1.76	0.65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0.7	0.7	13.5	48.9	32.6	3.5	100.0	1.84	0.741	36.955***	
	400만원 미만	789	0.1	1.0	14.3	51.7	32.6	0.3	100.0	1.84	0.705		
	600만원 미만	574	0.2	0.7	11.0	54.5	32.9	0.7	100.0	1.80	0.668		
	600만원 이상	355	0.0	1.7	10.7	50.4	36.1	1.1	100.0	1.78	0.702		

〈표 V-1-21〉 초등학교에서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

초등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창의성	인성	진로	특기적성	민주시민	성	환경	국어	외국어	수학	과학	예체능	한자	안전	역사	다문화	계		
전체	2,000	20.0	61.0	2.3	3.0	7.6	1.6	0.7	1.1	0.4	0.2	0.4	0.3	0.2	0.9	0.4	0.1	100.0		
성별	남성	1,009	18.2	50.8	4.9	5.6	7.6	3.8	1.4	1.4	1.2	1.7	0.4	0.4	0.1	0.1	2.3	0.1	100.0	32.405**
	여성	991	11.4	56.4	5.4	5.9	7.9	5.3	1.2	0.9	1.4	0.8	0.4	0.3	0.1	0.7	1.8	0.0	100.0	
연령	19~29세	374	23.0	48.4	3.2	6.4	9.6	3.5	0.5	0.8	1.1	0.0	1.6	0.5	0.0	0.5	0.5	0.3	100.0	124.286***
	30대	412	22.1	60.9	3.2	3.4	3.9	1.7	0.7	1.5	0.0	0.5	0.5	0.2	0.5	0.7	0.2	0.0	100.0	
	40대	462	20.3	64.7	1.3	2.6	5.8	1.5	0.9	1.1	0.2	0.2	0.0	0.4	0.0	0.4	0.4	0.0	100.0	
	50대	413	17.9	65.4	1.2	1.7	8.7	1.0	0.7	1.2	0.2	0.0	0.0	0.2	0.0	1.2	0.5	0.0	100.0	
	60~75세	339	16.2	64.6	2.7	0.9	10.9	0.3	0.6	0.9	0.6	0.3	0.0	0.0	0.3	1.5	0.3	0.0	100.0	

〈표 V-1-22〉 중학교에서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

중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창의성	인성	진로	특기적성	민주시민	성	환경	국어	외국어	수학	과학	예체능	한자	안전	역사	다문화		계
전체	2,000	14.9	53.6	5.2	5.8	7.8	4.6	1.3	1.2	1.3	1.3	0.4	0.4	0.1	0.4	2.1	0.1	100.0	
연령 19~29세	374	13.1	46.8	7.0	6.4	7.2	8.8	1.3	0.8	1.6	2.1	0.8	0.5	0.0	0.3	2.9	0.3	100.0	93.938**
30대	412	15.8	51.9	4.6	6.6	6.8	5.1	1.7	1.7	1.7	1.5	0.2	1.0	0.0	0.0	1.5	0.0	100.0	
40대	462	14.1	54.5	6.7	6.3	7.1	3.5	0.9	1.3	1.3	1.5	0.6	0.0	0.4	0.9	0.9	0.0	100.0	
50대	413	16.2	57.6	3.6	4.4	9.0	3.1	0.5	1.0	1.0	0.0	0.2	0.2	0.0	0.5	2.7	0.0	100.0	
60~75세	339	15.0	56.9	3.5	5.0	8.8	2.4	2.4	0.9	0.9	1.2	0.0	0.0	0.0	0.3	2.7	0.0	100.0	
혼인 상태																			46.826*
기혼	1,386	14.6	55.1	4.3	5.8	8.4	3.8	1.5	1.2	1.2	1.1	0.4	0.3	0.1	0.5	1.7	0.0	100.0	
미혼	568	15.3	50.0	6.7	6.0	6.7	6.5	0.9	1.1	1.4	1.2	0.5	0.5	0.0	0.2	2.8	0.2	100.0	
기타	46	15.2	52.2	13.0	0.0	2.2	4.3	0.0	2.2	2.2	6.5	0.0	0.0	0.0	0.0	2.2	0.0	100.0	

〈표 V-1-23〉 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

고등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창의성	인성	진로	특기적성	민주시민	성	환경	국어	외국어	수학	과학	예체능	한자	안전	역사	계		
전체	2,000	11.0	40.2	19.0	7.4	7.2	4.0	1.2	1.1	2.6	1.3	0.9	0.6	0.2	0.5	3.0		100.0	
성별																			35.095***
남성	1,009	12.3	37.6	18.9	8.7	7.5	3.3	1.3	0.9	3.1	1.4	1.5	0.4	0.4	0.2	2.6		100.0	
여성	991	9.7	42.8	19.1	6.0	6.8	4.7	1.1	1.3	2.0	1.2	0.3	0.8	0.0	0.8	3.4		100.0	
거주 지역																			61.797*
특별시	408	12.0	38.5	17.9	9.8	5.9	2.9	1.0	1.0	2.7	1.5	1.7	1.5	0.2	0.5	2.9		100.0	
광역시	516	12.0	39.1	16.7	8.3	7.9	4.7	1.6	1.0	3.9	0.8	0.6	0.2	0.6	0.2	2.5		100.0	
중소도시	930	10.6	41.2	20.4	6.2	7.4	4.1	0.9	1.0	2.0	1.3	0.9	0.5	0.0	0.6	2.8		100.0	
읍면지역	146	6.8	41.8	21.2	4.1	6.2	4.1	2.7	2.7	0.7	2.7	0.0	0.0	0.0	0.7	6.2		100.0	
연령																			110.712***
19~29세	374	9.4	31.6	22.7	5.9	5.9	7.2	1.9	1.6	4.3	1.9	1.9	0.5	0.5	0.5	4.3		100.0	
30대	412	10.7	38.6	18.2	8.7	6.1	5.8	1.9	0.5	2.7	1.0	1.2	1.5	0.2	0.7	2.2		100.0	
40대	462	10.2	41.8	22.7	7.1	7.6	3.0	0.6	0.6	2.6	1.1	0.9	0.2	0.2	0.4	0.9		100.0	
50대	413	12.8	44.1	16.9	6.1	7.7	2.2	0.5	1.2	1.9	1.2	0.0	0.2	0.0	0.7	4.4		100.0	
60~75세	339	12.1	44.5	13.3	9.1	8.6	1.8	1.2	1.8	1.2	1.5	0.6	0.6	0.0	0.0	3.8		100.0	
초중고 학부모	532	10.0	38.2	25.2	7.9	6.0	3.9	0.8	1.1	2.6	1.3	0.2	0.4	0.4	0.8	1.3		32.458*	
학부모 기타	1,468	11.4	40.9	16.8	7.2	7.6	4.0	1.4	1.1	2.5	1.3	1.2	0.7	0.1	0.4	3.6			100.0

〈표 V-1-24〉 영어 공교육 시작 시기

영어 공교육 시기	사례수	응답 비율					χ^2	
		현재 시기가 좋다	더 일찍 가르쳐야 한다	더 늦게 가르쳐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41.1	21.5	27.5	10.0	100.0		
성별	남성	1,009	38.9	22.0	30.1	9.0	100.0	10.081*
	여성	991	43.4	20.9	24.7	11.0	100.0	
혼인상태	기혼	1,386	41.0	24.2	27.3	7.5	100.0	46.616***
	미혼	568	41.4	15.8	27.6	15.1	100.0	
	기타	46	41.3	8.7	28.3	21.7	100.0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41.5	27.8	26.7	3.9	100.0	40.448***
	기타	1,468	40.9	19.1	27.7	12.2	100.0	
학력	중졸이하	99	29.3	18.2	37.4	15.2	100.0	23.297**
	고졸	453	46.1	17.7	24.3	11.9	100.0	
	전문대/대졸	1,266	40.8	22.6	27.5	9.2	100.0	
	대학원졸	182	37.4	24.7	29.7	8.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34.8	16.0	31.9	17.4	100.0	32.332***
	400만원 미만	789	43.7	20.5	26.4	9.4	100.0	
	600만원 미만	574	41.3	24.2	26.7	7.8	100.0	
	600만원 이상	355	40.0	23.4	27.6	9.0	100.0	

〈표 V-1-25〉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 의견

수준별 수업에 대한 찬반 의견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47.4	41.3	11.4	100.0		
성별	남성	1,009	48.6	42.2	9.2	100.0	9.208**
	여성	991	46.2	40.3	13.5	100.0	
거주지역	특별시	408	54.4	36.0	9.6	100.0	16.534*
	광역시	516	49.8	39.7	10.5	100.0	
	중소도시	930	44.1	43.4	12.5	100.0	
	읍면지역	146	40.4	47.3	12.3	100.0	
연령	19~29세	374	44.9	40.9	14.2	100.0	47.655***
	30대	412	36.7	51.0	12.4	100.0	
	40대	462	44.8	43.5	11.7	100.0	
	50대	413	55.2	35.1	9.7	100.0	
	60~75세	339	57.2	34.2	8.6	100.0	
혼인상태	기혼	1,386	50.3	40.5	9.2	100.0	27.821***
	미혼	568	41.2	42.6	16.2	100.0	
	기타	46	37.0	45.7	17.4	100.0	
초중고	학부모	532	49.4	42.9	7.7	100.0	9.564**
학부모	기타	1,468	46.7	40.7	12.7	100.0	
학력	중졸이하	99	40.4	45.5	14.1	100.0	23.884***
	고졸	453	42.6	42.6	14.8	100.0	
	전문대/대졸	1,266	47.9	41.2	10.9	100.0	
	대학원졸	182	59.3	36.3	4.4	100.0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미만	282	42.2	39.4	18.4	100.0	30.501***
	400만원미만	789	43.6	45.2	11.2	100.0	
	600만원미만	574	52.3	39.2	8.5	100.0	
	600만원 이상	355	52.1	37.2	10.7	100.0	

〈표 V-1-26〉 자녀의 방과후 학교 참여 의사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의사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참여 시킬 생각이 있다	참여 시킬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61.5	28.7	9.9	100.0	
연령	19~29세	374	52.7	34.0	13.4	100.0	17.299*
	30대	412	62.6	27.9	9.5	100.0	
	40대	462	63.6	27.7	8.7	100.0	
	50대	413	62.7	27.1	10.2	100.0	
	60~75세	339	65.2	26.8	8.0	100.0	
혼인상태	기혼	1,386	65.5	26.9	7.6	100.0	45.852***
	미혼	568	51.6	32.6	15.8	100.0	
	기타	46	60.9	32.6	6.5	100.0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70.5	26.3	3.2	100.0	43.924***
	기타	1,468	58.2	29.5	12.3	100.0	
학력	중졸이하	99	49.5	37.4	13.1	100.0	26.112***
	고졸	453	56.7	29.1	14.1	100.0	
	전문대/대졸	1,266	62.8	28.3	8.9	100.0	
	대학원졸	182	70.3	25.3	4.4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54.3	28.7	17.0	100.0	25.127***
	400만원 미만	789	60.8	30.4	8.7	100.0	
	600만원 미만	574	66.4	25.6	8.0	100.0	
	600만원 이상	355	60.6	29.6	9.9	100.0	

〈표 V-1-27〉 학생의 학습성취(성적) 결정 요인

학생의 학습성취(성적) 결정 요인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교사 (학교)	학부모 (가정)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44.4	49.9	5.8	100.0	
연령	19~29세	374	28.6	63.4	8.0	100.0	77.105***
	30대	412	37.1	57.3	5.6	100.0	
	40대	462	48.3	46.1	5.6	100.0	
	50대	413	54.0	41.4	4.6	100.0	
	60~75세	339	53.4	41.3	5.3	100.0	
혼인상태	기혼	1,386	48.6	46.8	4.5	100.0	53.730***
	미혼	568	32.6	58.8	8.6	100.0	
	기타	46	60.9	30.4	8.7	100.0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51.5	44.9	3.6	100.0	18.097***
	기타	1,468	41.8	51.6	6.6	100.0	
학력	중졸이하	99	41.4	48.5	10.1	100.0	16.709**
	고졸	453	43.7	47.5	8.8	100.0	
	전문대/대졸	1,266	44.2	51.3	4.6	100.0	
	대학원졸	182	48.9	46.7	4.4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40.1	47.9	12.1	100.0	26.490***
	400만원 미만	789	45.4	49.8	4.8	100.0	
	600만원 미만	574	46.0	50.2	3.8	100.0	
	600만원 이상	355	42.8	51.0	6.2	100.0	

〈표 V-1-28〉 교육별에 대한 찬반 의견

교육별에 대한 찬반 의견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72.9	20.1	7.1	100.0		
성별	남성	1,009	75.5	18.5	5.9	100.0	7.772*
	여성	991	70.2	21.6	8.2	100.0	
거주지역	특별시	408	72.5	23.8	3.7	100.0	17.859**
	광역시	516	72.9	19.6	7.6	100.0	
	중소도시	930	72.3	18.9	8.8	100.0	
	읍면지역	146	78.1	18.5	3.4	100.0	
연령	19~29세	374	66.8	25.1	8.0	100.0	26.825***
	30대	412	67.2	23.8	9.0	100.0	
	40대	462	74.5	18.8	6.7	100.0	
	50대	413	80.1	14.5	5.3	100.0	
	60~75세	339	75.5	18.3	6.2	100.0	
혼인상태	기혼	1,386	74.8	19.3	5.8	100.0	13.347**
	미혼	568	68.3	22.0	9.7	100.0	
	기타	46	71.7	17.4	10.9	100.0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75.8	19.9	4.3	100.0	8.458*
	기타	1,468	71.9	20.1	8.0	100.0	
학력	중졸이하	99	62.6	28.3	9.1	100.0	17.210**
	고졸	453	71.1	18.5	10.4	100.0	
	전문대/대졸	1,266	73.9	20.1	6.1	100.0	
	대학원졸	182	76.4	19.2	4.4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63.8	23.0	13.1	100.0	32.824***
	400만원 미만	789	71.5	21.3	7.2	100.0	
	600만원 미만	574	78.4	17.8	3.8	100.0	
	600만원 이상	355	74.4	18.6	7.0	100.0	

〈표 V-1-29〉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의 원인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점수 위주의 입시 경쟁 체제	가정 교육의 부재	학교의 폭력 방지 노력 부족	대중 매체 폭력성	학생 개인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11.4	34.6	21.9	24.4	5.5	2.3	100.0		
성별	남성	1,009	11.8	35.6	21.5	21.9	6.7	2.5	100.0	12.183*
	여성	991	11.0	33.5	22.2	26.9	4.2	2.1	100.0	
연령	19~29세	374	8.0	34.5	25.7	21.9	6.7	3.2	100.0	55.801***
	30대	412	10.4	36.4	26.5	19.7	4.4	2.7	100.0	
	40대	462	13.2	32.7	21.6	24.2	6.7	1.5	100.0	
	50대	413	16.9	31.7	17.2	27.6	4.1	2.4	100.0	
	60~75세	339	7.1	38.3	18.0	29.2	5.6	1.8	100.0	
혼인상태	기혼	1,386	12.0	34.0	21.4	25.5	5.3	1.7	100.0	21.610*
	미혼	568	10.2	36.4	22.5	20.6	6.5	3.7	100.0	
	기타	46	6.5	28.3	26.1	37.0	0.0	2.2	100.0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14.5	33.3	21.6	25.2	4.9	0.6	100.0	16.545**
	기타	1,468	10.3	35.0	21.9	24.1	5.7	2.9	100.0	

〈표 V-1-30〉 정부 및 학교의 학교폭력 해소 노력

정부 및 학교의 학교폭력 해소 노력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그렇 다	어느 정도 그렇 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않 다	잘 모르 겠다	계					
전체	2,000	0.9	8.4	24.2	44.2	20.1	2.4	100.0	2.24	0.904			
성별	남성	1,009	1.1	9.3	27.3	41.8	18.3	2.2	100.0	2.32	0.921	17.785**	11.488***
	여성	991	0.6	7.4	21.0	46.6	21.8	2.6	100.0	2.16	0.879		
연령	19~29세	374	0.3	5.3	19.8	43.6	27.8	3.2	100.0	2.04	0.859	39.982**	21.227***
	30대	412	0.7	7.3	25.7	42.7	20.6	2.9	100.0	2.23	0.892		
	40대	462	0.6	8.0	27.5	43.9	18.6	1.3	100.0	2.27	0.882		
	50대	413	1.5	10.4	23.7	44.3	17.7	2.4	100.0	2.32	0.941		
	60~75세	339	1.2	10.9	23.0	46.9	15.6	2.4	100.0	2.34	0.917		
혼인 상태	기혼	1,386	1.0	10.0	25.8	43.5	18.1	1.7	100.0	2.31	0.921	43.478***	24.096***
	미혼	568	0.5	4.6	20.4	45.1	25.2	4.2	100.0	2.06	0.845		
	기타	46	0.0	6.5	21.7	54.3	15.2	2.2	100.0	2.20	0.786		
초중 고학 부모	학부모	532	0.6	9.2	28.4	41.4	19.9	0.6	100.0	2.29	0.909	18.235**	
	기타	1,468	1.0	8.0	22.6	45.2	20.1	3.1	100.0	2.22	0.901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82	0.7	6.7	22.7	41.1	22.3	6.4	100.0	2.17	0.901	50.462***	
	400만원 미만	789	1.1	6.7	26.1	45.4	18.6	2.0	100.0	2.25	0.880		
	600만원 미만	574	0.9	9.9	24.6	46.5	17.1	1.0	100.0	2.30	0.901		
	600만원 이상	355	0.3	10.7	20.3	40.3	26.2	2.3	100.0	2.17	0.956		

〈표 V-1-31〉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고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56.8	32.5	10.8	100.0	
성별	남성	1,009	56.4	35.4	8.2	100.0	17,520***
	여성	991	57.2	29.5	13.3	100.0	
거주지역	특별시	408	51.2	38.2	10.5	100.0	21,797***
	광역시	516	58.1	32.6	9.3	100.0	
	중소도시	930	56.3	31.3	12.4	100.0	
	읍면지역	146	70.5	23.3	6.2	100.0	
연령	19~29세	374	53.2	32.9	13.9	100.0	24,944**
	30대	412	54.1	33.3	12.6	100.0	
	40대	462	65.2	25.8	9.1	100.0	
	50대	413	55.9	34.9	9.2	100.0	
	60~75세	339	53.7	37.2	9.1	100.0	
혼인상태	기혼	1,386	57.6	33.5	8.8	100.0	20,362***
	미혼	568	54.0	30.6	15.3	100.0	
	기타	46	65.2	21.7	13.0	100.0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64.8	28.0	7.1	100.0	21,449***
	기타	1,468	53.9	34.1	12.1	100.0	
학력	중졸이하	99	67.7	20.2	12.1	100.0	49,427***
	고졸	453	55.0	28.3	16.8	100.0	
	전문대/대졸	1,266	58.0	32.7	9.3	100.0	
	대학원졸	182	47.3	47.8	4.9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54.6	25.5	19.9	100.0	37,349***
	400만원 미만	789	58.6	30.8	10.6	100.0	
	600만원 미만	574	56.6	35.4	8.0	100.0	
	600만원 이상	355	54.9	36.9	8.2	100.0	

〈표 V-1-32〉 고교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고교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58.6	32.5	9.0	100.0	
성별	남성	1,009	56.2	36.9	6.9	100.0	23.100***
	여성	991	60.9	28.1	11.0	100.0	
혼인상태	기혼	1,386	58.4	34.6	7.0	100.0	29.152***
	미혼	568	57.9	28.3	13.7	100.0	
	기타	46	71.7	19.6	8.7	100.0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55.1	39.1	5.8	100.0	19.101***
	기타	1,468	59.8	30.1	10.1	100.0	
학력	중졸이하	99	56.6	32.3	11.1	100.0	20.627**
	고졸	453	61.4	26.5	12.1	100.0	
	전문대/대졸	1,266	57.2	34.4	8.5	100.0	
	대학원졸	182	62.1	34.6	3.3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59.9	26.2	13.8	100.0	20.000**
	400만원 미만	789	57.9	32.1	10.0	100.0	
	600만원 미만	574	59.6	34.1	6.3	100.0	
	600만원 이상	355	57.2	35.8	7.0	100.0	

〈표 V-1-33〉 학교생활 기록부 종합 판단을 통한 학생 선발 확대

학교생활 기록부 종합 판단을 통한 학생 선발 확대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7.2	37.3	29.3	17.8	4.0	4.5	100.0	3.27	0.985			
성별	남성	1,009	8.2	40.4	27.8	16.2	3.5	3.9	100.0	3.35	0.976	15.826**	12.393***
	여성	991	6.2	34.1	30.7	19.5	4.4	5.1	100.0	3.19	0.988		
거주 지역	특별시	408	5.9	36.3	28.9	22.1	4.2	2.7	100.0	3.18	0.991	27.146*	9.470*
	광역시	516	7.9	36.0	29.3	19.4	3.5	3.9	100.0	3.27	0.992		
	중소도시	930	7.2	37.4	28.9	15.9	4.6	5.9	100.0	3.28	0.995		
	읍면지역	146	8.2	43.8	32.2	12.3	0.7	2.7	100.0	3.48	0.848		
연령	19~29세	374	7.5	34.8	28.3	17.9	5.1	6.4	100.0	3.23	1.024		10.014*
	30대	412	4.9	34.2	33.7	18.2	4.4	4.6	100.0	3.18	0.952		
	40대	462	6.9	37.0	30.7	17.7	4.1	3.5	100.0	3.26	0.980		
	50대	413	9.2	38.7	25.4	18.6	4.1	3.9	100.0	3.31	1.027		
	60~75세	339	7.7	42.5	27.4	16.2	1.8	4.4	100.0	3.40	0.924		
혼인 상태	기혼	1,386	7.4	38.1	29.1	17.9	4.1	3.4	100.0	3.28	0.989	18.975*	
	미혼	568	7.0	34.7	29.2	18.0	3.7	7.4	100.0	3.25	0.985		
	기타	46	4.3	45.7	32.6	13.0	2.2	2.2	100.0	3.38	0.860		
학 력	중졸이하	99	4.0	39.4	36.4	12.1	2.0	6.1	100.0	3.33	0.838	48.327***	8.799*
	고졸	453	6.6	36.4	27.2	18.5	2.4	8.8	100.0	3.29	0.959		
	전문대/대졸	1,266	7.1	36.5	30.3	18.3	4.8	3.0	100.0	3.23	1.001		
	대학원졸	182	11.0	44.0	23.6	15.4	2.7	3.3	100.0	3.47	0.98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82	6.7	34.8	31.9	13.8	1.1	11.7	100.0	3.37	0.879	66.322***	
	400만원 미만	789	7.2	35.5	31.7	17.5	3.8	4.3	100.0	3.26	0.974		
	600만원 미만	574	6.6	41.3	26.7	19.2	4.0	2.3	100.0	3.28	0.988		
	600만원 이상	355	8.5	36.9	25.9	19.4	6.5	2.8	100.0	3.22	1.072		

〈표 V-1-34〉 대학입학전형 중요 반영 항목

대학입학전형 중요 반영 항목	사례수	응답 비율							χ^2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	고교 내신 성적	특기 적성	인성 및 사회 봉사	면접 및 글쓰기 성적	기타	계		
전체	2,000	23.8	19.6	26.3	27.9	2.3	0.3	100.0		
거주지역	특별시	408	27.9	20.8	23.3	24.3	3.2	0.5	100.0	34.217**
	광역시	516	21.5	20.5	28.5	27.7	1.7	0.0	100.0	
	중소도시	930	24.8	17.8	27.0	27.5	2.5	0.3	100.0	
	읍면지역	146	13.7	23.3	21.9	40.4	0.7	0.0	100.0	
연령	19~29세	374	19.8	18.2	34.5	23.3	4.3	0.0	100.0	75.173***
	30대	412	18.0	18.9	33.0	27.2	2.7	0.2	100.0	
	40대	462	26.8	17.5	27.3	27.3	0.9	0.2	100.0	
	50대	413	28.1	23.0	17.2	29.5	1.9	0.2	100.0	
	60~75세	339	26.0	20.4	18.6	32.4	2.1	0.6	100.0	
혼인상태	기혼	1,386	24.7	20.5	23.3	29.7	1.7	0.1	100.0	37.198***
	미혼	568	21.7	17.4	33.6	23.1	3.7	0.5	100.0	
	기타	46	23.9	17.4	23.9	30.4	4.3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35.1	44.7	10.6	2.1	0.4	7.1	100.0	55.537***
	400만원 미만	789	36.9	44.6	15.3	1.1	0.4	1.6	100.0	
	600만원 미만	574	32.2	49.7	13.8	3.0	0.3	1.0	100.0	
	600만원 이상	355	36.6	39.2	16.9	3.4	1.1	2.8	100.0	

〈표 V-1-35〉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 저소득층

저소득층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F	
		매우 중요 하다	대체 로 중요 하다	보통 이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잘 모르 겠다	계				
전체	2,000	35.3	45.1	14.5	2.2	0.5	2.5	100.0	4.15	0.790		
거주지역	특별시	408	36.5	44.6	14.2	2.2	0.2	2.2	100.0	4.18	0.776	6.906*
	광역시	516	34.5	44.0	15.9	2.9	1.2	1.6	100.0	4.09	0.854	
	중소도시	930	34.9	45.2	14.3	2.2	0.2	3.2	100.0	4.16	0.769	
	읍면지역	146	36.3	50.0	11.6	0.0	0.7	1.4	100.0	4.23	0.707	
연령	19~29세	374	39.3	42.5	12.8	1.9	0.8	2.7	100.0	4.21	0.803	11.324**
	30대	412	35.2	43.2	16.3	2.4	0.5	2.4	100.0	4.13	0.810	
	40대	462	34.4	45.0	15.8	1.9	0.4	2.4	100.0	4.14	0.785	
	50대	413	34.1	47.5	13.6	2.2	0.5	2.2	100.0	4.15	0.775	
	60~75세	339	33.3	47.5	13.6	2.7	0.3	2.7	100.0	4.14	0.775	
혼인상태	기혼	1,386	34.3	44.8	15.8	2.5	0.5	2.1	100.0	4.12	0.802	4.031*
	미혼	568	37.5	44.5	12.5	1.6	0.5	3.3	100.0	4.21	0.768	
	기타	46	34.8	60.9	0.0	2.2	0.0	2.2	100.0	4.31	0.596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34.8	44.0	16.7	2.6	0.4	1.5	100.0	4.12	0.807	5.439**
	기타	1,468	35.4	45.5	13.7	2.0	0.5	2.8	100.0	4.16	0.783	

〈표 V-1-36〉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 결손가정 학생

결손가정 학생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매우 중요 하다	대체 로 중요 하다	보통 이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잘 모르 겠다	계			
전체	2,000	31.8	44.2	17.3	3.5	0.8	2.5	100.0	4.05	0.847	
월평균 가구소득											48,574***
200만원 미만	282	35.1	42.6	12.8	2.5	0.4	6.7	100.0	4.17	0.791	
400만원 미만	789	32.1	43.1	18.4	4.1	0.6	1.8	100.0	4.04	0.858	
600만원 미만	574	27.9	49.3	18.1	3.0	0.9	0.9	100.0	4.01	0.815	
600만원 이상	355	34.9	39.4	16.9	3.9	1.4	3.4	100.0	4.06	0.911	

〈표 V-1-37〉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 다문화 가정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19.0	40.3	27.5	8.0	2.7	2.6	100.0	3.67	0.970			
거주지역	특별시	408	21.6	36.3	27.0	9.8	2.7	2.7	100.0	3.66	1.019	25.498*	
	광역시	516	20.0	40.1	27.1	7.8	3.5	1.6	100.0	3.66	1.000		
	중소도시	930	16.5	41.5	28.1	8.1	2.5	3.4	100.0	3.64	0.946		
	읍면지역	146	24.0	44.5	26.7	2.7	1.4	0.7	100.0	3.88	0.857		
연령	19~29세	374	17.4	34.2	30.5	10.4	4.5	2.9	100.0	3.51	1.052	53.729***	34.230***
	30대	412	16.3	38.8	27.4	11.7	3.4	2.4	100.0	3.54	1.016		
	40대	462	19.0	39.4	28.4	8.7	2.4	2.2	100.0	3.65	0.970		
	50대	413	19.6	45.0	26.6	5.3	1.7	1.7	100.0	3.77	0.889		
	60~75세	339	23.0	44.2	24.2	2.9	1.5	4.1	100.0	3.88	0.861		
혼인 상태	기혼	1,386	18.5	41.2	28.0	7.7	2.3	2.2	100.0	3.67	0.948	7.236*	
	미혼	568	18.8	37.9	27.5	8.5	3.9	3.5	100.0	3.61	1.022		
	기타	46	32.6	43.5	13.0	8.7	0.0	2.2	100.0	4.02	0.917		
초중고학 부모	학부모	532	17.9	39.5	28.9	10.3	2.1	1.3	100.0	3.62	0.967	12.003*	
	기타	1,468	19.3	40.6	27.0	7.1	2.9	3.1	100.0	3.68	0.971		
학 력	중졸이하	99	17.2	36.4	37.4	2.0	2.0	5.1	100.0	3.68	0.870	27.215*	
	고졸	453	19.0	42.6	23.2	8.8	2.6	3.8	100.0	3.69	0.979		
	전문대/대졸	1,266	18.2	40.1	28.8	7.8	2.9	2.1	100.0	3.64	0.970		
	대학원졸	182	25.3	37.9	23.6	9.9	1.6	1.6	100.0	3.77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20.2	42.6	20.6	7.4	1.8	7.4	100.0	3.78	0.943	47.591***	
	400만원 미만	789	19.0	39.7	29.7	7.7	1.9	2.0	100.0	3.68	0.940		
	600만원 미만	574	17.4	40.2	28.9	8.9	3.5	1.0	100.0	3.60	0.992		
	600만원 이상	355	20.3	40.0	25.9	7.3	3.9	2.5	100.0	3.67	1.016		

〈표 V-1-38〉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 탈북주민 가정 학생

탈북주민 가정 학생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중요 하다	대체 로 중요 하다	보통 이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잘 모르 겠다	계					
전체	2,000	19.2	39.6	27.1	8.3	3.0	3.0	100.0	3.65	0.989			
거주지역	특별시	408	21.6	35.5	25.7	10.8	3.4	2.9	100.0	3.63	1.056	28,511*	8,744*
	광역시	516	19.4	41.1	26.7	8.1	3.1	1.6	100.0	3.67	0.986		
	중소도시	930	17.0	40.0	27.8	8.0	3.1	4.1	100.0	3.62	0.975		
	읍면지역	146	25.3	42.5	26.7	4.1	0.7	0.7	100.0	3.88	0.862		
연령	19~29세	374	17.1	35.8	27.8	10.2	5.3	3.7	100.0	3.51	1.074	42,763**	31,170***
	30대	412	16.0	36.9	28.6	11.9	3.9	2.7	100.0	3.51	1.032		
	40대	462	19.3	39.6	28.8	8.0	1.9	2.4	100.0	3.68	0.948		
	50대	413	20.8	43.1	25.7	5.8	2.2	2.4	100.0	3.76	0.929		
	60~75세	339	23.0	42.5	23.6	5.3	1.8	3.8	100.0	3.83	0.919		
혼인 상태	기혼	1,386	18.8	40.5	27.1	8.2	3.0	2.5	100.0	3.66	0.980		9,392**
	미혼	568	18.8	36.8	27.8	9.0	3.3	4.2	100.0	3.61	1.015		
	기타	46	32.6	45.7	15.2	4.3	0.0	2.2	100.0	4.09	0.821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82	21.6	38.7	23.8	6.0	2.1	7.8	100.0	3.78	0.957	48,706***	
	400만원 미만	789	19.3	36.4	29.9	9.8	2.5	2.2	100.0	3.61	0.993		
	600만원 미만	574	16.7	42.2	28.0	7.7	3.7	1.7	100.0	3.62	0.979		
	600만원 이상	355	20.8	43.1	21.7	7.9	3.7	2.8	100.0	3.72	1.012		

〈표 V-1-39〉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 : 장애학생

장애학생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38.2	38.1	15.8	3.2	2.0	2.8	100.0	4.10	0.927			
연령	19~29세	374	36.9	37.7	15.2	3.2	2.9	4.0	100.0	4.07	0.975	35,245*	13,783**
	30대	412	32.8	38.1	20.4	3.2	2.9	2.7	100.0	3.97	0.973		
	40대	462	40.0	36.8	15.2	3.7	2.2	2.2	100.0	4.11	0.950		
	50대	413	37.3	43.6	13.6	2.2	1.5	1.9	100.0	4.15	0.848		
	60~75세	339	44.8	33.6	14.5	3.5	0.3	3.2	100.0	4.23	0.857		
혼인 상태	기혼	1,386	38.6	37.4	16.9	3.3	1.7	2.0	100.0	4.10	0.923	18,467*	
	미혼	568	36.6	39.8	13.4	2.8	2.8	4.6	100.0	4.10	0.949		
	기타	46	45.7	37.0	13.0	2.2	0.0	2.2	100.0	4.29	0.787		
초중고학부모	학부모	532	35.9	37.8	19.5	4.1	1.5	1.1	100.0	4.04	0.930	17,530**	3,308*
	기타	1,468	39.0	38.2	14.4	2.8	2.2	3.3	100.0	4.13	0.92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82	40.1	35.8	13.1	1.8	1.8	7.4	100.0	4.20	0.888	41,394***	
	400만원 미만	789	36.5	38.1	17.5	3.8	1.9	2.2	100.0	4.06	0.938		
	600만원 미만	574	37.8	41.8	14.3	2.8	2.1	1.2	100.0	4.12	0.905		
	600만원 이상	355	41.1	33.8	16.6	3.4	2.3	2.8	100.0	4.11	0.965		

〈표 V-1-40〉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

초등학생	사례수	응답 비율				계	χ^2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중산층 이하 학생	생활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	잘 모르겠다			
전체	2,000	27.9	27.1	41.6	3.4	100.0		
성별	남성	1,009	24.3	28.8	44.5	2.4	100.0	22.196***
	여성	991	31.6	25.3	38.6	4.4	100.0	
거주 지역	특별시	408	33.1	29.9	34.8	2.2	100.0	22.502**
	광역시	516	28.3	26.6	41.7	3.5	100.0	
	중소도시	930	26.5	26.5	42.9	4.2	100.0	
	읍면지역	146	21.2	25.3	52.1	1.4	100.0	
연령	19~29세	374	36.4	31.0	28.1	4.5	100.0	70.030***
	30대	412	22.1	28.9	44.7	4.4	100.0	
	40대	462	21.0	23.2	53.5	2.4	100.0	
	50대	413	31.5	25.9	40.2	2.4	100.0	
	60~75세	339	30.7	27.4	38.3	3.5	100.0	
혼인 상태	기혼	1,386	26.5	26.6	44.1	2.8	100.0	26.785***
	미혼	568	32.4	28.0	34.5	5.1	100.0	
	기타	46	15.2	30.4	54.3	0.0	100.0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20.5	26.9	51.3	1.3	100.0	39.989***
	기타	1,468	30.6	27.2	38.1	4.2	100.0	
학력	중졸이하	99	18.2	29.3	46.5	6.1	100.0	18.460*
	고졸	453	29.4	29.4	37.1	4.2	100.0	
	전문대/대졸	1,266	27.2	26.2	43.4	3.2	100.0	
	대학원졸	182	34.6	26.4	37.9	1.1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282	29.1	19.5	44.3	7.1	100.0	35.038***
	400만원미만	789	24.7	30.4	42.3	2.5	100.0	
	600만원미만	574	28.7	27.9	41.3	2.1	100.0	
	600만원이상	355	32.7	24.5	38.3	4.5	100.0	

〈표 V-1-41〉 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중학생	사례수	응답 비율				계	χ^2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중산층 이하 학생	생활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	잘 모르겠다			
전체	2,000	31.4	28.3	37.2	3.2	100.0		
성별	남성	1,009	26.9	31.1	39.6	2.4	100.0	26.428***
	여성	991	36.0	25.3	34.7	3.9	100.0	
거주지역	특별시	408	37.0	31.1	29.4	2.5	100.0	18.930*
	광역시	516	30.8	28.1	38.0	3.1	100.0	
	중소도시	930	30.3	27.0	39.1	3.5	100.0	
	읍면지역	146	24.7	28.8	43.8	2.7	100.0	
연령	19~29세	374	37.2	31.0	27.8	4.0	100.0	60.246***
	30대	412	28.9	26.0	40.5	4.6	100.0	
	40대	462	24.2	24.5	49.4	1.9	100.0	
	50대	413	34.6	28.8	33.7	2.9	100.0	
	60~75세	339	33.9	32.4	31.3	2.4	100.0	
혼인상태	기혼	1,386	30.2	28.4	38.7	2.7	100.0	16.662*
	미혼	568	35.0	28.3	32.2	4.4	100.0	
	기타	46	23.9	23.9	52.2	0.0	100.0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26.1	25.9	46.6	1.3	100.0	32.803***
	기타	1,468	33.3	29.1	33.8	3.8	100.0	
학력	중졸이하	99	25.3	34.3	36.4	4.0	100.0	18.057*
	고졸	453	32.5	30.2	32.5	4.9	100.0	
	전문대/대졸	1,266	30.6	27.3	39.3	2.8	100.0	
	대학원졸	182	37.4	26.4	35.2	1.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32.3	23.4	37.9	6.4	100.0	22.285**
	400만원 미만	789	28.3	30.3	38.4	3.0	100.0	
	600만원 미만	574	32.9	29.6	35.4	2.1	100.0	
	600만원 이상	355	35.2	25.4	36.9	2.5	100.0	

〈표 V-1-42〉 고등학생 무상급식 지원

고등학생	사례수	응답 비율				계	χ^2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중산층 이하 학생	생활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	잘 모르겠다			
전체	2,000	33.8	28.2	33.8	4.3	100.0		
성별	남성	1,009	30.5	30.1	36.0	3.4	100.0	16,050***
	여성	991	37.0	26.2	31.5	5.2	100.0	
연령	19~29세	374	39.8	28.1	27.0	5.1	100.0	57,965***
	30대	412	31.3	26.7	37.4	4.6	100.0	
	40대	462	26.2	24.9	45.9	3.0	100.0	
	50대	413	37.0	32.4	25.9	4.6	100.0	
	60~75세	339	36.3	29.5	29.8	4.4	100.0	
혼인상태	기혼	1,386	32.3	28.7	35.1	3.9	100.0	12,791*
	미혼	568	37.7	26.8	29.9	5.6	100.0	
	기타	46	30.4	30.4	39.1	0.0	100.0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26.9	28.0	43.4	1.7	100.0	41,699***
	기타	1,468	36.2	28.3	30.2	5.2	100.0	

〈표 V-1-43〉 초등학생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 순위 (1순위)

초등학생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 운영 지원비	참고서·학용품비·교재비	방과후 학교 교육비 (자유 수강권)	학교 급식비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비용	기타	계		
전체	2,000	21.8	16.4	46.3	14.5	1.1	0.1	100.0		
성별	남성	1,009	23.2	17.1	46.1	13.0	0.5	0.1	100.0	12,929*
	여성	991	20.3	15.5	46.5	16.0	1.6	0.0	100.0	
거주지역	특별시	408	26.2	16.4	44.1	13.2	0.0	0.0	100.0	93,063***
	광역시	516	23.3	16.7	47.3	12.8	0.0	0.0	100.0	
	중소도시	930	20.0	16.0	48.3	14.5	1.1	0.1	100.0	
	읍면지역	146	15.1	17.1	36.3	24.0	7.5	0.0	100.0	
연령	19~29세	374	26.7	14.4	45.5	13.1	0.3	0.0	100.0	101,357***
	30대	412	24.8	20.4	43.7	11.2	0.0	0.0	100.0	
	40대	462	20.3	18.0	45.5	16.0	0.2	0.0	100.0	
	50대	413	18.2	13.1	54.2	14.0	0.5	0.0	100.0	
	60~75세	339	18.9	15.3	41.9	18.6	5.0	0.3	100.0	
혼인상태	기혼	1,386	20.3	17.4	46.8	14.3	1.2	0.1	100.0	56,614***
	미혼	568	25.2	14.8	46.5	13.4	0.2	0.0	100.0	
	기타	46	21.7	4.3	30.4	34.8	8.7	0.0	100.0	
학력	중졸이하	99	23.2	13.1	26.3	22.2	14.1	1.0	100.0	214,764***
	고졸	453	21.9	15.0	45.3	16.6	1.3	0.0	100.0	
	전문대/대졸	1,266	21.3	17.5	47.7	13.3	0.1	0.0	100.0	
	대학원졸	182	23.6	13.2	50.0	13.2	0.0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24.1	16.3	38.3	17.7	3.2	0.4	100.0	45,282***
	400만원 미만	789	25.0	16.3	45.2	12.4	1.0	0.0	100.0	
	600만원 미만	574	18.6	17.2	47.9	15.5	0.7	0.0	100.0	
	600만원 이상	355	17.7	14.9	52.4	14.9	0.0	0.0	100.0	

〈표 V-1-44〉 중학생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 순위 (1순위)

중학생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 운영 지원비	참고서· 학용품비· 교재비	방과후 학교 교육비 (자유 수강권)	학교 급식비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비용	기타		
전체	2,000	28.7	23.4	46.5	1.4	0.1	100.0		
성별	남성	1,009	29.6	23.1	46.7	0.5	0.1	100.0	12.710*
	여성	991	27.7	23.7	46.3	2.2	0.0	100.0	
거주지역	특별시	408	28.2	27.0	44.9	0.0	0.0	100.0	109.413***
	광역시	516	29.3	24.0	46.7	0.0	0.0	100.0	
	중소도시	930	30.0	21.2	47.4	1.3	0.1	100.0	
	읍면지역	146	19.9	25.3	44.5	10.3	0.0	100.0	
연령	19~29세	374	30.2	24.9	44.7	0.3	0.0	100.0	107.880***
	30대	412	32.5	23.1	44.4	0.0	0.0	100.0	
	40대	462	26.6	25.1	48.3	0.0	0.0	100.0	
	50대	413	25.7	21.1	52.5	0.7	0.0	100.0	
	60~75세	339	28.9	22.7	41.3	6.8	0.3	100.0	
혼인상태	기혼	1,386	28.4	23.4	46.8	1.4	0.1	100.0	73.134***
	미혼	568	29.9	23.8	46.1	0.2	0.0	100.0	
	기타	46	23.9	19.6	41.3	15.2	0.0	100.0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26.7	25.6	47.6	0.2	0.0	100.0	10.255*
	기타	1,468	29.4	22.6	46.1	1.8	0.1	100.0	
학력	중졸이하	99	31.3	25.3	22.2	20.2	1.0	100.0	314.753***
	고졸	453	28.9	24.7	45.0	1.3	0.0	100.0	
	전문대/대졸	1,266	28.6	23.4	47.9	0.1	0.0	100.0	
	대학원졸	182	27.5	19.2	53.3	0.0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30.5	22.0	40.8	6.4	0.4	100.0	79.922***
	400만원 미만	789	30.5	24.2	44.2	1.0	0.0	100.0	
	600만원 미만	574	27.4	23.5	49.0	0.2	0.0	100.0	
	600만원 이상	355	25.4	22.5	52.1	0.0	0.0	100.0	

〈표 V-1-45〉 고등학생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 순위 (1순위)

고등학교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 운영 지원비	참고서· 학용품비 · 교재비	방과후 학교 교육비 (자유 수강권)	학교 급식비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비용	기타	계		
전체	2,000	51.8	10.4	8.7	29.0	0.2	0.1	100.0		
성별	남성	1,009	48.3	12.6	8.9	29.9	0.2	0.1	100.0	16.419**
	여성	991	55.4	8.2	8.4	28.0	0.1	0.0	100.0	
거주지역	특별시	408	51.2	11.3	11.8	25.7	0.0	0.0	100.0	60.668***
	광역시	516	46.5	11.8	10.3	31.4	0.0	0.0	100.0	
	중소도시	930	54.4	9.1	6.9	29.5	0.0	0.1	100.0	
	읍면지역	146	55.5	11.0	5.5	26.0	2.1	0.0	100.0	
연령	19~29세	374	54.5	13.9	9.6	21.9	0.0	0.0	100.0	43.736**
	30대	412	49.0	12.1	9.2	29.6	0.0	0.0	100.0	
	40대	462	51.1	11.5	8.7	28.8	0.0	0.0	100.0	
	50대	413	50.1	6.3	7.3	36.1	0.2	0.0	100.0	
	60~75세	339	55.2	8.0	8.6	27.4	0.6	0.3	100.0	
학력	중졸이하	99	67.7	7.1	6.1	17.2	1.0	0.0	100.0	50.822***
	고졸	453	57.4	10.2	8.2	24.1	0.2	0.0	100.0	
	전문대/대졸	1,266	49.1	11.0	9.2	30.6	0.1	0.0	100.0	
	대학원졸	182	47.8	8.8	7.7	35.7	0.0	0.0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82	57.1	8.2	8.2	26.2	0.0	0.4	100.0	27.954*
	400만원 미만	789	54.1	11.9	7.9	26.0	0.1	0.0	100.0	
	600만원 미만	574	50.3	9.4	9.4	30.5	0.3	0.0	100.0	
	600만원 이상	355	44.8	10.4	9.6	35.2	0.0	0.0	100.0	

〈표 V-1-46〉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의견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의견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고등학교도 무상·의무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만 실시 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는 무상·의무 교육을 실시 할 필요가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34.9	40.3	19.2	5.7	100.0	
성별	남성	34.9	42.8	17.7	4.6	100.0	9.960**
	여성	34.8	37.7	20.6	6.9	100.0	
거주지역	특별시	32.4	42.6	19.9	5.1	100.0	22.312**
	광역시	30.0	44.0	21.7	4.3	100.0	
	중소도시	38.2	36.7	18.3	6.9	100.0	
	읍면지역	37.7	43.8	13.7	4.8	100.0	
연령	19~29세	32.1	41.4	18.2	8.3	100.0	76.802***
	30대	41.0	36.9	16.3	5.8	100.0	
	40대	45.5	38.1	13.0	3.5	100.0	
	50대	25.9	40.4	27.4	6.3	100.0	
	60~75세	26.8	46.0	22.1	5.0	100.0	
혼인상태	기혼	34.8	39.9	20.8	4.5	100.0	22.246***
	미혼	34.2	41.9	15.1	8.8	100.0	
	기타	43.5	32.6	19.6	4.3	100.0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44.4	36.8	16.4	2.4	100.0	37.407***
	기타	31.4	41.6	20.2	6.9	100.0	
학력	중졸이하	33.3	42.4	17.2	7.1	100.0	23.579**
	고졸	31.8	41.9	17.2	9.1	100.0	
	전문대/대졸	36.2	39.8	19.0	5.0	100.0	
	대학원졸	34.1	38.5	25.8	1.6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4.4	39.0	14.9	11.7	100.0	35.890***
	400만원 미만	34.6	42.0	17.7	5.7	100.0	
	600만원 미만	36.4	39.9	21.1	2.6	100.0	
	600만원 이상	33.2	38.3	22.5	5.9	100.0	

〈표 V-1-47〉 국가재원 투자 우선순위

국가재원 투자 우선순위	사례수	응답 비율						계	χ^2	
		0-5세 유아 보육 및 교육 무상화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확대	고등학교 무상 교육화	대학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노후시설 보수·개선	잘 모르겠다			
전체	2,000	16.2	14.2	20.2	29.6	14.9	5.1	100.0		
성별	남성	1,009	18.9	14.3	20.5	28.0	13.2	5.1	100.0	15,360**
	여성	991	13.3	14.1	19.8	31.2	16.5	5.0	100.0	
연령	19~29세	374	11.5	11.0	17.6	43.3	11.8	4.8	100.0	124,606***
	30대	412	21.6	15.0	23.8	25.2	8.7%	5.6	100.0	
	40대	462	12.3	11.5	26.4	31.8	13.2	4.8	100.0	
	50대	413	15.7	15.3	15.7	27.6	20.6	5.1	100.0	
	60~75세	339	20.4	19.2	15.3	19.2	20.9	5.0	100.0	
혼인상태	기혼	1,386	17.0	15.0	20.5	27.5	16.2	3.8	100.0	40,319***
	미혼	568	14.4	12.5	18.5	35.7	11.1	7.7	100.0	
	기타	46	13.0	10.9	30.4	17.4	19.6	8.7	100.0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11.1	12.2	28.4	33.6	12.2	2.4	100.0	55,019***
	기타	1,468	18.0	14.9	17.2	28.1	15.8	6.0	100.0	
학력	중졸이하	99	9.1	14.1	28.3	25.3	16.2	7.1	100.0	36,940***
	고졸	453	11.5	14.8	17.9	30.2	18.3	7.3	100.0	
	전문대/대졸	1,266	17.9	14.0	21.0	29.5	13.1	4.5	100.0	
	대학원졸	182	19.2	14.3	15.4	31.3	17.6	2.2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13.1	13.8	21.3	23.0	19.1	9.6	100.0	48,624***
	400만원 미만	789	17.4	13.4	20.3	32.7	11.3	4.9	100.0	
	600만원 미만	574	15.0	15.0	23.0	28.6	15.2	3.3	100.0	
	600만원 이상	355	17.7	14.9	14.4	29.6	18.9	4.5	100.0	

〈표 V-1-48〉 대학교육의 인재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대학교육의 인재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잘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보통 이다	별로 못 하고 있다	아주 못 하고 있다	잘 모르 겠다					계	
전체	2,000	0.2	6.4	30.3	45.0	15.4	2.8	100.0	2.29	0.816			
거주 지역	특별시	408	0.5	7.1	28.4	46.1	15.9	2.0	100.0	2.29	0.841	35,185**	8,466**
	광역시	516	0.0	7.2	32.6	41.9	16.7	1.7	100.0	2.31	0.836		
	중소도시	930	0.2	5.2	28.0	47.4	15.3	4.0	100.0	2.25	0.791		
	읍면지역	146	0.0	8.9	42.5	37.7	10.3	0.7	100.0	2.50	0.800		
연령	19~29세	374	0.3	3.5	26.7	44.7	21.9	2.9	100.0	2.13	0.809	39,260**	18,159***
	30대	412	0.2	6.3	29.1	46.6	14.8	2.9	100.0	2.29	0.810		
	40대	462	0.2	5.8	33.8	44.6	13.4	2.2	100.0	2.33	0.794		
	50대	413	0.2	6.1	29.5	44.3	16.7	3.1	100.0	2.27	0.826		
	60~75세	339	0.0	10.6	31.9	44.8	10.0	2.7	100.0	2.44	0.820		
혼인 상태	기혼	1,386	0.3	7.1	31.1	45.5	13.9	2.2	100.0	2.33	0.817	34,571***	13,431***
	미혼	568	0.0	3.9	27.6	44.9	19.2	4.4	100.0	2.17	0.790		
	기타	46	0.0	15.2	39.1	32.6	13.0	.0	100.0	2.57	0.910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0.6	6.0	31.6	45.9	15.2	.8	100.0	2.30	0.821	15,976**	
	기타	1,468	0.1	6.5	29.8	44.7	15.5	3.5	100.0	2.29	0.814		
학력	중졸이하	99	0.0	17.2	30.3	36.4	8.1	8.1	100.0	2.62	0.892	53,335***	10,808***
	고졸	453	0.2	6.0	31.1	44.2	14.6	4.0	100.0	2.30	0.809		
	전문대/대졸	1,266	0.2	5.1	31.1	45.7	15.7	2.1	100.0	2.27	0.799		
	대학원졸	182	0.0	9.9	22.5	47.3	19.2	1.1	100.0	2.23	0.879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82	0.4	8.5	30.5	40.8	12.4	7.4	100.0	2.39	0.846	36,982***	
	400만원 미만	789	0.1	5.1	31.4	45.6	15.6	2.2	100.0	2.27	0.792		
	600만원 미만	574	0.2	6.4	30.1	46.2	15.5	1.6	100.0	2.28	0.813		
	600만원 이상	355	0.3	7.3	27.9	45.1	17.2	2.3	100.0	2.27	0.847		

〈표 V-1-49〉 대학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대학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잘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보통 이다	별로 못 하고 있다	아주 못 하고 있다	잘 모르 겠다	계					
전체	2,000	0.1	6.4	32.1	41.3	17.5	2.8	100.0	2.28	0.834			
거주 지역	특별시	408	0.2	6.1	34.8	38.0	17.9	2.9	100.0	2.31	0.852	34,274**	7.197*
	광역시	516	0.0	7.6	30.2	42.4	19.2	0.6	100.0	2.26	0.856		
	중소도시	930	0.0	5.3	31.0	42.2	17.6	4.0	100.0	2.25	0.815		
	읍면지역	146	0.0	9.6	37.7	41.1	9.6	2.1	100.0	2.48	0.804		
혼인 상태	기혼	1,386	0.1	6.2	32.6	40.9	18.0	2.2	100.0	2.28	0.837		4.453*
	미혼	568	0.0	6.2	29.9	42.6	16.9	4.4	100.0	2.27	0.824		
	기타	46	0.0	13.0	41.3	37.0	8.7	0.0	100.0	2.59	0.832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0.2	5.5	32.1	41.2	19.9	1.1	100.0	2.24	0.842	13,058*	
	기타	1,468	0.0	6.7	32.0	41.3	16.6	3.3	100.0	2.30	0.832		
학력	중졸이하	99	0.0	13.1	38.4	33.3	10.1	5.1	100.0	2.57	0.861	42,448***	15,176***
	고졸	453	0.0	6.4	36.4	36.9	15.5	4.9	100.0	2.35	0.831		
	전문대/대졸	1,266	0.1	5.8	31.0	43.2	17.9	2.1	100.0	2.26	0.824		
	대학원졸	182	0.0	6.0	25.3	43.4	24.2	1.1	100.0	2.13	0.855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82	0.0	7.4	35.5	33.7	15.6	7.8	100.0	2.38	0.859	48,850***	
	400만원 미만	789	0.1	6.8	31.4	43.1	16.1	2.4	100.0	2.30	0.830		
	600만원 미만	574	0.0	6.1	29.8	44.4	18.3	1.4	100.0	2.24	0.824		
	600만원 이상	355	0.0	4.8	34.4	38.3	20.8	1.7	100.0	2.23	0.839		

〈표 V-1-50〉 대학 재정의 투명성

대학 재정의 투명성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투명 하다	어느 정도 투명 하다	보통 이다	별로 투명 하지 못하 다	아주 투명 하지 못하 다	잘 모르 겠다	계					
전체	2,000	0.2	2.8	16.1	41.0	37.5	2.5	100.0	1.84	0.808			
성별	남성	1,009	0.1	2.6	18.5	39.2	37.7	1.9	100.0	1.86	0.817	13,178*	
	여성	991	0.2	3.0	13.5	42.8	37.3	3.1	100.0	1.82	0.799		
혼인상태	기혼	1,386	0.2	3.2	15.9	41.9	36.9	1.9	100.0	1.86	0.817	24,026**	5,040*
	미혼	568	0.0	2.1	15.0	38.9	40.1	3.9	100.0	1.78	0.784		
	기타	46	0.0	0.0	32.6	39.1	23.9	4.3	100.0	2.09	0.772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0.4	4.3	14.8	38.2	41.2	1.1	100.0	1.83	0.866	18,608**	
	기타	1,468	0.1	2.2	16.5	42.0	36.2	3.0	100.0	1.85	0.786		
학력	중졸이하	99	0.0	5.1	21.2	40.4	28.3	5.1	100.0	2.03	0.861	34,382**	5,688*
	고졸	453	0.0	2.4	18.5	41.1	33.6	4.4	100.0	1.89	0.798		
	전문대/대졸	1,266	0.2	2.4	15.5	40.8	39.2	1.9	100.0	1.81	0.798		
	대학원졸	182	0.5	4.9	11.0	42.3	40.7	0.5	100.0	1.82	0.86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282	0.0	3.2	19.1	37.2	33.7	6.7	100.0	1.91	0.836	38,270***	
	400만원미만	789	0.4	2.2	16.6	42.5	36.4	2.0	100.0	1.85	0.802		
	600만원미만	574	0.0	3.3	14.3	42.0	39.0	1.4	100.0	1.82	0.801		
	600만원이상	355	0.0	3.1	15.2	39.2	40.6	2.0	100.0	1.80	0.812		

〈표 V-1-51〉 자녀 대학입학시 등록금 부담 의향

자녀 대학입학 시 등록금 부담 의향	사례수	응답 비율					계	χ^2	
		계속 부담해 줄 것이다	어느 정도 부담해 줄 것이다	별로 부담해 주지 않을 것이다	전혀 부담해 주지 않을 것이다	잘 모르 겠다			
전체	2,000	27.3	47.1	18.3	3.4	4.0	100.0		
연령	19~29세	374	17.1	45.5	25.7	6.1	5.6	100.0	108.986***
	30대	412	16.5	52.2	23.5	3.2	4.6	100.0	
	40대	462	30.7	47.2	16.2	2.8	3.0	100.0	
	50대	413	39.2	42.6	12.3	2.7	3.1	100.0	
	60~75세	339	32.4	48.1	13.6	2.4	3.5	100.0	
혼인 상태	기혼	1,386	31.0	47.6	15.8	2.9	2.7	100.0	67.866***
	미혼	568	18.1	45.4	24.5	4.8	7.2	100.0	
	기타	46	28.3	52.2	15.2	2.2	2.2	100.0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28.4	50.2	17.1	2.6	1.7	100.0	12.916*
	기타	1,468	26.9	46.0	18.7	3.7	4.8	100.0	
학력	중졸이하	99	16.2	53.5	21.2	2.0	7.1	100.0	26.923**
	고졸	453	23.4	49.4	17.9	2.9	6.4	100.0	
	전문대/대졸	1,266	29.1	46.1	17.9	3.7	3.2	100.0	
	대학원졸	182	30.2	45.1	19.8	3.3	1.6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18.8	47.5	19.1	4.3	10.3	100.0	85.255***
	400만원 미만	789	22.9	49.4	21.4	2.7	3.5	100.0	
	600만원 미만	574	31.0	49.1	14.1	3.8	1.9	100.0	
	600만원 이상	355	37.7	38.3	17.2	3.7	3.1	100.0	

〈표 V-1-52〉 자녀 대학졸업 후 구직성공 가능성

자녀 대학졸업 후 구직성공 가능성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잘 모르 겠다	계					
전체	2,000	2.6	16.0	41.0	25.5	7.3	7.7	100.0	2.80	0.914			
성별	남성	1,009	2.7	15.8	43.5	25.1	7.4	5.6	100.0	2.80	0.906	15.604**	
	여성	991	2.5	16.1	38.4	25.8	7.2	9.9	100.0	2.79	0.923		
연령	19~29세	374	2.9	14.7	37.7	23.0	12.8	9.1	100.0	2.70	1.004	36.699*	
	30대	412	2.2	12.1	45.9	24.5	6.8	8.5	100.0	2.76	0.860		
	40대	462	2.4	16.5	41.1	25.8	5.8	8.4	100.0	2.82	0.889		
	50대	413	3.1	16.9	40.0	27.4	6.1	6.5	100.0	2.83	0.916		
	60~75세	339	2.4	20.1	39.8	26.5	5.6	5.6	100.0	2.86	0.903		
혼인상태	기혼	1,386	2.8	17.1	41.8	25.0	6.7	6.5	100.0	2.83	0.911	26.538**	7.316*
	미혼	568	2.1	12.1	39.8	26.4	8.6	10.9	100.0	2.69	0.907		
	기타	46	2.2	28.3	30.4	26.1	8.7	4.3	100.0	2.89	1.017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2.4	17.3	44.4	23.9	7.5	4.5	100.0	2.82	0.905	13.212*	
	기타	1,468	2.7	15.5	39.8	26.0	7.2	8.9	100.0	2.78	0.91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2.1	17.0	34.8	25.9	7.8	12.4	100.0	2.77	0.945	30.928**	8.478*
	400만원 미만	789	2.0	14.6	41.3	26.9	8.4	6.8	100.0	2.73	0.906		
	600만원 미만	574	2.6	15.9	42.7	27.0	5.6	6.3	100.0	2.82	0.880		
	600만원 이상	355	4.2	18.3	42.5	19.4	7.3	8.2	100.0	2.92	0.954		

〈표 V-1-53〉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사례수	응답 비율				계	χ^2
		심각한 정도로 존재한다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2,000	58.9	33.2	5.5	2.4	100.0	
성별							8,000*
남성	1,009	56.0	36.1	5.6	2.4	100.0	
여성	991	61.9	30.3	5.4	2.4	100.0	
거주지역							17,638*
특별시	408	55.9	35.5	6.1	2.5	100.0	
광역시	516	60.3	32.0	6.2	1.6	100.0	
중소도시	930	61.0	31.0	5.1	3.0	100.0	
읍면지역	146	49.3	45.2	4.1	1.4	100.0	
연령							34,654***
19~29세	374	51.3	38.0	7.2	3.5	100.0	
30대	412	53.2	36.9	6.1	3.9	100.0	
40대	462	63.9	29.4	5.8	.9%	100.0	
50대	413	64.9	29.8	3.4	1.9	100.0	
60~75세	339	60.2	32.7	5.0	2.1	100.0	
혼인상태							20,245**
기혼	1,386	60.9	32.1	5.3	1.7	100.0	
미혼	568	53.5	36.1	6.0	4.4	100.0	
기타	46	65.2	30.4	4.3	0.0	100.0	
초중고 학부모							10,757*
학부모	532	63.3	30.3	5.5	0.9	100.0	
기타	1,468	57.3	34.3	5.5	2.9	100.0	
학력							20,409*
중졸이하	99	44.4	44.4	5.1	6.1	100.0	
고졸	453	62.7	30.0	4.6	2.6	100.0	
전문대/대졸	1,266	58.8	33.3	5.5	2.3	100.0	
대학원졸	182	57.7	34.1	7.7	0.5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6,389***
200만원 미만	282	58.2	30.5	4.6	6.7	100.0	
400만원 미만	789	57.4	35.5	5.4	1.6	100.0	
600만원 미만	574	61.5	31.7	6.1	0.7	100.0	
600만원 이상	355	58.6	32.7	5.4	3.4	100.0	

〈표 V-1-54〉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심각한 정도로 존재한다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	거의존재 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64.0	29.5	4.5	2.1	100.0		
거주지역	특별시	408	59.6	34.6	4.4	1.5	100.0	20.519*
	광역시	516	66.9	26.6	5.2	1.4	100.0	
	중소도시	930	64.9	27.6	4.6	2.8	100.0	
	읍면지역	146	59.6	37.7	1.4	1.4	100.0	
연령	19~29세	374	61.8	28.1	7.5	2.7	100.0	35.153***
	30대	412	56.1	36.7	4.4	2.9	100.0	
	40대	462	68.0	26.6	4.3	1.1	100.0	
	50대	413	69.7	24.9	3.6	1.7	100.0	
	60~75세	339	63.4	31.9	2.7	2.1	100.0	
혼인상태	기혼	1,386	64.7	29.2	4.5	1.5	100.0	13.162*
	미혼	568	60.9	31.0	4.8	3.3	100.0	
	기타	46	78.3	19.6	0.0	2.2	100.0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68.2	26.3	4.9	0.6	100.0	12.620**
	기타	1,468	62.4	30.7	4.4	2.6	100.0	
학력	중졸이하	99	56.6	36.4	2.0	5.1	100.0	20.079*
	고졸	453	64.7	27.2	4.4	3.8	100.0	
	전문대/대졸	1,266	64.2	29.7	4.7	1.4	100.0	
	대학원졸	182	64.3	30.2	4.9	0.5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59.6	31.6	2.8	6.0	100.0	41.343***
	400만원 미만	789	64.1	29.7	4.6	1.6	100.0	
	600만원 미만	574	67.9	26.1	5.6	0.3	100.0	
	600만원 이상	355	60.6	33.0	3.9	2.5	100.0	

〈표 V-1-55〉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수준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	사례수	응답 비율							χ^2	
		고등 학교	전문 대학	일반 대학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잘 모르겠 다	계		
전체	2,000	1.4	3.6	60.1	18.0	10.6	6.5	100.0		
거주지역	특별시	408	1.2	3.4	55.9	20.6	14.7	4.2	100.0	36.775***
	광역시	516	1.4	2.9	65.5	13.2	9.9	7.2	100.0	
	중소도시	930	1.4	3.3	58.8	19.5	9.5	7.5	100.0	
	읍면지역	146	1.4	7.5	61.0	18.5	8.2	3.4	100.0	
연령	19~29세	374	1.3	4.0	61.8	15.0	6.7	11.2	100.0	57.040***
	30대	412	2.9	1.7	59.5	19.9	9.0	7.0	100.0	
	40대	462	0.4	4.8	56.3	20.1	12.1	6.3	100.0	
	50대	413	1.5	3.1	60.0	18.2	12.8	4.4	100.0	
	60~75세	339	0.6	4.1	64.3	15.9	11.8	3.2	100.0	
혼인상태	기혼	1,386	1.0	3.5	60.9	18.5	11.6	4.5	100.0	46.454***
	미혼	568	2.1	3.7	59.7	15.8	7.6	11.1	100.0	
	기타	46	2.2	4.3	41.3	30.4	15.2	6.5	100.0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0.6	3.9	60.9	19.4	11.3	3.9	100.0	11.866*
	기타	1,468	1.6	3.4	59.8	17.5	10.3	7.4	100.0	
학력	중졸이하	99	3.0	2.0	70.7	14.1	5.1	5.1	100.0	124.537***
	고졸	453	1.3	6.8	62.3	12.1	8.4	9.1	100.0	
	전문대/대졸	1,266	1.0	2.7	62.2	18.2	9.8	6.0	100.0	
	대학원졸	182	2.7	2.2	34.1	33.0	24.2	3.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1.8	5.3	57.8	12.4	10.6	12.1	100.0	90.638***
	400만원 미만	789	2.0	4.2	65.0	14.8	7.9	6.1	100.0	
	600만원 미만	574	0.5	2.4	62.9	19.5	10.5	4.2	100.0	
	600만원 이상	355	0.8	2.5	46.5	27.0	16.6	6.5	100.0	

〈표 V-1-56〉 자녀의 특화된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진학에 대한 인식

자녀의 특화된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진학에 대한 인식	사례수	응답 비율				χ^2	
		보낼 생각이 있다	보낼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49.1	36.7	14.2	100.0		
연령	19~29세	374	53.5	31.6	15.0	100.0	16.439*
	30대	412	44.9	38.6	16.5	100.0	
	40대	462	49.8	39.0	11.3	100.0	
	50대	413	46.2	40.4	13.3	100.0	
	60~75세	339	51.9	32.4	15.6	100.0	
혼인상태	기혼	1,386	46.1	40.5	13.4	100.0	29.443***
	미혼	568	55.5	28.9	15.7	100.0	
	기타	46	60.9	19.6	19.6	100.0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46.1	44.5	9.4	100.0	25.305***
	기타	1,468	50.2	33.9	15.9	100.0	
학력	중졸이하	99	49.5	31.3	19.2	100.0	24.218***
	고졸	453	56.3	29.1	14.6	100.0	
	전문대/대졸	1,266	47.1	38.5	14.4	100.0	
	대학원졸	182	45.1	45.6	9.3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56.4	19.5	24.1	100.0	79.573***
	400만원 미만	789	51.7	34.5	13.8	100.0	
	600만원 미만	574	47.7	39.7	12.5	100.0	
	600만원 이상	355	39.7	50.4	9.9	100.0	

〈표 V-1-57〉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에 대한 인식

기업의 일정비율 고졸자 신규채용에 대한 인식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60.7	27.9	11.5	100.0	
성별	남성	1,009	60.2	30.5	9.3	100.0	13,209***
	여성	991	61.2	25.2	13.6	100.0	
거주지역	특별시	408	64.2	27.9	7.8	100.0	22,091***
	광역시	516	59.3	30.0	10.7	100.0	
	중소도시	930	58.2	27.5	14.3	100.0	
	읍면지역	146	71.2	22.6	6.2	100.0	
연령	19~29세	374	48.4	38.5	13.1	100.0	67,509***
	30대	412	51.2	34.0	14.8	100.0	
	40대	462	66.5	24.0	9.5	100.0	
	50대	413	66.8	22.5	10.7	100.0	
	60~75세	339	70.2	20.6	9.1	100.0	
혼인상태	기혼	1,386	64.0	25.8	10.2	100.0	34,895***
	미혼	568	51.1	34.3	14.6	100.0	
	기타	46	78.3	13.0	8.7	100.0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65.0	26.5	8.5	100.0	8,471*
	기타	1,468	59.1	28.4	12.5	100.0	
학력	중졸이하	99	58.6	27.3	14.1	100.0	19,292**
	고졸	453	66.4	21.0	12.6	100.0	
	전문대/대졸	1,266	59.6	29.2	11.2	100.0	
	대학원졸	182	54.9	36.3	8.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61.3	21.3	17.4	100.0	26,225***
	400만원 미만	789	61.6	27.0	11.4	100.0	
	600만원 미만	574	62.5	27.5	9.9	100.0	
	600만원 이상	355	54.9	35.8	9.3	100.0	

〈표 V-1-58〉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	사례수	응답 비율				χ^2
		보낼 생각이 있다	보낼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38.7	50.3	11.0	100.0	
거주지역						14,786*
특별시	408	41.4	48.3	10.3	100.0	
광역시	516	36.8	54.1	9.1	100.0	
중소도시	930	39.2	47.7	13.0	100.0	
읍면지역	146	34.2	58.9	6.8	100.0	
연령						53,258***
19~29세	374	45.5	39.6	15.0	100.0	
30대	412	42.2	43.7	14.1	100.0	
40대	462	40.9	50.6	8.4	100.0	
50대	413	32.2	58.6	9.2	100.0	
60~75세	339	31.9	59.6	8.6	100.0	
혼인상태						33,670***
기혼	1,386	37.4	53.8	8.8	100.0	
미혼	568	41.4	42.3	16.4	100.0	
기타	46	43.5	45.7	10.9	100.0	
초중고 학부모						13,598***
학부모	532	41.5	51.7	6.8	100.0	
기타	1,468	37.7	49.8	12.5	100.0	
학력						23,593***
중졸이하	99	36.4	55.6	8.1	100.0	
고졸	453	32.0	52.3	15.7	100.0	
전문대/대졸	1,266	40.4	49.3	10.3	100.0	
대학원졸	182	44.5	49.5	6.0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7,519***
200만원 미만	282	36.5	47.2	16.3	100.0	
400만원 미만	789	35.6	52.2	12.2	100.0	
600만원 미만	574	39.0	53.1	7.8	100.0	
600만원 이상	355	46.8	43.9	9.3	100.0	

〈표 V-1-59〉 사교육에 대한 미래 전망

사교육에 대한 미래 전망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축소 될 것이다	큰 변화 없을 것이다	확대 될 것이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5.7	44.9	44.3	5.2	100.0		
성별	남성	1,009	7.4	45.0	42.5	5.1	100.0	12.152**
	여성	991	3.9	44.8	46.0	5.2	100.0	
연령	19~29세	374	2.7	39.3	51.9	6.1	100.0	26.762**
	30대	412	6.1	42.5	44.4	7.0	100.0	
	40대	462	6.9	46.1	42.9	4.1	100.0	
	50대	413	6.3	48.4	40.2	5.1	100.0	
	60~75세	339	6.2	48.1	42.5	3.2	100.0	
	혼인상태	기혼	1,386	6.6	47.0	42.6	3.9	
미혼	568	3.3	40.3	48.2	8.1	100.0		
기타	46	8.7	39.1	45.7	6.5	100.0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7.7	45.1	44.5	2.6	100.0	14.069**
	기타	1,468	5.0	44.8	44.1	6.1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82	3.9	41.1	44.3	10.6	100.0	36.209***
	400만원 미만	789	5.7	45.0	43.6	5.7	100.0	
	600만원 미만	574	4.7	47.9	44.6	2.8	100.0	
	600만원 이상	355	8.7	42.8	45.1	3.4	100.0	

〈표 V-1-60〉 입시경쟁에 대한 미래 전망

입시경쟁에 대한 미래 전망	사례수	응답 비율					계	χ^2	
		전반적으로 완화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완화되거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 될 것이다	큰 변화 없을 것 이다	전반적으로 심화 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2,000	2.0	36.2	35.3	22.9	3.7	100.0		
성별	남성	1,009	2.6	38.6	32.7	22.6	3.6	100.0	11.135*
	여성	991	1.3	33.8	37.8	23.2	3.8	100.0	
연령	19~29세	374	1.1	26.2	38.5	28.3	5.9	100.0	56.940***
	30대	412	1.5	32.8	40.3	20.6	4.9	100.0	
	40대	462	3.2	41.8	32.5	20.3	2.2	100.0	
	50대	413	2.9	38.0	30.8	24.9	3.4	100.0	
	60~75세	339	0.6	41.6	34.8	20.6	2.4	100.0	
혼인 상태	기혼	1,386	2.4	38.7	34.1	22.1	2.7	100.0	28.534***
	미혼	568	0.9	30.3	37.9	24.8	6.2	100.0	
	기타	46	2.2	34.8	37.0	23.9	2.2	100.0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3.4	38.7	34.2	22.0	1.7	100.0	17.294**
	기타	1,468	1.4	35.3	35.6	23.2	4.4	100.0	
학력	중졸이하	99	0.0	28.3	42.4	25.3	4.0	100.0	26.310**
	고졸	453	0.7	34.9	38.4	21.9	4.2	100.0	
	전문대/대졸	1,266	2.1	37.0	34.4	22.7	3.9	100.0	
	대학원졸	182	4.9	38.5	29.7	25.8	1.1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82	1.1	30.5	35.1	23.4	9.9	100.0	48.893***
	400만원 미만	789	1.6	35.4	37.1	22.7	3.2	100.0	
	600만원 미만	574	2.3	39.4	35.0	22.0	1.4	100.0	
	600만원 이상	355	2.8	37.5	31.5	24.5	3.7	100.0	

〈표 V-1-61〉 대학 서열화에 대한 미래 전망

대학 서열화에 대한 미래 전망	사례수	응답 비율				계	χ^2	
		악화 될 것이다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심화 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2,000	6.4	50.5	39.1	4.1	100.0		
연령	19~29세	374	6.4	40.6	48.4	4.5	100.0	38,790***
	30대	412	4.9	49.0	39.6	6.6	100.0	
	40대	462	6.3	54.3	36.1	3.2	100.0	
	50대	413	9.0	51.8	36.6	2.7	100.0	
	60~75세	339	5.3	56.3	35.1	3.2	100.0	
혼인상태	기혼	1,386	6.9	51.9	38.0	3.2	100.0	15,800*
	미혼	568	5.1	47.0	41.5	6.3	100.0	
	기타	46	6.5	50.0	41.3	2.2	100.0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7.1	50.2	40.6	2.1	100.0	8,118*
	기타	1,468	6.1	50.6	38.5	4.8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282	5.7	46.5	38.3	9.6	100.0	32,114***
	400만원미만	789	5.6	50.3	40.6	3.5	100.0	
	600만원미만	574	7.1	53.1	37.6	2.1	100.0	
	600만원이상	355	7.6	49.9	38.6	3.9	100.0	

〈표 V-1-62〉 학벌주의에 대한 미래 전망

학벌주의에 대한 미래 전망	사례수	응답 비율					χ^2	
		악화 될 것이다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심화 될 것이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2,000	9.8	51.0	36.2	3.1	100.0		
연령	19~29세	374	6.7	45.5	44.9	2.9	100.0	26.284**
	30대	412	9.2	50.2	35.9	4.6	100.0	
	40대	462	9.7	55.2	32.3	2.8	100.0	
	50대	413	12.3	51.8	32.9	2.9	100.0	
	60~75세	339	10.6	51.0	36.3	2.1	100.0	
혼인상태	기혼	1,386	10.9	52.9	33.9	2.3	100.0	30.788***
	미혼	568	6.7	46.8	41.2	5.3	100.0	
	기타	46	13.0	43.5	43.5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9.2	44.3	39.7	6.7	100.0	24.366**
	400만원 미만	789	9.4	50.2	37.5	2.9	100.0	
	600만원 미만	574	9.6	54.9	34.0	1.6	100.0	
	600만원 이상	355	11.3	51.5	34.1	3.1	100.0	

〈표 V-1-63〉 교육의 국가사회발전 기여 정도

교육의 국가사회발전 기여 정도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많이 기여 하고 있다	어느 정도 기여 하고 있다	보통 이다	별로 기여 하지 못 한다	전혀 기여 하지 못 한다	잘 모르 겠다	계					
전체	2,000	3.2	24.6	32.0	29.4	8.1	2.9	100.0	2.85	0.999			
성별	남성	1,009	4.1	26.3	32.6	27.2	7.2	2.7	100.0	2.93	1,004	12,894*	11,451***
	여성	991	2.3	22.8	31.3	31.6	9.0	3.0	100.0	2.77	0.988		
연령	19~29세	374	1.3	9.4	37.7	36.6	10.7	4.3	100.0	2.52	0.869	159,265***	98,077***
	30대	412	2.4	17.0	32.8	34.5	9.5	3.9	100.0	2.67	0.962		
	40대	462	1.1	27.9	34.4	27.3	6.9	2.4	100.0	2.89	0.940		
	50대	413	6.8	30.0	26.4	27.4	8.0	1.5	100.0	3.00	1,088		
	60~75세	339	4.7	39.2	28.0	20.4	5.3	2.4	100.0	3.18	0.996		
혼인상태	기혼	1,386	3.8	28.4	31.4	27.3	7.5	1.6	100.0	2.94	1,011	88,585***	42,383***
	미혼	568	1.8	14.1	33.3	35.4	9.3	6.2	100.0	2.61	0.922		
	기타	46	2.2	39.1	32.6	15.2	10.9	0.0	100.0	3.07	1,041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2.3	27.8	30.3	30.3	8.6	0.8	100.0	2.85	1,001	17,490**	
	기타	1,468	3.5	23.4	32.6	29.0	7.9	3.6	100.0	2.85	0.998		
학력	중졸이하	99	4.0	36.4	26.3	22.2	6.1	5.1	100.0	3.11	1,021	37,905***	
	고졸	453	2.4	23.0	35.3	26.9	7.5	4.9	100.0	2.85	0.960		
	전문대/대졸	1,266	3.1	23.5	32.7	30.3	8.4	2.1	100.0	2.82	0.993		
	대학원졸	182	5.5	29.7	21.4	33.0	8.8	1.6	100.0	2.90	1,10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2.1	25.9	29.1	28.4	7.8	6.7	100.0	2.85	0.995	43,399***	9,108*
	400만원 미만	789	2.5	21.4	32.8	32.2	8.4	2.7	100.0	2.77	0.973		
	600만원 미만	574	3.8	26.3	33.1	29.3	6.1	1.4	100.0	2.92	0.981		
	600만원 이상	355	4.5	27.6	30.4	23.9	11.0	2.5	100.0	2.90	1,077		

〈표 V-1-64〉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신뢰 한다	어느 정도 신뢰 한다	보통 이다	별로 신뢰 하지 못 한다	전혀 신뢰 하지 못 한다	잘 모르 겠다	계					
전체	2,000	0.5	8.2	32.9	40.8	15.4	2.3	100.0	2.36	0.861			
성별	남성	1,009	0.7	8.2	35.3	39.6	14.4	1.8	100.0	2.40	0.862	3.434*	
	여성	991	0.2	8.2	30.4	42.0	16.4	2.8	100.0	2.32	0.858		
연령	19~29세	374	0.5	4.8	31.3	41.2	18.7	3.5	100.0	2.25	0.842	55.737***	24.006***
	30대	412	0.7	5.3	33.3	40.0	17.5	3.2	100.0	2.30	0.852		
	40대	462	0.0	7.4	33.1	42.2	15.6	1.7	100.0	2.33	0.830		
	50대	413	0.2	9.2	31.7	43.8	13.8	1.2	100.0	2.38	0.846		
	60~75세	339	0.9	15.3	35.1	35.7	10.9	2.1	100.0	2.59	0.914		
혼인상태	기혼	1,386	0.4	9.4	33.4	40.9	14.6	1.3	100.0	2.39	0.865	39.420***	7.250**
	미혼	568	0.7	4.8	31.2	41.4	17.3	4.8	100.0	2.27	0.839		
	기타	46	0.0	15.2	37.0	30.4	15.2	2.2	100.0	2.53	0.944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0.2	7.5	31.4	41.9	18.2	0.8	100.0	2.29	0.859	13.538*	3.597*
	기타	1,468	0.5	8.4	33.4	40.4	14.4	2.9	100.0	2.39	0.86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0.7	7.8	34.0	36.2	15.6	5.7	100.0	2.38	0.884	33.574**	
	400만원 미만	789	0.5	7.0	33.5	42.2	14.6	2.3	100.0	2.35	0.837		
	600만원 미만	574	0.3	9.8	31.5	43.4	14.5	0.5	100.0	2.38	0.863		
	600만원 이상	355	0.3	8.7	32.7	37.2	18.6	2.5	100.0	2.33	0.896		

2.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표 V-2-1〉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이해도 : 누리과정

누리과정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보통 이다	대체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	계					
전체	2,000	10.1	36.2	29.3	16.9	7.6	100.0	3.24	1,086			
연령	19~29세	374	9.1	27.8	24.9	23.0	15.2	100.0	2.93	1,216	94,167***	55,700***
	30대	412	15.8	35.4	30.1	12.6	6.1	100.0	3.42	1,086		
	40대	462	8.9	37.9	35.5	13.4	4.3	100.0	3.34	0,965		
	50대	413	6.8	39.7	28.1	19.1	6.3	100.0	3.22	1,033		
	60~75세	339	9.7	39.8	26.0	17.4	7.1	100.0	3.28	1,082		
혼인상태	기혼	1,386	11.5	40.3	29.2	14.5	4.5	100.0	3.40	1,015	108,453***	
	미혼	568	6.3	26.9	28.9	22.7	15.1	100.0	2.87	1,158		
	기타	46	10.9	28.3	34.8	17.4	8.7	100.0	3.15	1,115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13.2	40.6	30.3	13.3	2.6	100.0	3.48	0,969	40,058***	42,126***
	기타	1,468	8.9	34.6	28.9	18.2	9.4	100.0	3.15	1,113		
학력	중졸이하	99	9.1	19.2	36.4	25.3	10.1	100.0	2.92	1,104	41,296***	31,494***
	고졸	453	7.1	35.3	29.1	19.4	9.1	100.0	3.12	1,086		
	전문대/대졸	1,266	10.0	37.5	29.5	16.0	7.1	100.0	3.27	1,070		
	대학원졸	182	18.7	38.5	24.2	12.6	6.0	100.0	3.51	1,11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7.4	28.0	29.8	21.6	13.1	100.0	2.95	1,150	54,607***	31,390***
	400만원 미만	789	9.4	35.0	30.7	18.3	6.7	100.0	3.22	1,063		
	600만원 미만	574	8.7	39.7	30.7	15.5	5.4	100.0	3.31	1,012		
	600만원 이상	355	15.8	39.7	23.4	12.4	8.7	100.0	3.41	1,155		

〈표 V-2-2〉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이해도 :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보통 이다	대체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	계					
전체	2,000	6.4	35.5	33.5	18.2	6.5	100.0	3.17	1.011			
연령	19~29세	374	6.1	27.0	35.6	21.7	9.6	100.0	2.98	1,058	37,013**	23,971***
	30대	412	6.8	36.9	35.2	15.0	6.1	100.0	3.23	0.991		
	40대	462	7.4	38.5	34.6	16.5	3.0	100.0	3.31	0.934		
	50대	413	5.1	37.0	32.2	19.4	6.3	100.0	3.15	0.999		
	60~75세	339	6.2	36.9	29.2	19.2	8.6	100.0	3.13	1,066		
혼인상태	기혼	1,386	6.9	39.0	33.4	15.9	4.8	100.0	3.27	0.972	56,007***	29,234***
	미혼	568	4.6	27.5	34.3	23.1	10.6	100.0	2.92	1,052		
	기타	46	10.9	28.3	26.1	28.3	6.5	100.0	3.09	1,132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9.8	43.4	30.5	14.1	2.3	100.0	3.44	0.928	55,176***	
	기타	1,468	5.1	32.6	34.6	19.7	8.0	100.0	3.07	1,022		
학력	중졸이하	99	5.1	32.3	28.3	19.2	15.2	100.0	2.93	1,154	33,599***	21,922***
	고졸	453	4.6	30.7	36.2	20.1	8.4	100.0	3.03	1,015		
	전문대/대졸	1,266	6.5	36.8	33.6	17.8	5.3	100.0	3.21	0.986		
	대학원졸	182	10.4	39.6	28.6	15.9	5.5	100.0	3.34	1,042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82	5.7	24.1	33.7	25.2	11.3	100.0	2.88	1,078	68,625***	45,871***
	400만원 미만	789	4.6	34.5	35.0	19.5	6.5	100.0	3.11	0.985		
	600만원 미만	574	7.0	37.6	35.4	16.6	3.5	100.0	3.28	0.940		
	600만원 이상	355	9.9	43.1	27.0	12.4	7.6	100.0	3.35	1,064		

〈표 V-2-3〉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이해도 :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보통 이다	대체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	계					
전체	2,000	3.4	18.6	35.0	29.5	13.6	100.0	2.69	1,030			
성별	남성	1,009	3.9	19.7	37.5	28.3	10.6	100.0	2.78	1,006	20,293***	17,045***
	여성	991	2.9	17.4	32.5	30.7	16.5	100.0	2.59	1,047		
연령	19~29세	374	3.5	16.0	31.0	29.1	20.3	100.0	2.53	1,090	44,275***	24,996***
	30대	412	1.9	15.0	40.0	29.9	13.1	100.0	2.63	0,957		
	40대	462	3.9	23.2	35.7	27.3	10.0	100.0	2.84	1,017		
	50대	413	3.4	20.8	36.3	28.3	11.1	100.0	2.77	1,011		
	60~75세	339	4.4	16.5	30.7	33.9	14.5	100.0	2.63	1,060		
혼인상태	기혼	1,386	3.5	20.1	36.4	29.8	10.2	100.0	2.77	0,997	47,508***	31,477***
	미혼	568	3.2	15.5	31.7	28.7	21.0	100.0	2.51	1,082		
	기타	46	2.2	10.9	32.6	30.4	23.9	100.0	2.37	1,040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4.7	25.0	36.5	26.9	7.0	100.0	2.94	0,991	45,252***	44,790***
	기타	1,468	2.9	16.2	34.5	30.4	15.9	100.0	2.60	1,030		
학력	중졸이하	99	2.0	12.1	24.2	35.4	26.3	100.0	2.28	1,050	39,973***	32,521***
	고졸	453	2.4	14.1	36.6	31.8	15.0	100.0	2.57	0,988		
	전문대/대졸	1,266	3.6	19.4	35.8	28.7	12.5	100.0	2.73	1,027		
	대학원졸	182	4.9	26.9	31.3	26.4	10.4	100.0	2.90	1,069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82	3.2	6.0	35.5	32.6	22.7	100.0	2.34	0,998	89,921***	54,463***
	400만원 미만	789	2.2	17.7	36.9	30.8	12.4	100.0	2.66	0,978		
	600만원 미만	574	3.0	20.6	35.2	30.7	10.6	100.0	2.75	0,996		
	600만원 이상	355	7.0	27.0	30.1	22.3	13.5	100.0	2.92	1,146		

〈표 V-2-4〉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이해도 :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

중·고등학교 성취평가제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보통 이다	대체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	계					
전체	2,000	4.3	21.8	36.0	28.0	10.0	100.0	2.83	1.019			
성별	남성	1,009	3.5	21.9	37.9	28.7	8.0	100.0	2.84	0.970	13.256**	
	여성	991	5.1	21.7	34.1	27.1	11.9	100.0	2.81	1.066		
연령	19~29세	374	6.4	23.0	33.2	26.2	11.2	100.0	2.87	1.088	42.415***	19.511***
	30대	412	3.6	16.5	38.8	27.9	13.1	100.0	2.70	1.012		
	40대	462	3.9	24.0	40.9	25.3	5.8	100.0	2.95	0.939		
	50대	413	3.4	24.9	34.9	28.6	8.2	100.0	2.87	0.992		
	60~75세	339	4.4	20.1	30.4	32.7	12.4	100.0	2.71	1.059		
혼인상태	기혼	1,386	4.1	22.6	36.8	28.6	7.9	100.0	2.86	0.988	24.462**	8.922*
	미혼	568	4.8	20.8	34.2	26.1	14.3	100.0	2.76	1.083		
	기타	46	4.3	10.9	34.8	32.6	17.4	100.0	2.52	1.049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4.3	27.3	38.0	25.6	4.9	100.0	3.01	0.948	30.826***	23.520***
	기타	1,468	4.3	19.8	35.3	28.8	11.8	100.0	2.76	1.036		
학력	중졸이하	99	2.0	12.1	23.2	37.4	25.3	100.0	2.28	1.040	48.919***	37.570***
	고졸	453	3.3	19.9	38.0	28.9	9.9	100.0	2.78	0.985		
	전문대/대졸	1,266	4.4	22.5	36.5	27.7	8.8	100.0	2.86	1.007		
	대학원졸	182	7.1	26.9	34.6	22.0	9.3	100.0	3.01	1.07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2.8	12.1	30.9	36.2	18.1	100.0	2.45	1.012	92.871***	67.022***
	400만원 미만	789	3.0	19.8	38.7	28.9	9.6	100.0	2.78	0.972		
	600만원 미만	574	3.5	26.3	36.6	26.7	7.0	100.0	2.93	0.972		
	600만원 이상	355	9.6	26.8	33.2	21.4	9.0	100.0	3.06	1.107		

〈표 V-2-5〉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이해도 :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보통 이다	대체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	계					
전체	2,000	3.6	20.6	38.5	26.7	10.7	100.0	2.80	1,001			
성별	남성	1,009	3.8	21.2	40.7	25.2	9.1	100.0	2.85	0.979	9.490*	6.345*
	여성	991	3.4	19.9	36.2	28.3	12.2	100.0	2.74	1.020		
연령	19~29세	374	6.1	24.9	34.2	24.3	10.4	100.0	2.92	1.073	38.674***	16.460**
	30대	412	2.7	17.5	44.2	24.5	11.2	100.0	2.76	0.958		
	40대	462	3.2	19.0	42.9	25.8	9.1	100.0	2.82	0.954		
	50대	413	3.6	23.2	36.3	27.1	9.7	100.0	2.84	1.007		
	60~75세	339	2.4	18.3	33.0	32.7	13.6	100.0	2.63	1.007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4.1	23.5	41.5	23.5	7.3	100.0	2.94	0.962	15.664**	13.921***
	기타	1,468	3.4	19.5	37.4	27.9	11.9	100.0	2.75	1.010		
학력	중졸이하	99	1.0	12.1	29.3	32.3	25.3	100.0	2.31	1.017	43.756***	37.570***
	고졸	453	3.5	18.1	39.3	26.3	12.8	100.0	2.73	1.014		
	전문대/대졸	1,266	3.6	21.2	39.8	26.1	9.2	100.0	2.84	0.981		
	대학원졸	182	4.9	26.9	32.4	28.6	7.1	100.0	2.94	1.02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3.2	12.8	34.4	32.3	17.4	100.0	2.52	1.024	51.874***	35.077***
	400만원 미만	789	2.5	19.5	40.2	28.0	9.8	100.0	2.77	0.957		
	600만원 미만	574	3.8	22.0	39.4	26.5	8.4	100.0	2.86	0.977		
	600만원 이상	355	5.9	26.8	36.6	19.7	11.0	100.0	2.97	1.069		

〈표 V-2-6〉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이해도 : 사교육 부담 경감

사교육 부담 경감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보통 이다	대체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	계					
전체	2,000	7.8	37.4	33.7	15.1	6.1	100.0	3.26	1,006			
거주지역	특별시	408	9.1	42.9	30.1	13.5	4.4	100.0	3.39	0.977	21,923*	16,442***
	광역시	516	7.4	39.3	32.4	15.5	5.4	100.0	3.28	0.993		
	중소도시	930	8.1	34.7	35.8	14.9	6.5	100.0	3.23	1,013		
	읍면지역	146	4.1	32.2	34.9	18.5	10.3	100.0	3.01	1,044		
연령	19~29세	374	13.1	37.4	27.5	14.2	7.8	100.0	3.34	1,113	64,935***	23,377***
	30대	412	5.8	34.2	39.8	15.5	4.6	100.0	3.21	0.934		
	40대	462	6.1	37.7	38.1	14.9	3.2	100.0	3.28	0.905		
	50대	413	8.7	43.6	29.8	12.1	5.8	100.0	3.37	1,001		
	60~75세	339	5.6	33.3	31.9	19.2	10.0	100.0	3.05	1,073		
혼인상태	기혼	1,386	7.1	38.7	35.3	14.2	4.6	100.0	3.30	0.956	35,096***	15,702***
	미혼	568	9.7	35.6	29.6	16.4	8.8	100.0	3.21	1,103		
	기타	46	4.3	19.6	37.0	23.9	15.2	100.0	2.74	1,084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7.5	38.5	40.4	11.5	2.1	100.0	3.38	0.861	35,201***	10,647***
	기타	1,468	7.9	37.0	31.3	16.3	7.5	100.0	3.21	1,051		
학력	중졸이하	99	3.0	17.2	23.2	29.3	27.3	100.0	2.39	1,150	134,938***	92,001***
	고졸	453	8.2	33.3	32.7	17.9	7.9	100.0	3.16	1,065		
	전문대/대졸	1,266	7.4	39.8	35.5	13.3	3.9	100.0	3.34	0.933		
	대학원졸	182	12.1	41.8	29.1	12.1	4.9	100.0	3.44	1,01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5.3	27.0	31.2	21.3	15.2	100.0	2.86	1,136	96,460***	66,044***
	400만원 미만	789	6.5	37.4	35.4	15.0	5.8	100.0	3.24	0.980		
	600만원 미만	574	8.0	39.5	34.8	15.5	2.1	100.0	3.36	0.910		
	600만원 이상	355	12.4	42.3	30.1	9.6	5.6	100.0	3.46	1,014		

〈표 V-2-7〉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이해도 : 대학입시 간소화

대학입시 간소화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보통 이다	대체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	계					
전체	2,000	3.9	26.3	40.7	21.6	7.6	100.0	2.97	0.968			
성별	남성	1,009	4.6	28.7	39.9	20.5	6.2	100.0	3.05	0.961	13,081*	11,474***
	여성	991	3.2	23.7	41.5	22.7	8.9	100.0	2.90	0.969		
거주지역	특별시	408	5.6	34.1	37.3	17.6	5.4	100.0	3.17	0.965	33,890***	24,821***
	광역시	516	4.3	25.4	39.7	24.0	6.6	100.0	2.97	0.964		
	중소도시	930	3.3	24.2	42.7	21.3	8.5	100.0	2.93	0.961		
	읍면지역	146	1.4	20.5	41.1	26.0	11.0	100.0	2.75	0.951		
연령	19~29세	374	5.9	25.4	38.5	21.7	8.6	100.0	2.98	1.025	62,534***	28,549***
	30대	412	2.4	24.3	46.1	20.6	6.6	100.0	2.95	0.899		
	40대	462	2.6	26.2	45.7	21.2	4.3	100.0	3.02	0.867		
	50대	413	5.8	33.2	36.1	17.7	7.3	100.0	3.13	1.009		
	60~75세	339	2.9	21.2	35.4	28.0	12.4	100.0	2.74	1.021		
혼인상태	기혼	1,386	3.8	27.2	42.1	20.8	6.1	100.0	3.02	0.936	32,157***	21,983***
	미혼	568	4.4	25.4	37.5	22.4	10.4	100.0	2.91	1.031		
	기타	46	0.0	8.7%	37.0	37.0	17.4	100.0	2.37	0.878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3.8	30.6	44.9	17.9	2.8	100.0	3.15	0.853	34,717***	21,722***
	기타	1,468	4.0	24.7	39.2	23.0	9.3	100.0	2.91	0.999		
학력	중졸이하	99	1.0	14.1	28.3	26.3	30.3	100.0	2.29	1.081	110,721***	66,038***
	고졸	453	3.5	21.4	41.1	24.7	9.3	100.0	2.85	0.977		
	전문대/대졸	1,266	3.7	28.1	42.0	20.8	5.4	100.0	3.04	0.923		
	대학원졸	182	7.7	31.9	37.4	17.0	6.0	100.0	3.18	1.006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82	3.2	18.4	32.3	27.3	18.8	100.0	2.60	1.087	112,313***	64,283***
	400만원 미만	789	3.7	22.6	43.9	23.1	6.8	100.0	2.93	0.935		
	600만원 미만	574	3.0	29.6	43.6	20.2	3.7	100.0	3.08	0.871		
	600만원 이상	355	6.5	35.2	35.8	16.1	6.5	100.0	3.19	0.999		

〈표 V-2-8〉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이해도 : 대학 특성화

대학 특성화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보통 이다	대체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	계					
전체	2,000	4.8	24.0	41.5	22.2	7.6	100.0	2.96	0.977			
성별	남성	1,009	5.6	24.6	42.2	21.1	6.5	100.0	3.01	0.970	5.373*	
	여성	991	4.0	23.4	40.8	23.2	8.6	100.0	2.91	0.982		
거주지역	특별시	408	5.9	29.7	34.6	25.5	4.4	100.0	3.07	0.980	38.326***	18.162***
	광역시	516	5.0	23.8	44.0	20.9	6.2	100.0	3.01	0.948		
	중소도시	930	4.6	22.7	43.3	20.5	8.8	100.0	2.94	0.983		
	읍면지역	146	2.1	17.1	40.4	27.4	13.0	100.0	2.68	0.975		
연령	19~29세	374	4.5	21.7	45.5	20.3	8.0	100.0	2.94	0.960	79.537***	31.229***
	30대	412	4.4	22.3	45.6	20.9	6.8	100.0	2.97	0.938		
	40대	462	3.2	21.9	46.3	24.0	4.5	100.0	2.95	0.877		
	50대	413	6.5	32.7	38.0	16.0	6.8	100.0	3.16	0.998		
	60~75세	339	5.6	20.9	29.8	30.7	13.0	100.0	2.76	1.097		
혼인상태	기혼	1,386	5.0	25.4	41.1	22.2	6.3	100.0	3.00	0.964	20.703**	12.871***
	미혼	568	4.8	21.8	41.7	21.8	9.9	100.0	2.90	1.006		
	기타	46	0.0	8.7	52.2	23.9	15.2	100.0	2.54	0.862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4.5	24.8	46.1	21.2	3.4	100.0	3.06	0.880	20.881***	6.510**
	기타	1,468	4.9	23.7	39.9	22.5	9.1	100.0	2.93	1.008		
학력	중졸이하	99	1.0	9.1	27.3	32.3	30.3	100.0	2.18	1.004	122.946***	81.874***
	고졸	453	4.6	18.1	44.2	23.8	9.3	100.0	2.85	0.977		
	전문대/대졸	1,266	4.7	26.1	42.3	21.5	5.4	100.0	3.03	0.937		
	대학원졸	182	8.2	31.9	36.8	17.0	6.0	100.0	3.19	1.014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82	3.2	16.0	34.8	30.1	16.0	100.0	2.60	1.036	95.828***	63.755***
	400만원 미만	789	3.3	21.0	46.1	22.2	7.4	100.0	2.91	0.922		
	600만원 미만	574	5.2	27.9	41.3	21.6	4.0	100.0	3.09	0.926		
	600만원 미만	355	8.7	30.7	36.9	16.6	7.0	100.0	3.17	1.038		
	이상											

〈표 V-2-9〉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이해도 :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보통 이다	대체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	계					
전체	2,000	3.6	24.7	38.1	24.7	9.0	100.0	2.89	0.993			
연령	19~29세	374	4.0	24.3	34.0	27.5	10.2	100.0	2.84	1.032	59,365***	27,933***
	30대	412	1.9	21.4	40.5	27.2	9.0	100.0	2.80	0.941		
	40대	462	1.9	24.5	43.7	24.0	5.8	100.0	2.93	0.890		
	50대	413	6.1	30.3	38.3	18.2	7.3	100.0	3.10	1.005		
	60~75세	339	4.4	22.7	31.6	27.1	14.2	100.0	2.76	1.090		
혼인상태	기혼	1,386	3.9	26.0	38.2	24.4	7.4	100.0	2.95	0.977	24,343**	15,464***
	미혼	568	3.2	22.4	36.8	25.7	12.0	100.0	2.79	1.022		
	기타	46	0.0	13.0	47.8	19.6	19.6	100.0	2.54	0.959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3.2	26.7	42.1	23.9	4.1	100.0	3.01	0.895	23,862***	9,905**
	기타	1,468	3.7	24.0	36.6	24.9	10.8	100.0	2.85	1.024		
학력	중졸이하	99	0.0	16.2	20.2	32.3	31.3	100.0	2.21	1.062	106,608***	57,502***
	고졸	453	4.9	19.9	39.1	24.7	11.5	100.0	2.82	1.034		
	전문대/대졸	1,266	3.0	26.1	40.0	24.6	6.3	100.0	2.95	0.937		
	대학원졸	182	6.6	31.9	31.3	20.9	9.3	100.0	3.05	1.08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82	2.1	17.7	36.2	27.3	16.7	100.0	2.61	1.028	63,227***	46,273***
	400만원 미만	789	2.7	21.7	39.7	27.2	8.7	100.0	2.82	0.957		
	600만원 미만	574	4.2	27.4	39.7	22.6	6.1	100.0	3.01	0.955		
	600만원 이상	355	5.9	32.7	33.2	20.0	8.2	100.0	3.08	1.042		

〈표 V-2-10〉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이해도 :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방대학 지원 확대	사례수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χ^2	F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보통 이다	대체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	계					
전체	2,000	3.5	23.6	40.9	22.8	9.4	100.0	2.89	0.983			
성별	남성	1,009	4.0	26.0	40.4	20.6	9.0	100.0	2.95	0.992	10,709*	7,684**
	여성	991	3.0	21.1	41.3	24.9	9.7	100.0	2.83	0.970		
거주지역	특별시	408	3.2	28.7	39.7	19.4	9.1	100.0	2.98	0.986	23,078*	12,812**
	광역시	516	3.3	25.2	41.9	21.5	8.1	100.0	2.94	0.961		
	중소도시	930	3.8	21.9	40.4	24.6	9.2	100.0	2.86	0.984		
	읍면지역	146	3.4	13.7	43.2	24.7	15.1	100.0	2.66	1.006		
연령	19~29세	374	2.9	23.8	37.4	25.4	10.4	100.0	2.83	1.001	51,781***	16,396**
	30대	412	2.2	19.2	45.6	23.5	9.5	100.0	2.81	0.927		
	40대	462	2.2	22.3	47.2	22.3	6.1	100.0	2.92	0.878		
	50대	413	5.6	29.5	37.3	19.4	8.2	100.0	3.05	1.020		
	60~75세	339	5.0	23.0	34.5	23.6	13.9	100.0	2.82	1.091		
혼인상태	기혼	1,386	4.0	24.0	42.4	21.4	8.2	100.0	2.94	0.969	22,229**	14,252***
	미혼	568	2.1	23.4	37.1	25.7	11.6	100.0	2.79	0.998		
	기타	46	4.3	10.9	41.3	26.1	17.4	100.0	2.59	1.045		
초중고 학부모	학부모	532	3.2	23.9	46.8	21.2	4.9	100.0	2.99	0.881	22,608***	7,464**
	기타	1,468	3.6	23.4	38.7	23.3	11.0	100.0	2.85	1.015		
학력	중졸이하	99	1.0	8.1	26.3	32.3	32.3	100.0	2.13	0.996	121,585***	82,818***
	고졸	453	3.1	19.6	41.3	24.7	11.3	100.0	2.79	0.987		
	전문대/대졸	1,266	3.1	24.7	42.7	22.4	7.0	100.0	2.94	0.935		
	대학원졸	182	8.8	33.5	34.6	14.8	8.2	100.0	3.20	1.064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82	2.5	15.2	35.8	30.1	16.3	100.0	2.57	1.014	84,329***	54,435***
	400만원 미만	789	2.0	20.9	43.2	25.2	8.6	100.0	2.83	0.926		
	600만원 미만	574	3.7	27.7	41.5	20.7	6.4	100.0	3.01	0.943		
	600만원 이상	355	7.3	29.3	38.6	14.6	10.1	100.0	3.09	1.064		

연구보고 RR 2014-2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4)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인 백순근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 (우면동)
전화 : (02) 3460-0114
FAX : (02) 3460-0121
<http://www.kedi.re.kr>
등록번호 1973년 6월 13일, 제16-35호
인쇄처 디자인프리즘
(02) 2264-1728
I S B N 979-11-5666-113-9 93370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